

박 사 학 위 논 문

조선 전기 왕실본에 관한 연구

2018년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문 헌 정 보 학 과

문 헌 정 보 학 전 공

과 동 화

박사학위논문
지도교수 강순애

조선 전기 왕실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Buddhist Texts Sponsored by the Royal
Family in the Early Joseon Dynasty

2017년 12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문 헌 정 보 학 과

문 헌 정 보 학 전 공

곽 동 화

박사학위논문
지도교수 강순애

조선 전기 왕실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Buddhist Texts Sponsored by the Royal
Family in the Early Joseon Dynasty

위 논문을 문헌정보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12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문 헌 정 보 학 과

문 헌 정 보 학 전 공

곽 동 화

곽동화의 문헌정보학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17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국 문 초 록

조선 전기 왕실본에 관한 연구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문 헌 정 보 학 과
문 헌 정 보 학 전 공
과 동 화

본 연구는 조선 전기 왕실본이 조선 사회와 불교계에 불교사상과 지식을 전달하는 데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왕실본이 사성(寫成) 및 간행될 수 있었던 역사적 배경을 고찰하고, 태종~연산군 시대까지의 왕실본 현황을 조사하여 사성 및 간행의 경위와 서지적 특징을 분석하였다. 또한 왕실본을 주제별로 구분하여 조선 후기까지 번각(飜刻) 및 후인(後印)되어 보급된 현황을 조사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조선 전기 왕실본은 총 56종이 현전하고 있다. 시기별로 성종대가 19종, 세조대가 17종, 세종대 11종, 연산군대 4종, 태종대 3종, 문종대와 예종대는 각 1종이다. 주제별로는 경전류가 29종으로 가장 많고, 선종 및 천태종 관계류 10종, 의식의례집 6종, 장소류 6종, 한국찬술류 5종이다. 이 중 한글 편찬본은 3종, 국역본은 11종이다.

시기별 왕실본을 분석하여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태종대에는 태상왕 태조가 간행한 『능엄경』, 『묘법연화경』 2종과 태조의 셋째 아들 익안대군이 태조와 정종, 태종의 수복, 신의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해 발원한 『감지은니묘법연화경』이 전해진다.

둘째, 세종, 명종대에는 세종 명찬본은 『석보상절』, 『월인천강지곡』, 『사리영웅기』, 『묘법연화경』이 모두 초주갑인자로 간행되었다. 『석보상절』과 『월인천강지곡』은 훈민정음으로 편찬되었다. 왕실에서는 효령대군, 안평대군을 비롯하여 세종의 막내아들인 영웅대군과 후궁 신빈 김씨에 의한 왕실 구성원의 장수 및 명복을 빌기 위한 사성 및 간행이 이루어졌다.

셋째, 세조대에는 세조 3년(1459) 사망한 의경세자의 명복을 빌기 위한 간행이 많이 이루어졌다. 그 중 『월인석보』는 『월인천강지곡』의 각 절을 본문으로 하고 『석보상절』을 증보·수정한 후 이를 주석으로 하여 간행한 것으로, 훈민정음 초기 변천 과정을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능엄경』 언해본은 세조가 신미, 학열, 학조 등에게 국역과 교정을 명하여 을해자로 간행하였다. 『원각경』은 을해자로 간행한 한문본과 을유자로 간행한 언토본이 있다. 왕실에서는 의경세자 비 한씨와 광평대군의 부인 신씨가 발원한 『묘법연화경』이 각 1종씩 전해진다.

넷째, 예종, 성종, 연산군대 왕실본은 모두 왕실의 대비와 공주에 의한 간행되었다. 성종대에는 정희대왕대비와 인수대비가 선왕과 왕비의 명복을 빌고 성종과 성종 비의 수복을 빌기 위해 간행하였다. 정희대왕대비는 세조 때 국역하고 교정하지 못한 『금강경삼가해』와 『영가진각대사증도가남명전선사계송』 언해본을 학조에게 교정하게 하여 내수사에서 간행하였다. 인수대비는 학조가 국역한 『불정심다라니경』과 『오대진언』을 간행하였다. 연산군대에는 인수대비와 정현왕후가 성종의 명복을 빌기 위해 원각사에서 불교전적을 인출하였다.

왕실본은 조선 후기 전국의 사찰에서 번각 및 후인되어 보급되었다. 이 중 현전하는 것은 경전류는 『묘법연화경』, 『능엄경』, 『원각경』, 『지장보살본원경』의 4종, 선종 및 천태종 관계류는 『선종영가집』과 을해자본 『천태사교의집해』, 한국찬술류로 『월인석보』가 있다.

【주요어】 왕실본, 왕실 발원본, 조선 왕실, 불교전적, 왕실불교

목 차

I. 서 론	1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4
1.3 선행연구의 개관	8
II. 왕실본 사성(寫成) 및 간행의 배경	16
2.1 고려 말기 국가불교 전통의 계승	16
2.2 조선 전기 왕실불교 문화 확립	38
2.3 조선 전기 왕실본의 선정과 현황	49
III. 태종, 세종, 문종 시대 왕실본 분석	53
3.1 태종 시대 사성(寫成) 및 간행본	53
3.2 세종, 문종 시대 사성 및 간행본	56
IV. 세조 시대 왕실본 분석	70
4.1 세조 시대 사성(寫成) 및 간행본	70
V. 예종, 성종, 연산군 시대 왕실본 분석	88
5.1 예종 시대 간행본	88
5.2 성종 시대 간행본	90
5.3 연산군 시대 간행본	106
VI. 조선 전기 왕실본의 후기에 끼친 영향	112
6.1 경전류	112
6.2 의식의례집	126
6.3 선종 및 천태종 관계류	128
6.4 한국찬술류	129

VII. 결 론	132
참 고 문 헌	135
부 록	140
ABSTRACT	165

표 목 차

〈표 1〉 연구의 단계 및 방법	6
〈표 2〉 조선 전기 왕실본	50
〈표 3〉 태종 1년(1401) 간행 『능엄경』	53
〈표 4〉 태종 1년(1401) 간행 『묘법연화경』	55
〈표 5〉 세종대 간행 『석보상절』	57
〈표 6〉 세종대 간행 『월인천강지곡』	59
〈표 7〉 세종 31년(1449) 간행 『사리영응기』	61
〈표 8〉 세종 32년(1450) 간행 『묘법연화경』	61
〈표 9〉 세종 14년(1432) 간행 『부모은중경』	64
〈표 10〉 세종 30년(1448) 간행 『묘법연화경』	65
〈표 11〉 문종 1년(1451) 간행 『묘법연화경』	67
〈표 12〉 세종 32년(1450) 간행 『함허당득통화상현정론』	68
〈표 13〉 세종대 간행 『지장보살본원경』	68
〈표 14〉 세조 1년(1455) 간행 『묘법연화경』	70
〈표 15〉 세조 3년(1457) 간행본	71
〈표 16〉 세조 5년(1459) 간행 『월인석보』	76
〈표 17〉 세조 6년(1460) 간행 『천태사교의집해』	78
〈표 18〉 세조 7년(1461) 간행 『능엄경』	79
〈표 19〉 세조대 간행 『원각경』	81
〈표 20〉 세조대 왕실 간행본	86
〈표 21〉 예종 2년(1469) 왕실 간행본	89
〈표 22〉 성종 원년(1470) 왕실 간행본	92
〈표 23〉 성종 3년(1472) 인수대비 간행본	93
〈표 24〉 성종 5년(1474) 간행본	99
〈표 25〉 성종 13년(1482) 간행본	100
〈표 26〉 성종 14년(1483) 간행본	102
〈표 27〉 성종 16년(1485) 간행본	105

〈표 28〉 연산군 원년(1495) 간행본	106
〈표 29〉 연산군 2년(1496) 간행본	108
〈표 30〉 세종 32년(1450) 초주갑인자본의 보급	113
〈표 31〉 세조 1년(1455) 을해자본의 보급	116
〈표 32〉 성종 원년(1470) 목판본의 보급	118
〈표 33〉 『원각경』 을해자본의 보급	121
〈표 34〉 태종 1년(1401) 『능엄경』의 보급	123
〈표 35〉 성종 5년(1474) 『지장보살본원경』 견성사본의 보급	125
〈표 36〉 성종 5년(1474) 『예념미타도량참법』의 보급	126
〈표 37〉 연산군 2년(1496) 『천지명양수륙잡문』의 보급	127
〈표 38〉 성종 16년(1485) 『오대진언』의 보급	128
〈표 39〉 선종 및 천태종 관계류의 보급	129
〈표 40〉 세조 5년(1459) 『월인석보』의 보급	130

그 립 목 차

〈그림 1〉 『능엄경』 권말 권근의 발문(보물 제1195호)	54
〈그림 2〉 『석보상절』 권6의 권수제면(보물 제523-2호)	58
〈그림 3〉 천안 광덕사 소장 『백지묵서불설대보부모은중경경』 변상도	63
〈그림 4〉 천안 광덕사 소장 『백지묵서불설장수멸죄제동자다라니경』 변상도	63
〈그림 5〉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불설대보부모은중경』(보물 제1125호)	65
〈그림 6〉 『묘법연화경』 권4 변상도(보물 제766-1호)	66
〈그림 7〉 『번역명의집』(보물 제1639호)	73
〈그림 8〉 『월인석보』 권1(보물 제745-1호)	75
〈그림 9〉 『원각경』 권하1-1~2-2(상), 권하1-2~2-1(하)(보물 제1219-1호)	84
〈그림 10〉 『지장보살본원경』 변상도(보물 제966호)	89
〈그림 11〉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 권말(보물 제1105호)	92
〈그림 12〉 『진실주집』 卷之三 말의 간경도감 원간기(보물 제1014호)	95
〈그림 13〉 성종 5년(1474) 『예념미타도량참법』 권수의 삼세불(위), 권10말 발문 및 시주질(아래) (보물 제949호)	98
〈그림 14〉 성종 16년(1485) 『오대진언』(보물 제793-5호)	104
〈그림 15〉 연산권 원년(1495) 『선종영가집』 언해본 발문(보물 제744-1호)	107
〈그림 16〉 연산권 2년(1496) 『진언권공』 언해본 권수(보물 제1053호)	109
〈그림 17〉 인조 13년(1635) 간행본 권근의 발문과 간기	124

I.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조선 전기는 불교에서 유교로 정치·사상적 이념이 전환되는 시기로, 조선의 개국공신인 신흥사대부들은 유교적 정치이념의 추구하고 그에 입각한 양반 관료체제의 정비, 신분 재편성 및 새로운 사회질서로의 유교윤리 보급 등 강력한 정치·사회적 개혁을 추진하였다. 구시대의 가치이며 세력집단인 불교에 대한 억불정책(抑佛定策)은 새 왕조의 기본적인 정책과제였다. 그러나 고려시대의 불교 전통은 왕실부터 일반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뿌리 깊게 남아있었고, 신진사대부들의 강력한 억불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조선을 건국한 태조에 의한 불사(佛事)는 빈도나 규모에 있어서 고려시대 국가에 의한 불사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다(이봉춘, 2015).

태조(太祖, 재위 1392~1398)는 개국 초 개혁파 신진사대부들의 강력한 억불 주장에도 불구하고 불교 전통의 혁파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승려가 되려는 자들에 대해 오승포(五升布)¹⁾를 납부해야만 도첩을 발급하여 도첩제도를 강화하고, 승려들이 사찰 건립이나 불교전적 인출 및 간행 등을 빙자하여 관사나 백성들에게 물품을 징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²⁾ 승려들의 세속화 및 타락이라는 불교계의 폐단을 제거하려고 하였을 뿐 고려시대 국가의 불교 정책과 불교 전통을 계승하였다. 즉위 원년(1392) 조계종의 무학자초(無學自超)를 왕사(王師)로³⁾, 태조 3년(1394) 천태종의 조구(祖丘)를 국사(國師)로 책봉⁴⁾하여 고려시대의 국사·왕사 제도를 유지하였고, 불교 관련 업무를 주관하는 관청인 승록사(僧錄司) 역시 존치시켰다.

태종 시대(太宗, 재위 1400~1418)부터는 본격적인 억불정책이 실시되는

1) 다섯 새의 베나 무명의 하나. ‘승(升)’은 가늘고 굵음의 정도를 표시하는 단위로, 곧 품질이 좋겠 되는 것을 일컫는다.

2) 『太祖實錄』 권2, 태조 원년(1392) 9월 24일 “... 凡爲僧者, 兩班子弟, 五升布一百匹, 庶人百五十四, 賤口二百匹 所在官司以此計入, 方許給牒出家, 擅自出家者, 痛理 ... 一, 僧徒結黨中外大小官吏, 或營寺社, 或印佛書, 至於需索官司, 害及于民者”

3) 『太祖實錄』 권2, 태조 원년(1392) 10월 9일 “... 封僧自超爲王師”

4) 『太祖實錄』 권6, 태조 3년(1394) 9월 8일 “... 以天台宗僧祖丘爲國師”

데, 태종 6년(1406) 전국의 사찰을 정비하여 사찰 소유의 토지를 국유화하고 사찰 노비를 혁거(革去)하였으며 선종(禪宗)과 교종(敎宗)의 각 종파(宗派)를 통폐합하여 전국에 11종 242사(寺)만을 남긴 데 이어⁵⁾, 이듬 해 12월 최종 7개 종파로 축소하였다.⁶⁾ 이후 세종 6년(1424)에는 7개 종파를 선종과 교종의 양종으로 폐합하고 각각 18개 씩 36개의 사찰만을 남기고, 승록사를 혁파(革罷)하였다.⁷⁾

세종 시대(世宗, 재위 1418~1450)에 억불정책은 더욱 강화되었으나 국가의 공적인 영역에서의 불교 전통을 배제하였을 뿐 국왕과 왕실을 위한 왕실의 구복(求福) 및 추천(追薦) 불사가 행해졌다. 특히 태종의 둘째 아들인 효령대군(孝寧大君, 1396~1486)과 세종의 아들인 수양대군(首陽大君)과 안평대군(安平大君, 1418~1453)은 불교에 심취하여 많은 불사를 행하였다.

세종은 세종 28년(1446) 훈민정음(訓民正音) 반포 이후, 수양대군에게 명하여 『석보상절(釋譜詳節)』을 훈민정음으로 편찬하게 하였고 이에 대해 세종이 직접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이라는 찬불가(讚佛歌)를 지었다.

세조(世祖, 재위 1455~1468) 시대에는 승려의 권익 보호와 불교의 위치

5) 『太宗實錄』 권11, 태종 6년 3월 27일 “議政府請定禪敎各宗, 合留寺社 … 曹溪宗, 摠持宗, 合留七十寺; 天台, 疏字, 法事宗, 合留四十三寺; 華嚴, 道門宗, 合留四十三寺; 慈恩宗, 留三十六寺; 中道, 神印宗, 合留三十寺; 南山, 始興宗, 各留十寺 … ”

6) 『太宗實錄』 권14, 태종 7년 12월 2일 “曹溪宗: 梁州 通度寺, 松生 雙巖寺, 昌寧 蓮花寺, 砥平 菩提岬寺, 義城 氷山寺, 永州 鼎覺寺, 彦陽 石南寺, 義興 麟角寺, 長興 迦智寺, 樂安 澄光寺, 谷城 桐裏寺, 減陰 靈覺寺, 軍威 法住寺, 基川 淨林寺, 靈巖 道岬寺, 永春 德泉寺, 南陽 弘法寺, 仁同 嘉林寺, 山陰 地谷寺, 沃州 智勒寺, 耽津 萬德寺, 靑陽 長谷寺, 稷山 天興寺, 安城 石南寺. 天台宗: 忠州 嚴正寺, 草溪 白巖寺, 泰山 興龍寺, 定山 雞鳳寺, 永平 白雲寺, 廣州 靑溪寺, 寧海 雨長寺, 大丘 龍泉寺, 道康 無爲寺, 雲峰 原水寺, 大興 松林寺, 文化 區業寺, 金山 眞興寺, 務安 大崛寺, 長沙 禪雲寺, 堤州 長樂寺, 龍駒 瑞峰寺. 華嚴宗: 長興 金藏寺, 密陽 嚴光寺, 原州 法泉寺, 淸州 原興寺, 義昌 熊神寺, 江華 梅香寺, 襄州 成佛寺, 安邊 毗沙寺, 順天 香林寺, 淸道 七葉寺, 新寧 功德寺. 慈恩宗: 僧嶺 觀音寺, 楊州 神穴寺, 開寧 獅子寺, 楊根 白巖寺, 藍浦 聖住寺, 林州 普光寺, 宜寧 熊仁寺, 河東 陽景寺, 綾城 公林寺, 鳳州 成佛寺, 驪興 神異寺, 金海 甘露寺, 善州 原興寺, 咸陽 嚴川寺, 水原 彰聖寺, 晉州 法輪寺, 光州 鎮國寺. 中神宗: 任實 珍丘寺, 咸豐 君尼寺, 牙州 桐林寺, 淸州 菩慶寺, 奉化 太子寺, 固城 法泉寺, 白州 見佛寺, 益州 彌勒寺. 摠南宗: 江陰 天神寺, 臨津 昌和寺, 三陟 三和寺, 和順 萬淵寺, 羅州 普光寺, 昌平 瑞峯寺, 麟蹄 玄高寺, 雞林 天王寺. 始興宗: 漣州 五峯寺, 連豐 霞居寺, 高興 寂照寺”

7) 『世宗實錄』 권24, 세종 6년 4월 5일 “禮曹啓: “釋氏之道, 禪敎兩宗而已, 厥後正傳傍傳, 各以所業, 分而爲七宗, 傳誤承訛, 源遠而末益分, 實有愧於其師之道. 且中外多建寺社, 分屬各宗, 其數猥多, 緇流四散, 曠廢莫居, 修葺不繼, 漸致頽毀. 乞以曹溪, 天台, 摠南三宗, 合爲禪宗; 華嚴, 慈恩, 中神, 始興四宗, 合爲敎宗, 擇中外堪寓僧徒之處, 量宜置三十六寺, 分隸兩宗, 優給田地, 酌定居僧之額, 群居作法, 俾之精修其道. 仍革僧錄司, 以京中興天寺爲禪宗都會所, 興德寺爲敎宗都會所; 揀取年行俱高者, 以爲兩宗行首掌務, 令察僧中之事 … 從之.”

보장, 각종 불사 설행, 간경도감 설치 및 불교전적의 간행 및 국역 등의 국가적 흥불사업이 행해졌다. 세조는 『석보상절』과 『월인천강지곡』을 개정 합편하여 『월인석보(月印釋譜)』를 편찬하였는데, 판각 기법이나 인출 방법 등에서 조선 초기 불교문화의 정수라고 평가되며(천혜봉, 1991) 한글 초기의 변천과정을 살필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세조 승하 후 유신들은 세조대 위촉된 유교정치를 강화하기 위해 흥불정책 철폐를 추진하였고, 성종 2년(1471) 간경도감이 폐지되었다. 그러나 유신들의 강력한 억불정책에도 불구하고, 성종대(成宗, 재위 1469~1494) 불교전적 간행과 국역은 세조의 비인 정희대왕 대비와 성종의 어머니인 인수대비, 성종의 계비 정현왕후 등 왕실 대비들에 의해 폐불(廢佛)시기라 불리는 연산군대까지 이어진다.

성종·연산군대 왕실 대비들에 의한 불교전적 간행 및 인출된 이후, 임진왜란이 발발한 선조대까지 주로 사찰판 불교전적이 유통되었는데, 이는 국왕 및 왕실에 의해 간행된 판본과 간경도감 간행본 등의 번각(飜刻)본을 보급한 것이며 그밖에는 우리나라 승려들의 문집 간행이 다소 이루어졌을 뿐이다(천혜봉, 1991).

조선 전기 왕실의 주도로 간행된 불교전적은 당대의 일류 서예가, 화가, 각수 등이 간행사업에 동원되었고, 목판본 외에도 갑인자(甲寅字), 을해자(乙亥字), 정축자(丁丑字), 을유자(乙酉字) 등의 금속활자와 목활자를 사용하여 인출한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불교전적 판본으로, 특히 국역본은 훈민정음 초기 정착에 큰 영향을 미쳤다.

조선 전기 불교전적 간행과 관련하여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조선 전기 불교전적을 국왕 및 왕실판, 간경도감판, 사찰판, 활자판으로 나누어 각 판본별 간인(刊印)의 성격과 특징을 분석한 연구가 있으며, 그 외에는 세종·세조대 불교전적의 국역 및 간행, 세조의 간경도감 설치 및 불교전적 간행사업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후에는 금속활자 및 목활자, 목판본 등 판본별 연구와 새롭게 발굴된 불교전적 판본들에 대한 개별적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 시기의 왕실 발원 불교전적이 불교 문헌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에도 불구하고, 조선 전기 왕실본에 대하여 시기별 간행의 특징 및 서지적 성격을 종합하여 후기까지 어떻게 보급되었는지를 분석 종합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조선 전기 왕실본이 사성(寫成) 및 간행되는 역사적 배경을 고찰하고, 조선 전기 왕실본의 현황 파악 및 각 판본별 조사를 통하여 간행의 경위와 서지적 특징을 분석하여 종합적 성격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조선 전기 왕실본이 조선시대 후기까지 지속적으로 간행 및 보급되는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주제별로 경전류, 선종 및 천태종 관계류, 의식의례집, 한국찬술류로 구분하고 보급 현황을 조사하고, 판본별 계통을 수립하여 조선 후기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의 대상은 조선 전기의 왕실본으로, 왕실본이란 국왕 및 왕실의 비용이나 사재(私財)를 들여 사성 및 간행한 불교문헌을 말한다(천혜봉, 2006). 조선 전기는 일반적인 역사학계의 조선시대 구분에 따라 임진왜란(壬辰倭亂)이 발발한 선조 25년(1592)을 기준으로 한 전기, 후기 구분을 따른 것이다. 왕실본은 조선 태조~연산군 시대(1392~1506)에 사성(寫成) 및 간행되어 이 시대 구분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의 단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인 왕실본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선의 왕실, 왕실불교, 왕실본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왕실본의 정의를 도출하였다.

둘째, 조선 전기 왕실본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서지목록을 작성하였다.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 서지조사를 통해 1차 서지목록을 작성하고, 한국고전적종합목록에서 확인할 수 없는 박물관 소장본과 개인소장본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의 서지목록을 참고하였다. 1차 서지목록을 바탕으로 소장처를 방문하여 실물 또는 원문 및 영인본 자료를 열람하여 서지정보를 보완하였으며, 국보·보물 등 문화재 지정본과 귀중본으로 공개하지 않는 자료는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사진, 해제 및 서지정보를 참고하여 총 56종에 대한 서지목록을 완성하였다.

셋째, 조선 전기 왕실본의 사성 및 간행의 역사적 배경을 고찰하기 위해

조선왕조실록, 불교전적의 간행기록(刊記), 관련 인물의 문집 등의 역사기록과 관련 주제 분야의 선행연구를 조사하였다.

넷째, 분석대상 56종을 태종대 3종, 세종~문종대 12종, 세조대 17종, 예종대 1종, 성종대 19종, 연산군대 4종으로 나누었다. 시기별로 사성 및 간행의 주체에 따라 왕의 명찬본(命撰本)과 왕실 사성 및 간행본으로 나누어 조선 전기 왕실본 현황을 도표화하고 각 판본별로 간행의 경위와 성격, 서지적 특징을 분석하였다.

다섯째, 조선시대 후기까지 왕실본의 보급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분석대상에 대한 번각 및 후인본을 조사하고자, 한국고전적종합목록 서지조사를 통해 서지목록을 작성하고, 선행연구의 내용을 참고하여 목록을 보완하였다. 서지목록을 바탕으로 소장처를 방문하여 실물 또는 원문 및 영인본 자료를 열람하여 서지목록을 완성하였다.

여섯째, 조선시대 후기 번각 및 후인되어 보급된 판본을 대상으로, 경전류, 의식의례집, 선종 및 천태종 관계류, 한국찬술류의 4개 주제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 주제별로 보급 현황을 정리하고, 시기 및 간행자별 계통을 수립하고, 판본별 서지적 특징을 분석하였다.

일곱째, 분석 내용 및 결과를 종합하여 조선 전기 왕실본이 조선 사회와 불교계에 불교사상과 지식을 전달하는 데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는지를 밝혔다.

본 연구의 단계를 도표화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의 단계 및 방법

단 계	목 적	방 법
1단계 : 문헌 분석 및 서지 조사	• 왕실본의 개념 도출	• 선행연구 분석
	• 왕실본 현황 파악	• 한국고전적종합목록 조사 - 서지 목록 작성 • 선행연구의 서지조사 분석 - 서지 목록 보완 • 자료 열람 - 실물, 원문 및 영인본, 기관 제공 사진 및 해제 열람 - 서지 목록 수정 및 보완 • 최종 서지 목록 완성
2단계 : 문헌 분석	• 조선 전기 왕실본 사성 및 간행 배경 고찰	• 역사기록 분석 - 조선왕조실록 - 불교전적의 간행기록 - 관련 인물의 문집 • 선행연구 분석
3단계 : 판본 분석	• 왕실본 각 판본별 간행의 경위, 서지적 특징 분석	• 시기 및 간행의 주체별 구분 - 태종대, 세종~문종대, 세조대, 예종~연산구대 - 왕의 명찬본(命撰本), 왕실 사성 및 간행본 • 각 판본별 분석 - 간행기록(刊記), 사성기(寫成記), 발문(跋文) 분석 - 판종, 형태사항(판식) 분석
4단계 : 조선시대 후기 후인 및 변각 현황 조사	• 조선시대 후기 왕실본 보급 현황 파악	• 한국고전적종합목록 조사 - 서지 목록 작성 • 선행연구의 서지조사 분석 - 서지 목록 보완 • 자료 열람 - 실물, 원문 및 영인본 열람 - 서지 목록 수정 및 보완 • 최종 서지 목록 완성

단 계	목 적	방 법
5단계 : 판본 분석	• 왕실본 조선시대 후기 간행 및 보급 분석	• 주제별 분석 – 경전류, 의식의례집, 장소류, 한국찬술류, 선종 및 천태종 관계류 등 5개 주제 구분
	• 번각, 후인본의 계통 수립 • 각 판본별 서지적 특징 분석	• 시기 및 간행자 분석 • 각 판본별 분석 – 간행기록, 발문 분석 – 판종, 형태사항(판식) 분석
6단계 : 분석 결과 종합	• 왕실본의 조선 사회 및 불교계 에서 갖는 의의와 역할 도출	• 조사 및 분석 결과 종합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왕실의 범위는 국왕, 왕비, 왕의 부모, 후궁, 왕자, 공주, 옹주 등 왕의 직계가족과 그들의 궁방에 한정한다.

둘째, 조선 전기 왕실본은 왕실 구성원이 발원하여 사성 및 간행한 불교전적으로, 현전하는 불교전적 및 사경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조선 전기 왕실본 및 번각본에 대해서는 간행기록이 확인되는 판본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간행년도가 불확실한 판본은 제외하였다.

1.3 선행연구의 개관

조선 전기 왕실본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왕실본 간행 및 사성의 역사적 배경을 고찰하기 위해, 왕실불교와 불교의례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았다.

둘째, 왕실본 간행과 보급에 대해 고찰하기 위해, 불교전적 간행과 국역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았다.

1.3.1 왕실불교

왕실불교에 관한 연구는 조선 전기 왕실의 불교신앙과 홍불정책, 국가의 억불정책 하의 왕실불교 전통, 왕실과 불교계의 관계 분석 등이 있다.

이봉춘(2001)은 조선 전기 숭불주(崇佛主)의 출현 배경과 그들의 홍불정책을 분석하여 그 특징과 의미를 밝히고 있다. 불교신앙의 가문에서 성장한 태조는 고려 국가불교의 제도의 핵심인 국사·왕사제도를 수용하여 고려불교를 계승하고 있으며, 재위 초 강력한 억불정책을 실시하였으나 만년에 신불국왕으로 돌아선 세종은 선종과 교종의 원찰인 흥천사와 흥덕사를 중수하고, 내불당을 재건하였으며, 훈민정음 창제 후 정음불서의 찬술은 정음보급과 불법홍포의 두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히고, 이와 같은 세종의 홍불정책은 국가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불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호불주를 자처한 세조는 간경도감 설치 및 불전 국역사업 등의 과감하고 적극적인 홍불사업을 통해 불교중흥을 이룩하고자 하였으며, 중종의 계비(繼妃) 문정대비는 명종 즉위 후 수렴청정 시 선종과 교종의 양종 복설과 도승법 및 승과 실시를 통해 국가제도 안에서 최소한의 불교존립 조건과 그 기능을 회복시켰다고 분석하였다.

최재복(2011) 조선 초기 국가의 억불정책 하에서 왕실불교 전통의 변화를 조사하고 그 특징을 분석하였다. 조선 초기 왕실불교는 세종대 초반을 전후로 하여 이전 시기는 고려 왕실불교 전통에 따라 국가적 성격이 남아있던 시기이며, 이후는 국가적 성격이 배제된 왕실불교가 일부 제도적 틀에 의해 전개

된 시기로 분석하였다. 이 시기 왕실불교의 특징은 첫째, 조종(祖宗)의 유훈(遺訓)에 따라 기신재(忌晨齋), 추천재(追薦齋) 등의 불사를 중심으로 그 전통이 유지되었으며, 둘째, 사원전을 축소하고, 고려의 비보사찰(裨補寺刹)을 정리하는 등 왕실불교에 국가적 역할이 배제되었으며, 셋째, 국가의 불교행정 조직이었던 승록사, 도회소의 역할이 축소된 이후 왕실사찰을 관리하기 위해 내수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넷째, 대군과 대비들의 불교 관련 활동이 활발했던 것으로 종합하였다.

고종호(2013)는 조선 전기 왕실과 불교와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 억불정책의 전개와 사원의 불사, 내원당, 정업원과 능침사원 등 왕실사원의 운용을 고찰하여 그 성격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조선 전기 상장의례(喪葬儀禮)는 지속적으로 불교식으로 설행되었고 그 외 국가 행사는 유교적 의례로 거행되었음을 밝혔다. 왕실 후원의 사원 불사는 범종, 불화 및 불상 제작 등이 이루어졌는데, 불화 및 불상 제작은 왕과 왕실의 무병장수 등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범종은 모두 11점이 15세기에 주조되어 현재 5점이 남아있는데 능침사원 및 왕실 관련 사원의 중창 및 개창 과정에서 주조한 경우가 많았다. 추복을 비는 왕실 불사의 성격뿐 아니라 사리분신 등 불교적 상서로운 현상과 관련한 내용이 보여 불교를 통한 정치적 의도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왕실 사원은 궁궐 내의 내원당과 왕실 비구니 사원인 정업원, 왕실의 능묘를 수호하는 능침사찰, 왕이나 왕자의 태(胎)를 봉안하는 태실을 수호하는 태실사원으로, 정업원과 내원당은 억불정책에 따라 폐지와 복립(復立)이 반복되었으나 왕실과의 직접적 연관으로 그 영향력이 매우 커 조선 전기 불교를 지탱하는 역할을 했으며, 능침사원과 태실사원은 왕실의 권위와 신성성을 높이는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1.3.2 불교의례

조선시대 불교의례에 관한 연구는 불교의식집 간행 및 유통의 배경이 된다는 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선시대 국가와 왕실의 불교의례와 관련된 연구는 국가적 차원에서 설행된 수륙재(水陸齋)와 왕실의 상·제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수록재 및 상·제례에 대한 연구는 사료를 바탕으로 설행의 목적과 절차, 설행 배경 등에 대해 다양하게 이루어졌는데, 그 중 조선 전기 연구로는 태조 시대의 국행수룩재 설치와 세종대에 기신재와 추천재의 수록재 합설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김용조(1990)는 조선 전기 국행(國行) 기양불사(祈禳佛事)를 소재(消災), 기우(祈雨), 구병(救病), 반승(飯僧), 추도(追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고려시대에 비해 규모가 축소되고 장소가 궐 밖으로 제한되고 있으며, 다양한 의식이 수록재로 단일화되었으나 추복(追福)을 비는 목적으로서 지속적으로 성행한 것은 유교가 지닌 종교적 한계 때문임을 밝혔다. 국행 불사의 폐지는 국가적 억불정책을 강화시키고, 사회적으로 백성들의 불교에 대한 신망을 감퇴시키는 역할을 하였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국행 의례는 민간 의례와 달리 의례의 원형을 온전히 유지 발전시키는 기능과 특징을 갖는 데 이를 폐지함으로써 주류문화의 전통을 단절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고 분석하였다.

한상길(2009)은 조선 전기 억불정책 하에서 수록재가 설행된 이유와 국가적·사회적 의미를 고찰하였다. 태조에 의한 국행 수록재 설행은 매년 봄, 가을 두 차례의 대규모로 설행되었는데, 좁은 의미에서는 고려 왕족의 추복을 빌기 위함이었지만, 사회적으로는 신왕조 개창 초기의 민족화합과 사회적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왕과 왕실, 대신들이 대거 참여한 대규모 의식이었음을 밝혔다. 수록재는 태조에 의해 국가행사로 상설화된 이후 왕실, 사대부에서 민간으로까지 확대되어 불교 의식의 종교적 차원을 넘어 전통문화와 풍속으로 자리 잡아 억불 시대에 불교가 존립하는 토대를 제공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밝히고 있다.

강호선(2013, 2017)은 조선 태조 4년(1395) 고려의 왕씨들을 위한 천도제로 설행된 국행수룩재에 대해 건국 초 정국안정의 방편으로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하였으며, 조선 개국 후 연등회, 팔관회 등 공적 불교의례가 철폐되는 가운데 국가의 정기적 불교의례로 설행되었고, 태조가 수록재를 처음 설행하며 간행 배포한 『수륙의문(水陸儀文)』은 수록재를 주관하는 사찰에 계속 보관하도록 했으며, 중간(重刊)하여 배포하고 그에 따라 수록재를 설행하도록 하여, 조선 전기 국행수룩재의 소의의문(所依儀文)이 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분

석하였다.

박정미(2015)는 조선시대 불교식 상·제례 실행에 대한 연구 중 조선 전기 왕실의 국상(國喪)에서 불교식 상·제례 실행양상의 변천과정을 고찰하고, 불교식 상·제례의 의례적 특성을 밝혔다. 불교식 상례로는 칠칠재(七七齋)와 백일재(百日齋), 소·대상재(小·大祥齋)를 다루고 제례로는 기신재(忌晨齋)를 다루었다. 태조와 정종의 국상에서는 법석(法席)과 재(齋)가 진행되는 불교식의례로 진행되었으나 세종대 원경왕후의 국상 이후 칠칠재만을 국행으로 허용하고 나머지 불사는 국왕 및 왕실의 비용을 쓰는 내행(內行)으로 전환되어 종종 국상부터는 칠칠재가 폐지되었고, 기신재는 기일에 행하는 유교 의례 기신제(忌晨祭)와 분리하기 위해 기일보다 앞서 실행하였음을 밝혔다.

1.3.3 불교전적 간행

조선시대 불교전적 간행에 관한 서지적 연구로는 간행자별, 간행시기별, 판본별, 주제별로 나누어 진행되었고, 불교전적이 새롭게 발굴되는 경우 각 판본에 대한 개별적 연구가 진행되었다.

천해봉(1991)은 조선 전기 불서 판본을 국왕 및 왕실판, 간경도감판, 사찰판, 활자판으로 나누고 시기별로 간행의 역사적 배경, 조인술(彫印術) 등을 분석하고, 판본별 특징을 밝혔다. 국왕 및 왕실판본의 경우 당대의 일류 서예가, 화가, 각수 등을 동원하여 새긴 정각본(精刻本)으로 조선조 판본을 대표한다고 하였다. 간경도감판의 국역판 불서는 언문이라 천시 받았던 한글의 명맥을 이어주었으며, 송설체계의 원필(圓筆)로 대중소자를 해정하게 새겨낸 정작(精作)이라 평하였다. 15세기 사찰판은 주로 고려본의 번각이며, 16세기 이후는 조선 초기 국왕 및 왕실판, 간경도감판의 번각판과 우리나라 승려들의 찬술을 새긴 판본임을 밝혔다. 활자판은 세종·세조조의 갑인자, 을해자, 정축자, 을유자판과 성종조의 을해자, 연산군초의 목활자 인정자판으로, 불서 판본에 국가 주조 활자판과 그 판본을 사찰에서 번각한 판본들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 조선 전기 불서판본만의 특징임을 밝혀냈다.

최연주(2012)는 조선 전기 고려대장경 인정(印經)과 해인사의 역할과 기

능에 관한 연구에서, 조선의 억불 정책 하에서 해인사는 고려시대부터 축적된 간행 기술과 기반을 바탕으로 조선시대 대장경 인정과 불전 간행을 주도하였으며, 대장경 인정은 절차가 번거롭고 대규모 물자가 소요되어 국가 차원의 행정적 지원과 물자의 조달이 필요한 사업으로 조선 전기에 이루어진 대장경 인정은 국가의 주도로 국왕 및 왕실의 추념(追念)과 일본과의 외교 교섭을 목적으로도 시행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해인사 인정본은 전국 주요 사찰에 나누어 안치되어 전파되었으며 일본, 유구(琉球) 등에서 청구해 올 경우 수시로 반사되어 조선조 불교의 대중화에 기여하고, 우리의 불교문화가 일본에 전달되는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밝혔다.

기운혜(2012)는 인수대비(仁粹大妃)의 불사활동을 사료의 기록과 불서의 발원문을 통해 고찰하고, 인수대비가 발원하여 간행하거나 간행에 참여한 불서를 대승경전류 10종, 다라니·진언집류 3종, 의식집류 9종, 장소류 4종, 선서류 12종로 나누어 조사 분석하여 의식집류와 선종 계열 불서를 중심으로 간행하였음을 밝혔다. 특히 간화선풍 승려들의 찬술한 선서류와 그 주석서를 간행·인출하였는데, 이는 지눌의 수선사선풍을 계승한 신미(信眉)의 영향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현존본 18종을 한문본과 언해본으로 나누어 판본별 형 분석을 한 결과 인수대비가 기존 경판을 사용하여 인출한 경우 그 원간본은 간경도감본이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번각본으로는 『묘법연화경』이 가장 많이 번각되어 유통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김영리(2013)는 조선시대 금속활자 및 목활자로 간행된 불교전적의 현황을 파악, 간행 배경과 시기별·주제별·형태별 분석을 통해 특징을 분석했다. 조선조 불서는 조선 전기에 집중적으로 간행되었으며, 사용된 활자는 총 8종으로 을해자본이 현재 가장 많이 전해지며, 세종 29년(1447) 초주갑인자로 찍어낸 『석보상절(釋譜詳節)』이 가장 이른 시기에 간행되었고, 광무 5년(1901)에 전사자(全史字)로 간행된 『칠중수계의궤(七衆受戒儀軌)』가 가장 늦은 시기의 것임을 밝혔다. 주제별로는 경전류와 선종 관련 서적이 대부분임을 밝혀냈다.

송일기(2015)는 현전하는 조선시대 목활자본 불교전적 24종을 조사·분석하여, 을유자체자본 6종, 인정자본 3종, 보광사자본 6종, 봉인사자본 2종, 고

승문집 6종이 간행되었음을 밝히고 각 판본별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 중 조선 전기 판본은 9종으로, 을유자체자본은 6종은 세조연간에 간행되었고, 인정자는 인수대비가 성종 승하 후 명복을 빌기 위해 왕실의 내탕금으로 만든 목활자로 현존 3종은 모두 연산군 2년(1496)에 간행되었다.

송일기·정왕근(2015)은 현전하는 조선시대 금속활자본 불교전적 36종을 조사·분석하여, 갑인자본 9종, 을해자본 13종, 정축자본 2종, 을유자본 3종, 전사자본 9종이 간행되었음을 밝히고 각 판본별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 중 조선 전기에는 전사자본을 제외한 27종이 간행되었으며, 세조대가 19종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한다. 세종대에 주조된 초주갑인자본 9종은 국한문병용본 2종과 한문본 7종으로, 이 중 국한문병용본 『석보상절』, 『월인천강지곡』은 매우 중요한 판본이다. 세조대에는 을해자, 정축자, 을유자가 주조되는데, 세조 원년(1455)에 만들어진 을해자는 한글 대·중·소자도 함께 주조되었다. 정축자는 세조가 의경세자의 명복을 빌기 위한 불서 간행 시 직접 글자본을 써서 주조한 활자로 수국사 아미타불 불복에서 발굴된 『금강경오가해』 권하 1책이 2014년 소개되었다. 을유자는 원각사 준공 후 『월각경』을 간행할 목적으로 주조한 활자이다.

1.3.4 불교전적 국역

불교전적 국역에 관한 연구로는, 세종 대 훈민정음 창제 이후 『석보상절』과 『월인천강지곡』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고, 특히 세조의 『월인석보』 편찬 및 간행, 국역사업 등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강순애(2001)는 『월인석보』의 저경(底經)에 대한 연구에서 『월인석보』 편찬 과정과 체제를 살펴 월인부, 석보부, 협주세문의 세 가지 체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월인석보』의 구성의 전체적 줄기는 권1 권수의 팔상도에 드러나며, 『석가보』, 『묘법연화경』, 『법원주림』, 『아미타경』 등 많은 경전을 삽입하여 각 권마다 독특한 구성을 하고 있음을 밝혔다. 『월인석보』의 학술적 의의로는 민중중심의 불교성격을 반영한 일반백성을 대상으로 한 포교의 일환으로 편찬이 이루어졌으며, 국어국문학사에서 15세기 훈민정음의 표기를 알 수 있게

하고, 월인부는 운문서사시 형태로 석보부는 산문서사체 형태로 되어있는데, 석보부의 각 편이 월인의 각 부분을 해설 부연하고 있는 불교강창문학의 실상을 보여준다고 평가하였다. 서지학분야에서는 목판본으로 간행되었으나 대중소자를 구분하여 표기하였고, 한글 글자는 다양한 서체로 표기되고 있어 한글 글꼴 연구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월인석보』의 형태적 부분이 간경도감 국역 불서의 형태에 영향을 주었음을 밝혔다.

김기종(2005)은 『석보상절』의 저경에 관한 연구에서 각 권차의 내용 및 저경을 삽화 단위로 세분하여 『불본행집경』, 『조당집』 등의 새로운 저경을 찾아내고 『석가보』, 『약사여래경』, 『묘법연화경』 등 주요 저경의 내용과 성격을 살폈다. 『석보상절』의 저경 수용 양상은 여러 저경들의 내용을 삽화 단위로 분리하여 시간 순서에 따라 재구성하고 있음을 밝히고, 이와 같은 저경 수용 양상은 추천의식인 전경법회에서 많은 승려들이 소리 내어 읽은 대본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편찬되었기 때문에 한 경전의 내용으로 하나의 삽화를 구성할 수 있음에도, 문맥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많은 경전의 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김기종(2006)은 『월인천강지곡』 저경의 성격과 의미를 살피고 서사구조를 분석하여 문학적 성격을 구명하였는데, 『월인천강지곡』이 『석보상절』에 비해 추천의식에서 중시되던 경전의 비중이 약화되고, 『대방편불보은경』, 『태자수대나경』 등의 보은을 중시하는 불전의 비중이 강화되었는데, 윤리·교화적인 성격이 강화되었으며, 서사구조를 분석하여 성불의 방법 단락의 비중이 가장 크다는 점에서 『월인천강지곡』이 성불의 방법인 보시와 효도의 실천을 권장하고 있으며, 백성들에 대한 교화와 불교의 순화를 목적으로 제작된 것임을 밝혔다.

김무봉(2012)은 훈민정음 창제 이후 15세기 말까지 간행된 언해 문헌 전반을 대상으로 언해의 개념, 절차, 언해 사업의 현황을 밝히고, 언해불전 간행은 일반 백성들의 불심에 기대어 국어를 정착 및 보급시키고자 한 의도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간경도감의 조직과 기능을 밝히고, 간경도감에서 간행된 한글 경전을 9종을 대상으로 간경도감 국역 불서의 언해 체제의 공통적 특징을 밝혔다.

이화숙(2011)은 세종 25년(1443) 훈민정음 창제 이후, 갑오경장⁸⁾이 발발한 고종 31년(1894)까지 간인된 국역불서를 국역 체제에 따라 언해본, 음역본, 언토본으로 나누어 정리하고 시기·지역·주제별 분석 연구를 진행하였다. 국역불서 현존본 2/3 이상이 언해본으로 그 중 대부분이 국왕 및 왕실에 의해 15세기 한양에서 간행되었으며, 음역본은 전체의 1/4로 주로 조선 후기에 서민들의 염불 및 독송을 위한 불서가 많이 간행되었음을 밝혔다. 16세기 이후 간행은 전국 각지의 사찰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중 전라도 순천과 경상도 풍기가 중심이 되었고, 18세기에는 경기도 양주에서의 간행이 활발했음을 밝혔다. 주제별로는 경전류가 약 70%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종의류에 속하는 선종(禪宗) 관련 불서였다.

8) 고종 31년(1894)의 갑오개혁(갑오경장)은 역사적 사건과 연계한 국어사 시대구분 시 근대 국어의 끝과 현대국어의 시작 구분 기준이 된다.

Ⅱ. 왕실본 사성(寫成) 및 간행의 배경

본 장에서는 유교국가로서 정치·사회적 개혁이 추진되었으나, 고려 말기 국가불교 전통이 전해지는 상황에서 조선 전기 왕실불교 문화로 확립되는 변화의 추이를 살펴, 조선 전기에 왕실본이 사성 및 간행되고, 나아가 국역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시대적 배경을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 고려 말기 국가불교 전통이 조선 전기에 어떻게 계승되었는지를 원찰 및 능침사원의 창건, 국행 불교의례, 대장경 인출 및 사경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둘째, 조선 전기 왕실불교 문화 확립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국가의 공적인 부분에서 불교 전통이 배제된 후 왕실의 추천 및 구병장수를 비는 불사의 설행 양상, 한글 불교전적 편찬 및 국역 간행 경위를 조사·분석하였다.

2.1 고려 말기 국가불교 전통의 계승

고려는 태조(재위 918~943)는 「훈요십조(訓要十條)」에서 ‘국가의 대업은 반드시 여러 부처의 호위를 받아야 한다’라며 불교를 중시하여 국가적으로 비보사찰(裨補寺刹)⁹⁾을 건립하도록 하고, 불교의례인 연등회(燃燈會)와 팔관회(八關會)를 정기적 국가의례로 설행하도록 제도화하였다.

조선 건국 후 태조는 고려시대의 팔관회와 연등회를 폐지하였으나, 국가불교 전통에 의한 각종 불사를 행하였는데, 사찰의 중수 및 창건부터 소재법석(消災法席), 도량(度場), 추복(追復), 반승(飯僧), 대장경 인성(印成) 및 사성(寫成) 등 그 빈도나 규모가 전 왕조인 고려시대에 비해 크게 달라진 것이

9) 도선(道詵)의 비보사탑설(裨補寺塔說)에 의해 지정되거나 건립된 사원. 고려 태조는 「훈요십조(訓要十條)」에서 도선의 비보사탑설에 의해 지정된 곳 이외는 어디에도 사탑을 건립하지 말도록 하였다. 이후 고려는 국가 차원에서 비보사원을 장려하고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 중의 하나가 비보사원에 대한 국가토지의 분급이었다. 그 결과 모든 사원의 비보사원화 경향이 나타나서, 『도선밀기(道詵密記)』에 지정된 비보소(裨補所)가 3,800개 소에 달했으며, 전국의 유명 사찰이 거의 다 망라되고 있다.

없었다.(이봉춘, 2015)

조선 전기 계승된 고려 말기 국가불교의 전통을 원찰 및 능침사찰 창건, 불교의례의 설행, 대장경 인출 및 사성(寫成)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1.1 원찰(願刹) 및 능침사찰(陵寢寺刹) 창건

왕실의 원찰(願刹)은 원당(願堂)이라고도 하며, 왕과 왕실의 축수(祝壽)와 명복(冥福)을 빌던 사찰로 고려시대에는 계속 원찰이 설립되었는데, 왕실에서 왕과 왕비의 진영을 봉안(奉安)하기 위해 세운 진전사원(眞殿寺院)은 곧 왕실의 원찰이 되었다. 진전사원에서는 매년 선왕의 기일에 재(齋)를 행하였고, 기일에는 흔히 국왕이 행차하였다.

조선시대에 원찰은 설치 목적이나 시기에 따라 내원당(內願堂) 또는 내불당(內佛堂), 능침사(陵寢寺), 재궁(齋宮)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불려졌다. 내원당과 내불당은 궁궐 내의 사찰을 지칭하고, 능침사는 왕과 왕비의 능에 설치된 사찰을 지칭한다. 재궁은 고려의 진전사원을 의미한다.

조선 전기 왕실의 원찰 운영은 고려시대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데, 궁궐 내 위치했던 내불당과 왕과 왕비의 능침을 수호하는 능침사, 왕실의 원찰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내불당

태종은 태종 6년(1406) 창덕궁 북쪽 문소전(文昭殿)¹⁰⁾ 옆에 태조의 원찰로서¹¹⁾ 내원당(內願堂)¹²⁾을 건립하였다.¹³⁾ 태종 12년(1412) 7월 국가에서 이

10) 태조와 비(妃) 신의왕후(神懿王后)의 위패(位牌)를 봉안했던 전각. 태조 5년(1396)에 건립한 인소전(仁昭殿)에 정종이 즉위한 후 모후인 신의왕후의 영정을 봉안하였고, 태종 6년(1406) 창덕궁 북쪽에 신전(新殿)을 세워 옮겼다. 태종 8년(1408)에 태조가 승하하자 이름을 문소전(文昭殿)이라 고치고 태조와 신의왕후의 영정을 함께 봉안하였다가, 세종 14년(1432) 경복궁 안에 새로 문소전을 짓고 태조의 위패와 광효전(廣孝殿)에 있던 태종의 위패를 함께 봉안하고 옛 문소전은 폐하였다.

11) 『世宗實錄』 59권, 세종 15년(1433) 2월 16일 경자 “… 文昭殿佛堂, 本太宗爲太祖所創, 實祖宗之願刹也 …”

12) 고려시대 왕실의 원당(願堂)으로 궁궐 내에 설치되었던 내원당은 조선 초 고려 때의 수창궁(壽昌宮) 내에 남아있었다. 정종 2년(1400) 11월 13일 환관들의 원불(願佛)인 인왕불(仁

단(異端)을 물리치고 사원(寺院)을 삭제하였으므로 궁궐 내에 내원당을 혁파해야한다는 사간원의 상소에 따라 내원당의 혁파를 명하였다.¹⁴⁾ 그러나 이후 세종 1년(1419) 내원당에 태조 시대에 흥천사 석탑에 봉안했던 석가의 사리(舍利), 두골(頭骨)과 패엽경(貝葉經)과 가사(袈裟) 등을 옮기도록 하였고,¹⁵⁾ 세종 15년(1433) 1월 문소전에 불당(佛堂)을 건어 없애고 불상과 불구를 흥천사로 옮기도록 한 것으로 보아¹⁶⁾ 그 때까지 궁궐 내에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내원당은 세종대에 다시 설치된다. 세종은 세종 30년(1448) 문소전 서북 빈 땅에 내불당(內佛堂)을 다시 설치하도록 명하였다.¹⁷⁾ 궁궐 내 불당을 설치하는 것은 조정 유신들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는데, 세종 30년(1448) 7월 영의정 황희(黃喜)의 상소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이 일찍이 태종을 모시었을 때에 하교하시기를, ‘불씨의 교가 탄망(誕妄)하여 다스리는 체제에 해가 있으니 심히 불가하다. 내가 장차 그 폐해를 뽑아 버리겠다.’ 하시었는데, … 능실(陵室) 곁에 불찰을 세우지 않으신 것이 그 증험입니다. … 뜻밖에도 오늘날 국도(國都)에 새로 불우(佛宇)를 세워 후세의 무궁한 해를 열어 놓고 부처에 아첨하는 구실을 만들어 주심으로 근일에 정부(政府) · 육조(六曹) · 대간(臺諫) · 근시(近侍)에서 선비들까지 소장을 연하여 굳이 청하며 모두 불가하다고 말합니다. … 불당을 설치하는 것을 전하가 이미 도리에 맞

王佛)을 내원당에 안치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 13) 『太宗實錄』 11권, 태종 6년(1406) 5월 27일 병진 “上將改營仁昭殿於昌德宮北，出北門命書雲觀卜地… ‘曰：“予初欲只置眞殿，金瞻言宜有佛堂，可令并營”…”
- 14) 『太宗實錄』 24권, 태종 12년(1412) 7월 29일 임자 “司諫院疏論時務二事，其一曰：國家崇重斯道，攘斥異端，既削寺院，又減田民，而獨內願堂，淨業院，因循未革… 既有土田，宜革朔料，以儲國用。下議政府議得：‘右條內願堂，名實相殊，宜革之’ 上從之，乃曰：‘淨業院則不可遽革也’”
- 15) 『世宗實錄』 5권, 세종 1년(1419) 8월 23일 을미 “初，太祖以諺傳釋迦在世時，齒生舍利四枚及頭骨，貝葉經，袈裟，置于興天寺石塔。至是，命宦官金龍奇夜就石塔，移置內佛堂，以釋迦頭骨所生舍利四枚，換置於塔”
- 16) 『世宗實錄』 59권, 세종 15년(1433) 1월 30일 갑신 “命撤文昭殿佛堂，其佛像雜物，移置興天寺”
- 17) 『世宗實錄』 권121, 세종 30년(1448) 7월 17일 신축 “… 今欲於文昭殿西北空地，營構一堂，七僧守之。其制度正堂一間，東西廊各三間，門三間，廚三間，止此而已。近日以此意語兩議政，皆曰：“不可”，而在宮城之內，尤以爲不可。然古基在昌德宮重牆之外，此亦在重城之外，以遠近言之，彼近而此遠，未見其不可也。興天，興德，開慶等寺，或雨漏，或傾危，勢將頽落，則國家必使工匠修葺之者，以先王之所建，義不得不然也。若以坐視頽落不修爲是，則他人忍之乎？我不忍也。今此佛堂，比之他寺，其義尤爲親切，而廢撤累年，於心有所愧恥，孰甚於此！不修且不可，況廢之乎！…”

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고 폐한 지가 이미 오래 되었는데 어찌 다시 설치하여 후세에 웃음을 남기십니까.”¹⁸⁾

위의 황희의 상소 뿐 아니라 대간(臺諫)·집현전(集賢殿)·정부(政府)·육조(六曹)·대소 문신(文臣)·국학(國學) 제생(諸生)에서 추부(樞府) 무신(武臣)에 이르기까지 불당 설치의 명을 거둘 것을 청하였으나, 세종은 세자에게 선위(禪位)할 뜻을 비치고, 넷째 아들인 임영대군(臨瀛大君)의 집에 이어(移御)하는 등¹⁹⁾의 강력한 의지로 내불당을 설치하고 그 해 12월 경찬회를 5일 동안 설행하였다.²⁰⁾ 세종 31년(1449)에 간행된 『사리영응기(舍利靈應記)』에 김수온(金守溫, 1410~1481)이 내불당의 조성 경위와 경찬회 과정, 사리의 출현 등을 상세히 기록하였다. 이에 따르면 내불당 내에는 안평대군과 임영대군이 주관하여 만든 황금 삼존불을 안치하고 대자암(大慈庵) 주지 신미(信眉)와 김수온에게 「삼불예참문(三佛禮懺文)」을 짓게 하고, 세종이 친히 신성(新聲)을 지었다고 한다. 세종의 친제신성(親制新聲)은 7곡의 악곡과 9편의 악장으로, 경찬회의 음성공양(音聲供養)에 악기를 잡은 자가 45명, 죽간자 2명, 노래하는 사람 10명, 무동(舞童) 10명을 수양대군이 악보를 가지고 인솔하였다.

이후 내불당에서는 세종 31년(1449) 11월 세자의 병을 치유하기 위한 약사재(藥師齋)가 열렸고²¹⁾ 세자의 병이 낫자 보공재(報功齋)를 베풀기도 하였다.²²⁾ 내불당은 세종이 승하한 후 대신들의 철거 요구가 계속되었으나, 세조 10년(1464) 계양군(桂陽君) 이증(李璿)의 병세가 위독하니, 임금이 명하여 내

18) 『世宗實錄』 권121, 세종 30년(1448) 7월 22일 병오 “… 臣嘗侍太宗, 教曰: “佛氏之教誕妄, 有害治體, 甚不可也. 予將拔去其弊” 不幸未遂而賓天, 聖教丁寧, 洋洋盈耳, 陵室之傍, 不建佛刹, 是其驗也. 殿下卽位以後, 累下沙汰, 繼志述事, 臣私自喜慶矣. 不意今日新建佛宇於國都, 以開後世無窮之害, 以資佞佛之口實也. 近政府六曹臺諫近侍, 以至儒士, 連章固請, 皆曰不可, 殿下不墜祖宗所建, 欲致奉先之孝, 然寢廟之側, 必置僧舍, 以爲孝, 則聖賢必詳論著, 以示後人矣.”

19) 『世宗實錄』 권121, 세종 30년(1448) 8월 4일 정사 “丁巳/移御臨瀛大君第. 初命佛堂之作也, 上雖知必有言者, 然謂例爲之而止, 及臺諫, 集賢殿, 政府, 六曹大小文臣國學諸生, 以至樞府武臣, 亦皆極諫, 期於得請, 上不悅, 徹膳者屢矣. 傳旨之時, 微示禪位之意, 又有移御之命, 群臣惶恐沮抑不敢言, 唯集賢臺諫進言不已, 後乃聞之, 亦不復敢言.”

20) 『世宗實錄』 권122, 세종 30년(1448) 12월 5일 정사 “丁巳/佛堂成, 設慶讚會, 凡五日而罷 … .”

21) 『世宗實錄』 권126, 세종 31년(1449) 11월 1일 정축 “命首陽大君, 都承旨李思哲, 行藥師齋于佛堂, 兵曹正郎金守溫從之; 安平大君 瑑行水陸齋于大慈庵, 少尹鄭孝康從之 … .”

22) 『世宗實錄』 권126, 세종 31년(1449) 12월 3일 기유 “以世子疾愈, 行報祀, 祭宗廟 社稷. 又設報功齋于佛堂及興天寺, 奏鄉樂以供之.”

불당에서 기도하게 하였다는²³⁾ 기록이 있다. 내불당은 이후 성종대에 궁궐 밖으로 이전하였고, 연산군 때에는 흥천사로 옮겨진다.

2) 능침사

태조 5년(1396) 8월 계비(繼妃)인 신덕왕후 강씨가 사망하자, 태조는 태조 6년(1397) 정릉(貞陵)에 흥천사(興天寺)를 세우고²⁴⁾, 이듬 해 인안전(仁安殿)에 봉안했던 진영(眞影)을 흥천사 영각(影閣)으로 옮겼다.²⁵⁾ 사찰 내 진전(眞殿)을 지어 진영을 봉안하는 것은 고려시대 왕실 원찰의 전형적 구조이다.(한기문, 1998) 다만 고려 때 진전사원은 대부분 개경 인근에 설치되고 왕릉의 바로 곁에 설치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탁효정, 2016), 고려 말 공민왕은 노국공주(魯國公主)의 정릉(正陵)²⁶⁾ 근처 운암사(雲巖寺)를 능의 수호사찰로 삼아 대대적으로 중창하였다.²⁷⁾ 태조는 운암사의 예에 따라 능침사찰로서 흥천사를 창건하였다.

정종은 즉위 후 태조의 정비(正妃)이자 어머니인 신의왕후(神懿王后) 한씨의 능인 개성의 제릉(齊陵)을 수리하고 능침사로 연경사(衍慶寺)를 창건하였다.

태종 8년(1408) 5월 24일 태조가 승하하자 태종은 그해 7월 태조의 능인 건원릉(健元陵)의 능침사찰 개경사(開慶寺)를 창건하고 노비와 전지(田地)를 내려주고, 신의왕후의 원찰인 연경사에도 노비를 더 내려주었다. 태종은 이듬해인 태종 9년(1409) 신의왕후의 능침사인 연경사를 개창(開創)하도록 하고²⁸⁾, 불사가 끝나자 사재(私財)를 들여 신의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한 『묘법연화경』 법회를 베풀었다.²⁹⁾ 태종 18년(1418)에는 요절한 아들 성녕대군(誠寧大君)의 명복을 빌기 위해 분묘 곁에 대자암(大慈庵)을 짓도록 하였다.³⁰⁾

23) 『世祖實錄』 권33, 세조 10년(1464) 4월 15일 정유 “丁酉/桂陽君 璫病革, 命禱于內佛堂.”

24) 『太祖實錄』 권11, 태조 6년(1397) 2월 19일 임인 “壬寅/幸貞陵, 視興天寺役. 上之初建寺貞陵, 但以供朝夕香火耳. 宦者金師幸巧佞求媚, 窮極侈靡.”

25) 『太祖實錄』 권15, 태조 7년(1398) 9월 7일 기묘 “移安神德王后影于貞陵”

26) 공민왕은 공민왕 21년(1372)부터 정릉 옆에 자신의 수릉(壽陵)을 짓기 시작하였고, 공민왕 23년(1374) 9월 사망 후 수릉에 안장되어 현릉(玄陵)이라 하였다.

27) 『高麗史』 列傳, 恭愍王 后妃 [徽懿魯國大長公主]

28) 『太宗實錄』 권18, 태종 9년(1409) 8월 12일 신해 “改創齊陵 衍慶寺. 命禹希烈監董其役.”

29) 『太宗實錄』 권19, 태종 10년(1410) 4월 6일 임인 “壬寅/衍慶寺成. 上以私帑具法衣法鉢, 設『蓮華經』法會以落之. 資母后冥福也. 使靑原君 沈淙, 淸平君 李伯剛爲獻香使, 又賜赴役隊副米各一石.”

30) 『太宗實錄』 권35, 태종 18년(1418) 4월 4일 갑신 “命創昭頃公墳菴. 墳在高陽縣北酸梨

세종대에는 국장의례에서 불교의식이 배제되고 능침사의 설치가 사라지게 된다. 세종 1년(1419) 9월 26일 승하한 정종의 능인 후릉(厚陵)에는 공식적으로 능침사가 설치되지 않았는데, 이후 세종 6년 후릉의 재궁(齋宮)인 흥교사(興敎寺)에 전지(田地)를 내려주었다는 기록으로 보아³¹⁾ 비공식적으로 후릉 인근의 흥교사를 능침사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세종 2년(1420) 7월 태종의 왕비 원경왕후(元敬王后)가 사망하자 상왕 태종은 건원릉과 제릉을 절을 세운 것은 태조의 뜻에 따른 것으로 내 마음에는 맞지 않는다고 하며, 사찰을 두지 않도록 하였다³²⁾. 이에 세종이 능에 사찰을 설치하고자 청하니 태종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주상이 절을 산릉에 설치코자 하나, 불법은 내가 싫어하는 바이라, 나로 하여금 이 능에 들어가지 않게 한다면 절을 짓는 것도 가하나, 만일 이 능에 내가 들어갈 터라면 절을 설치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 …”³³⁾

세종은 이와 같은 태종의 명에 따라 태종의 능침사를 건립하지 않았으나, 이후 명종대 기록에 의해 회암사(檜巖寺)를 헌릉(憲陵)의 능침사로 정한 것을 알 수 있다.³⁴⁾

세조대 이후 불교식 의례는 국가상례에서 배제되고 왕실 차원으로 변화되어, 왕실 차원의 능침사원 구성이 이루어진다. 세조 비인 정희왕후(貞熹王后)는 광주 대모산에 있던 세종의 영릉(英陵)이 여흥부(驪興府, 현 여주)로 이장된 예종 1년(1469) 신록사(神勒寺)를 세종의 능침사로 조성하고자 대대적으로 중창하였다. 또한 같은 해 봉선사(奉先寺)를 세조의 능침사로 조성하고자 대대적으로 중창하였고 이 때 대종(大鐘)³⁵⁾을 함께 조성하였다.

洞, 菴號大慈, 屬奴婢二十口, 田五十結 … .”

31) 『世宗實錄』 권25, 세종 6년(1428) 9월 8일 경진 “順平君 群生上言: ‘仁德殿卽位時, 賜給願堂華藏寺田地二百結, 上昇後分一百結, 移賜於厚陵齋宮興敎寺. 今華藏寺見革, 其餘一百結, 并於興敎寺給之’ 命下戶曹, 如上言施行.”

32) 『世宗實錄』 권8, 세종 2년(1424) 7월 11일 정축 “… 予於健元, 齊陵建寺者, 以遂太祖之志也 故近日亦鑄鍾, 以懸開慶寺, 然亦未足稱於予心 今山陵, 予當立法, 以示後嗣, 萬世之志也, 子孫之從否在彼 廷顯之言甚切, 其勿置寺”

33) 『世宗實錄』 권8, 세종 2년(1424) 7월 17일 계미 “主上欲置寺于山陵, 然佛法予之所惡也使予不入此陵, 則置寺可也, 如入此陵, 則不宜置寺 …”

34) 『明宗實錄』 권9, 명종 4년(1549) 9월 8일 갑술 “… 且正因寺, 德宗大王陵寢寺也, 檜巖寺, 太宗大王陵寢寺也, 儒生之亂入擾亂可乎? 一如奉恩, 奉先兩寺之例, 掛榜禁之 …”

성종의 어머니인 인수대비는 성종 2년(1471) 덕종(德宗)의 능침사로 정인사(正因寺)를 지정하여 내수사(內需司)의 경비로 중창하게 하여 성종 3년(1472) 사월초파일 낙성법회를 설행하였다.

연산군 4년(1498) 성종의 계비인 정현왕후(貞顯王后)는 성종의 능인 선릉(宣陵)의 능침사로서 견성사(見性寺)를 크게 중창하여 봉은사(奉恩寺)라고 하였다. 견성사는 세종의 다섯째 아들 광평대군(廣平大君)³⁶⁾의 묘 옆에 창건한 재암(齋庵)으로, 성종 25년(1494) 12월 24일 성종이 승하한 후 광평대군의 묘를 이장하고 연산군 1년(1495) 4월 선종의 능을 선릉이라고 하였다.³⁷⁾

3) 왕실의 원찰(願刹)

태조가 잠저(潛邸)에 있을 때 함경도의 석왕사(釋王寺)를 원찰로 삼았는데, 세종 10년(1428)에 예조의 청에 따라 나한재와 시왕재의 위전(位田)³⁸⁾을 혁파하였다.³⁹⁾

세종 24년(1442)의 기록에 의하면 태종의 셋째 딸인 정경공주(貞慶公主)가 관음굴(觀音窟)은 자신의 원찰이라 하며 승려 홍조(洪照)를 주지로 제수할 것을 청하여 수리하였다.⁴⁰⁾

견성암(見性庵)⁴¹⁾은 세종 26년(1444) 세종의 다섯째 아들인 광평대군(廣平大君)이 죽자 그의 처 신씨가 광평대군의 명복을 빌기 위해 묘 옆에 창건한 재암(齋庵)으로 광평대군의 원찰이다.(강호선, 2015)

북신사(北神寺)는 세종의 외가 여흥군 민변(閔抃)의 분묘에 딸린 원찰이

35) 봉선사대중, 보물 제397호

36) 광평대군(廣平大君, 1425~1444). 이름은 이여(李璵). 자는 환지(煥之), 호는 명성당(明誠堂). 아버지는 세종이며, 어머니는 소헌왕후(昭憲王后) 심씨(沈氏)이다. 세종 14년(1432) 광평대군으로 봉해지고, 세종 18년(1436)에 신자수(申自守)의 딸과 혼인하였다. 20세의 나이로 요절하였다.

37) 『成宗實錄』 권297, 성종 대왕 묘지문[誌文] “... 以乙卯(1495)四月初六日己未, 安厝于廣州治西學堂里之原, 號曰: 宣陵”

38) 위전(位田): 관청의 경비나 관청에 소속된 사람의 생활 보장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토지.

39) 『世宗實錄』 권41, 세종 10년(1428) 9월 20일 “禮曹啓: ‘咸吉道 釋王寺, 自太祖潛邸時, 稱爲願刹, 重新營構, 屬田一百結, 又給羅漢十王齋位田各五十結. 請依他寺社例, 革羅漢十王齋位田’ 從之.”

40) 『世宗實錄』 권95, 세종 24년(1442) 2월 11일 “壬寅/上謂承政院曰: ‘貞慶公主請云: ‘觀音窟, 是吾願刹也. 今已頽圯, 欲令僧洪照修葺, 願除此寺住持’ 爾等其議便否以聞’ 左承旨李承孫, 右承旨趙克寬啓曰: ‘宜從其請’ 卽命吏曹, 以洪照爲觀音窟住持.”

41) 현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수도산 봉은사(奉恩寺)

며,⁴²⁾ 상원사(上院寺)는 효령대군의 원찰이고,⁴³⁾ 복세암(福世菴)과 연굴사(演窟寺)는 대궐이 내려다보인다는 이유로 연산군 9년(1503)에 철거되었는데,⁴⁴⁾ 인수대비는 두 사찰을 내수사로 하여금 옮겨 짓게 하였다.⁴⁵⁾

동래 효의사(曉義寺)는 중종의 후궁인 숙원(淑媛) 김씨의 원찰이었다.⁴⁶⁾

42) 『世宗實錄』 권117, 세종 29년(1447) 7월 9일 기해 “諭開城府留守: ‘外家驪興君 閔朴墳墓願刹北神寺頽圯, 僧人不得寓居, 無以禁火. 今聽戶曹參判閔伸之言, 近地亡廢寺社, 材瓦撤取, 轉輸以給 … ’”

43) 『世祖實錄』 권31, 세조 9년(1463) 9월 27일 계미 “… 上謂孳曰: “予洞觀三界, 當做無量功德, 安肯創寺造佛, 屑屑於小者乎? 且上院寺非國家所創, 乃孝寧願刹也. 禮曹之啓甚非. … ”

44) 『燕山君日記』 권51, 연산 9년(1503) 11월 28일 신묘 “掌令李陌啓: 演窟, 福世菴撤去, 人心大快. 今敎云: ‘進排雜物仍舊’ 殊非闢異端之意. 傳曰: 兩寺皆大妃願刹, 故如是. … ”

45) 『燕山君日記』 권51, 연산 9년(1503) 12월 7일 경자 “… 王曰: “大妃令內需司移構耳. … ”

46) 『明宗實錄』 권14, 명종 8년(1553) 5월 29일 갑술 “甲戌/諫院啓曰: 東萊 曉義寺住持僧圓鑑自稱: 曾爲梵窟持音時, 自上知我, 言於金淑媛曰: ‘曉義, 乃淑媛之願刹, 而爲住持者, 無如圓鑑’ 以特旨差遣 … ”

2.1.2 국행 불교의례

조선은 건국 직후인 태조 1년(1352) 고려시대 국가 불교의례인 팔관회와 연등회를 폐지하고⁴⁷⁾ 이어서 장경도량(藏經道場)과 백고좌도량(百高座道場), 7개의 국왕이 직접 행차하여 설행하던 도량(七所親幸道場) 등을 모두 폐지하였다.⁴⁸⁾ 건국 초 불교의례의 폐지는 역불의 차원이기 보다는 전 왕조의 권위와 정통성과 관련된 요소를 제거하는 과정이었다.(강호선, 2013) 팔관회와 연등회는 고려 태조가 「훈요십조(訓要十條)」에서 정기적으로 행하도록 한 국가적 행사로, 종교적 목적 외에도 정기적 불교의례를 통해 국왕과 왕실의 권위를 과시하고, 군신간의 상하관계와 질서를 확인하는 정치적 목적의 국가의례였다.(강호선, 2015) 백고좌도량⁴⁹⁾은 인왕도량(仁王道場)으로, 국왕이 불교를 보호해야 인왕이 그 땅을 보호한다는 의미로 국왕이 직접 『인왕반야경(仁王般若經)』을 강독하는 대표적인 호국불교의례이다.(남동신, 2003)

그러나 종교적 요구에 의한 불교의례인 소재도량이나 기양의례, 기신재 등은 조선 전기 국가와 왕실에 의해 이어지는데, 세종 4년(1422) 기신재와 추천재를 모두 수록재로 설행하도록 하였고,⁵⁰⁾ 중종대에 혁파되기까지 수록재는 기신재 및 구병의례로서 지속적으로 설행되었다.

조선 전기 국가행사로서 행해진 불교의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태조는 태조 2년(1393) 3월 승록사에서 고려 때 해마다 3월에 행하던 경행(經行)을 거행하기를 청하니 이를 승낙하였다.⁵¹⁾ 경행은 세종 4년(1422) 폐

47) 『太祖實錄』 권1, 태조 1년(1392) 8월 5일 갑인 “甲寅/都堂請罷八關，燃燈” 이후 연등회와 팔관회에 관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48) 『太祖實錄』 권1, 태조 1년(1392) 8월 11일 경신 “... 上下教都堂曰：“春秋藏經百高座法席七所道場，考其始設之原以聞。” 이후 7개 도량이 실시되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다.

49) 인왕도량(仁王道場)·인왕경(仁王經)도량·인왕백좌도량·백좌강회(百座講會)·백좌도량·백좌인왕도량·백좌법석(法席)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려진다. 『불설인왕반야바라밀경(佛說仁王般若波羅蜜經)』을 소의경전(所依經典)으로 하여 내란과 외침을 방어하고 제거하기 위해 100좌(座)의 불상(佛像)과 100좌의 보살상(菩薩像), 100좌의 사자좌(獅子座)를 마련하고 100명의 법사(法師)를 초청, 그 자리에 앉히고 『인왕반야경(仁王般若經)』을 강독하게 하는 등의 법회인 호국불교도량의식(護國佛教道場儀式)이다.

50) 『世宗實錄』 권16권, 세종 4년(1422) 5월 10일 병인 “... 遂令(忌晨)〔忌辰〕及大夫士庶人追薦之齋，皆設水陸，赴寺之人有數焉”

51) 『太祖實錄』 권3, 태조 2년(1393) 3월 12일 “丁巳/僧錄司上言：前朝之法，每歲春三月，集禪教福田，諷經城中街路，謂之經行 願許舉行，從之”

지되는데 이때의 기록에 의하면 경행은 매년 봄가을의 중월(仲月)에 각 종파의 승려들이 『대반야경(大般若經)』을 외우고, 나발(螺鉢)을 울리고 번(幡)과 개(蓋)를 늘어세우고 향불을 들고 앞에서 인도하여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질병과 재액을 물리치는 의례로, 2품 이상의 관원이 명령을 받아 향불을 피우고, 감찰(監察)이 이를 살피고 모두 걸어서 따라다녔다고 한다.⁵²⁾ 고려 때부터 국가의 재앙과 천재지변을 물리치기를 비는 호국적 불교의례로서 행해졌다.⁵³⁾

태조 4년(1395) 2월 관음굴(觀音堀)·견암사(見巖寺)·삼화사(三和寺)에서 고려 왕씨를 위한 수륙재(水陸齋)를 매년 봄과 가을에 거행하도록 하였다.⁵⁴⁾ 권근의 글에 의하면 『수륙의문』 37부⁵⁵⁾를 간행하고 무차평등대회(無遮平等大會)⁵⁶⁾를 세 곳에서 베풀게 하고, 각각 『묘법연화경』 1부, 『수륙의문』 7부를 비치하도록 하고 이에 의거하여 수륙재를 거행하라고 명하였다. 강화도에서 처형된 왕씨들을 위해서는 강화도의 관음굴, 삼척에서 처형된 공양왕과 그의 두 아들은 삼척의 삼화사, 거제에 유배되었다 처형된 왕씨들을 위해서는 견암사에서 수륙재를 설행하였다.⁵⁷⁾ 태조는 이후 태조 5년(1396) 한양 성문

52) 『世宗實錄』 권15, 세종 4년(1422) 2월 19일 “罷都城內經行 自前朝時, 每春秋仲月, 會各宗僧徒, 誦『大般若經』, 鳴螺鉢, 執幡蓋, 香火前導, 巡行街巷, 以禳疾厄. 二品以上官受命行香, 監察察之, 皆徒步從行, 謂之經行. 至是, 上特命罷之.”

53) 고려 정종 때 처음으로 행하여졌던 경행의식은 그 때 대궐에서 시중이었던 최제안(崔齊顔)이 왕을 대신하여 『인왕반야경(仁王般若經)』을 공양한 뒤, 대중을 세 패로 나누어서 개경 시내를 돌았다. 그때 각 무리마다 『인왕경』을 모셔놓은 가마를 행렬의 맨 앞에 메고 돌았는데, 가마는 여러 가지 예쁜 빛깔로 단장을 화려하게 하였고, 그 뒤에는 법복의 장엄한 승려들이 걸어가면서 『인왕경』을 외었다. 승려의 행렬 뒤에는 관복을 입은 관원들이 따랐다. 이 행사에서 『인왕경』이 중시되었던 것은 경전에 국왕이 망령된 잡귀를 쫓아 뜻대로 국토를 수호하려면 반야바라밀(般若波羅蜜)을 완성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상이 짙게 깔려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질병·화재·가뭄과 그 밖의 모든 고통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외적의 침범을 방어하고 국토의 파괴를 막기 위해서는 하루에 두 번씩 이경을 외어야 할 것을 내포하고 있다.

54) 『太祖實錄』 권7, 태조 4년(1395) 2월 24일 무자 “上命設水陸齋於觀音堀 見巖寺 三和寺 每春秋以爲常 爲前朝王氏也”

55) 권근, 「水陸儀文跋」 『陽村集』 卷22 “越三年申戊春 有敢議以謀變者 群臣請罪以除後患 殿下不獲已從之 隱痛之念 常切于懷 欲修冥資以慰魂魄 其秋 金書妙法蓮華經三部 特於內殿親臨轉讀 又印水陸儀文三七本 命設無遮平等大會于三所 各置蓮經一本儀文七本 永藏其他俾以舉行 其一則在天磨山之觀音窟 爲薦王氏之處江華者也 其一則在某州某山 爲處三陟 其一則在某州某 爲處巨濟者也” 강호선(2013)은 ‘印水陸儀文三七本’에서三七을 21로 보고, 21부를 인출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56) 수륙재는 일명 수륙무차평등재의(水陸無遮平等齋儀)라 하여, 아무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그功德이 미치게 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또, 수륙재를 여는 신앙적인 의미도 유주(有住)·무주(無住)의 고혼(孤魂)에게 평등하게功德이 돌아갈 수 있게 한다고 인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수륙재는 무차대회의 한 종류로서 파악할 수 있다.

57) 권근, 「水陸儀文跋 奉教撰」, 『양촌집(陽村集)』 권22

밖 세 곳에서 도성을 건립하다가 사망한 역부들을 위해 수륙재를 설행하도록 하였고⁵⁸⁾, 태조 6년(1397)에는 국가의례로서 수륙재를 정기적으로 설행하기 위한 수륙사(水陸社)로 진관사(津寬寺)⁵⁹⁾를 지정하고 그해 12월 『경제육전(經濟六典)』 내에 수륙재 관련 조항을 포함시켰다. 정종 1년(1399) 태상왕 태조는 흥천사(興天寺)의 사리전(舍利殿)이 낙성(落成)되자 선왕(先王)과 선비(先妣), 현비(顯妣), 그리고 여러 죽은 아들과 사위, 고려의 왕씨(王氏)를 제사하기 위한 수륙재를 설행하였다.

태조는 수륙재 외에 천재지변에 대해 소재법석(消災法席) 등 기양의례를 여러 차례 행하였는데,⁶⁰⁾ 태조 7년(1398) 5월의 소재법석에는 중 승려 108명을 모아 5일간 설행하였다는 기록이 있다.⁶¹⁾ 태조 6년(1397)에는 각도 사사(寺社)에서 전난(戰難)을 막기 위한 진병법석(鎭兵法席)⁶²⁾을 설행하였고⁶³⁾ 태상왕 시절 정종 2년(1400)에도 정릉(貞陵)에서 정근법석(精勤法席)⁶⁴⁾을 설행하였다.⁶⁵⁾

태종은 즉위 직후인 정종 2년(1400) 11월, 의정부와 예조에 신불(神佛)의 일은 잘 알지 못하나 영험이 없는 것이 명백하다 하며 다만 태상왕과 상왕이 불교를 숭신하니 다 혁파하지 못하더라도 이를 참작해 없앨 수 있는 것들을 보고하도록 하였고,⁶⁶⁾ 같은 해 12월에는 불사(佛事)를 혁파하였다.⁶⁷⁾ 선위(禪

58) 『太祖實錄』 권9, 태조 5년(1396) 2월 27일 을묘 “乙卯/命設水陸齋於城門外三所 薦役夫死亡者, 仍命復其家三年”

59)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외동 북한산에 있는 절. 고려 현종(懸宗, 재위 1009~1031)이 창건하였다.

60) 『太祖實錄』 권4, 태조 2년(1393) 10월 29일 신축 / 권5, 태조 3년(1394) 1월 4일 갑진 / 태조 4년(1395) 8월 28일 기축, 10월 17일 정미 / 권9, 태조 5년(1396) 1월 17일 병자 / 권9, 9월 1일 병진, 11월 10일 갑자, 태조 6년(1397) 4월 25일 정미, 5월 15일 병인, 8월 20일 기해, 10월 16일 갑오 / 권14, 태조 7년(1398) 1월 22일 경오, 2월 3일 경진, 2월 14일 신묘, 5월 3일 기유, 5월 22일 무진, 6월 19일 계해, 8월 13일 병진, 8월 17일 경신

61) 『太祖實錄』 권14, 태조 7년(1398) 5월 22일 무진 “戊辰/聚僧百八, 設消災法席, 五日而罷”

62) 나라의 병란을 진압시키기 위해 행하는 불교 의식

63) 『太祖實錄』 권12, 태조 6년(1397) 9월 19일 기사 “己巳/遣人於各道寺社, 設鎭兵法席”

64) 나라의 가뭄이나 재앙(災殃)이 들 때 승려들을 모아 기도하고 법회(法會)를 열어 설법(說法)하던 일. 보통 정근(精勤)에서는 승려 대신에 무당을 동원하기도 하였다.

65) 『定宗實錄』 권6, 정종 2년(1400) 10월 24일 을묘 “太上王至貞陵, 設精勤法席. 太上王脫衣施佛, 將幸臺山 洛山, 國人不知乘輿所指 …”

66) 『定宗實錄』 권6, 정종 2년(1400) 11월 13일 계유 “命政府及禮曹, 議除神佛之事. 上曰: ‘神佛之事, 我不敢知, 然其無驗, 亦甚明白, 有何益哉! 顧我太上王及上王, 皆崇信之, 雖不能盡革, 其參酌可除者以聞’”

67) 『定宗實錄』 권6, 정종 2년(1400) 12월 22일 임자 “罷佛事. 禮曹上言: 竊見佛法始入中國

位) 후인 세종 2년(1420) 원경왕후가 사망하자 능침사를 세우려는 세종에게 건원릉과 제릉에 능사를 세운 것은 태조의 뜻에 따른 것이라 하였고,⁶⁸⁾ 불법은 자신이 싫어하는 바이니 능에 들어가게 하려거든 절을 세우지 말라 하여⁶⁹⁾ 여러 차례 불교를 싫어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태종의 대불의식이나 억불정책 실행과는 별개로, 태종대에는 수륙재, 기신재, 기우재 등의 기양의례를 많이 행하였다.(이봉춘, 2015)⁷⁰⁾

태종대의 불교의례 실행 기록을 살펴보면, 태종 1년(1401) 1월 7일 진관사에서 수륙재를 베풀었고⁷¹⁾, 열흘 뒤인 1월 17일에는 관음굴에서 수륙재를 실행한 것과 관련해 국행 불사를 이미 폐지하였으나, 궁중의 부녀들이 자식의 장수를 빌기 위해 사재(私財)로 예참(禮饗)이나 수륙재를 행하니 이를 금하지 못한다 하였다.⁷²⁾ 이 기록으로 보아 국행 수륙재는 폐지하였으나⁷³⁾, 왕실에 의한 수륙재나 불교의례의 실행은 묵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같은 해(1401) 10월 2일에는 천재(天災)를 없애기 위해 오대산 상원사(上元寺)에서 수륙재를 베풀었고,⁷⁴⁾ 16일에는 진관사에서 베풀고 있다.⁷⁵⁾ 전날인 10월 15일 우레와 번개가 치고 큰비가 내렸다는 기록이 있어⁷⁶⁾ 16일의 수륙재도

以來，歷代帝王或信或否，未有災福之驗，前朝之季，崇信彌篤，亦未蒙福，乞中外寺社設行道場，法席，國卜，祈恩，年終，還願等事，一皆停罷。且祀神，誠敬爲主。黷于淫祀，不如不祭。願自今，祀典所載名山大川，一依『洪武禮制』，盡誠致祭，如國巫堂及紺嶽，德積等處，發遣巫女司鑰，非時祭祀，一皆禁斷。但令罷佛事”

68) 『世宗實錄』 권8, 세종 2년(1420) 7월 11일 정축 “上王遣兵曹參議尹淮，諭上曰：‘陵寢之旁，創立僧舍，始自高麗 太祖，我朝亦有開慶，衍慶。今大妃陵寢，創立僧舍可否，議於政府。禮曹若曰當創，則問其當創之所以然；若曰不可，則問其不可之所以然。若皆以爲可創，營建之資，吾有素儲，不煩國家。今我此言，無有倚着，各陳所懷，毋或曲從。彼若問上王之意如何，則對以不欲創寺，法席之會亦將不設，從此立法’”

69) 『世宗實錄』 권8, 세종 2년(1420) 7월 17일 계미 “癸未/上王遣宦官洪得敬傳旨曰：‘主上欲置寺于山陵，然佛法予之所惡也。使予不入此陵，則置寺可也，如入此陵，則不宜置寺。又聞，別立原廟之議。文昭殿爲置太祖聖眞而設，今大妃既無影幀，又非本心。只以返魂三年，爲創原廟，實爲無益，不如擇私家返魂之爲便也。宜與大臣擬議施行。’”

70) 이봉춘(2015)에 의하면, 태종은 재위기간 동안 수륙재 6회, 기신추복법석 21회, 사찰창건 3회, 사찰중창 1회, 불탑중수 2회, 사경 2회, 대장경인행 1회, 전경법회 4회, 반승 2회, 보시 8회, 기우 18회, 소재기양 2회, 구병정근, 연등회 3회, 연수법회 등 4회의 불사를 행하였다.

71) 『太宗實錄』 권1, 태종 1년(1401) 1월 7일 정묘 “丁卯/設帝釋禮饗于乾聖寺，水陸齋于津關寺”

72) 『太宗實錄』 권1, 태종 1년(1401) 1월 17일 정축 “設水陸齋於觀音窟 上謂侍讀金科曰：‘國行佛事 予已罷之 宮中婦女 冀其子延壽 用私財 或設禮饗 或行水陸 欲禁而未能耳’”

73) 정종 2년의 불사(佛事)를 혁파한 일을 말한다.(『定宗實錄』 권6, 정종 2년 12월 22일 임자)

74) 『太宗實錄』 권2, 태종 1년(1401) 10월 2일 정사 “丁巳/設水陸齋于臺山 上元寺。禳天災也”

75) 『太宗實錄』 권2, 태종 1년(1401) 10월 16일 신미 “設水陸齋于津寬寺”

76) 『太宗實錄』 권2, 태종 1년(1401) 10월 15일 경오 “庚午/雷電大雨”

천재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태종 5년(1405)에는 기우법석(祈雨法席)에 백저포(白苧布) 2필과 추포(麤布) 1백 6필을 보시(布施)하였고,⁷⁷⁾ 태종 13년(1413)에도 극심한 가뭄이 지속되자 기우법석을 행하였다.⁷⁸⁾ 또한, 태종 14년(1414)에는 관음굴, 진관사, 오대산 상원사, 거제 견암사에서 매년 2월 15일에 행하던 수륙재를 정월 15일에 행하도록 하였는데⁷⁹⁾, 태조가 고려 왕족을 위해 매년 봄·가을에 수륙재를 설행하도록 지정한 사찰 중 삼척의 삼화사가 빠지고 오대산 상원사가 지정되었으며, 매년 2회 설행이 1회로 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세종은 세종 4년(1422) 5월 진관사에서 수륙재를 설행하고, 길상사에서는 나한재(羅漢齋)⁸⁰⁾를 지내게 하였으나,⁸¹⁾ 세종 7년(1452) 수륙사인 상원사에 화재가 발생하자 수륙재는 고려 왕씨를 위한 것이니, 상원사를 혁파하라고 명하였다.⁸²⁾ 세종대의 기우법회는 태종대와 같이 지속적으로 행해지는데 세종 6년(1424)의 대대적 역불정책 이후인 세종 7년과 8년에도 각 4회, 5회의 기우법회가 설행해 국가의 불교정책과는 상관없이 관례적으로 설행된 것을 알 수 있다.⁸³⁾

단종 1년(1453) 1월 예조(禮曹)의 청으로 수륙재 설행을 대신해 매년 봄, 가을 여제(厲祭)를 행하도록 하였으나,⁸⁴⁾ 세조는 즉위 후 세조 2년(1456) 7

77) 『太宗實錄』 권9, 태종 5년(1405) 5월 2일 병신 “丙申/小雨. 賜祈雨法席, 布施白苧布二匹, 麤布百六匹.”

78) 『太宗實錄』 권26, 태종 13년(1413) 7월 5일 임오 “壬午/遣玉川君 劉敞等于北郊, 白岳, 木覓, 楊津, 漢江, 行祈雨祭. 聚僧一百于興天寺舍利塔, 以曹溪宗判事尙形, 奉香禱雨, 又以群巫, 禱于漢江. 遣檢校工曹參議崔德義, 行畫龍祭于楮子島.”

79) 『太宗實錄』 권27, 태종 14년(1414) 2월 6일 경술 “命李灌傳旨曰: ‘觀音窟 津寬寺, 臺山上元寺, 巨濟 見庵寺, 行每年二月十五日水陸齋, 今後行於正月十五日以爲式’”

80) 소승불교의 최고 성자인 아라한(阿羅漢)을 신앙의 대상으로 하여 구복(求福) 및 내우외환을 없애기 위해서 기원하는 의식의 하나. 고려시대에는 이 의식이 왕실의 주도 아래 자주 개최되었는데, 그 목적은 기우(祈雨)와 구복, 외침의 극복 등을 기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고려 때 이 재의 개설 장소는 대체로 보제사(普濟寺)·외제석원(外帝釋院)·왕륜사(王輪寺) 등이었다.

81) 『世宗實錄』 권16, 세종 4년(1422) 5월 6일 임술 “壬戌/遣 判敦寧府事 權弘于津寬寺, 設水陸齋, 戶曹判書申浩于吉祥寺, 設羅漢齋”

82) 『世宗實錄』 권30, 세종 7년(1452) 12월 19일 갑신 “江原道水陸社上元寺災, 上曰: ‘此寺水陸, 爲高麗 王氏也. 又有慶尙道 見庵, 此寺既災, 其革之’”

83) 이봉준(2015)은 실록의 기우법회 설행 횟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세종 1년 1회, 2년 1회, 4년 1회, 5년 1회, 7년 4회, 8년 5회, 11년 1회, 17년 2회, 18년 5회, 21년 1회, 22년 1회, 25년 5회, 27년 1회, 28년 1회, 30년 1회, 31년 5회로 총 38회에 달한다.

84) 『단종실록』 권5, 단종 1년(1453) 1월 21일 기묘 “... 禮曹報政府以啓曰: ‘譯學宜仍舊.

월 예조에 본인이 살육한 자들을 위해 각 도의 깨끗한 곳에서 봄, 가을로 수륙재를 베풀도록 하였다.⁸⁵⁾ 세조 11년(1465)에는 황해도 봉산군에 해소병을 앓는 자들과 사망한 자들을 위해 수륙재를 설행하였으며⁸⁶⁾, 세조 12년(1466)에는 국가기관인 간경도감(刊經都監)에 명하여 수륙재를 베풀도록 하고 있다.⁸⁷⁾ 세조 13년(1467)에는 이시애의 난 이후 함길도에서 죽은 사람들을 위해 수륙재를 베풀도록 하였다.⁸⁸⁾

성종 2년(1471)에는 황해도 관찰사에게 악질(惡疾)에 걸린 자들을 치료하게 하고 봉산(鳳山)의 성불암(成佛菴)에서 수륙재를 베풀게 하였다.⁸⁹⁾ 성종 8년(1477)에는 고려 왕씨들을 위한 수륙재를 행하는 개성의 관음굴이 무너졌으니 새로운 사사(寺社)를 가려내도록 하여, 고려 왕족을 위한 수륙재가 지속적으로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⁹⁰⁾ 성종 24년(1493)에는 충청도 태안의 안파사(安波寺)에서 세조 10년(1464)부터 해마다 조전선(漕轉船)의 순항(順航)을 비는 수륙재를 혁파하도록 하였는데,⁹¹⁾ 이후 국가행사로서 수륙재가 설행되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女妓不可遽革，刷諸司漏落奴婢，依定額充給。山棚，則令附近諸邑并力結構。水陸齋，則不可，但令每年春秋行厲祭’從之”

85) 『세조실록』 권4, 세조 2년(1456) 7월 26일 계사 “傳旨禮曹曰：‘予惟有生之類，物我一本，法既萬殊，有苦有樂，念及天心，一視等慈。予不幸遭屯難之運，殺戮者多，甚憫刑憲之魂，無所寄食，長淪苦途。且闔境無祀，鬼神亦多，其令諸道清淨處，春秋設水陸，以度窮魂’”

86) 『世祖實錄』 권36, 세조 11년(1465) 5월 9일 을묘 “禮曹啓：‘照黃海道 鳳山郡事呈，該境內軍戶大半物故，官奴婢半月之內患咳病，物故者三十人，且腰下不遂發病顛狂者甚衆 請依舊例，遣朝官設水陸齋於棘城古戰場’從之”

87) 『世祖實錄』 권38, 세조 12년(1466) 3월 21일 임술 “壬戌/幸長安寺，又幸正陽寺。還至表訓寺，命刊經都監，設水陸會”

88) 『世祖實錄』 권42, 세조 13년(1467) 6월 6일 기해 “命禮曹，爲咸吉道身死人等，遣朝臣設水陸齋于寺社，又降香致祭”

89) 『成宗實錄』 권13, 성종 2년(1471) 11월 8일 병오 “下書于黃海道觀察使李芮曰：‘本道諸邑，惡疾甚熾，已令醫員李由性齋藥往治。又令就鳳山 成佛菴，擇有戒行僧人，設水陸齋，卿宜曲盡措置’”

90) 『成宗實錄』 권81, 성종 8년(1477) 6월 7일 임인 “禮曹據開城府關啓：‘今五月十六日夜，大震，山石崩頽，觀音窟寺覆壓略盡，佛像亦不知所在。臣等謂觀音窟乃本朝爲王氏行水陸之所，今至頽壓，難以修營。請令開城府更擇水陸可當寺社啓聞’從之”

91) 『成宗實錄』 권287, 성종 25년(1493) 2월 18일 정축 “丁丑/禮曹啓 ‘安波寺水陸，始於甲申年，非徒有損經費，其漕 運利害，不關於水陸行否，誣罔莫甚，請革罷’從之”

2.1.3 대장경(大藏經) 인출(印出) 및 사성(寫成)

고려 현종(고려 제8대 왕, 재위 1009~1031)은 거란이 침입하자 불력(佛力)으로 국난(國難)을 극복하고자 대장경판을 각인하여 부인사에 보관하였는데, 이를 초조대장경(初雕大藏經)이라 한다. 현종대에는 호국불교의례로서 인왕도량(仁王道場)을 국가의례로 정례화하여 설행하였고, 금강경도량(金剛經道場), 제석도량(帝釋道場) 등도 국가의 호국불교의례였다.

고종(고려 제23대 왕, 재위 1213~1259) 재위 기간에는 거란과 몽골의 침략으로 국가의 호국적 불사가 더욱 성행한다. 고종 19년(1232) 몽골의 병사들에 의해 초조대장경판이 소실되자 고종은 불보살의 가호(加護)를 빌고자 재조대장경(再雕大藏經)을 판각하였다. 고려는 원간섭기 정치적 요인에 따른 제약에 의해 대장경 간행이나 불교의례의 설행, 사찰 및 탑의 건립 등 모두 호국적 불사가 현격히 감소하고 전경(轉經)이나 사경(寫經) 같은 공덕불사가 주로 이루어지게 된다.(강호선, 2015)

조선 전기 국왕 및 왕실에 의해 이루어진 대장경 인출과 사경 제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대장경 인출

태조 2년(1393) 연복사 5층탑이 완성되자 태조는 문수법회(文殊法會)를 베풀고, 무학자초의 선법(禪法) 강설(講說)에 직접 참석하고,⁹²⁾ 대장경을 인출하여 탑 내 봉안(奉安)하도록 하였다.⁹³⁾ 연복사는 고려 공양왕 3년(1391) 중수를 시작하였으나, 막대한 중창 경비와 민간에 폐해가 된다는 이유로 배불(排佛) 신진사대부들의 극심한 반대로 중단되었다. 이는 연복사가 고려 태조 2년(919) 국가 비보사찰로서 창건한 10대 사찰 중 하나인 개경의 보제사(普濟寺)⁹⁴⁾로, 광명사(廣明寺)⁹⁵⁾, 서진통사(西晉通寺)와 함께 3대 선우(禪宇)라

92) 『太祖實錄』 권3, 태조 2년(1393) 3월 28일 계유 “癸酉/演福寺五層塔成. 命設文殊會, 親幸聞自超說禪”

93) 『太祖實錄』 권4, 태조 2년(1393) 10월 17일 기축 “己丑/飯僧于演福寺 披讀『大藏經』以王師自超主講 先是 營五層塔 藏『大藏經』至是落之”

94) 『고려사』 충숙왕 즉위년(1313) 이후 연복사라 하였으나, 사유는 알 수 없다.

95) 광명사는 고려 태조 5년(922) 태조 왕건이 옛 집을 희사하여 창건한 사찰이다. 보제사(普濟寺)에서 3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던 담선법회는 최씨 집권 시기에 이르러 광명사·보제사·서

고 지칭되었으며 3년에 한 번씩 국가 주재의 담선법회(談禪法會)를 개최한 고려 왕실을 대표하는 사찰이었기 때문이었다.(황인규, 2003)

같은 해인 태조 2년(1393) 태조는 세자 및 대군들과 함께 발원(發願)하여 해인사의 금탑을 중수하고 대장경을 인출하여 안치하였다.⁹⁶⁾ 당시 직접 지은 「원성대장어제문(願成大藏御製文)」에 의하면, 나라에 복이 되고 백성에게 이롭기를 위하여 불사를 행한다고 하였다. 대장경 인성 후 권근에게 내린 전지(傳旨)에는 조상의 덕과 부처와 하늘의 도움으로 나라를 세워, 이제 부처님을 섬기고 아침저녁으로 예불을 갖추어 은혜를 갚고 나라의 안녕을 바란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태조 7년(1398)에는 강화도 선원사에 있던 대장경 목판을 군사 2천 명을 동원하여 지천사(支天寺)로 운반하게 하였는데⁹⁷⁾, 이 때 오교(五敎)·양종(兩宗)의 승려들이 불경을 외우고, 의장대가 북을 치고 피리를 불게 하였다.⁹⁸⁾

태조는 이외에도 태상왕(太上王) 시기 정종 원년(1399) 사재(私財)로 해인사에서 대장경을 인출하였는데, 정종은 경상도 감사에게 불경을 인쇄하는 승도에게 음식을 공양하도록 하고 곡식을 지원하였다.⁹⁹⁾

태종은 태종 13년(1413) 3월 태조의 명복을 빌기 위해 태조의 능침사인 개경사(開慶寺)에 대장경을 안치하고자 해인사에서 인출하도록 하였는데, 풍해, 경기, 충청도 관찰사에게 종이를 바치도록 하고 인출에 관계하는 자들과 승도들에 대해 급료를 지급하였다.¹⁰⁰⁾ 그해 5월 대장경은 개경사에 안치되었다.¹⁰¹⁾

보통사의 3개 사찰에서 실시되었다. 조선 태조 이성계는 태조 2년(1393) 무학자초를 이 절에 머물게 하였고, 정종 1년(1399) 신덕왕후의 기제사를 지냈다.

96) 『海印寺誌』, 1992, p.293

97) 『太祖實錄』 권14, 태조 7년(1398) 5월 12일 무오 “令隊長隊副二千人, 輸經板于支天寺”

98) 『太祖實錄』 권14, 태조 7년(1398) 5월 12일 무오 “命檢校參贊門下府事兪光祐行香, 五敎兩宗僧徒誦經, 儀仗鼓吹前導”

99) 『定宗實錄』 권1, 정종 1년(1399) 1월 9일 경진 “命慶尙道監司, 飯印經僧徒于海印寺. 太上王欲以私財, 印成『大藏經』, 納東北面所畜菽粟五百四十石于端, 吉兩州倉, 換海印寺傍近諸州米豆如其數”

100) 『太宗實錄』 권25, 태종 13년(1413) 3월 11일 경인 “命印『大藏經』于海印寺. 傳旨于豐海, 京畿, 忠〈淸〉道觀察使, 遞輸其道所造經紙二百六十七束于慶尙道. 又傳旨于慶尙道觀察使曰: ‘今遞輸經紙, 宜轉輸于海印寺, 印『大藏經』. 其印出時諸緣及僧二百朔料, 並皆給之’ 上以太祖好佛, 曾建開慶寺, 又印『大藏經』以安之也”

101) 『太宗實錄』 권25, 태종 13년(1413) 5월 28일 병오 “輸『大藏經』于開慶寺. 先是, 聚僧徒二百, 給資糧, 印陝州海印寺『大藏經』, 至是, 輸至開慶寺藏之, 爲太祖資冥福也”

세종 22년(1440) 4월 흥천사 사리각이 완성되자 세종은 성달생(成達生)을 제조(提調)로 삼아 대장경을 새로 인출하여 그해 9월 흥천사로 옮기게 하였는데 이때 도성의 사녀들이 앞 다투어 맞이하였다고 한다.¹⁰²⁾ 세종 24년(1442) 3월 흥천사에서 닛새 동안 경찬회가 설행되어 사방에서 모인 승도들이 1만 8백 18명이고 속인이 387명이나 되었다고 한다.¹⁰³⁾

세조 3년(1457) 6월 20일 대장경 50부를 인출할 종이 40만 6천 2백 권을 여러 도에 나누어 구하도록 하였고 중국 삼(漢麻)을 쓰고 닛나무 껍질(楮皮)과 섞어서 제조(製造)하여 바치게 하였다.¹⁰⁴⁾ 26일에는 경상도 관찰사 이극배(李克培)에게 해인사에서 2월부터 인출을 시작하여 6월까지 마치도록 하고,¹⁰⁵⁾ 각지의 관찰사에게 필요한 물자를 관에서 준비하도록 명한다.¹⁰⁶⁾ 세조 4년(1458) 해인사의 인경경차관(印經敬差官) 정은(鄭垠)이 대장경 3부를 바치자 이를 흥천사에 두도록 한다.¹⁰⁷⁾ 세조는 세조 11년(1465) 원각사(圓覺寺)를 낙성하고 해장전(海藏殿)에 대장경을 안치하였다.

성종 18년(1487) 정희대왕대비는 승려 학조(學祖)에게 해인사 대장경판당(大藏經板堂)의 중수를 명하였는데, 학조는 연소한 승려에게 감역을 맡기기를 성종에게 청하였다. 이에 성종은 해인사 대장경판당을 수창(修創)하는 것은 부처를 위함이 아니라 세조와 정희왕후의 유지를 받드는 불사이며 이웃 나라의 구청(求請) 때문이라 하며, 학조에게 감역을 맡기고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

102) 『世宗實錄』 권90, 세종 22년(1440) 9월 13일 임자 “... 今又使僧徒新印『大藏經』, 輸于興天寺. 其所過道路, 都人士女爭趨奉迎, 猶恐不及, 豈知聖上念祖宗而爲之? 必謂聖上崇信釋教也. 尊卑大小, 莫不興起, 而弊將難救矣 ... ”

103) 『世宗實錄』 권95, 세종 24년(1442) 3월 24일 을유 “始設興天寺慶讚會, 五日乃罷 ... 然僧徒四集, 所供僧一萬八百十八, 俗三百八十七, 其費不貲 ... ”

104) 『世祖實錄』 권8, 세조 3년(1457) 6월 20일 임자 “命桂陽君 璫, 傳于承政院曰: ‘『大藏經』五十件印出紙四十萬六千二百卷, 分諭諸道, 用漢麻雜以楮皮造進’ ”

105) 『世祖實錄』 권8, 세조 3년(1457) 6월 26일 무오 “諭慶尙道觀察使李克培曰: ‘『大藏經』五十件, 始自來春二月募印于海印寺, 須及六月前畢功. 今遣敬差官尹贊, 鄭垠布置, 卿其用意施行’ ”

106) 『世祖實錄』 권8, 세조 3년(1457) 6월 26일 무오 “諭忠淸 全羅 慶尙 江原 黃海道觀察使曰: ‘『大藏經』五十件印出所入, 忠淸道紙五萬一千一百二十六卷 墨八百七十五丁 黃蠟六十觔 全羅道紙九萬九千四卷 墨一千七百五十丁 黃蠟一百二十五觔 慶尙道紙九萬九千四卷 墨一千七百五十丁 黃蠟七十觔 胡麻油一百斛, 江原道紙四萬五千一百二十六卷 墨八百七十五丁 黃蠟一百二十五觔, 黃海道紙五萬一千一百二十六卷 墨八百七十五丁 黃蠟六十觔, 皆官自準備, 送于海印寺. 若收民楮雖一兩, 卿等當受大罪’ ”

107) 『世祖實錄』 권13, 세조 4년(1458) 7월 27일 임자 “海印寺印經敬差官鄭垠進『大藏經』三件, 命置于興天寺”

고, 부족할 경우 내수사에서도 보충하도록 하였다.¹⁰⁸⁾

연산군 6년(1500)에는 대장경 3부를 인출하였는데, 학조의 「인성대장경발문」에 의하면, 왕비 신씨(愼氏)가 연산군과 세자의 수복과 국가와 백성을 위해 학조에게 명하여 해인사 대장경을 인정하게 하도록 한 것이다. 이후 왕실에 의한 대장경 인출에 대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2) 사성(寫成)

조선시대의 사경(寫經)은 고려시대 국가적 사업으로 제작되었던 화려한 금·은자 사경과 견주어 볼 때, 품질은 비록 떨어지나 사경 문화는 고려의 양식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으며, 발원자는 왕실 또는 사대부가 대부분이었다. 조선 전기는 고려시대 사경원(寫經院)에서 활동하던 사경승과 화사(畵史)들이 살아있던 시기로 왕실과 사대부들의 사경 제작에 적극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김종민, 2007)

조선시대 왕실에 의한 사성 기록은 실록과 사경 자체의 발원문 등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조선 전기 왕실의 사경 제작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태조 3년(1394) 7월 태조는 고려 왕씨의 추복을 빌기 위해 전 예의판서(禮儀判書) 한이(韓理)와 전 우윤(右尹) 정구(鄭矩), 봉상경(奉常卿) 조서(曹庶), 전 헌납(獻納) 권홍(權弘), 전 사복주부(司僕注簿) 변혼(卞渾) 등에게 명하여 금(金)으로 『묘법연화경』 4부(部)를 써서 각 절에 나누어 두고 때때로 읽도록 하였다.¹⁰⁹⁾ 같은 해 9월에는 금니 『묘법연화경』을 궁에서 강의하여 왕이 중궁(中宮)과 함께 들었다는 기록이 있다.¹¹⁰⁾ 권근(權近, 1352~1409)이 쓴 『수륙의문』의 발문¹¹¹⁾에 의하면, 태조는 너그럽고 어진 도량으로 고려 왕씨 종족을 보전시키고자 하였으나 태조 3년(1394) 모반을 논의한 자들로 인해 왕씨들을 처형하였다. 이에 태조는 측은한 마음에 혼백을 위로하고자 『묘법연화경』 3부를 사경하여 내전(內殿)에서 직접 전독(轉讀)하였다. 고려시대

108) 『成宗實錄』 권209, 성종 18년(1487) 11월 8일 계묘 “癸卯/僧學祖請免海印板堂修補監役”

109) 『太祖實錄』 권6, 태조 3년(1394) 7월 17일 갑인 “甲寅/上以薦王氏, 命前禮儀判書韓理 前右尹鄭矩 奉常卿曹庶 前獻納權弘 前司僕注簿卞渾等, 金書『法華經』四部, 分置各寺, 以時披讀 … ”

110) 『太祖實錄』 권6, 태조 3년(1394) 9월 15일 임자 “壬子/講金字『法華經』于時座宮, 上與中宮聽講”

111) 권근, 「水陸儀文跋 奉教撰」, 『陽村集』22.

『묘법연화경』 사경은 장수(長壽) 또는 부모의 명복을 비는 등 개인의 공덕을 쌓기 위한 불사로 성행하였는데 태조는 이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정종(定宗, 재위 1398~1400)은 정종 원년(1399) 연경사(衍慶寺)에서 새로 사성한 금자 『화엄경(華嚴經)』을 운반하고 법석(法席)을 베풀었다.¹¹²⁾ 연경사는 태조의 정비이자 정종의 어머니인 신의왕후(神懿王后)의 능인 제릉(齊陵)의 능침사이다.

태종대에는 태종에 의한 사경 제작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태종 11년(1411) 3월 흥천사 사리전을 중수(重修)하도록 하고,¹¹³⁾ 5월에는 기울어진 사리탑을 수리하고 태조와 신의왕후를 위해 승려 50명을 불러 모아 금자 『묘법연화경』을 3일 동안 독송하게 하는 법석을 베풀었다는¹¹⁴⁾ 기록이 있다.

세종대의 사경 제작과 관련된 기록을 살펴보면, 재위 초반 세종은 왕실에 의한 사경 제작을 묵인하고 또한 지원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세종 2년(1420) 세종은 직제학(直提學) 성개(成概) 등에게 내불당(內佛堂)에서 금으로 『묘법연화경』을 쓰도록 명하였는데, 이는 대비의 발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라고 하였다.¹¹⁵⁾ 세종 4년(1422) 신녕궁주(愼寧宮主) 신씨(辛氏)¹¹⁶⁾가 태종을 위해 금자로 『묘법연화경』을 사경하고자 하였는데, 이에 관한 실록의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임금이 총제(摠制) 성달생(成達生)과 집현전(集賢殿) 부제학(副提學) 신장(申樞)과 판봉상시사(判奉常寺事) 성개(成概)를 불러 말하기를, ‘신녕궁주 신씨가 태상을 위하여 금자(金字)로 『법화경』을 등사하려고 한다. 나는 본래부터 옳지 못한 것으로 아나, 그의 원함이 정중하여 중지시킬 수 없으니, 경들은 정서하라’ 하고, 나인(內人)으로 하여금 의발(衣鉢)과 등롱(燈籠) 만드는 것을 감독하여 찬

112) 『定宗實錄』 권1, 정종 원년(1399) 1월 3일 갑술 “設法席于衍慶寺 轉新成金字『華嚴經』也”

113) 『太宗實錄』 권21, 태종 11년(1411) 3월 30일 경인 “命重修興天寺舍利殿 上聞殿荒廢, 命住持僧曰: ‘殿乃太祖所建, 予嘗不忘 爾等, 佛氏之徒也, 何不敬至此乎? 抑於僧行然歟?’ 其僧不能對. 又命曰: “自今以後, 爲遣提學內官而監之, 爾等朝夕勤謹毋怠’ 至是修之”

114) 『太宗實錄』 권21, 태종 11년(1411) 5월 18일 무인 “聚僧五十, 轉『金字法華經』于興天寺三日 蓋從太祖之志, 修舍利塔而設會也 召靑原君 沈淙授香, 上曰: ‘卿知今日設法席之意乎? 我皇考太祖, 建都于此, 設舍利殿, 吾與李仁壽訖功 近聞傾危, 使之修治 適當忌辰, 爲太祖與神懿王后設法席, 卿宜知之’ ”

115) 『世宗實錄』 권9, 세종 2년(1420) 8월 11일 정미 “命直提學成概·申樞, 及第崔興孝, 金寫『法華經』于內佛堂, 追成大妃之願也”

116) 신빈 신씨(信嬪 辛氏, ? ~ 1435), 태종의 후궁

경(讚經)하는 기구를 장만하게 하고, 또 중 정순(正恂)을 불러, 청룡사(靑龍寺)에서 그 일을 맡아보게 하였다. 처음에 신씨가 연화문(緣化文)에 임금의 화압(花押)을 청하여, 중들로 하여금 평민에게 권유하여 불경을 만들려고 하였었다. 임금이 승정원에 물어보니, 좌대언 정초(鄭招)가 아뢰기를, ‘연화(緣化)에 대한 금지령은 이미 법전에 올라 있는데, 이제 만일 친히 화압을 쓰시면, 저들이 반드시 싸서 만들고 크게 위세를 부리면서 국민에게 자랑할 것이요. 인민들도 서로 다투어 가면서 본을 받아, 반드시 집을 기울여 파산하고야 말 것이니, 그 근원이 한 번 열리면 말류(末流)는 막기 어렵나이다’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나도 또한 옳지 못함을 아나, 다만 경들에게 의논한 것뿐이다’하고, 승문원(承文院)에 장치한 합격품이 아닌 종이를 신씨에게 주어 불경을 쓰게 하였다.”¹¹⁷⁾

위와 같은 세종과 대신들의 대화를 통해 당시 유신들의 반대 속에서도 왕실에 의해 사경의 전통이 계승되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세종은 신녕공주의 청이 옳지 못하지만 그의 정중함에 거절할 수 없다하며, 성달생과 성개 형제와 신장(申樞) 등을 불러 이를 정서(精書)하도록 하였다. 본래 사경 연화면에 세종의 화압(花押: 署名)을 넣고자 하였는데, 대신들은 백성들이 이를 보고 앞 다투어 사경할 것을 걱정하며 반대하였고, 세종도 옳지 못함을 알고 있다 하며, 승문원에 합격품이 아닌 종이를 신씨에게 내려 사경하도록 하였다.

세종 11년(1429) 2월 사헌부에서 건의한 금령의 조문 중에는 ‘중앙과 지방을 막론하고 금이나 은으로 불경을 베껴 쓰거나, 불상에 도금하는 것을 금지할 것’¹¹⁸⁾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금·은자 사경이 금지되었음을 알 수 있으나, 세종은 세종 28년(1446) 왕비인 소현왕후가 사망하자 추복을 빌고자 직접 사경 제작을 명하였다. 집현전 수찬(集賢殿修撰) 이영서(李永瑞)와 돈녕부 주부(敦寧府注簿) 강희안(姜希顔) 등에게 명하여 성녕대군(誠寧大君) 집에서 불경을 금자(金字)로 쓰게 하고, 인순부 소윤(仁順府少尹) 정효강(鄭

117) 『世宗實錄』 권16, 세종 4년(1422) 6월 21일 병오 “上召摠制成達生 集賢殿副提學申樞判奉常寺事成概曰: ‘愼寧宮主 辛氏爲太上, 欲金寫『法華經』 予固知不可, 其願鄭重, 似不可止, 卿等繕寫之’ 命內人監造衣鉢燈籠, 以備讚經之具 又召僧正恂于靑龍寺, 掌其事. 初, 辛氏請上親押緣化文, 令浮屠勸誘平民, 以成佛經. 上問於承政院, 左代言鄭招曰: ‘緣化之禁, 已在令甲. 今若親押, 則彼必齋擎, 廣張威福, 誇示國人, 人民爭相慕效, 必至傾家破產, 然後已. 其源一開, 末流難防’ 上曰: ‘予亦知其不可, 但議於卿等爾’ 卽以承文院所藏不合用紙, 給辛氏寫經”

118) 『世宗實錄』 권43, 세종 11년(1429) 2월 5일 신사 “… 一, 中外金銀寫經塗佛禁止 … ”

孝康)에게 명하여 그 일을 주관하게 하였다.¹¹⁹⁾

문종(文宗, 재위 1450~1452)은 문종 원년(1450) 2월 세종의 추복을 위해 대자암을 중수하도록 하고, 안평대군(安平大君)에게 금자 『화엄경』을 사경하는 것을 승정원(承政院)의 대신들과 논의하도록 하였고,¹²⁰⁾ 강희안(姜希顔), 이영서(李永瑞), 성임(成任) 등에게 명하여 금으로 사경을 하도록 하였다. 도승지(都承旨) 이사철(李思哲)이 쓴 발문¹²¹⁾에 의하면, 『묘법연화경』 7권, 『범망경(梵網經)』 2권, 『능엄경(楞嚴經)』 10권, 『미타경(彌陀經)』 1권, 『관음경(觀音經)』 1권, 『지장경(地藏經)』 3권, 『참경(懺經)』 10권, 『십육관경(十六觀經)』 1권, 『기신론(起信論)』 1권을 금자로 쓰게 하고 모두 정전(楨牋, 붉은 종이)을 사용하였으니, 그 갑함(甲函)을 장정(裝幀)한 것도 또한 매우 정교하고 세밀하였다고 한다.

세조대에는 세조 3년(1457) 9월 의경세자가 죽자 그의 명복을 빌기 위한 불교전적 간행 및 사성이 이루어졌다. 그 해 초주갑인자로 인출한 『영가진각 대사증도가(永嘉眞覺大師證道歌)』의 발문에 의하면 강희맹(姜希孟), 성임, 조근(趙瑾), 임택(任擇), 안혜(安惠), 문동(文炯), 극인(克仁) 등이 동원되어 금니(金泥)로 『묘법연화경』 한 벌을 사성하고, 『지장경(地藏經)』, 『기신론(起信論)』, 『범망경(梵網經)』, 『보현행원품(普賢行原品)』을 묵서로 사성하였다.¹²²⁾

119) 『世宗實錄』 권111, 세종 28년(1446) 3월 28일 을미 “命集賢殿修撰李永瑞 敦寧府注簿姜希顔等, 金書佛經于成寧大君第, 又命仁順府少尹鄭孝康主其事”

120) 『世宗實錄』 권1, 문종 즉위년(1450) 2월 18일 계사 “議于承政院曰: ‘昭憲王后升遐後, 爲作八相成道之圖, 今不可更作此圖 安平大君 珞, 欲成金字 『華嚴經』, 造紙過半, 寫經黃金, 可用四十兩, 今已備十三兩. 因此助其不足, 以成此經何如? 且大慈庵無量壽殿, 但二間, 今爲父王, 加造一間成釋迦觀音二相入安, 亦何如?’ 李思哲以爲: ‘大慈庵祖宗成憲, 不可加造, 成『華嚴經』爲便’ 鄭而漢以爲: ‘因安平而造經, 不可作佛像爲便’ ”

121) 『世宗實錄』 권1, 문종 즉위년(1450) 4월 10일 계미 “我世宗大王晏駕 主上殿下哀慕罔極 歛殯奠薦 盡誠率禮 仍念追祐冥遊 惟大雄氏慈悲之教 庶可憑依 爰命善楷俾金 書『法華』七卷『梵網』二卷『楞嚴』十卷『彌陀經』一卷『觀音經』一卷『地藏經』三卷『懺經』十卷『十六觀經』一卷『起信論』一卷 悉用楨牋 其裝幀甲函 亦極精緻 已乃集名縉 闡法會以披覽 遂命臣跋之 臣竊聞 惟大法藏 有經 律 論三者: 其詮於如來者謂之經 戒於菩薩者謂之律 後代賢士 講明其義 而翼夫經律者謂之論 要皆悟群迷之眞詮 度含靈之令軌也 儻得一卷 或受持讀誦 或謄寫宣揚 苟切薪傾 則其因果之勝 自可以普利 幽明有不期然而然者矣 而況所謂『法華』純談實相 則詮經之妙也; 『梵網』現受毗尼 則持律之嚴也; 『起信論』覈究心數 推明一眞之理 則實又冠冕諸論 其他『楞嚴』, 『彌陀』, 『地藏』等經 亦皆法文之髓 簡而該妙 而要 三經之教悉具 苟能即此而信受披揚 則千函具葉 不必盡縉而功德之勝 於是乎備矣 今我殿下 嬖嬖在疚 凡其大事之奉 固無所不用其極 乃至釋教 亦爲之傾意 亟成此寶典 以資冥禧 誠孝之懇 嗚呼至哉 臣固知願海之深 善根之植 水月妙應之效 必捷於影嚮 而禮陟之靈 誕登覺岸 頓悟眞空 優遊乎極樂之境無疑矣”

예종은 예종 즉위년(1468) 9월 19일 세조의 추복을 빌고자 이조 판서 성임, 행 상호군(行上護軍) 정난중(鄭蘭宗), 행 부호군 조근(趙瑾), 승문원 판교(承文院判校) 조안정(趙安貞), 승정원 주서(承政院注書) 박효원(朴孝元), 사정(司正) 박경(朴耕) 등에게 명하여 금니로 사경을 명하였다.¹²³⁾

성종대 성종 8년(1477) 3월 인수대비가 세조의 능인 광릉(光陵)의 능침사 봉선사(奉先寺)에서의 사경 제작에 대해 대신들과 논의하였고¹²⁴⁾, 시독관(侍讀官) 김흔(金訢)이 대비의 금자 사경 제작하는 것에 대해 간(諫)할 것을 청하자, 대비의 사경 제작이 나라의 비용을 쓰는 것이 아니며, 선왕(先王)을 위해 하는 것을 감히 간하여 만류하지 못하겠다고 하였다.¹²⁵⁾ 성종 10년(1479) 3월에도 김흔은 봉선사에서 사경에 대해 “비록 전하의 명(命)이 아니라고는 하나 외간에서 들으면 반드시 성상께서 이처럼 불교를 신봉한다고 말들 하면서 장차 바람에 쏠리듯이 따를 것이니, 이단(異端)이 어느 때에나 그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이에 성종은 “... 사경은 내가 진실로 그 그릇됨을 알고 있

122) 『영가진각대사증도가』 강희맹 발문 ‘... 於是 上尊世宗之遺命 次爲東宮之冥福 命朝臣之善寫者 金書法華經一件 墨書地藏經梵網經行願品 印成大藏經華嚴經各一件 法華經楞嚴經翻譯名義各一百件 地藏經懺法十四件 ...’

123) 『睿宗實錄』 권1, 예종 즉위년(1468) 9월 19일 을해 “命吏曹判書成任 行上護軍鄭蘭宗 行副護軍趙瑾 承文院判校趙安貞 別坐安惠 判官李叔生 承政院注書朴孝元 司正朴耕 僧文罔等, 以金泥寫經, 蓋爲大行大王資福也”

124) 『成宗實錄』 권78, 성종 8년(1477) 3월 7일 갑술 “下御札于承政院曰: ‘今日, 仁粹王大妃謂予曰: ‘吾聞臺諫以予寫經于奉先寺, 極論於經筵, 有諸?’ 予對曰: ‘有之’ 曰: ‘何不語我?’ 對曰: ‘臺諫不通之論, 何煩聖聽?’ 大妃曰: ‘予之寫經, 適所以害主上也 予以爲自古釋教, 皆謂之虛誕, 而歷代人君未能燼滅焉. 且予年十七得侍東儲, 其四年之間, 朝侍兩殿, 暮還于宮, 未嘗一日專侍我王, 會我王不豫, 避居他處, 予欲侍疾, 而適懷妊主上, 各在東西, 從此永別, 可勝痛哉! 天地必知矣. 求薦冥福, 非我獨爲, 自古有之. 是以上爲先王, 次爲我王, 未嘗頃刻忘于懷也. 且世祖不忍見我悲泣, 使我每年春秋拜陵, 以盡吾呼天之痛. 今則我爲君母, 常畏朝廷之議, 未曾一事如吾志也. 大抵自古儒者之斥佛, 無他, 專以人君過崇釋氏, 則必輦於國政, 勞民以建寺, 傷財以飯僧, 以至於蕭梁以糗代犧牲, 予則以私財成經, 私穀飯人, 暫不關於國家, 而臺諫所論若此之甚, 吾無所爲矣. 且文宗居廬, 大成經像, 而不聞一人諫爭者, 其時無大臣 臺諫而然歟? 若佛道虛妄, 何爲爲先王 先后設水陸, 爲國家祭名山 大川乎? 吾意如斯, 誰與評之? 然亦強諫, 吾何強之乎?’ 予聞此教, 不堪悲傷. 其召臺諫語之, 以開不通之心, 亦問知吾不爲而力諫不已之情”

125) 『成宗實錄』 권78, 성종 8년(1477) 3월 19일 병술 “侍讀官金訢啓曰: ‘『禮』, ‘父母有過, 下氣怡色, 柔聲以諫, 與其得罪於鄉黨州閭, 寧孰諫’, 眞西山引之曰: ‘等而上之天子而不諫, 則使其親得罪於天下, 諸侯而不諫, 則使其親得罪於一國’ 今大妃寫金字經, 上何不柔聲怡色以諫, 而反下御書, 以折臺諫之言也?’ 上曰: ‘大妃自爲之, 非費國用也, 其過豈至得罪於一國哉?’ 訢曰: ‘所謂過, 非謂敗國亡家之患, 幾微已動, 則斯謂之過矣. 傳曰: ‘以身教者從, 以言教者訟’ 今大妃寫經, 則豈得禁臣下之造佛像乎?’ 上曰: ‘爾言是矣. 然大妃爲先王而設, 予不敢諫止也. 前日示臺諫之書, 豈盡大妃之意? 所謂言有盡, 而意無窮也’”

으나 대비께서 하교하시기를, ‘선왕을 위한 것이다’하고, 또 사직(社稷)에 큰 해도 없으니 내가 감히 막겠는가?”라고 답하고 있다.¹²⁶⁾

조선 전기 왕실에 의해 제작된 사경 중 현재 전해지는 사경을 살펴보면 성종대 이후로는 왕실 발원의 사경 제작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존본에 대해서는 3~5장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2.2 조선 전기 왕실불교 문화 확립

2.2.1 왕실의 추천(追薦) 및 구복(求福) 불교의례 설행

태조는 태조 5년(1396) 7월 왕후의 구병(救病)을 위해 승려 50명을 내전(內殿)에 모아서 부처에게 빌고¹²⁷⁾ 소격전(昭格殿)¹²⁸⁾에서 초제(醺祭)를 거행하도록 하였으나¹²⁹⁾, 태조 5년(1396) 8월 13일 신덕왕후가 승하하였다. 14일 상·장례(喪葬禮)를 치르기 위해 4도감(都監) 13소(所)를 설치하였는데,¹³⁰⁾ 이는 고려 공민왕 14년(1365) 노국대장공주(魯國大長公主)의 상례 때 설치된 4도감인 국장도감(國葬都監), 빈전도감(殯殿都監), 조묘도감(造墓都監), 불재도감(佛齋都監)과 13색(色)와 같다.¹³¹⁾ 이 중 불재도감은 세종 1년(1419) 정종의 국장(國葬) 시 폐지되고 이후 온전한 유교식 상제례로 행하게 된다. 장례를 치른 후 태조는 태조 6년(1397) 신덕왕후의 영을 위로하고자 경천사(敬天寺)에서 화엄법석(華嚴法席)¹³²⁾을 베풀었고,¹³³⁾ 태조 7년(1398) 8월 9일

126) 『成宗實錄』 권102, 성종 10년 3월 21일 정축 “... 奉先寺寫經, 雖非殿下之命, 然外間聞之, 必曰上之信佛如此, 將隨風而靡, 異端何時而止乎? ... 寫經予固知爲非, 然大妃教曰 ‘爲先王,’ 又無大害於社稷, 予敢沮之乎?”

127) 『太祖實錄』 권10권, 태조 5년(1396) 7월 1일 병진 “丙辰朔/以顯妃未寧, 集僧徒五十於內殿禱佛”, 7월 7일 임술 “以顯妃有疾, 集僧徒於內殿禱佛, 遣使於檜巖寺, 亦如之, 又設醺於昭格殿, 有中外二罪以下囚”

128) 고려·조선 초기, 삼청 성신(三清星辰)에 대한 초제(醺祭)를 맡아 보던 관아

129) 『太祖實錄』 권10, 태조 5년(1396) 7월 7일 임술 “以顯妃有疾, 集僧徒於內殿禱佛, 遣使於檜巖寺, 亦如之, 又設醺於昭格殿, 有中外二罪以下囚”

130) 『太祖實錄』 권10, 태조 5년(1396) 8월 14일 기해 “以顯妃有疾, 集僧徒於內殿禱佛, 遣使於檜巖寺, 亦如之, 又設醺於昭格殿, 有中外二罪以下囚”

131) 『高麗史』 권89 列傳 권2 后妃 공민왕 후비 후의 노국대장공주

132) 『大方廣佛華嚴經』을 강독하고 외우면서 보현보살의 10대원을 마음에 되새기며 참회하는

홍천사에서 신덕왕후를 위해 열린 천회(薦會)를 관람하고,¹³⁴⁾ 8월 13일에는 홍천사에서 대상재(大祥齋)를 설행하고, 도당(都堂)에서는 흥복사(興福寺)에서 별도로 설하였다.¹³⁵⁾

태종은 즉위 초부터 유교의례를 보급하고자 하였다. 태종 1년(1401) 가묘(家廟)의 제도를 『주자가례』에 따르도록 하였고¹³⁶⁾, 태조 3년(1403)에는 『주자가례』 교육의 시행과 시험을 규정하고,¹³⁷⁾ 150부를 평양부(平壤府)에서 인쇄하여 각 사(司)에 반사(頒賜)하였다.¹³⁸⁾ 태종 5년(1405)에는 부모에게 추천(追薦)하는 제도를 불상에 음식을 올리는 일(佛排)을 금하였다.¹³⁹⁾ 그러나 태종은 태상왕 태조와 넷째 아들 성녕대군(誠寧大君, 1405~1418)을 위한 불교의례를 설행하는데, 태종 8년(1408) 1월 태종의 구병을 빌고자 덕수궁 근처에서 승도 1백 명을 모아 약사정근(藥師精勤)¹⁴⁰⁾을 행하였는데 이 때 직접 입은 옷을 벗어 약사여래(藥師如來) 불상 앞에 올리고, 스스로 향을 태워 팔뚝에 불을 살랐다고 한다. 이 때 덕수궁 북쪽 정자에서는 연수도량(延壽道場)¹⁴¹⁾을 행하였고, 덕방사(德方寺)에서는 도승통(都僧統) 설오(雪悟)에게 수록재를 행하도록 하였다.¹⁴²⁾ 태종 13년(1413)에는 성녕대군이 홍역으로 죽자

한편, 죽은 사람의 명복을 빌거나 재난을 없애기 위해서 행하는 법회이다. 대체로 5일 이상의 오랜 기간 동안 행하며, 흥국사(興國寺) 등 화엄종 사찰에서 많이 개설되었다.

133) 『太祖實錄』 권11, 태조 6년(1397) 3월 4일 정사 “幸敬天寺, 設華嚴法席, 薦神德王后”

134) 『太祖實錄』 권14, 태조 7년(1398) 8월 9일 임자 “幸興天寺, 觀神德王后薦會”

135) 『太祖實錄』 권14, 태조 7년(1398) 8월 13일 병진 “設神德王后大祥齋於興天寺, 都堂別行于興福寺”

136) 『太宗實錄』 권2, 태종 1년(1401) 12월 5일 기미 “… 凡祭儀 一依 『文公家禮』 以示於下, 則不待勸勉, 而自然化及於民矣 … 允之”

137) 『太宗實錄』 권5, 태종 3년(1403) 4월 4일 “… 願自今禮官抄其 《家禮》 節目之宜於今者, 以訓經師, 凡遇喪葬, 一依 《家禮》 行之, 則庶合古制矣 … 命下議政府擬議施行’, 6월 9일 ‘令初入仕者, 并試 『朱文公家禮』. 吏曹請之也. 雖已入仕者, 七品以下, 亦令試之”

138) 『太宗實錄』 권6, 태종 3년(1403) 8월 29일 갑술 “甲戌/分賜 『朱文公家禮』 於各司. 印 『家禮』 一百五十部於平壤府而頒之”

139) 『太宗實錄』 권10, 태종 5년(1405) 8월 22일 을유 “… 自今父母追薦之制, 有服之親外, 不許詣寺佛排, 依前降判旨, 毋敢違越 路祭之設, 所以歇神柩也, 妄設佛排, 亦非祭神之意. … ”

140) 병을 낫게 해달라고 약사여래에게 빌던 일. 경사와 승려가 모여 불경을 외우고 기도를 드렸다.

141) 불교에서 수명장수를 위하여 열렸던 종교의식. 고려시대에 많이 설행되었으며, 『연수묘문 다라니경(延壽妙門陀羅尼經)』 즉 『연수경(延壽經)』을 강독하는 법회이다.

142) 『太宗實錄』 권15, 태종 8년(1408) 1월 28일 정축 “丁丑/上再詣德壽宮 … 遂召禮曹參議卞季良, 製佛疏設帳幕于德壽宮側, 集僧徒百人, 行藥師精勤. 上解所御衣, 獻藥師像前, 躬自點香燃臂, 至曉乃罷. 又令中官朴猷, 設延壽道場於宮北亭, 都僧統雲悟, 設水陸齋於德方寺. 太上之疾稍愈”

진관사에서 명복을 빌기 위한 수록재를 열고 향과 제교서(祭敎書)를 내렸다.¹⁴³⁾

세종은 어머니인 원경왕후(元敬王后, 1365~1420)의 구병을 위해서 세종 2년(1420) 양녕·효령대군과 함께 대비를 모시고 개경사로 가 약사여래에게 불공을 드렸으며,¹⁴⁴⁾ 세종 4년(1422)에는 태상왕이 위독하자 흥천사, 승가사에서 약사정근을, 개경사에서는 관음정근(觀音精勤)을 행하도록 하였다.¹⁴⁵⁾

세종 2년(1420) 7월 원경왕후의 국상(國喪)에 대하여 상왕 태종은 “대비의 병환에 부처에게 빌어 구함이 매우 지극하였지만 응험이 없었다”하며, 국행으로 칠재(七齋)만을 시행하고 법석은 궁방(宮房)¹⁴⁶⁾의 저축으로 2회를 설행하겠다고 하는데¹⁴⁷⁾, 앞서 태종 8년(1408) 태조의 빈전에서 행한 화엄삼매참법석도 사재로 설행하고 있어 왕실의 불교식 상례에 있어 국가의 비용을 쓰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태종은 세종 2년(1420) 성녕대군의 명복을 빌고자 세운 대자암에 승당(僧堂)을 지을 때에도 본궁의 재물로 짓도록 하였고¹⁴⁸⁾, 같은 해 10월 대자암에서 법화법석을 베풀 때에도 본궁에서 물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¹⁴⁹⁾

조선 전기 유교적 상례가 정착되어 가는 과정에서 태종이 원경왕후의 국상에서 국행칠재 외의 불사에 사재를 사용함으로써 왕실의 불교식 상례에 있

143) 『太宗實錄』 권35, 태종 18년(1418) 3월 3일 계축 “癸丑/命同副代言成掄如津寬寺, 爲誠寧大君設水陸齋, 故奉香以往也”

144) 『世宗實錄』 권8, 세종 2년(1420) 6월 6일 계묘 “癸卯/上及讓寧 孝寧奉大妃, 避病于開慶寺. 用術士遁甲法, 悉屏侍衛夜出, 唯宦官二人 侍女五人 內奴十四人從之. 大妃御肩輿, 直向開慶, 夜漏已三鼓矣. 近侍, 上只率一人, 先至本寺, 掃清御室, 還迎大妃. 住寺凡四日, 不使人知, 樂天亭侍衛如常, 故內外莫知所向. 上親行藥師精勤, 供佛飯僧, 病猶未歇”

145) 『世宗實錄』 권16, 세종 4년(1422) 5월 4일 경신 “庚申/遣右議政鄭擢于興天寺, 谷山府院君 延嗣宗于僧伽寺, 設藥師精勤. 判左軍都摠制府事李和英于開慶寺, 設觀音精勤”

146) 궁방(宮房)은 조선시대 왕실의 일부였던 궁실(宮室)과 왕실에서 본가, 독립한 궁가(宮家)의 통칭이다. 궁방에는 왕족의 생활기반을 제공하고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토지를 비롯해 어전(漁箭)·염분(鹽盆)·산림천택(山林川澤) 등이 절수(折受)의 형태로 지급되었다. 그 가운데 궁방 재정기반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이 바로 궁방전(宮房田)이라는 명칭의 토지이다.

147) 『世宗實錄』 권8, 세종 2년(1420) 7월 10일 병자 “... 今大妃之病, 祈佛求生, 無所不至, 竟無應驗. 且性不好佛, 故予欲勿設, 然未敢遽革, 只設七齋, 勿設法席之會. 予將以本宮之儲, 辦設二會”

148) 『世宗實錄』 권8, 세종 2년(1420) 7월 29일 을미 “上王傳旨于兵曹 承政院曰: ‘主上言: ‘大妃嘗悼念誠寧, 願爲薦導, 創成僧堂于大慈庵, 飯佛寫經, 未就而薨. 欲成先志, 以慰先靈’ 予聞之, 以爲無害. 俗云: ‘出其所有, 以成善事甚好’ 今欲不費公家之財, 以本宮之財, 營構僧堂’ ”

149) 『世宗實錄』 권10, 세종 2년(1420) 10월 14일 기유 “設法華法席于大慈庵, 本宮供辦”

어 국행불사와 구별되는 왕실의 사적인 비용으로 설행하는 내행불사의 기준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박정미, 2015)

태종은 세종 2년(1420) 5월 수륙재는 여제(厲祭)¹⁵⁰⁾와 비슷하니, 기신재나 추천재 등 대부(大夫)·사(士)·서인(庶人)의 명복을 추천하는 재는 모두 수륙재로만 설하도록 하고, 절에 나가는 인원도 일정한 수를 제한하게 명하였고,¹⁵¹⁾ 이어서 9월에는 수륙재 때는 불경을 읽지 말고 수륙재만을 거행하도록 명하였다.

“박은(朴崧), 변계량(卞季良)이 헌의(獻議)하기를, ‘전부터 법석(法席)에서 『법화』·『화엄(華嚴)』·『삼매잡(三昧懺)』·『능엄(楞嚴)』·『미타(彌陀)』·『원각(圓覺)』·『참경(懺經)』 등 불경을 외었는데, 이제 법석을 혁파하였사오니, 지금부터는 국가에서 거행하는 수륙재에는 이상의 여러 불경을 칠칠일(七七日)에 분속시키어서 각각 그 날에 읽게 하소서’ … 상왕이 말하기를, ‘이미 법석을 혁파하였는데 무슨 일로 불경을 읽어야 하는가. 아주 없애 버려라’라고 하였다.”¹⁵²⁾

위의 기록과 같이 태종은 법석 폐지와 함께 법석에서 불경을 외우던 관행도 없애도록 하였다. 원경왕후의 국상 이후, 왕실의 상제례는 법석을 배제한 수륙재로 간략화 되었고 세종 4년(1422) 5월 10일 태종이 사망한 후 태종의 국상에서는 국행 법석이 거행되지 않았고, 능침사를 세우지 않았다. 중종 대 이후 『주자가례』에 의한 종묘제도가 정립되면서 국가상제례에서 불교의식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된다.

세종대 국가의 공식적 불교의례는 폐지되었으나, 효령대군을 비롯한 왕실 구성원의 불교의례 설행에 대해 용인하고 있다. 이는 왕실의 불교신앙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세종 4년(1422)의 기록에 의하면 태종의 후궁인 의빈 권씨와 신녕궁주 신씨는 태종 승하 후 비구니승이 되었는데, 후궁들이

150) 여귀(厲鬼)에게 지내는 제사. 여귀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제사를 받을 수 없는 무사귀신(無祀鬼神) 또는 무적귀신(無籍鬼神)을 말한다.

151) 『世宗實錄』 16권, 세종 4년(1422) 5월 10일 병인 “… 遂令 忌辰 及大夫士庶人追薦之齋, 皆設水陸, 赴寺之人有數焉”

152) 『世宗實錄』 권9, 세종 2년(1420) 9월 24일 “朴崧 卞季良獻議云: ‘在前法席, 誦闕『法華』, 『華嚴』, 『三昧懺』, 『楞嚴』, 『彌陀』, 『圓覺懺經』等佛書, 今革法席. 請自今於國行水陸, 以上項諸經, 分屬七七日, 各於其日誦闕. 且大夫士追薦水陸, 毋過定制, 其家貧者, 稱家有無’ … 上王曰: ‘既革法席, 何事誦經? 其除之’”

머리를 깎고 아침저녁으로 불법을 행하니 임금도 금하여도 되지 않았다고 하였다.¹⁵³⁾ 또한 세종의 비인 소헌왕후와 수양대군, 안평대군을 비롯한 왕자와 공주들도 모두 승불자였다.

세종대 대표적인 왕실의 불교의례 설행으로, 세종 14년(1432) 2월 효령대군은 한강에서 7일 동안 대규모 수륙재를 설행하였는데, 승려 1천여 명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길가는 행인에게까지 음식을 대접하였다. 이때 서울 안의 선비와 부녀자들이 구름같이 모여들고 음식을 장만하여 공양하였다고 한다.¹⁵⁴⁾ 효령대군의 수륙재는 국가적 의례가 아니었음에도 수많은 인파가 모여들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수륙재가 조선 사회의 전통의식으로 자리 잡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한상길, 2009)

또한 세종 16년(1434) 효령대군이 회암사를 중수하고자 할 때 세종은 선왕 태조가 중요하게 여긴 사원이며, 대비(大妃)의 원불(願佛)이 걸려 있다 하며 내탕금으로 곡식과 비단을 내려 주었다.¹⁵⁵⁾ 이듬 해 회암사 중수를 완료하고 불사를 베푸는 것에 대해 금해달라는 상소에도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¹⁵⁶⁾

세종 자신도 세종 28년(1446) 중궁(中宮)의 구병을 위해 동궁(東宮) 및 여러 아들이 산천(山川)과 신사(神祠), 불우(佛宇)에서 기도하게 하였고,¹⁵⁷⁾ 소헌왕후가 승하하자, 대신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종의 자제들이 사적인 저축과 본궁의 저축 비용으로 사경 불사를 행하는 것을 허락하였다.¹⁵⁸⁾ 이어

153) 『世宗實錄』 권16, 세종 4년(1422) 5월 20일 병자 “懿嬪 權氏 愼寧宮主 辛氏不啓於上, 剃髮爲尼, 後宮爭相剃髮, 備梵唄之具, 晨夕作法, 上禁之不得”

154) 『世宗實錄』 권55, 세종 14년(1432) 2월 14일 계묘 “孝寧大君 補大設水陸于漢江七日, 上降香, 築三壇, 飯僧千餘, 皆給布施, 以至行路之人, 無不饋之. 日沈米數石于江中, 以施魚鰲. 幡蓋跨江, 鍾鼓喧天. 京都士女雲集, 兩班婦女, 亦或備珍饌以供, 僧俗男女, 混雜無別. 前判官吉師舜上書諫之, 不允”

155) 『世宗實錄』 권64, 세종 16년(1434) 4월 13일 경신 “... 我太祖, 太宗, 於衍慶 興天 覺林等寺, 或設法筵, 以奉其教, 予亦於講法之寺, 有時乎賜香. 況檜巖, 太祖所信重, 且大妃願佛掛焉, 歲久傾圮, 孝寧大君思欲重修, 告其所以, 予賜穀帛若干, 以資供億. 僧徒因此勸誘愚俗, 廣聚財貨. 是雖非予所使, 人必以予爲愆, 等是公議所不免, 寧出府庫錢財, 以供佛事何如? ... ”

156) 『世宗實錄』 권67, 세종 17년(1435) 3월 9일 신사 “孝寧大君於檜巖寺, 暫設佛事, 勿令禁止”

157) 『世宗實錄』 권111, 세종 28년(1446) 3월 12일 기묘 “己卯/傳旨承政院: 中宮未寧, 東宮與諸子欲禱于山川神佛, 予亦以爲然. 且欲頒赦, 何如? 都承旨柳義孫等曰: ‘精勤水陸與祈禱, 往往現有獲應. 且近年雨暘愆期, 連年失農, 人心恐有冤抑, 赦亦可’ 上曰: ‘祈禱, 當速行之. 赦宥之事, 予更思之’ 卽日分遣中使, 禱于山川神祠佛宇”

158) 『世宗實錄』 권111, 세종 28년(1446) 3월 28일 을미 “命集賢殿修撰李永瑞 敦寧府注簿姜希顔等, 金書佛經于成寧大君第, 又命仁順府少尹鄭孝康主其事”

서 같은 해 5월 사경을 대자암으로 이안하고 크게 법석을 베풀었는데, 대군(大君)·제군(諸君)이 모두 참예(參詣)하고, 2천여 명의 승려가 모여 7일 동안 행해졌다.¹⁵⁹⁾ 세종 31년(1449) 11월에는 세자의 구병을 위해 수양대군 등에게 명하여 약사재(藥師齋)를 내불당에서 행하도록 하고, 안평대군에게는 대자암에서 수록재를 행하도록 하였다.¹⁶⁰⁾ 세종 32년(1450) 1월에는 세종이 병환으로 효령대군의 집으로 이어하였는데, 이때 내불당에서는 공작재(孔雀齋)¹⁶¹⁾를 흥천사에서 관음정근(觀音精勤)을 설행하였다.¹⁶²⁾ 또한 용문산(龍門山)의 상원사(上元寺)에서 구병 수록재를 행하고, 『불정심다라니경(佛頂心陀羅尼經)』을 간행하고 강희안과 성임에게 미타관음(彌陁觀音) 등의 경문을 쓰게 하고, 도승지 이사철(李思哲)로 하여금 발문을 쓰도록 하였다.¹⁶³⁾

세종 32년(1450) 2월 17일 세종이 영응대군(永膺大君, 1434~1467)의 집에서 승하한 후 문종은 2월 18일 대자암의 중축과 안평대군의 금자 『화엄경』 조성에 대해 논의하였고,¹⁶⁴⁾ 세종의 후궁들은 불상을 조성하였다. 대신들은 이 때 불경을 인쇄하고 불상을 조성하는 것에 반대하는데, 문종은 불경은 아버지인 세종이 문종 자신을 위해 조성하기 시작한 것이고, 불상은 후궁들에 의한 것이라 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¹⁶⁵⁾ 문종은 또한 강희안, 이영서, 등에게 금자로 사경을 제작하도록 하였고, 4월 대자암에서 7일 동안 법석을

159) 『世宗實錄』 권112, 세종 28년(1446) 5월 27일 갑오 “大會僧徒, 轉經于大慈菴. 初, 命集賢殿修撰李永瑞, 敦寧府注簿姜希顔等, 泥金寫經于誠寧大君第, 首陽, 安平兩大君來往監督, 越數旬而成. 至是, 大設法席, 大君諸君皆與焉. 其赴會僧, 凡二千餘, 至七日而罷, 糜費不貲”

160) 『世宗實錄』 권126, 세종 31년(1449) 11월 1일 정축 “命首陽大君, 都承旨李思哲, 行藥師齋于佛堂, 兵曹正郎金守溫從之; 安平大君 瑔行水陸齋于大慈菴, 少尹鄭孝康從之”

161) 공작명왕(孔雀明王)을 본존(本尊)으로 하여 재앙과 병마를 없애고 오래 살기를 기원하기 위하여 드리는 공양(供養).

162) 『世宗實錄』 권127, 세종 32년(1450) 1월 22일 무술 “戊戌/上不豫, 移御于興仁門外孝寧大君第, 世子乘輜隨行, 諸大君及大小侍衛軍士皆步從”

163) 『世宗實錄』 권127, 세종 32년(1450) 1월 24일 경자 “庚子/遣少尹鄭孝康于龍門山 上元寺, 設救病水陸齋. 上欲令寫『佛頂心陀羅尼』, 使僧徒讀誦. 右副承旨金倪之啓: ‘臣有家藏板本’ 卽命印之, 又命副知敦寧姜希顔, 成均注簿成任, 金書『彌陁觀音』等經, 令都承旨李思哲跋其尾, 披覽七日, 闕內皆用素膳”

164) 『文宗實錄』 권1, 문종 즉위년(1450) 2월 18일 계사 “議于承政院曰: ‘昭憲王后升遐後, 爲作八相成道之圖, 今不可更作此圖. 安平大君 瑔, 欲成金字『華嚴經』, 造紙過半, 寫經黃金, 可用四十兩, 今已備十三兩. 因此助其不足, 以成此經何如? 且大慈庵無量壽殿, 但二間, 今爲父王, 加造一間成釋迦觀音二相入安, 亦何如?’”

165) 『文宗實錄』 권1, 문종 즉위년(1450) 2월 28일 임인 “… 造佛像, 大行大王後宮所爲, 予非不知也. 然後宮, 以迫切之情而爲之, 予豈忍止之乎? 印經, 則大行大王爲寡躬, 已嘗措置, 予亦近日始知, 雖欲止之, 末由也已”

행하고,¹⁶⁶⁾ 9월에는 대자암의 극락전(極樂殿)이 완성되어 크게 불사를 행하였다.¹⁶⁷⁾ 문종 1년(1451) 세종의 기신인 2월 17일 전인 2월 15일부터 대자암에서 크게 도량을 베풀고 추천(追薦)을 빌었는데 승려 108명이 참여하여 5일 동안 이루어졌다.¹⁶⁸⁾

세종대는 효령대군, 수양대군, 안평대군 등 대군들의 불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시기로 이들의 불교신앙이 불교의례의 설행과 불교전적 간행 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세종대는 불교의 국가적 성격이 배제되면서 연산군대까지 왕실에 의한 활발한 불사가 진행되는 조선 전기 불교사에서 고려시대에서 이어진 국가불교의 성격이 배제되고 왕실불교로서 전개되는 시작점이 된다.

성종 재위 초 정희대왕대비, 인수대비에 의한 섭정이 이루어지는데, 이 시기 정희대왕대비(세조 비, 정희왕후)와 인수대비(성종모, 소혜왕후), 인혜대비(예종 비, 안순왕후) 등 왕실에 의한 각종 불사가 이루어진다. 유교정치체제를 완성하였다고 평가되는 성종의 유교의식과 사대부 세력의 강한 억불정책에도 불구하고, 선조(先祖)의 명복과 현재 왕과 왕실의 수복을 빌기 위한 왕실 사유재산을 이용한 공덕용 불사로서 국가와 무관하다는 명분하에 가능하였다.

이 시기의 불사로는 인수대비에 의한 성종 2년(1471) 정인사 중수, 성종 19년(1488) 인수대비와 인혜대비가 승려 학조에게 명한 해인사 중수가 대표적인데, 이는 모두 내수사의 재정을 이용한 것이다. 해인사 비로자나불 복장유물 중 학조가 쓴 「해인사중수기발원문」에는 약 200여 명의 시주자 명단이 있는데 귀빈, 숙의 등 후궁들과 사대부 여인들의 이름이 보인다. 성종 25년(1494) 덕종의 아들 월산대군(月山大君, 1452~1488)의 부인이 흥복사에서 불사를 행하니 사대부의 부녀자들과 사족의 부인들이 많이 모였다는 기록이 있다.¹⁶⁹⁾

166) 『文宗實錄』 권1, 문종 즉위년(1450) 4월 10일 계미 “作佛事于大慈庵, 凡七日. 前此上爲大行王, 命副知敦寧姜希顔, 正郎李永瑞, 注簿成任, 司勇安惠, 緇流七人, 用泥金寫經”

167) 『文宗實錄』 권3, 문종 즉위년(1450) 9월 17일 무오 “大慈庵極樂殿成, 窮極侈麗, 金碧耀日. 至是大設道場, 首陽以下大君, 諸君往焉”

168) 『文宗實錄』 권6, 문종 1년(1451) 2월 17일 병술 “... 自甲申日, 爲世宗, 大設道場, 追薦冥福, 僧徒一百有八, 施衣鉢, 五日而罷. 命承旨, 輪日往監其事”

169) 『成宗實錄』 권289, 성종 25년(1494) 4월 11일 기사 “司諫院正言孫澍來啓曰: ‘月山大君夫人作佛事於興福寺, 僧尼婦女徹夜混處, 此必有首唱之人, 請窮推抵罪’ ...”

2.2.2 불교전적의 국역 및 간행

세종 28년(1446) 훈민정음 반포 이후, 세종은 『석보상절(釋譜詳節)』을 정음으로 편찬하도록 하였는데, 세종대부터 시작된 불교전적의 국역은 세조대 국가적 사업으로 대대적으로 진행되었고, 성종, 연산군대에는 유신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왕실의 대비들에 의해 지속되었다. 연산군대 이후의 국역본들은 세종대~연산군대 간행본이 번각 및 후인되어 간행·유통되었다.

세종 28년(1446) 9월 훈민정음 반포 이후 이루어진 한글 불교전적 편찬 및 국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종 28년(1446) 세종은 소헌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해 그 해 12월 김수온에게 명하여 『석가보(釋迦譜)』를 증보 수찬(增補修撰)하도록 하였다.¹⁷⁰⁾ 또한 수양대군에게 명하여 『석가보』와 『석가씨보(釋迦氏譜)』를 바탕으로 『석보상절』을 국역 편찬하도록 하여 세종 29년(1447) 7월 간행하였다. 세종은 『석보상절』을 보고 석가의 공덕을 찬송하는 찬불가인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을 지어 간행하였다. 세종 28년(1446) 3월 26일 세종은 중궁을 위해 아들이 사재와 본궁(本宮)의 저축을 이용하여 불경을 간행하고자 하니 이를 허락하러 한다고 승정원에 전하였다. 이에 승지들은 이를 반대하였고, 정창손은 흥천사를 중수하고 경찬회를 설행한 이후 불교를 신봉하는 사람이 많아졌는데 또 불경을 간행한다면 폐단이 심해질 것이라며 반대하였다. 그러나 세종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¹⁷¹⁾

세조는 즉위 후 세조 5년(1459) 『월인천강지곡』을 본문으로 하고 『석보상절』을 설명으로 하여 합편한 『월인석보(月印釋譜)』를 간행한다. 세조는 호불군주로 자처할 만큼¹⁷²⁾ 불교에 우호적이었다. 수양대군 시절 『석보상절』을

170) 『世宗實錄』 권114, 세종 28년(1446) 12월 2일 을미 “命副司直金守溫, 增修釋迦譜”

171) 『世宗實錄』 권111, 세종 28년(1446) 3월 26일. “... 今中宮卽世, 兒子輩爲成佛經, 予許之, 議于政府 皆曰: ‘可’ 予惟我國連年飢荒, 民不聊生, 未可公辦, 因兒輩私畜與本宮所儲爲之... 左承旨黃守身, 左副承旨朴以昌, 同副承旨李純之曰: ‘成佛經, 於中(官)宮無絲毫補, 請罷之’ ... 昌孫曰: ‘... 然重修興天, 又設慶讚, 自是奉佛者多 今又成經, 弊不可勝言’ ... 上曰: ‘興天, 太祖所創, 不忍廢墜, 命修之 既修之, 不可無慶讚’ ... 昌孫, 緯地力諍不已, 上終不聽, 孝敬俛首而已”

172) 『世祖實錄』 권7, 세조 3년(1457) 4월 9일 임인 “... 爾嚮者論婦女上寺, 予好佛之主也, 爲婦女上寺, 所當禁也...”, 『世祖實錄』 권15, 세조 5년 2월 8일 신유 “... 孟卿因更請禁僧徒橫行, 上曰: 予好佛之主 ...”, 『世祖實錄』 권20, 세조 6년 4월 26일 임신 “... 上曰:

국역 편찬한 데 이어, 재위 시절에도 국역 불교전적의 대부분을 세조가 직접 구결(口訣)을 달 정도로 학문적으로도 불교에 조예가 깊었다. 세조대에 국역 편찬된 불교전적은 모두 12종으로, 『월인석보』 『능엄경』, 『묘법연화경』, 『금강경』, 『아미타경』, 『반야바라밀다심경』, 『선종영가집』, 『원각경』, 『목우자수심결』, 『몽산화상법어약록』¹⁷³⁾, 『사법어』이다. 이 중 대부분의 국역은 세조 7년(1461) 6월에 설치된 간경도감(刊經都監)¹⁷⁴⁾에서 이루어졌는데, 간경도감은 고려 때 대장도감(大藏都監)이나 교장도감(敎藏都監)의 선례에 따라 서울의 본사(本司)와 지방의 분사(分司)를 두고 대대적인 불교전적 간행사업을 진행하였다. 국가의 불교전적 간행 및 국역 사업을 담당하였던 간경도감의 설치는 세조 재위 시기의 가장 핵심적인 불교정책으로 평가 받고 있다(이봉춘, 2015)

세조대 이후 성종~연산군대에는 정희대왕대비, 인수대비 등 왕실 대비들에 의한 불교전적 국역과 간경도감 간행본 인출 사업이 진행되었다. 성종은 13살에 즉위하여, 성종 즉위년(1469)부터 성종 7년(1476)까지 8년간 세조의 비인 정희대왕대비에 의한 수렴청정(垂簾聽政)이 이루어졌는데, 불심이 깊은 대비들에 의한 대대적인 불교전적의 국역 간행과 인출 사업은 연산군대까지 이어진다.

성종 3년(1472) 인수대비는 세조, 예종, 덕종, 예종비, 인성대군의 명복을 빌고 정희대왕대비, 성종과 성종 비의 수복(壽福)을 빌기 위해, 대대적인 불교전적 간행 및 인출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 시기 간행본은 총 29종으로 모두 갑인자(甲寅字) 소자(小字)로 찍은 동일한 발원문이 있다. 29종 중 국역본으로는 『묘법연화경』과 『몽산화상법어약록』의 2종이 있는데, 모두 세조대 간경도감 간행본을 인출(印出)한 것이다. 성종 13년(1482)에 정희대왕대비는 『금강경삼가해(金剛經三家解)』와 『영가진각대사증도가남명전선사계송(永嘉大師證道歌南明泉禪師繼頌)』를 국역하여 간행하도록 하는데 이는 세조대에 국역을 마치고 간행하지 못한 것을 정희대왕대비가 학조(學祖)에게 교정하도록 하여 간

‘我好佛之主’讓寧對曰：‘人主好佛，其不傷財害民者鮮矣 歷歷古今成敗，皆聖鑑所洞照，吾未見其可也’上笑”

173) 김무봉(2010, p.21)은 『몽산화상법어약록』은 표기법, 언해체제, 불교 용어의 한자음 주음 위치 등을 종합해 간경도감 이전 교서관 간행본으로, 중간본 『몽산화상법어약록』이 『사법어』와 합철되어 있어 간경도감본으로 추정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174) 『世祖實錄』 권24, 세조 7년(1461) 6월 16일 을유 “初設刊經都監，置都提調 提調 使 副使 判官”

행하도록 한 것이다. 성종 16년(1485) 인수대비는 『불정심다라니경』 국역본을 간행하였고, 같은 해 역시 인수대비의 발원으로 간행된 『오대진언(五大眞言)』은 한글 음역(音譯)을 달고 있다.

연산군대에는 연산군 원년(1495) 8월에 승하한 성종의 명복을 빌기 위해 인수대비는 국역본 『묘법연화경』, 『능엄경』, 『선종영가집』, 『금강경육조해』, 『반야바라밀다심경』, 『석보상절』 6종과, 한문본 『금강경오가해』, 『육경합부』 2부를 인출하였다. 연산군 2년(1496)에는 백성들이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깨달음을 주고자 학조에게 명하여 『육조대사법보단경』과 『진언권공』을 인경목 활자로 인출하였다.

세종대 훈민정음 창제 이후 성종, 연산군대까지 간행된 국역 불교전적은 한국찬술류, 경전류, 선종 관계류, 의식의례집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한국찬술류는 세종대의 『석보상절』과 『월인천강지곡』, 세조대의 『월인석보』가 있다. 『석보상절』과 『월인석보』는 『석가보』, 『석가씨보』 외에도 『묘법연화경』, 『아미타경』, 『법원주림』 등의 여러 경전들을 저본으로 하고 있어 경전류와 관련이 있다.

경전류는 『묘법연화경』, 『능엄경』, 『금강반야바라밀경』, 『반야바라밀다심경』, 『아미타경』, 『원각경』, 『지장보살본원경』이 있는데 이들 경전은 조선시대 불교사상 형성에 주류가 되어온 한국불교 각 종파의 소의경전들이다.(이봉춘, 2015)

선종 관계류는 『선종영가집』, 『목우자수심결』, 『사법어』, 『몽산화상법어』, 『영가대사증도가남명전선사계송』 등이 있는데, 모두 세조대에 국역이 이루어졌다. 세조대 국역사업에 참여했던 혜각존자 신미는 나옹혜근(懶翁惠勤, 1320~1376)¹⁷⁵⁾ 계통의 선종 승려로, 신미의 영향에 의해 선종 서적이 국역된 것으로 보인다.(이봉춘, 2015)

175) 혜근(충숙왕 7년(1320)~우왕 2년(1376) 속명은 아원혜(牙元惠), 호는 나옹(懶翁) 또는 강월헌(江月軒). 법명은 혜근(惠勤 또는 淸勤). 1371년 왕사 대조계종사 선교도종섭 근수본지중홍조풍복국우세 보제존자(王師大曹溪宗師禪敎都摠攝勤修本智重興祖風福國祐世普濟尊者)에 봉해졌다. 참선과 교학을 같이 닦음으로써 성불의 가능성을 보여준 고승으로, 고려 말의 선종을 새롭게 선양하였다. 그가 법을 전해 받은 지공의 선풍이 공(空)의 이치를 통해 해탈한다는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혜근은 전통적인 간화선(看話禪)의 입장을 취하였다. 종래의 구산선문(九山禪門)이나 조계종과는 다른 임제(臨濟)의 선풍을 도입하여 침체된 불교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그의 『귀의자심삼보(歸依自心三寶)』의 주장과 ‘염불은 곧 참선’이라고 한 것은 이후의 우리나라 선종에서 계속 전승되었다.

의식의례집은 간경도감 폐지 이후 인수대비의 명으로 신미의 제자인 학조에 의해 『불정심다라니경』, 『오대진언』, 『진언권공』이 국역되었다.

세종~연산군대에 이루어진 불교전적 국역의 의의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 분석이 이루어졌다. 국왕의 권위 선양 및 왕업의 과시 등 정치적 의도로 파악하거나, 불교 대중화 운동, 불교의 사상적 중흥, 유교국가의 체제 안에서 불교를 국가 통치에 일정한 기능을 하도록 했다는 불교 토착화 사업으로 보기도 한다.¹⁷⁶⁾

176) 최병헌(1993)은 조선시대 불교 문헌의 성립에 대해 정치적 의도, 불교대중화 운동, 불교 토착화사업이 세 가지 면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봉춘(2015)은 불전 연해 사업의 사상적 이념은 불교 대중화운동, 불교의 사상적 중흥, 선교일체의 교의 확립으로 정리하였다. 김기종(2012)은 세종이 유교국가의 틀 안에서 불교를 '순화'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석보상절』과 『월인천강지곡』을 편찬하였다고 보았다. 손성필(2013)은 15세기 조선의 승정체제를 개혁하여 국가체제 안에 승정체제를 존속시켜 불교를 국가 통치에 일정한 기능을 하도록 했다고 보았다.

2.3 조선 전기 왕실본의 선정과 현황

조선 전기는 건국 초기부터 왕과 왕비 그리고 대군, 공주 등 왕실 구성원들이 불교전적을 사성 또는 간인(刊印)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상(佛像)을 조성하거나 불화(佛畵)를 제작하는 등 부처에게 공양하는 불사를 직접 주도하거나 간접적으로 참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왕실, 왕실불교, 왕실불사, 왕실판본 등에 대한 선행 연구는 서지학계, 역사학계, 불교학계, 국어학계, 미술사학계 등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기존 연구에서 왕실의 범위는 대체로 왕과 비빈(妃嬪)들을 포함하여 그 직계자손으로, 대군과 군, 공주 및 옹주까지로 한정하고 있다. 조선 전기 왕실의 불교신행 관련 연구에서는 왕실의 범위를 왕을 기준으로 왕과 비빈(妃嬪)들과 대군과 군을 포함하여 그 직계자손으로 한정하였고(고종호, 2013), 조선시대 왕실불사의 재원 연구에서 왕실구성원을 왕의 왕자군, 공주 및 옹주, 종친으로 한정하였다(김정희, 2014). 15세기 왕실 발원 불상에 대한 연구에서는 왕실을 임금과 종친인 대군과 군, 비빈들로 한정하였다(오은주, 2017).

왕실불교에 대한 연구에서는 불교신앙이 깊은 비빈, 대군, 종친 등 왕실의 인물들을 왕실 불교세력이라고 일컫고, 불심이 깊은 왕을 숭불주(崇佛主)라고 칭하기도 하였다.(이봉춘, 2001)

불교미술사학 분야의 불교변상판화 연구 중에는 왕실본을 왕실에서 발원한 간행본만을 지칭하던 범위에서 나아가 왕실과 혈연 또는 친족관계를 맺고 있는 왕실의 일원들이 직접 발원하거나 시주한 경우를 포함하기도 하였다.(김자현, 2017)

서지학계의 선행연구에서는 조선시대 국왕 및 대군, 왕비, 빈들이 사적으로 속죄하거나 공덕을 쌓기 위하여 또는 살아 있는 사람의 수복을 기원하거나 죽은 자의 명복을 빌기 위해 불교전적을 간행한 것을 ‘국왕 및 왕실판’ 또는 ‘국왕 및 왕실판본’이라고 하였다.(천혜봉, 2005)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내용을 바탕으로 왕실의 범위는 왕비, 왕의 부모, 후궁, 왕자, 공주, 옹주 등 왕의 직계가족과 그들의 궁방¹⁷⁷⁾으로 하고, 왕실본은 왕실 구성원이 발원의 주체가 되어 사성 및 간행한 불교전적을 선정하였다. 서지조사를 통해 파악한 조선 전기 왕실본 현황을 도표화하여 정리하면 아래의 <표 2>와 같다.

<표 2> 조선 전기 왕실본

번호	서명	간행년	판본	발원 주체
1	楞嚴經	태종 1년(1401)	木板本	태조
2	妙法蓮華經	태종 1년(1401)	木板本	태조
3	紺紙銀泥妙法蓮華經	[태종 8년(1408) 이전]	사경	익안대군
4	父母恩重經	세종 14년(1432)	木板本	명빈 김씨
5	釋譜詳節	세종 29년(1447)	初鑄甲寅字本	세종
6	月印千江之曲	세종 29년(1447)	初鑄甲寅字本	세종
7	地藏菩薩本願經	세종 29~30년 (1447~1448))	木板本	영응대군
8	妙法蓮華經	세종 30년(1448)	木板本	안평대군
9	舍利靈應記	세종 31년(1449)	初鑄甲寅字本	세종
10	妙法蓮華經	세종 32년(1450)	初鑄甲寅字本	세종
11	涵虛堂得通和尚顯正論	세종 32년(1450)	初鑄甲寅字本	안평대군
12	白紙金泥金剛般若波羅密經	세종 32년(1450)	사경	신빈 김씨
13	白紙金泥父母恩重經	[세종 23년(1441)~ 성종 17년(1486)]	사경	효령대군
14	白紙金泥長壽滅罪護諸童子 陀羅尼經	[세종 23년(1441)~ 성종 17년(1486)]	사경	효령대군
15	妙法蓮華經	문종 1년(1451)	木板本	세종
16	妙法蓮華經	세조 1년(1455)	乙亥字本	의경세자 비 한씨
17	楞嚴經	세조 3년(1457)	乙亥字本	세조
18	大乘起信論疏	세조 3년(1457)	初鑄甲寅字本	세조
19	般若波羅蜜多心經略疏	세조 3년(1457)	乙亥字本	세조
20	翻譯名義集	세조 3년(1457)	乙亥字本	세조
21	翻譯名義集	[세조 3년(1457)]	木板本	세조
22	永嘉眞覺大師證道歌	[세조 3년(1457)]	初鑄甲寅字本	세조

177) 조선시대 왕실의 일부였던 궁실(宮室)과 왕실에서 분가, 독립한 궁가(宮家)의 통칭. 궁실은 왕과 선왕의 가족 집안을 뜻하며 궁가는 역대 여러 왕에서 분가한 왕자·공주들의 종가를 의미한다.

번호	서명	간행년	판본	발원 주체
23	永嘉眞覺大師證道歌	세조 3년(1457)	乙亥字本	세조
24	金剛經五家解	세조 3년(1457)	丁丑字本	세조
25	妙法蓮華經	세조 3년(1457) 중간본	初鑄甲寅字本	세조
26	月印釋譜	세조 5년(1459)	木板本	세조
27	妙法蓮華經	세조 5년(1459)	木板本	광평대군 부인 신씨
28	天台四敎儀集解	세조 6년(1460)	乙亥字本	세조
29	天台四敎儀集解	세조 6년(1460)	木板本	세조
30	楞嚴經	세조 7년(1461)	乙亥字本	세조
31	圓覺經	세조 3~7년 (1457~1461)	乙亥字本	세조
32	圓覺經	세조 11년(1465)	乙酉字本	세조
33	地藏菩薩本願經	예종 2년(1469)	木板本	정의공주
34	妙法蓮華經	성종원년(1470)	木板本	정희대왕대비
35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	성종원년(1470)	木板本	정희대왕대비
36	圓覺經	성종 3년(1472)	木板本	인수대비
37	蒙山和尚法語略錄	성종 3년(1472)	木板本	인수대비
38	妙法蓮華經	성종 3년(1472)	木板本	인수대비
39	妙法蓮華經三昧懺法	성종 3년(1472)	木板本	인수대비
40	般若波羅密多心經疏	성종 3년(1472)	木板本	인수대비
41	佛祖歷代通載	성종 3년(1472)	木板本	인수대비
42	禪宗永嘉集	성종 3년(1472)	木板本	인수대비
43	六經合部	성종 3년(1472)	木板本	인수대비
44	眞實珠集	성종 3년(1472)	木板本	인수대비
45	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	성종 5년(1474)	木板本	정희대왕대비
46	禮念彌陀道場懺法	성종 5년(1474)	木板本	정희대왕대비
47	地藏菩薩本願經	성종 5년(1474)	木板本	정희대왕대비
48	金剛經三家解	성종13년(1482)	丁丑字(大字), 乙亥字(中·小字)	정희대왕대비
49	永嘉大師證道歌南明泉禪師繼頌	성종13년(1482)	乙亥字本	정희대왕대비
50	六經合部	성종14년(1483)	木板本	안순대비
51	佛頂心陀羅尼經	성종16년(1485)	木板本	인수대비
52	五大眞言	성종16년(1485)	木板本	인수대비
53	禪宗永嘉集	연산군원년(1495)	木板本	인수대비, 정현왕후
54	六祖大師法寶壇經	연산군 2년(1496)	木活字本	인수대비, 정현왕후
55	眞言勸供	연산군 2년(1496)	木活字本	인수대비, 정현왕후
56	天地冥陽水陸雜文	연산군 2년(1496)	木活字本	인수대비, 정현왕후

위의 표에 의하면, 태종대부터 연산군대에 이르기까지의 왕실본 총 56종이 현전하고 있다. 이를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기별로 간행 현황을 살펴보면, 태조·정종대에는 간행본이 없으며, 태종대에는 『능엄경』, 『묘법연화경』의 경전류 간행본 2종과 사경 1종이 전해져 전체 56종 중 5.35%이고, 세종대에는 경전류 간행본 4종, 한국찬술류 간행본 4종, 사경 3종의 총 11종이 전해져 19.64%, 문종대에는 『묘법연화경』 1종의 1.78%가 전해지며, 세조대에는 경전류 9종, 한국찬술류 1종, 장소류 3종, 선종(禪宗)류 2종, 천태종류 2종의 총 17종이 전해져 30.35%에 이른다. 예종대에는 경전류 1종으로 1.78%, 성종대는 가장 많은 불교전적이 전해지는데 경전류가 8종, 장소류 3종, 선종류 4종, 의식의례집 4종의 총 19종으로 33.92%를 차지한다. 연산군대는 선종류 2종, 의식의례집 2종의 총 4종으로 7.14%이다.

둘째, 56종을 발원의 주체에 따라 왕의 명찬본과 왕실 사성 및 간행본으로 나누어보면, 왕의 명찬본은 22종으로 39.28%, 왕실 사성 및 간행본은 60.71%이다.

셋째, 56종 중 한글 편찬본은 3종으로 5.35%, 국역본은 11종으로 19.64%로 국역본 중 언해본은 10종, 언토본은 1종이다.

Ⅲ. 태종, 세종, 문종 시대 왕실본 분석

3.1 태종 시대 사성(寫成) 및 간행본

3.1.1 태조 명찬(命撰)본

태종대의 간행본으로는 태상왕 태조의 명에 의해 태종 1년(1401)에 간행된 『능엄경』과 『묘법연화경』의 경전류 2종이 전해진다.

태종 1년(1401) 태상왕 태조는 신충(信聰)에게 『능엄경』과 『묘법연화경』을 대자(大字)로 판하본(板下本)을 쓰게 하여 목판본으로 간행하였다. 현전하는 『묘법연화경』에는 간행기록이 없으며 『능엄경』의 권근의 발문(跋文)을 통해 두 경전이 함께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¹⁷⁸⁾. 발문에 의하면 각수(刻手)는 명호(明昊), 선관(善觀), 중오(中悟), 혜공(惠空), 지부(知孚), 김오(金悟), 노신(盧信), 임득중(任得中), 김윤(金潤), 최구(崔口), 최유(崔有)이고, 간역(刊役)의 감독관은 윤백안(尹伯顔)이 맡았다¹⁷⁹⁾.

현재 『능엄경』은 3종이 전해지는데, 이를 도표화하면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태종 1년(1401) 간행 『능엄경』

서명	저자	판본	간행년	판식	소장처
楞嚴經. 卷1~10	般刺蜜帝(唐) 譯 ; 戒環(宋) 解	木板本	太宗 1 (1401)	四周雙邊 半郭 27.9×18.2 cm, 無界, 8行20字 註雙行 ; 38.4×22.7 cm	국립중앙박물관 보물 759호
楞嚴經. 卷9~10	"	"	"	四周雙邊 半郭 27.5×18.4 cm, 無界, 8行20字 註雙行 ; 33.4×20.8 cm	통도사 보물 1195호
楞嚴經. 卷2, 3, 4	"	"	"	四周雙邊 半郭 26.7×18.0 cm, 無界, 8行20字 註雙行 ; 37.2×21.0 cm	기림사 보물 959-4-3호

178) 太宗 1年(1401) 卷10 權近의 跋文 ‘太上王殿下命書 御覽 仍命鈐梓 以廣其傳者也 盖欲追福 … 以安幽明命臣近跋’

179) 太宗 1年(1401) 卷10 ‘建文3年(1401)5月日 前楊井寺住持勸修本智佑世大師 信聰書 刻手大德 明昊, 善觀, 中悟, 惠空, 知孚, 金悟, 盧信, 任得中, 金潤, 崔口, 崔有’

『능엄경』은 국립중앙박물관에 10권 5책의 완질이 전해진다(보물 제759호). 통도사에는 권9, 10(보물 제1195호)가 남아있으며, 기림사(祇林寺) 소장본 권2, 3, 4는 비로자나불(毘盧舍那佛) 복장(腹藏) 나온 절첩본(折帖本)으로 낙장(落張) 없이 온전한 상태이다. 국립중앙박물관본은 권1의 서문(序文)과 권수 제면(卷首題面)을 포함한 1~4장이 결락(缺落)되었고, 권10 발문의 하단이 떨어져나가 일부 문구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통도사본 권10에서 완전한 발문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능엄경』 권10 말 권근의 발문(보물 제1195호)

출처 : 국가문화유산포털(<http://www.heritage.go.kr>)

태종 1년(1401)에 간행된 『묘법연화경』은 모두 절첩본 형태로, 현재 목아불교박물관에 권1(보물 제1145호), 통도사에 권2(보물 제1194호), 호암미술관에 권3(보물 제968호)이 전해진다. 현전본 중 간기가 있는 권7이 남아있지 않아 정확한 연대를 알 수 없지만 『능엄경』 발문 기록과 같은 글자체로 보아 같은 시기의 것으로 본다. 현전 현황을 도표화하면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태종 1년(1401) 간행 『묘법연화경』

서명	저자	판본	간행년	판식	소장처
妙法連華經. 卷一	鳩摩羅什(姚秦) 奉詔譯 ; 戒環(宋) 解	木板本	太宗 1 (1401)	折帖裝 1卷 1帖 : 上下單邊 半郭 20.3 cm, 無界, 36行17字 ; 26×10.6 cm	목아불교박물관 보물 1145호
妙法連華經. 卷二	"	"	"	折帖裝 1卷 1帖 : 上下單邊 半郭 20.3 cm, 無界, 36行17字 ; 33×10.9 cm	통도사 보물 1194호
妙法連華經. 卷三	"	"	"	折帖裝 1卷 1帖 : 上下單邊 半郭 20.3 cm, 無界, 36行17字 ; 32.9×11.0 cm	삼성미술관 리움 보물 968호

태종 1년(1401)에 간행된 목아박물관 소장 권1은 감색의 표지에 금니로 표제(標題)가 적혀있으며, 권수에 있는 변상도(變相圖)의 기본 도상은 고려 충렬왕 12년(1286) 간행본(보물 제693호)와 일치하나 장식적인 면이 부각되었다.(박도화, 1997) 리움박물관 소장의 권3은 불상 안에서 나온 것으로 앞뒤의 표지가 떨어졌으나 보존 상태가 양호하다.

3.1.2 왕실 사성(寫成) 사경

태종대에 왕실에 의해 사성(寫成) 된 사경으로는 태조의 셋째 아들인 익안대군(益安大君)¹⁸⁰⁾이 발원한 『감지은니묘법연화경(紺紙銀泥妙法蓮華經)』(절첩: 35.1×11.9cm, 21.9×46.8cm) 권5 1종이 현재 일본 교토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장충식, 1994) 사성기(寫成記)¹⁸¹⁾에 의하면 아버지인 태상왕과 상

180) 익안대군(益安大君, ? ~1404) 이름은 방의(芳毅). 태조의 셋째 아들이고, 신의왕후 한씨(神懿王后 韓氏)의 소생으로, 이방과(李芳果: 뒤의 정종)의 아우이며, 이방원(李芳遠: 뒤의 태종)의 형이다. 1392년 태조가 즉위하자 익안군(益安君)에 봉해졌으며, 1398년(태조 7)의 제1차 왕자의 난과 1400년(정종 2)의 제2차 왕자의 난에 아우 방원(芳遠:太宗)을 보좌하여 정사공신(定社功臣) 1등과 좌명공신(佐命功臣) 2등에 각각 책록되고, 정1품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에 올랐다. 1398년 개국공신(開國功臣) 1등에 추록(追錄)되고 1400년(태종 즉위) 대군이 되었다. 정종의 묘정(廟庭)에 배향되고, 마한공(馬韓公)에 추봉되었다.

왕(정종)과 그의 비 정안왕후(定安王后), 주상과 왕비, 원자 등의 수복무강(壽福無疆), 신의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해 정혜옹주(貞惠翁主, 태종의 서녀) 등과 함께 발원¹⁸²⁾하여 제작한 것으로, 태상왕의 수복을 빌고 있어 익안대군으로 봉해진 태종 즉위년(1400)부터 그의 사망 해인 태종 4년(1404) 사이에 완성된 것으로 추정한다. 변상도는 석가의 설법 장면인 영산회상도와 경문의 내용을 설명한 설화도가 그려진 『묘법연화경』 사경 변상도의 일반적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본문은 은니로 필사하였으나 변상도는 금니로 그려져 있다.

3.2 세종, 문종 시대 사성 및 간행본

3.2.1 세종 명찬본(命撰本)

세종, 문종대 간행본은 『석보상절』, 『월인천강지곡』, 『사리영응기』, 『묘법연화경』의 4종으로 모두 세종의 명에 의해 간행되었으며, 초주갑인자로 인출하였다. 『묘법연화경』 1종이 경전류이고 나머지 3종은 모두 한국찬술류이다. 이들 불교서적 4종의 간행경위 및 현존본의 서지적 특징을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석보상절』은 세종 29년(1447) 7월부터 세종 31년(1449) 2월 사이에 간행되었다고 여겨진다. 이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의 권9 뒷부분 표지 안쪽의 묵서지기(墨書識記)에 근거한다.¹⁸³⁾ 세조 5년(1459)에 간행된 『월인석보』 권1의 「석보상절서(釋譜詳節序)」와 「어제월인석보서(御製月印釋譜序)」에 의하면, 소헌왕후의 추천(追薦)을 위해 세종의 명으로 수양대군이 편찬하여 훈민정음으로 번역한 책이다. 실록의 기록으로는 『석보상절』 편찬에 대한 내

181) 『감지은니묘법연화경』 사성기 “定社臣益安大君芳毅 竊荷祖宗毓之蔭早享鼎食 恩庇罔極 思所以憑茲 學皇慈授曷報其萬一端祝 太上王殿下壽等躋天 神懿王后在天之靈躋攀樂階 上王殿下永興 大妃長享五福 主上殿下負屨萬萬春秋 靖妃殿下椒蘭衍慶 金枝永茂 元子千秋 宗室康寧 臣忠子孝 國治民樂 次願已躬并同室貞惠翁主崔氏 兼枝一家 曰子曰女 現增壽福 當生樂鄉 敬捨淨賄 銷銀染楮 謄寫蓮經 用以流通 讀佛慧命 轉利無窮 …”

182) 施主 奮忠仗義同德開國靖難定社功臣益安否君 芳毅同室 貞惠翁主 崔氏

183) 『釋譜詳節』 권9말 墨書識記 “正統拾四年(1449)貳月初四日 嘉善大夫黃海道觀察黜陟使 兼兵馬都節制 使兼判海州牧使申”

용을 찾아볼 수 없고, 다만 세종 28년(1446) 12월 김수온에게 『석가보』를 증보 수찬하게 하였다는 기록이 있는데,¹⁸⁴⁾ 중국 남북조시대의 승려 승우(僧祐)가 편찬한 『석가보』나 당나라 도선(道宣)의 『석가씨보(釋迦氏譜)』를 가리키는 것으로 『석보상절』의 저본(底本)을 만들게 한 것으로 보인다.(이호권, 2003)

『석보상절』은 『석가보』와 『석가씨보』를 합하고, 『묘법연화경』, 『지장보살본원경』, 『아미타경』, 『약사경』 등을 참조하여 석가의 일대기를 편찬한 책으로, 훈민정음을 이용하여 제작된 최초의 산문이자 최초로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를 반영한 문헌으로 15세기 국어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총 24권으로 간행되었으나 현재 전해지는 것은 권6, 9, 13, 19, 20, 21, 23, 24의 8권 8책이다. 현전 현황을 도표화하면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세종대 간행 『석보상절』

서명	저자	판본	간행년	판식	소장처
釋譜詳節. 卷6, 9, 13, 19	首陽大君(朝鮮) 受命撰	初鑄 甲寅字本	[世宗 29 (1447) ~ 世宗 31 (1449)]	4冊: 四周單邊 半郭 22.0×15.9 cm, 8行15字 註雙行, 黑口, 內向黑魚尾 ; 30.0×23.7 cm	국립중앙도서관 보물 523호
釋譜詳節. 卷23, 24	"	"		不分卷1冊: 四周單邊 半郭 21.4×15.7 cm, 無界, 16行52字 註雙行, 上中下黑口, 內向黑魚尾 ; 30.5×20.8 cm	동국대학교 도서관 보물 523-2호
釋譜詳節. 卷20, 21	"	"		-	개인소장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의 권6, 9, 13, 19(보물 523호)는 황해도 어느 사찰의 납탑본(納塔本)으로 1935년에 학계에 소개되었다. 책머리에 ‘교정(校正)’의 붉은 도장이 찍혀 있고, 본문에는 활자가 잘못 찍힌 것이나 초고에서 잘못된 것을 교정하여 난외에 정오(正誤) 표시를 한 교정본이다. 『석보상절』의 교정은 동국정운식 교정 한자음 표기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작업으로, 잘못 표기

184) 『世宗實錄』 권114, 세종 28년(1446) 12월 2일 을미

된 오류를 수정하고 복수음을 가진 한자의 경우 용법의 차이에 따라 표기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 교정본에서 교정한 내용은 세조대에 편찬되는 『월인석보』에 반영되고 있다.¹⁸⁵⁾(유근선, 2014)



〈그림 2〉 『석보상절』 권6의 권수제면(보물 제523-2호)

권20, 21은 개인소장본으로, 이 두 책은 납탑본(納塔本)으로 두 권이 한 책으로 묶여 있었다.(천혜봉, 1990) 1990년 소개 당시 권20은 전체 53장으로 권수의 첫 장이 떨어져 나가고 2장~15장이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으며, 권21은 전체 65장으로 추정하며 64, 65장이 낙장이고 60~63장이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다. 현재 공개되지 않고 있다.

동국대학교 도서관 소장의 권23, 24의 2권 2책은(보물 523-2호) 1966년 동국대학교 동악어문학회에서 학계에 소개한 것으로 원래 2권 1책으로 장정되어 있다가 후에 새롭게 2권 2책으로 개장한 것이다.

초간본 외 복간본으로는 권3(개인소장)과 권11(리움미술관 소장, 보물 523-3호)의 2권 2책이 전해진다.

185) 유근선(2014)은 『석보상절』 교정본(권 6, 9, 13, 19)와 『월인석보』의 한자음 표기를 비교하여 교정본의 교정 내용이 반영되었는지를 대조하여 ‘上’, ‘行’을 제외한 모든 표기가 반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上’과 ‘行’은 『석보상절』 내에서도 교정의 여부가 달라 교정자가 한자의 용법을 해석한 방식의 차이로 파악하였다.

둘째, 세종이 지은 찬불가인 『월인천강지곡』은 『석보상절』과 마찬가지로 「석보상절서」와 「어제월인석보서」에 간행 경위가 기록되어 있는데, 수양대군이 『석보상절』을 편찬하여 올리자 세종이 석가의 공덕을 찬송하는 『월인천강지곡』을 지었다. 실록에서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으며, 간행시기가 명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 「석보상절서」를 작성한 세종 29년(1447) 7월 25일부터 세종 31년(1449)까지로 추정한다. 『석보상절』과 『월인천강지곡』은 모두 초주갑인자로 인출하여 활자와 판식이 같다. 『월인천강지곡』은 현재 1종이 전해지는데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세종대 간행 『월인천강지곡』

서명	저자	판본	간행년	판식	소장처
月印千江之曲. 卷上	世宗(朝鮮) 御撰	初鑄 甲寅字本	[世宗 29 (1447) ~ 世宗 31 (1449)]	1冊(71張): 四周雙邊 半郭 20.6×17.3 cm, 有界, 7行字數不定 註雙行, 黑口, 內向黑魚尾 ; 31.6×21.6 cm	(주)미래엔 소장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기탁 국보 320호

『월인천강지곡』은 상, 중, 하의 3권으로 간행되었으나 현재 권상의 1책이 한국한중양연구원 장서각에 기탁 관리되고 있다. 권상의 1책도 3분의 1 정도가 남아있는 영본(零本)이나, 훈민정음 창제 이후 가장 빠른 시기에 세종이 직접 짓고 초주갑인자 금속활자로 간행되어, 한글 창제 후 초기의 국어학 연구와 출판인쇄사를 연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문헌이다. 보물 제398호에서 2017년 1월 국보 제320호로 승격 지정되었다. 낙장으로는 권상과 권중의 7장 14면이 전해지는데,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석보상절』과 『월인천강지곡』의 인쇄에 사용된 활자는 한자(漢字)는 ‘갑인자 소자’를 사용하고, 한글은 ‘갑인자 병용 한글대자’를 새로 주조하여 사용하였다. 갑인자 병용 한글대자는 세종이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처음 주조한 한글 금속활자인 점에서 가치가 크다.(옥영정, 2017) 이 한글 활자는 『사리영웅기』의 인명 표기에도 쓰였으나 그 뒤로는 폐기된 것으로 보인다.(강순애, 2001)

셋째, 세종 31년(1449)에 간행한 『사리영응기』는 세종 30년(1448) 12월 내불당 재건을 완료한 후 열린 경찬회¹⁸⁶⁾에서 부처님 사리를 보고 세종이 김수온(金守溫, 1410~1481)에게 명하여 편찬하도록 한 것이다.

『사리영응기』는 내불당의 조성 경위와 불상 조성 경위, 「삼불예참문(三佛禮懺文)」, 신성(新聲)의 제작, 불당 낙성식의 제반 사항, 불당 안에서의 사리 분신의 이적, 김수온의 논평 및 4언 46구의 한시, 법회에 참석한 261명의 명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리영응기』에 제시되어 있는 세종이 지은 신곡 즉, ‘친제신성(親制新聲)’은 「양홍자지곡(仰鴻慈之曲)」, 「발대원지곡(發大願之曲)」, 「용선도지곡(隆善道之曲)」, 「묘인연지곡(妙因緣之曲)」, 「포법운지곡(布法雲之曲)」, 「연감로지곡(演甘露之曲)」, 「의정혜지곡(依定慧之曲)」의 7곡이다. 그리고 수록된 악장은 총 9편으로 「귀삼보(歸三寶)」, 「찬법신(贊法身)」, 「찬보신(贊報身)」, 「찬화신(贊化身)」, 「찬약사(贊藥師)」, 「찬미타(贊彌陀)」, 「찬삼승(贊三乘)」, 「찬팔부(贊八部)」, 「희명자(希冥資)」¹⁸⁷⁾이고, 각 편은 5언 6구의 한시로 되어 있다. 세종의 친제신성은, 단순한 노래가 아닌 가(歌)·무(舞)·악(樂)으로 구성된 정재(呈才)¹⁸⁸⁾이다. 정재는 무동의 춤과, 다수의 아악기(雅樂器) 및 동발(銅鉢)¹⁸⁹⁾이 포함되는데, 이는 친제신성이 제례악(祭禮樂)¹⁹⁰⁾에

186) 『世宗實錄』 권122, 세종 30년(1448) 12월 5일 정사 “丁巳/佛堂成, 設慶讚會, 凡五日而罷 … ”

187) 『사리영응기』 본문 中 “初, 太祖康獻大王, 以黃金鑄三身如來, 未就而賓天. 至是, 上命, 行僉內侍府{事 臣韓洪, 同判內侍府{事 臣田昀堅, 行司直 臣金南治, 行副司直 臣姜升, 左副承直 臣崔滉, 行內侍府謁者 臣金潔, 率巧冶, 踵成遺制. 兼造藥師彌陀及菩薩羅漢像, 塔臨瀛大君臣瑬, 領之. 命大慈庵住持臣信眉及臣守溫, 撰三佛禮懺文. 又親制新聲, 仰鴻慈之曲, 發大願之曲, 隆善道之曲, 妙因緣之曲, 布法雲之曲, 演甘露之曲, 依定慧之曲. 其樂章則有九, 曰歸三寶, 曰贊法身, 曰贊報身, 曰贊化身, 曰贊藥師, 曰贊彌陀, 曰贊三乘, 曰贊八部, 曰希冥資.”

188) 궁중에서 여령(女伶)이나 무동, 지방 관아에서 기녀들이 공연했던 악가무(樂歌舞)의 종합 예술. 정재라는 용어의 첫 번째 뜻은 ‘재주를 보인다’는 광의의 의미로 쓰였다. 『釋譜詳節』에 “정재는 재주를 남에게 보이는 것이니, 놀이하러 남에게 보이는 것을 정재라 한다”라는 용례가 있다. 두 번째 뜻은 헌기(獻技), 즉 춤뿐만 아니라 모든 재예(才藝)를 드러내는 것이었는데, 이것을 차츰 궁중무의 대명사처럼 사용하였다.

189) 금부(金部) 무율타악기(無律打樂器). 늦쇠로 만들어졌으며, 냄비 뚜껑같이 생긴 둥그런 원반 2개의 늦쇠 판을 서로 부딪쳐서 소리를 내는 것인데, 늦쇠 판 중앙의 불룩하게 솟은 부분에 구멍을 뚫고 거기에다 끈을 꿰어 그것을 좌우 양손에 잡고 친다.

190) 제악(祭樂)이라고도 한다. 조선 말기까지 원구제(圓丘祭)·사직제(社稷祭)·종묘제(宗廟祭)·문묘제(文廟祭), 기타 선농(先農)·선잠(先蠶)·우사(雩祀)·경모궁(景慕宮)·관왕묘(關王廟) 등의 제향이 있어 그에 따른 제례음악이 연주되었으나 1910년 이후 거의 폐지되고, 지금까지 전하여지고 있는 것으로는 문묘제제악과 종묘제제악이 있다.

준하는 성격을 갖고 있으며, 불교의례와 관련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김기종, 2014)

현재 초주갑인자본은 고려대학교와 동국대학교 도서관에서 소장되어 있다. 발문에 김수온이 기록했다는 내용¹⁹¹⁾이 있으며, 간행기록은 따로 없으나 권수에 간행년¹⁹²⁾이 보인다. 현황을 도표화하면 아래의 <표 7>과 같다.

<표 7> 세종 31년(1449) 간행 『사리영응기』

서명	저자	판본	간행년	판식	소장처
舍利靈應記	金守溫 (朝鮮) 記	初鑄 甲寅字本	世宗 31 (1449)	1冊(24張)：四周單邊 半郭 21.9×15.8 cm, 有界, 9行15字 小字雙行, 上下內向黑魚尾； 30.5×19.7 cm	고려대학교
舍利靈應記	"	"	"	1冊(24張)：四周單邊, 半郭 22.0×15.9 cm, 有界, 9行15字, 註雙行, 上下大黑口, 內向黑魚尾； 30.3×19.8 cm	동국대학교 도서관

넷째, 세종 32년(1450)에 초주갑인자로 간행한 『묘법연화경』 권3과 권5~7이 전해지며, 아래 <표 8>과 같이 계명대학교 도서관과 대일사에 소장되어 있다.

<표 8> 세종 32년(1450) 간행 『묘법연화경』

서명	저자	판본	간행년	판식	소장처
妙法蓮華經. 卷3	鳩摩羅什(姚秦) 奉詔譯； 戒環(宋) 解	初鑄 甲寅字本	世宗 32 (1450)	東裝1冊(零本)：四周單邊, 半郭 26.5×16.3 cm, 有界, 10行18字, 下向黑魚尾； 35.5×21.5 cm	계명대학교 도서관
妙法蓮華經. 卷5~7	"	"	"	-	대일사

191) 『사리영응기』跋文 ‘承義郎守兵曹正郎臣金守溫(朝鮮)謹記’

192) 『사리영응기』권수 기록 ‘上之三十有一年(1449)秋七月十九日癸卯’

권말 김수온의 발문에 의하면 세종은 동궁이던 문종의 병이 심해지자 안평대군, 금성대군(錦城大君)¹⁹³, 이사철(李思哲), 정효강(鄭孝康), 이영서(李永瑞), 이명민(李命敏) 등에게 왜저지(倭楮紙)를 사용하여 『화엄경』을 목판으로, 『묘법연화경』을 주자(鑄字)로 각각 33부 인쇄하도록 하였다.¹⁹⁴ 세종 32년(1450) 2월 17일 세종이 승하한 후 불경을 인쇄하는 것에 대신들이 반대하자, 문종은 불경은 아버지인 세종이 자신의 병을 위해 조성하기 시작한 것이라 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¹⁹⁵

3.2.2 왕실 사성 및 간행본

1) 사경

세종대 왕실 발원 사경은 세종 32년(1450) 사성된 사경과 세종 23년(1441)에서 성종 17년(1486) 사이에 사성된 사경의 2종의 총 3종이 전해진다.

첫째, 세종 32년(1450) 세종의 후궁인 신빈 김씨(愼嬪 金氏)가 제작한 『백지금니금강반야바라밀경(白紙金泥金剛般若波羅密經)』(절첩, 31.2×12.7cm)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장충식, 1994) 발문에 의하면 신빈 김씨가 죽은 막내아들 담양군의 극락왕생을 빌며 발원하였으며, 발문 다음의 묵서(墨書) 지기(識記)¹⁹⁶에 의하면 안평대군이 필사하였다.

둘째, 백지에 묵서로 『부모은중경(父母恩重經)』과 『장수멸죄호제동자다라니경(長壽滅罪護諸童子陀羅尼經)』을 함께 사경한 절첩본이 천안 광덕사(廣德

193) 금성대군(1426~1457) 이름은 유(瑜). 어머니는 소헌왕후 심씨. 세종의 여섯째 아들이며 단종의 숙부, 수양대군(뒤의 세조)의 동생이다. 1433년(세종 15) 금성대군으로 봉해지고, 1437년 자식이 없는 방석(芳碩)의 후사로 입적되었다.

194) 세종 32년(1450) 『묘법연화경』 권7말 김수온의 발문 ‘今年正月 又得斯病 比前由劇 … 乃於閏正月十九日 命安平大君臣瑔 錦城大君臣瑜 都承旨臣李思哲 司僕少尹臣鄭孝康 校書校理臣李永瑞 戶曹佐郎臣李命敏等 作倭楮紙 印華嚴法華各三十三部 華嚴則木板 法華則鑄字 皆吮油煙 貴其香潔而光華也 … 景泰元年(1450) 金守溫 跋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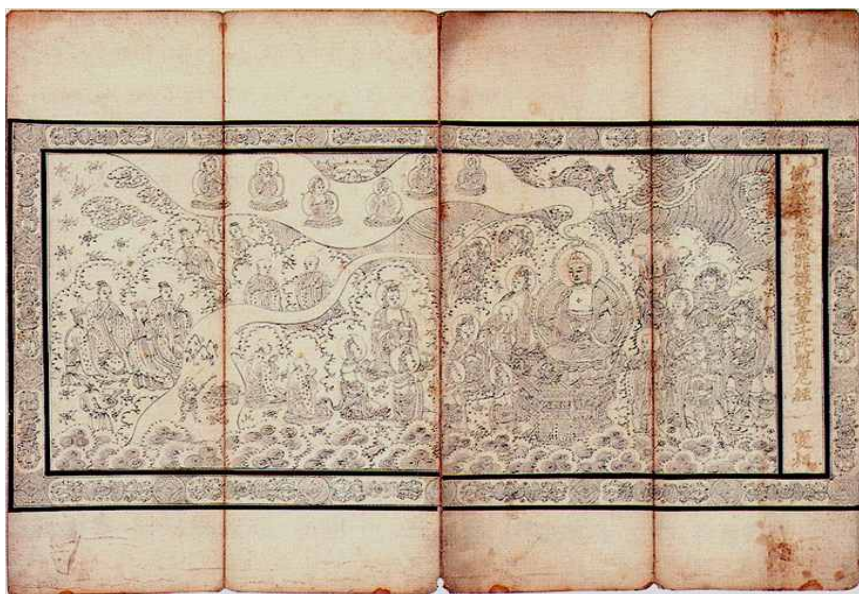
195) 『文宗實錄』 권1, 문종 즉위년(1450) 2월 28일 임인 “司諫院上疏曰: … 今聞印經造佛 糜費不貲 臣等缺望 不敢緘默. 夫天地生財 只有此數民 雖勤力南畝 一仰於食 猶爲不足於用 況印經造佛之費 米幾石也 布幾匹也? 京都士女 競趨樂勸 瞻奉捨施 惟恐不及 弊將若何? 連年飢歉 不免救荒 今年歲事 不可逆料也. 迫薦佛事 雖未能遽止 命罷印經造佛之役 以副臣僚之望. 上曰: ‘造佛像 大行大王後宮所爲 予非不知也 然後宮 以迫切之情而爲之 予豈忍止之乎? 印經 則大行大王爲寡躬 已嘗措置 予亦近日始知 雖欲止之 未由也已’ ”

196) ‘安平大君名瑔字清之 世宗第三子也號匪懈堂書法爲東方第一且 能詩章結文學之士優游酬唱於太 平之世以此最見忌忤卒以禍死而 亦不知死在何時坐以何言也蓋以 浮華取云 …’

寺)에 남아 있는데(보물 1247호 사경 3종 중 1건) 권말 시주질(施主秩)에 의하면, 효령대군이 부인 예성부부인정씨(藥城府夫人鄭氏)와 그의 아들들과 함께 발원하여 광덕사에 시주한 것이다. 필사한 연대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발문에 보이는 효령대군의 셋째 아들 보성군(寶城君)이 세종 23년(1441)에 군(君)으로 책봉되었고 효령대군이 성종 17년(1486)에 입적하여, 사성 연대를 세종 23년(1441)에서 성종 17년(1486) 사이로 추정한다.(장충식, 1994)



〈그림 3〉 천안 광덕사 소장 『백지묵서불설대보부모은중경』 변상도
출처: 국가문화유산포털(<http://www.heritage.go.kr>)



〈그림 4〉 천안 광덕사 소장 『백지묵서불설장수멸죄제동자다라니경』 변상도
출처: 국가문화유산포털(<http://www.heritage.go.kr>)

2) 불교서적 간행본

세종~문종대 왕실의 주도로 간행된 불교서적은 『부모은중경』과 『묘법연화경』 2종과 『함허당득통화상현정론』, 『지장보살본원경』의 총 5종이 전해진다. 이를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종 14년(1432) 태종의 후궁인 명빈 김씨(明嬪 金氏, ?~1479)에 의해 『부모은중경』이 간행되었다. 『부모은중경』은 중국 당(唐) 나라 때 편찬된 위경(僞經)으로 편찬자와 성립연대 등의 성립과정은 불확실하다. 현전본은 아래 <표 9>와 같다.

<표 9> 세종 14년(1432) 간행 『부모은중경』

서명	저자	판본	간행년	판식	소장처
父母恩重經	鳩摩羅什 (後秦) 譯	木板本 (절첩본)	世宗 14 (1432)	1卷 1帖 : 上下單邊, 每行 15字 ; 33.5×11.3 cm	국립중앙박물관 보물 1125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1권 1첩의 절첩본은(보물 제1125호) 『부모은중태골경(父母恩重胎骨經)』이 합철되어 있다. 『부모은중태골경』은 『부모은중경』의 이본(異本) 중 하나이다. 권말에 정암(定菴)의 발문이 있고 발문 끝에 ‘대공덕주명빈김씨(大功德主 明嬪金氏)’라는 공덕자 표시가 있고, 도인 의호(義浩)가 각수로 참여하였다. 이 판본은 태종 7년(1407) 간행본¹⁹⁷⁾을 저본으로 간행한 것으로, 태종 16년(1416)에 간행된 『장수멸죄호제동자다라니경(長壽滅罪護諸童子陀羅尼經)』(보물 1092호, 김종규 소장)의 권말 첩봉(疊峯)이 쓴 발문에 『장수멸죄호제동자다라니경』 간행 이전인 태종 7년(1407)에 『묘법연화경』과 『부모은중경』을 간행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197) 송일기(2000)에 의해 개인소장본이 발굴 조사되었다. 간행기록은 없으나, 태종 16년(1416) 『장수멸죄호제동자다라니경』의 발문 기록에 의해 간행년을 태종 7년(1407)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실물 확인이 불가능하여 본 연구 대상에서는 제외하였다.



〈그림 5〉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불설대보부모은중경』(보물 제1125호)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둘째, 세종 30년(1448)에 간행된 『묘법연화경』은 권4~7의 4권 1책을 아단문고(보물 제766-1호) 소장본과 개인소장본(보물 제766-2호)이 있는데, 계환의 주해본을 태종 5년(1405) 성달생(成達生)과 성개(成概) 형제가 필서하여 전라도 도솔산 안심사(安心寺)에서 간행한 판본을 저본으로 하여 간행한 목판본이다. 현황을 도표화하면 아래 <표 10>과 같다.

〈표 10〉 세종 30년(1448) 간행 『묘법연화경』

서명	저자	판본	간행년	판식	소장처
妙法蓮華經. 卷4~7	鳩摩羅什(姚秦) 奉詔譯 ; 戒環(宋) 解	木板本	世宗 30 (1448)	4卷 1冊 : 變相圖, 四周單邊, 半郭 20.5×13.5 cm, 有界, 10行20字, 上下向黑魚尾 ; 29.5×17.8 cm	아단문고 보물 766-1호
妙法蓮華經. 卷4~7	鳩摩羅什(姚秦) 奉詔譯 ; 戒環(宋) 解	木板本	世宗 30 (1448)	4卷 1冊 : 變相圖, 四周單邊, 半郭 20.5×13.5 cm, 有界, 10行20字, 上下向黑魚尾 ; 29.5×17.8 cm	개인소장 보물 766-2호

권7 말에 안평대군이 직접 쓴 발문과 양윤손(梁尹孫)의 발문이 있는데, 발문(198)에 의하면 안평대군과 효령대군의 발원하여 간행하였다. 안평대군의 서

198) ‘法華經跋 孝寧大君謂瑬曰 予勸諸信善綉梓蓮經 今已就訖 幸為具顛末于後 瑬惟 … 然則妙蓮一經 豈非諸佛之宗源 千經之輶轄也歟 是經為世所重 或染毫為寫 惑鏤板印而其刊其刊板所在又非一處率皆歲久 不稱奉持 大君爰自幼年 作為功德之主 數十年間 浩福植善 不

체를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권4의 권수에는 변상도가 있는데, 이 변상판화는 신장상(神將像)과 삼존불(三尊佛) 좌상(坐像)을 중심으로 설법도(說法圖)를 새긴 『묘법연화경』의 기본 도상이나, 이전의 다른 변상과 달리 존상의 배치 및 모습 등의 차이가 있다. 이 변상판화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설법을 듣고 있는 보살(菩薩)들이 입상(立像)이 아닌 좌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 이는 사경변상이 아닌 판본 변상에서는 볼 수 없는 도상이다. 또한 난곽(欄郭)에 새겨진 문양이 당초문(唐草文)이 아닌 금강저(金剛杵)와 법륜(法輪)으로 고려 사경변상도의 난곽과 같다. 난곽에 새겨진 문양과 섬세하고 정교한 판각선 등을 살펴볼 때, 고려에서 이어져 온 사경변상도의 양식이 남아있는 변상도로 조선 초기 불화 양식을 잘 전하고 있으며, 판하본(板下本)과 판각술(板刻術)이 뛰어난 판화이다. (박도화, 1997)



〈그림 6〉 『묘법연화경』 권4 변상도(보물 제766-1호)

출처: 국가문화유산포털(<http://www.heritage.go.kr>)

以數計 若緇若素 莫下欽仰 今又率諸檀越 伐材募工 彫造此經 … 正統十三年戊辰(1448)夏四月日 安平大君瑬 拜手書

셋째, 문종 1년(1451)에 간행된 『묘법연화경』은 희인(希忍)이 쓴 권말 발문에 의하면 명빈 김씨가 귀인(貴人) 최씨와 함께 임금과 세자의 장수를 기원하고 태종과 원경왕후, 세종과 소헌왕후의 영가천도와 아버지 안정공(安靖公) 김구덕(金久德)과 어머니 신씨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기 위해 간행하였다.¹⁹⁹⁾ 현재 아래 <표 11>과 같이 권5~7의 3권 1책이 호림박물관(보물 제1107호)에 소장되어 있다. 계환의 주해(註解) 없이 원문만을 새겨 간행한 판본으로, 계선과 어미가 없이 1장에 30행 14자의 권자본(卷子本)으로 장정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표 11> 문종 1년(1451) 간행 『묘법연화경』

서명	저자	판본	간행년	판식	소장처
妙法蓮華經. 卷5~7	鳩摩羅什(姚秦) 奉詔譯 ; 戒環(宋) 解	木板本	文宗 1 (1451)	四周單邊, 半郭 22.5cm, 30行14字, 上下向黑魚尾 ; 28.8×18.6 cm	호림박물관 보물 1107호

넷째, 세종 32(1450)에 간행된 『함허당득통화상현정론(涵虛堂得通和尚顯正論)』은 승려 함허당(涵虛堂) 기화(己和, 1376~1433)가²⁰⁰⁾ 배불론자들의 불교에 대한 비판에 대해 유교의 사상과 비교하면서 문답 형식으로 자신의 견해를 쓴 책으로, 이 책의 발문²⁰¹⁾에 의하면 안평대군이 수암(秀菴)에게 구하여 간행한 판본으로 초주갑인자로 인출하였다. 아래의 <표 12>와 같이 현재 개인소장의 1종이 전해진다.

199) ‘明嬪金氏 貴人崔氏 梁知大事 因緣萃於茲典 欲使後之學者 皆得悟入佛佛知見 板而傳傳其法施施 廣義利利 深固莫得而思議矣 … 志在賴此勝因奉祝 聖躬萬歲 儲齡千秋 太宗大王靈駕 元敬王后 靈駕 世宗大王靈駕 昭憲王后靈駕 … 亦先考安靖公金九德仙駕 先妣莊敬宅主辛氏仙駕 及與歷代親緣超生樂 … 予跋山人輒揆下才拱手固辭 … 景泰2年(1451)柒月 季旬順善堂納 希忍 沐手謹跋’

200) 조선 초기의 승려. 법명(法名) 득통(得通). 호가 함허당이며, 속성은 유씨(劉氏). 이름은 기화(己和) 또는 무준(無準)이다. 본관 충주(忠州). 21세에 중이 되었고 무학대사(無學大師)의 제자이며, 세종 2년(1420) 임금의 청으로 왕실의 원찰인 대자암(大慈庵)에 4년간 있다가 세종 13년(1431) 봉암사(奉巖寺)를 넓혀 수리했다.

201) ‘略於是謹奉師志而模印刊行云時景泰庚午(1450)閏月日初吉琅琅居士書’

〈표 12〉 세종 32년(1450) 간행 『함허당득통화상원정론』

서명	저자	판본	간행년	판식	소장처
涵虛堂得通和尚顯正論	己和(朝鮮) 著	初鑄 甲寅字本	世宗 32 (1450)	四周單邊, 半郭 20.3×11.9 cm, 有界, 7行14字, 上下內向黑魚尾 ; 28.0×17.3 cm	개인소장

다섯째, 세종의 막내아들인 영응대군(永膺大君)²⁰²⁾에 의해 간행된 『지장보살본원경』은 아래 〈표 13〉과 같이 현재 1종(보물 제933호)이 전해진다. 간행 기록이 없으나 권말 기록에 의하면 영응대군이 태종 비 원경왕후와 소헌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해 간행한 것이다. 권말 기록의 영응대군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군호를 받은 세종 29년(1447)에서 세종 승하년인 세종 32년(1450) 사이 간행본임을 알 수 있다. 5행 17자의 절첩으로 펼쳐볼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장정은 선장본이다.

〈표 13〉 세종대 간행 『지장보살본원경』

서명	저자	판본	간행년	판식	소장처
地藏菩薩本願經	法燈(唐) 譯	木板本	世宗 29(1447) ~32(1450)	3卷1冊 : 5行17字 ; 28.2×18cm	삼성미술관 리움 보물 933호

3장에서 살펴본 태종, 세종, 문종대 왕실본은 모두 15종으로, 불교서적 11종이 간행되었고, 사경 4종이 사성되었다. 이 중 태조 명찬본이 2종, 세종 명찬본이 4종, 왕실 발원 사경은 4종, 간행본은 5종이다. 이들 왕실본의 특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태종대에는 태조 명찬본 2종이 간행되었고, 사경 1종이 사성되었다. 태상왕 태조는 신충에게 대자로 판하본을 쓰게 하여 태조 1년(1401) 『능엄경』, 『묘법연화경』 2종을 목판본으로 간행하였다. 태조의 셋째 아들 익안대군은 태상왕과 상왕(정종), 주상의 수복, 신의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해 정혜옹주(貞惠

202) 영응대군(永膺大君 1434~1467) 세종의 여덟째 아들로, 이름은 이염(李琰)이고, 본관은 전주(全州)이다. 시호는 경효(敬孝)이다. 세종과 소헌왕후(昭憲王后) 심씨(沈氏) 사이에서 태어났다. 1441년(세종 23) 영흥대군(永興大君)에 봉해졌다가 1443년 역양대군(歷陽大君)으로 개봉되고, 다시 1447년에 영응대군으로 바뀌었다.

翁主) 등과 함께 『감지은니묘법연화경』을 사성하였다.

둘째, 세종, 명종대에는 세종 명찬본 4종과 왕실의 발원으로는 사경 3종이 사성되었고, 경전 5종이 간행되었다. 세종 명찬본은 『석보상절』, 『월인천강지곡』, 『사리영응기』, 『묘법연화경』으로 모두 초주갑인자로 간행되었다. 『석보상절』과 『월인천강지곡』은 훈민정음으로 편찬한 책으로, 훈민정음 창제 직후인 15세기 국어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인쇄에 사용한 초주갑인자는 한자(漢字)는 ‘갑인자 소자’를 사용하고, 한글은 ‘갑인자 병용 한글대자’를 새로 주조하여 사용하였다. 한글 활자는 『사리영응기』의 인명 표기에도 사용되었다. 『묘법연화경』은 세종 32년(1450) 세종이 동궁이었던 문종의 병이 낫기를 기원하며 간행하도록 한 것이다. 왕실에서 사성한 사경은 세종 32년(1450) 세종의 후궁인 신빈 김씨가 제작한 『백지금니금강반야바라밀경』과 효령대군 등이 발원한 『백지묵서부모은중경』과 『백지묵서장수멸죄호제동자다라니경』이 있다. 태종의 후궁 명빈 김씨는 세종 14년(1432)에 『부모은중경』, 문종 1년(1451)에는 『묘법연화경』을 간행하였고, 안평대군과 효령대군은 세종 30년(1448) 『묘법연화경』을 간행하였으며, 안평대군은 세종 32(1450) 『함허당득통화상현정론』을 초주갑인자로 간행하였다. 세종의 막내아들 영웅대군은 태종비 원경왕후와 소헌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해 『지장보살본원경』을 간행하였다.

IV. 세조 시대 왕실본 분석

4.1 세조 시대 사성(寫成) 및 간행본

4.1.1 세조 명찬(命撰)본

세조의 명에 의해 간행된 불교서적은 모두 15종으로, 『묘법연화경』, 『능엄경』, 『원각경』 등의 경전류 7종, 『월인석보』의 한국찬술류 1종, 『대승기신론소』, 『반야바라밀다심경소』, 『금강경오가해』의 장소류 3종, 『영가진각대사증도가』, 『천태사교의집해』 2종의 선종 및 천태종 관계류 3종이 간행되었다. 이들 간행본을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조 원년(1455) 을해자본 『묘법연화경』이 전해지는데, 을해자는 세조 원년(1455) 강희안(姜希顔)의 글씨를 자본(字本)으로 하여 만들어진 대·중·소자의 동활자이다. 을해자본 『묘법연화경』의 현황은 아래 <표 14>와 같다.

<표 14> 세조 1년(1455) 간행 『묘법연화경』

서명	저자	판본	간행년	판식	소장처
妙法蓮華經. 卷5	鳩摩羅什(姚秦) 奉詔譯 ; 戒環(宋) 解	乙亥字本	[世祖 원년 (1455)]	四周單邊 半郭 27.3×20.0 cm, 有界, 9行16字, 上下內向黑魚尾 ; 34.9×24.9 cm	고려대학교 만송문고
妙法蓮華經. 卷6,7	"	"	"	2卷1冊(缺帙) : 四周單邊 半郭 27.3×20.0 cm, 有界, 9行16字, 上下內向黑魚尾	월정사성보 박물관
妙法蓮華經. 卷2,3	"	"	[세조연간]	2卷1冊(缺帙) : 四周單邊 半郭 25.9×20.1 cm, 有界, 9行16字, 上下內向黑魚尾 ; 38 cm	연세대학교 도서관

현재 전해지는 『묘법연화경』 초간본은 고려대학교 도서관에서 권5, 월정사성보박물관에 권6, 7이 소장되어 있다.²⁰³⁾ 고려대학교 만송문고 권5는 고정

203) 송일기(2015)에 의하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卷2를 소장하고 있다고 하나 목록에서 검색되지 않고, 실물을 확인할 수 없어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지에 인출하였고 인출상태와 보관상태가 좋아 을해자로 구성된 해에 찍은 초간본으로 추정한다.(강순애, 1999) 월정사정보박물관 소장 권6의 권수제 위에 ‘교정(校正)’의 도장이 찍혀있다.

연세대학교 도서관에는 초간본은 아니지만 인출 상태가 좋은 권2, 3이 소장되어 있는데 세조연간에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강순애, 1999)

둘째, 세조 3년(1459) 9월 2일 의경세자(懿敬世子)가 죽자 세조는 그의 명복을 빌기 위해 불교서적을 간행하였다. 현재 『금강경오가해』, 『대승기신론소』, 『반야바라밀다심경약소』, 『번역명의집』, 『영가진각대사증도가』, 『묘법연화경』의 6종이 전해진다. 세조 3년(1459) 간행본의 현황을 도표화하면 아래 <표 15>와 같다.

<표 15> 세조 3년(1457) 간행본

서명	저자	판본	간행년	판식	소장처
金剛經五家解. 卷上	世祖 撰集	丁丑字本	世祖 3년 (1457)	1冊(零本) : 四周單邊, 半郭 27.7×18.8 cm, 有界, 9行19字(大14字), 註雙行, 上下內向黑魚尾 ; 39.0×24.1 cm	성암고서 박물관
金剛經五家解. 卷下	世祖 撰集	丁丑字本	世祖 3년 (1457)	1冊(零本) : 四周單邊, 半郭 27.7×18.8 cm, 有界, 9行19字(大14字), 註雙行, 上下內向黑魚尾 ; 39.0×24.1 cm	수국사
金剛經五家解. 卷下	世祖 撰集	丁丑字本	世祖 3년 (1457)	1冊(零本) : 四周單邊, 半郭 27.7×18.8 cm, 有界, 9行19字(大14字), 註雙行, 上下內向黑魚尾 ; 39.0×24.1 cm	계명대학교 도서관
大乘起信論疏. 卷上之二, 卷下之一, 卷下之二	法藏(唐) 述 ; 宗密(唐) 錄	初鑄 甲寅字本	世祖 3년 (1457)	四周單邊 半郭 25.0×17.0 cm, 有界, 10行17字, 上下內向黑魚尾 ; 36.0× 2.0 cm	개인소장 보물 1713호
般若波羅蜜多 心經略疏	仲希(宋) 撰述 ; 玄奘(唐) 漢譯 ; 法藏(唐) 註釋	乙亥字本	世祖 3년 (1457)	四周單邊, 有界, 9行17字 註雙行, 上下內向黑魚尾 ; 17.4×23.8 cm	서울역사 박물관
翻譯名義集. 卷1,2,3	法雲(宋) 編	乙亥字本	[世祖 3년 (1457)]	四周單邊, 有界, 9行17字 註雙行, 上下內向黑魚尾 ; 20.3×33.8 cm	서울역사 박물관

서명	저자	판본	간행년	판식	소장처
翻譯名義集	法雲(宋) 編	木板本	世祖 3년 (1457)	14卷8冊: 四周單邊 半郭 24.1×21.0 cm, 無界, 12行17字, 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 ; 33.2×24.6 cm	계명대학교 도서관 보물 1369호
永嘉眞覺大師 證道歌	[釋]玄覺(唐) 著 ; [釋]淨居(唐) 註	初鑄 甲寅字本		1冊 : 四周單邊 半郭 24.8×16.9 cm, 有界, 10行17字 小字雙行, 上下內向黑魚尾 ; 32.0×21.5 cm	고려대학교 도서관
永嘉眞覺大師 證道歌	"	乙亥字本		四周單邊 半郭 18.2×13.4 cm, 有界, 10行19字 註雙行, 上下內向黑魚尾 ; 26.8×17.5 cm	서울역사 박물관 보물 1776호
妙法蓮華經. 卷2	鳩摩羅什(姚秦) 奉詔譯 ; 戒環(宋) 解	初鑄 甲寅字本	世祖 3년 (1457) 重刊本	四周單邊 半郭 24.8×16.8 cm, 有界, 10行18字 註雙行, 上下下向黑魚尾 ; 35.6×21.8 cm	서울대학교 도서관

『금강경오가해』는 본문은 정축자로 주해는 갑인자 중·소자를 이용하여 100부를 간행하였다. 정축자는 정문(正文)을 세조가 직접 써서 글자본으로 삼아 세조 3년(1459)에 주조한 동활자이다. 정축자는 이 서적 외에 성종 13년(1482)에 간행한 『금강경삼가해』 국역본 2종에만 사용되었다. 현재 권상은 성암고서박물관에, 권하는 수국사에 소장되어 있다. 수국사본은 아미타불좌상에서 발견된 전적 중 하나로 권말에 세조의 어제발(御製跋)과 김수온 등의 발문이 있고, 권수면에 ‘법시지보(法施之寶)’의 내사인(內賜印)이 찍혀 있다.(송일기, 2014)

『대승기신론소』는 당나라의 마명(馬鳴)이 지은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에 대해 주석한 책으로, 원효의 주석서인 『기신론소』에 영향을 받아 저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법장(法藏)의 「소」에 종밀이 주해를 가한 주석서이다. 이 책은 중국 및 우리나라의 ‘기신론’ 연구가들에게는 중요한 지침서가 되었고, 중국에서 『기신론』 연구의 대표적인 인물로 손꼽히는 법장도 원효의 주석과 해석을 대부분 그대로 따르고 있다. 현재 개인소장본 1종(보물 제1713호)이 유일하게 전래되고 있는데, 권상지이(卷上之二), 권하지일(卷下之一), 권하지

이(卷下之二) 등 3권 1책이다. 권상지일(卷上之一)은 결본이다. 권수제 다음 행에 ‘서대원사사문 법장 술(西大原寺沙門 法藏 述)’이란 저자 표시가 있으며, 그 아래에 주해자인 종밀의 이름이 보인다.

『반야바라밀다심경약소』는 당나라의 현장(玄奘)이 번역한 『반야바라밀다심경』에 법장이 해설을 단 주석서이다. 서울역사박물관 소장의 세조 3년(1457)에 간행된 을해자본은 세조 3년(1457) 11월 20일에 작성된 어제발문에 의하면 세조가 의경세자의 명복을 빌고자 간행한 것이다. 표제는 「심경략소(心經畧疏)」이고 판심제는 「심경(心經)」이다. 앞표지 안쪽에 ‘甲辰八月甘露堂春峰和尚會上重修’라고 적혀 있는 것으로 보아 갑진년 8월에 감로당 춘봉화상이 중수한 듯하다.(옥영정, 2011)

『번역명의집』은 목판본과 을해자본이 각 1종씩 전해진다. 서울역사박물관 소장의 『번역명의집』 권1~3(서울유형문화재 제180호)은 대·소 을해자를 사용하여 인출한 것으로 ‘법시지보’의 내사인이 찍혀있다.(옥영정, 2011) 간기가 없어 정확한 간행연대를 알 수 없으나 인쇄나 보관상태가 양호하고 판식이나 장정 등을 살펴볼 때 세조 3년(1457)본으로 추정한다. 목판본은 권1~14(보물 제1369호)가 계명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표제는 「번역집(翻譯集)」이고 ‘고운사인(孤雲寺印)’이라는 도장이 찍혀있다.



〈그림 7〉 『번역명의집』(보물 제1369호)

출처: 국가문화유산포털(<http://www.heritage.go.kr>)

『영가진각대사증도가』는 당나라의 진각대사(眞覺大師, 647~713)가 선종 제6조 혜능조사(慧能祖師, 638~713)를 만나 깨달은 진리를 칠언시(七言詩)로 노래한 것과 이에 대한 여러 주석을 함께 수록한 책이다. 세조는 3년(1457) 『영가진각대사증도가』를 초주갑인자로 먼저 인출하고 같은 해 을해자로도 인출하였는데, 이 책의 권말에는 어제발과 강맹경(姜孟卿), 신숙주(申叔舟), 조석문(曹錫文), 김수온, 임원준(任元濬) 등²⁰⁴⁾이 쓴 8건의 발문이 수록되어 있으며, 권수제면에 ‘법시지보’의 내사인이 찍혀 있다. 현재 초주갑인자본은 고려대학교 도서관에서 소장되어 있는데, 표제는 「증도가주해(證道歌註解)」이다. 을해자본(보물 제1776호)은 서울역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세종 3년(1457)의 『묘법연화경』은 초주갑인자를 기본으로 하여 목활자를 일부 보충해서 만든 중간본이다. 이 판본은 역시 의경세자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세조의 명에 의해 간행되었다. 현재 서울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권2가 전해진다. 정확한 간행기록을 알 수 없으나,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영가진각대사증도가』의 발문의 기록을 통해 1457년에 인출한 『묘법연화경』 100건 중 현전본임을 확인할 수 있다.²⁰⁵⁾

셋째, 세조 5년(1459)의 목판본 『월인천강지곡』은 세조가 세종과 의경세자의 명복을 빌기 위해 『월인천강지곡』의 각 절(節)을 본문으로 하고 『석보상절』 및 협주세문(夾注細文)을 주석으로 하여 간행한 것이다. 신미, 수미, 설준, 홍준, 효운, 지해, 해초, 사지, 학열, 학조 등의 승려들과 김수온 등이 편찬에 참여하였다. 『월인천강지곡』은 세종이 지은 것을 그대로 수록하고 세조 본인이 편찬한 『석보상절』은 증보·수정하였는데, 『월인천강지곡』보다 한 줄 아래로 내려 중자(中字)로 표현하였다. 협주세문은 단형(短形), 장단형(長短形), 장형(長形) 형태의 『석보상절』의 주석으로 소자(小字)로 표현되어 있다.

권1에는 『훈민정음』 언해본이 실려 있으며, 세종조의 원본과 문장과 표기법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어 훈민정음 초기 한글 변천과정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권1 수의 팔상도(八相圖)는 『월인천강지곡』을 구성하는 전체적

204) 御製跋 ‘… 是年(1457)秋九月下澣 … 姜希孟拜手稽首謹跋, 天順元年(1457)九月下澣 … 申叔舟拜手稽首泣血謹跋, 曹錫文謹跋, 是年(1457)九月上澣 … 金守溫奉教謹跋, 任元濬跋’

205) 『영가진각대사증도가』 강희맹 발문 ‘… 於是 上尊世宗之遺命 次爲東宮之冥福 命朝臣之善寫者 金書法華經一件 墨書地藏經梵網經行願品 印成大藏經華嚴經各一件 法華經楞嚴經翻譯名義各一百件 地藏經懺法十四件 … ’

내용을 묘사하고 있다. 팔상도는 석가모니의 생애를 묘사하고 있는 불화로, 도솔천에서 내려오는 상(兜率來儀相), 룸비니 동산에 내려와서 탄생하는 상(毘藍降生相), 사문에 나가 세상을 관찰하는 상(四門遊觀相), 성을 넘어가서 출가하는 상(踰城出家相), 설산에서 수도하는 상(雪山修道相), 보리수 아래에서 마귀의 항복을 받는 상(樹下降魔相), 녹야원에서 처음으로 포교하는 상(鹿苑轉法相), 사라쌍수 아래에서 열반에 드는 상(雙林涅槃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면을 1판씩 8개의 판에 묘사하고 있다. 현재 남아있는 권1에는 쌍림열반(雙林涅槃相) 부분이 잘려나가 있다.



〈그림 8〉 『월인석보』 권1(보물 제745-1호)

출처: 국가문화유산포털(<http://www.heritage.go.kr>)

『월인석보』는 『석가보』, 『아미타경』, 『관무량수경(觀無量壽經)』, 『묘법연화경』, 『지장보살본원경(地藏菩薩本願經)』, 『법원주림(法苑珠林)』 등 여러 경전을 저경으로 하고 있는데, 특히 권11~권19까지는 『묘법연화경』이 실려 있다.(강순애, 2001)²⁰⁶⁾

현재 『월인석보』는 12종이 현전하는데, 아래 <표 16>과 같다.

206) 강순애(2001) 연구에 『월인석보』의 각 권별 구성과 저경이 상세히 연구되었다.

〈표 16〉 세조 5년(1459) 간행 『월인석보』

서명	저자	판본	간행년	판식	소장처
月印釋譜. 卷1,2	世祖(朝鮮) 命編	木板本	世祖 5년 (1459)	變相圖, 四周雙邊 半郭 21.5×17.4 cm, 有界, 7行字數不定 註雙行, 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 ; 33.0×23.0 cm	서강대학교 도서관 보물 제745-1호
月印釋譜. 卷7,8	"	"	"	四周雙邊, 半郭 23.2×18.2cm, 有界, 7行14字 註雙行, 上下黑口, 上下內向黑魚尾 ; 32.8×22 cm	동국대학교 도서관 보물 제745-2호
月印釋譜. 卷9,10	"	"	"	四周雙邊, 有界, 7行14字 註雙行, 上下黑口, 上下內向黑魚尾 ; 30.0×22.5 cm	국립한글박물관 보물 제745-3호
月印釋譜. 卷11,12	"	"	"	四周雙邊, 有界, 7行14字 註雙行, 上下黑口, 上下內向黑魚尾 ;	호암미술관 보물 제935호
月印釋譜. 卷13,14	"	"	"	四周雙邊 半郭 22.0×17.5 cm, 有界, 7行14-6字 註雙行, 上下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 ; 33.0×22.6 cm	연세대학교 도서관 보물 제745-4호
月印釋譜. 卷15	"	"	"	四周雙邊 半郭 23.2×17.5 cm, 有界, 7行16字(小字 14行 16字) 註雙行, 黑口, 上下內向黑魚尾	성암고서박물관
月印釋譜. 卷15	"	"	"	四周雙邊 半郭 22.0×16.4 cm, 有界, 7行16字(小字 14行 16字) 註雙行, 黑口, 上下內向黑魚尾	구암사 보물 제745-10호
月印釋譜. 卷17,18	"	"	"	四周雙邊, 有界, 7行14字 註雙行, 上下黑口, 上下內向黑魚尾	수타사성보박물관 보물 제745-5호
月印釋譜. 卷19	"	"	"	四周雙邊, 有界, 7行14字 註雙行, 上下黑口, 上下內向黑魚尾	가야대박물관
月印釋譜. 卷20	"	"	"	四周雙邊 半郭 22.3×17.0 cm, 有界, 7行16字(小字 14行 16字) 註雙行, 黑口, 上下內向黑魚尾	개인소장 보물 제745-11호
月印釋譜. 卷23	"	"	"	四周雙邊 半郭 21.4×17.2 cm, 有界, 7行14字(大字) 16字(中, 小字) 註雙行, 黑口, 上下內向黑魚尾	삼성출판박물관 보물 제745-8호
月印釋譜. 卷25	"	"	"	四周雙邊 半郭 22.3×17.0 cm, 有界, 7行16字(小字 14行 16字) 註雙行, 黑口, 上下內向黑魚尾	보림사 보물 제745-9호

『월인석보』는 전체 25권 중 현재 전해지는 초간본은 권1, 2, 7, 8, 9, 10, 11, 12, 13, 14, 15(2종), 17, 18, 19, 20, 23, 25의 17권이다. 권1, 2, 4, 7, 8, 17, 21, 22, 23은 그 중간본 및 번각본 9권이 전해진다. 권수제는 「월인천강지곡석보상절」이다.

서강대학교 소장의 권1, 2(보물 745-1호)는 첫 장 우측 윗부분에 ‘교정’의 도장이 찍혀있는 교정 초쇄 원간본이다. 권7, 8(보물 745-2호)은 동국대학교 도서관 소장본으로 권7은 첫 장에서 5장까지 결락되었고, 그 밖의 부분에도 일부 낙장이 있다. 국립한글박물관 소장 권9, 10(보물 745-3호)은 권9는 첫 장에서 3장까지, 권10은 권말 부분에 결락이 있다. 호암미술관에서 권11, 12(보물 935호)를 소장하고 있고, 권13, 14(보물 745-4호)는 연세대학교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데 권13은 첫 장이 결락이고 부분적으로 훼손되어 있으며, 권14는 82장 이하가 결락되었다. 권15는 구암사 소장본(보물 745-10호)과 성암고서박물관 소장본이 있다. 성암고서박물관 소장의 권15는 29장 반엽의 결락본이나 구암사 소장본은 앞뒤의 표지가 없지만 본문에는 낙장이 없는 완전한 상태이다. 권17, 18(보물 745-5호)는 수타사 정보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으며, 권19는 가야대학교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권20(보물 745-11호)은 개인소장본이며, 권23(보물 745-8호)는 삼성출판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데 앞부분 16장이 결락되었고, 뒷부분도 106장으로 끝나 결락된 부분이 있다. 보림사 소장의 권25(보물 745-9호)는 장흥 보림사(寶林寺) 사천왕상 복장본으로 앞뒤의 일부가 결락되었다. 이 판본이 발굴됨에 따라 『월인석보』가 전체 25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밝힐 수 있었다.

넷째, 『천태사교의집해』는 고려의 고승 제관(諦觀, ?~970)이 저술한 『천태사교의(天台四教儀)』에 대한 송(宋)의 종의(從義, 1042~1091)의 주해서이다. ‘余治平四年(1067)冬 … 再定之文不須復留未治之本也’라는 종의의 서문이 있으며, 발문에 ‘延祐元年甲寅(1314)孟秋初吉牧庵老人題’라는 간기가 보이며, 이를 원전으로 세조 6년(1460)경에 을해자로 간행하였다. 현재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권1~3의 3권 1책이 전해지며, 화봉문고에 권하, 국립중앙도서관에 권상, 하 2권 2책, 계명대학교 도서관에 권중, 하의 1책(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 제67호)가 전해진다. 이를 도표화하면 아래 <표 17>과 같다.

〈표 17〉 세조 6년(1460) 간행 『천태사교의집해』

서명	저자	판본	간행년	판식	소장처
天台四敎儀 集解. 卷1~3	諦觀(高麗) 錄 ; 從義(宋) 集解.	乙亥字本	[世祖 6 (1460)]	四周單邊 半郭 21.5×14.7 cm 有界, 9行17字 小字雙行, 上下內向黑魚尾 ; 31.3×19.8 cm	고려대학교 도서관
天台四敎儀 集解. 卷下	"	"	"	四周單邊 半郭 21.5×14.7 cm, 有界, 9行17字, 上下內向黑魚尾 ; 31.3×19.8 cm	화봉문고
天台四敎儀 集解. 卷上,下	"	"	"	四周單邊 半郭 21.6×14.6 cm, 有界, 9行17字, 上下內向黑魚尾 ; 30.7×19.2 cm	국립중앙 도서관
天台四敎儀 集解. 卷中,下	"	"	"	四周單邊 半郭 20.7×14.6 cm, 有界, 9行17字, 註雙行, 內向黑魚尾 ; 31.7×20.3 cm	계명대학교 도서관 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 67호

다섯째, 세조 7년(1461)의 을해자본 『능엄경』이 도서관에서 간행되었다. 원명은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으로, 이 판본은 언해본으로 당의 반랍밀제(般刺蜜帝)가 번역하고 송나라의 계환이 풀이한 것을 국역한 것이다. 권10의 어제발, 신미와 김수온 등의 발문에 의하면 세종 31(1449) 수양대군에게 『능엄경』의 번역을 명하였으나 완성하지 못하다가, 세조 7년(1461) 5월 회암사의 불사에서 석가의 분신사리 출현이 있었을 때 효령대군이 국역의 완성을 청하여 세조가 신미, 학열, 학조 등에게 국역과 교정을 명하여 간행하도록 하였다. 6월 11일에 시작한 국역은 8월 22일에 완료되어 10월말 경 을해자(乙亥字)로 400부를 인출하였다. 세조 8년(1462)에는 간경도감에서 을해자본을 수정하여 목판본으로 간행하였다. 세조 7년(1461) 을해자본 『능엄경』 언해본의 현재 전해지는 판본은 11종으로, 완질로는 전해지지 않고 국내에 권1~10이 흩어져 소장되어 있다. 이를 도표로 살펴보면 아래 〈표 18〉과 같다.

〈표 18〉 세조 7년(1461) 간행 『능엄경』

서명	저자	판본	간행년	판식	소장처
楞嚴經(諺解). 卷1	般刺蜜帝(唐) 譯 ；戒環(宋) 解	乙亥字本	世祖 7 (1461)	四周單邊 半郭 26.8×19.8 cm, 有界, 9行17字 註雙行, 上下內向黑魚尾 ; 37.5×23.8 cm	성암고서 박물관 보물 760호
楞嚴經(諺解). 卷2, 5	"	"	"	四周單邊 半郭 26.9×19.9 cm, 有界, 9行17字 註雙行, 上下內向黑魚尾 ; 31.1×22.7 cm	규장각 보물 761호
楞嚴經(諺解). 卷7, 8	"	"	"	四周單邊 半郭 27.0×19.6 cm, 有界, 9行17字 註雙行, 上下內向黑魚尾 ; 37.8×25.1 cm	동국대학교 도서관 보물 762호
楞嚴經(諺解). 卷7~10	"	"	"	四周單邊 半郭 26.8×19.8 cm, 有界, 9行17字 註雙行, 上下內向黑魚尾 ; 38.5×22.9 cm	세종대왕기념 사업회 보물 763호
楞嚴經(諺解). 卷3	"	"	"	四周單邊 半郭 27.5×20.0 cm, 有界, 9行17字 註雙行, 上下內向黑魚尾 ; 37.9×24.5 cm	동국대학교 도서관 보물 948-1호
楞嚴經(諺解). 卷3	"	"	"	四周雙邊 半郭 27.0×20.0cm, 有界, 9行21字, 上下內向黑魚尾 ; 37.9×24.5 cm	개인소장 보물 948-2호
楞嚴經(諺解). 卷4, 7, 8	"	"	"	四周單邊 半郭 27.5×20.0 cm, 有界, 9行17字 註雙行, 上下內向黑魚尾 ; 36.9×25.0 cm	서울역사 박물관 보물 973호
楞嚴經(諺解). 卷6	"	"	"	四周單邊 半郭 27.0×20.0 cm, 有界, 9行17字 註雙行, 上下內向黑魚尾 ; 36.5×24.5 cm	구인사 보물 1049호
楞嚴經(諺解). 卷1	"	"	"	四周單邊 半郭 27.2×19.8 cm, 有界, 9行17字 註雙行, 上下內向黑魚尾 ; 38.2×25.0 cm	금릉사 보물 1520호
楞嚴經(諺解). 卷7	"	"	"	四周單邊 半郭 27.2×19.7 cm, 有界, 9行17字 註雙行, 上下內向黑魚尾 ; 38 cm	연세대학교 도서관
楞嚴經(諺解). 卷3	"	"	"	四周單邊 半郭 27.0×19.2 cm, 有界, 9行17字 註雙行, 上下內向黑魚尾 ; 35.4×23.9 cm	동국대학교 도서관

서명	저자	판본	간행년	판식	소장처
楞嚴經(諺解). 卷2	般刺蜜帝(唐) 譯 ; 戒環(宋) 解	乙亥字本	世祖 7 (1461)	四周雙邊 半郭 21.8×18 cm, 有界, 9行17字 註雙行, 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 ; 33.0×23.4 cm.	서울대학교 도서관
楞嚴經(諺解). 卷6	"	"	"	四周單邊 半郭 27.2×19.2 cm, 有界, 9行21字, 上下內向黑魚尾 ; 36.5×24.5 cm	일본 텐리대학교

성암고서박물관에서 권1(보물 제760호)을 소장하고 있고, 규장각 소장의 권2, 5(보물 제761호)는 남아있는 다른 책에 비해 길이가 짧고 권2의 표지 아래 부분에는 ‘육암당주인(浴庵堂主人)’이라는 묵서(墨書)가 있으며, 권5의 표지 오른쪽에도 ‘신흥사(神興寺)’라는 묵서지기(墨書識記)가 보인다. 동국대학교 도서관 소장 권7, 8(보물 제762호), 권3(보물 제948-1호) 중 권3은 본래 권4와 함께 장책된 1책인데 분책된 것으로 보인다. 권3은 개인소장본(보물 제948-2호)로도 전해진다. 세종대왕기념사업회에는 권7, 8과 권9, 10(보물 제763호)의 4권 2책을 소장하고 있으며, 권10 말에 국한문 발문이 있다. 서울 역사박물관에서는 권4, 권7, 8(보물 제973호)의 3권 2책을 소장하고 있으며, 이 밖에 구인사에 권6(보물 제1049호)이 남아있으며, 금릉사 소장의 권1(보물 제1520호, 국립고궁박물관 관리)과 서울대학교 도서관에서는 권2, 동국대학교 도서관은 권3, 연세대학교 도서관에서 권7, 일본 텐리대학교(天理大學校)에서 권6을 소장하고 있다.

여섯째, 세조대 세조의 명에 의해 간행된 『원각경』은 2종이 있는데, 세조 3년(1457)~세조 7년(1461) 사이에 간행된 것으로 보는 을해자본과 세조 11년(1465) 을유자 간행본이 있다.²⁰⁷⁾ 『원각경』의 원명은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으로 당의 불타다라(佛陀多羅)가 번역하였다고 전해지나 범어 원전이 전해지지 않으며, 번역 장소와 시기, 번역 참가자의 대해 전해지는 내용은 일치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불교 소의경전 중 하나로

207) 세조대 『원각경』은 모두 네 차례 간행되었다. 세조 3년(1457)~세조 7년(1461) 한문본이 도서관에서 을해자로 간행되었고, 세조 10년(1464)에는 함허당 득통의 주해가 있는 한문본이 간경도감에서 목판본으로 간행되었다. 세종 11년(1465)에는 언해본이 간경도감에서 목판본으로 간행되었는데, 같은 해 또 다시 주자소에서 을유자본을 간행하였다. 관판본인 간경도감본은 본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불교전문 강원 사교과(四敎科) 과정의 필수과목으로 학습되고 있다.

세조 3년(1457)~세조 7년(1461) 교서관에서 을해자로 간행한 『원각경』은 현재 3종이 전해지는데, 완질은 전해지지 않고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권2~5, 계명대학교 도서관에 권4, 공주 동학사에 권4, 6이 전해진다. 동학사본은 목조여래삼불좌상 복장 전적 7건(일괄 보물 제1720호) 중 1건이다.

세조 11년(1465) 『원각경』은 세조가 원각사(圓覺寺)를 준공²⁰⁸⁾하고 정난종(鄭蘭宗)의 글씨를 자본으로 만든 을유자로 간행한 것으로, 이 때 『원각경』의 구결을 찍기 위해 한글 활자도 주성하였는데, 이를 을유한글자라고 일컫는다. 이 판본은 언해가 없고 대문(大文)과 요해(要解) 부분에 한글 구결을 붙인 언토본이다. 서문은 「원각경략소」, 배휴의 「원각경략소서」, 종필의 「원각경서」로 이루어져 있고, 본문은 권 상,하로 나누어져 있는데, 권상은 一之一~二, 二之一~三의 5권이고, 권하는 一之一~二, 二之一~二, 三之一~三의 6권으로 총 11권이다. 을유자본은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보물 제1514호), 아담문고(보물 제1219-1호), 광덕사(보물 제1219-2호), 취정사(보물 제1219-3호), 월정사 정보박물관(보물 제793-11호), 성암고서박물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국립중앙도서관, 고려대학교 도서관 3종, 동국대학교 도서관에 총 12종이 전해진다. 『원각경』 2종의 현존 현황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 <표 19>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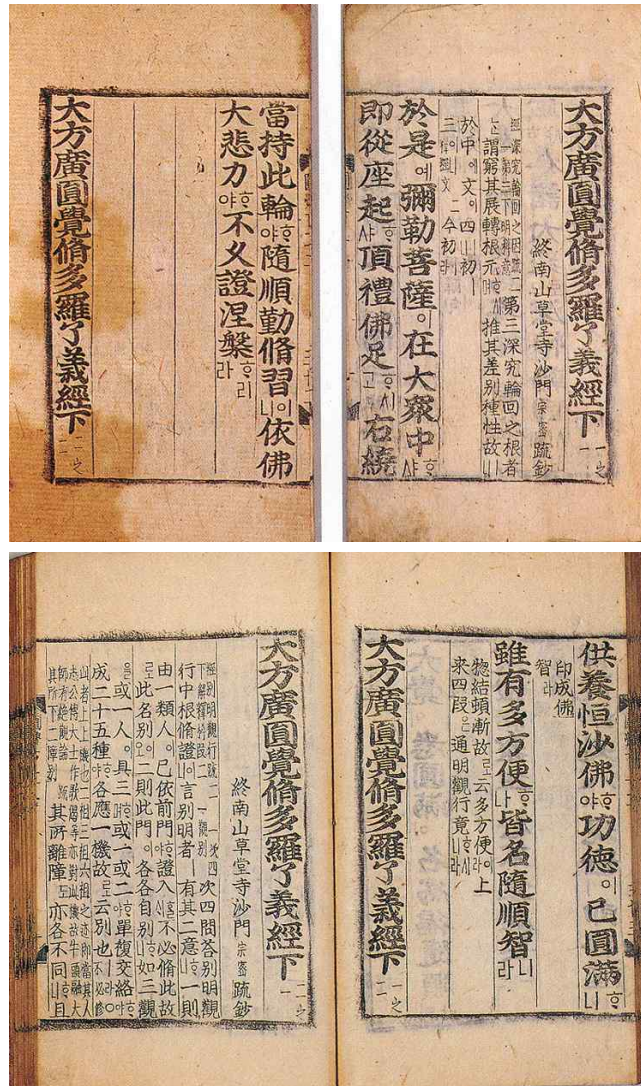
<표 19> 세조대 간행 『원각경』

서명	저자	판본	간행년	판식	소장처
圓覺經. 卷2~5	宗密(唐)述	乙亥字本	世祖 3 (1457) ~ 世祖 7 (1461)	零本1冊 : 四周單邊 半郭 26.4×19.7 cm, 有界, 9行大字16字 中字21字 小字雙行, 上下黑口, 內向黑魚尾 ; 35.0×24.5 cm	고려대학교 도서관
圓覺經. 卷4	"	"	"	1冊(零本) : 四周單邊, 半郭 26.8×20.0 cm, 有界, 9行16字, 內向黑魚尾 ; 34.4×24.6 cm	계명대학교 도서관

208) 세조는 세조 10년(1464) 5월 효령대군이 회암사에서 원각법회(圓覺法會)를 행하였을 때 사리 분신을 보고 상서(祥瑞)라 하여 흥복사(興福寺)를 중건하여 원각사를 삼을 것을 명하였는데 이듬 해 4월 원각사가 낙성되자 직접 방문하여 경찬회(慶讚會)를 열고 어정구결(御定口訣)하고 번역한 『원각경』을 전경(轉經)하였다. 또한 세종 13년(1467)에 완성된 원각사 10층 석탑(국보 2호) 내에 『원각경』이 봉안되었다. 경찬회 전경 시 사용한 『원각경』과 탑 내에 봉안된 『원각경』은 모두 간경도감에서 간행한 언해본으로 추정한다.(옥영정, 2008)

서명	저자	판본	간행년	판식	소장처
圓覺經. 卷4,6	宗密(唐) 述	乙亥字本	世祖 3 (1457) ~ 世祖 7 (1461)	四周單邊 半郭 27.0×20.0 cm, 有界, 9行大字16字中字21字, 上下內向黑魚尾 ; 38.0×25.5 cm	동학사 보물 제1720호 중 1건
圓覺經(諺吐). 卷上一之一	宗密(唐) 述	乙酉字本	世祖 11 (1465)	四周單邊 半郭 19.5×13.3 cm, 有界, 大字6行13字中字12行19字 小字雙行, 上下內向黑魚尾 ; 28.0×18.5 cm	한국학중앙 연구원 장서각 보물 1514호
圓覺經(諺吐). 卷上一之二, 上二之一~三, 下一之一~二, 下二之一~ 二, 下三之一~二	"	"	"	四周單邊 半郭 19.5×13.3 cm, 有界, 大字6行13字中字12行19字 小字雙行, 上下內向黑魚尾 ; 28.0×18.4 cm	성암고서 박물관
圓覺經(諺吐). 卷上一之二, 上二之一~三, 下一之一~ 二, 下二之一~二, 下三之一~二	"	"	"	四周單邊 半郭 19.4×13.4 cm, 有界, 大字6行13字中字12行19字 小字雙行, 上下內向黑魚尾 ; 28.2×18.6 cm	국립중앙 도서관
圓覺經(諺吐). 卷上一之二	"	"	"	四周單邊 半郭 19.5×13.2 cm, 有界, 大字6行13字中字12行19字 小字雙行, 上下內向黑魚尾 ; 28.4×18.6 cm	규장각 한국학 연구원
圓覺經(諺吐). 卷上一之一	"	"	"	四周單邊 半郭 19.6×13.3 cm, 有界, 大字6行13字中字12行19字 小字雙行, 上下內向黑魚尾 ; 27.7×18.0 cm	호림박물관
圓覺經(諺吐). 卷上一之一, 下一之一~二, 下二之一~二	"	"	"	四周單邊 半郭 19.6×13.3 cm, 有界, 大字6行13字中字12行19字 小字雙行, 上下內向黑魚尾 ; 27.7×18.0 cm	고려대학교 도서관

서명	저자	판본	간행년	판식	소장처
圓覺經(諺吐). 卷上二之一~三	宗密(唐) 述	乙酉字本	世祖 11년 (1465)	四周單邊 半郭 19.5×13.3 cm, 有界, 大字6行13字中字12行19字 小字雙行, 上下內向黑魚尾 ; 26.9×18.1 cm	고려대학교 도서관
圓覺經(諺吐). 卷下三 之一~ 二	"	"	"	四周單邊 半郭 19.8×13.3 cm, 有界, 大字6行13字中字12行19字 小字雙行, 上下內向黑魚尾 ; 27.8×18.3 cm	고려대학교 도서관
圓覺經(諺吐). 卷上一之二, 下一之一~二, 下二之一~二	"	"	"	四周單邊 半郭 19.5×13.3 cm, 有界, 大字6行13字中字12行19字 小字雙行, 上下內向黑魚尾 ; 27.0×18.2 cm	아단문고 보물 제1219-1호
圓覺經(諺吐). 卷上二之二, 下三之一~二	"	"	"	四周單邊 半郭 19.5×13.3 cm, 有界, 大字6行13字中字12行19字 小字雙行, 上下內向黑魚尾 ; 27.0×18.2cm	광덕사 보물 제1219-2호
圓覺經(諺吐). 卷上二 之二~ 三	"	"	"	四周單邊 半郭 19.0×13.3 cm, 有界, 大字6行13字中字12行19字 小字雙行, 上下內向黑魚尾 ; 27.0×18.2 cm	월정사 성보박물관 보물 제793-11호
圓覺經(諺吐). 卷上二 之三, 下一 之一~ 二	"	"	"	四周單邊 半郭 19.5×13.3 cm, 有界, 大字6行13字中字12行19字 小字雙行, 上下內向黑魚尾 ; 26.8×18.4 cm	화봉문고
圓覺經(諺吐). 卷下二 之一~ 二	"	"	"	四周單邊 半郭 19.5×13.3 cm, 有界, 大字6行13字中字12行19字 小字雙行, 上下內向黑魚尾 ; 26.8×18.4 cm	영남대학교 도서관



〈그림 9〉 『원각경』 권하1-1~2-2(상), 권하1-2~2-1(하)

(보물 제1219-1호)

출처: 국가문화유산포털(<http://www.heritage.go.kr>)

4.1.2 왕실 간행본

세조대에 왕실 주도로 간행된 불교서적은 현재 『묘법연화경』 2종이 전해 지는데, 세조 1년(1455) 의경세자의 비 한씨의 주도로 간행한 판본과 세조 5년(1459) 광평대군의 부인 신씨의 주도로 간행한 판본이다.

세조 1년(1455)에 간행된 『묘법연화경』은 세종 4년(1422)에 대자암(大慈庵)에서 간행된 판본의 후쇄본이다. 대자암 간행본은 권말에 있는 변계량(卞季良), 정암(定庵), 무준(無準) 등의 발문에 의하면 인순부윤(仁順府尹) 성억(成抑)이 성녕대군(成寧大君)²⁰⁹과 태종의 비 원경왕후(元敬王后)의 명복을 빌고자 사촌 성달생에게 부탁해 판하본을 필사하게 하였는데 이를 정암이 발원하여 대자암에서 간행한 것이다.²¹⁰ 세조 1년(1455) 간행본은 권7 말에 저본인 대자암본의 발문에 이어 학조의 발문이 차례로 수록되어 있어 간행 경위를 알 수 있는데, 동궁(의경세자)의 빈인 한씨(후의 인수대비)가 어머니인 좌의정 한확(韓確)의 부인 홍씨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기존 목판을 사용하여 10부를 인출한 것이다.²¹¹ 현재 1종이 통도사 정보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권1~7의 7권 7책으로 각 권수에는 변상도가 있다.

세조 5년(1459) 견성암(見性菴)에서 간행한 『묘법연화경』은 세종의 다섯째 아들 광평대군의 부인 신씨(申氏) 발원으로 간행되었다. 김수온의 발문에 의하면 신씨는 명나라 내부에서 계환의 주해가 없는 무주법화경을 구해 이를 저본으로 주상과 왕비, 세자의 수복을 빌기 위해 간행하였다.²¹² 권수에 변상도가 있다. 현재 개인소장 권1, 2, 5의 3권 1책이 전해진다.(정왕근, 2012)

209) 성녕대군(誠寧大君 1405~1418) 조선 태종의 넷째 아들. 이름은 종(種)이고 어머니는 원경왕후(元敬王后)이다. 부인은 성억(成抑)의 딸이다. 태종의 넷째 아들이자 성녕군(誠寧君)에 봉해졌다가 1414년(태종 14)에 대군이 되었으며 대광보국대부의 위계에 올랐다. 14살 때 홍역에 걸려 세상을 떠났다.

210) 세종 4년(1422) 간행 『묘법연화경』 발문 ‘仁順府尹成公爲誠寧大君板刻法華經藏之于大慈菴之側請予跋予惟昭頃公之早世一國之人所共病悼 況爲成公也 歲世之人能以佛氏之書冥福者舉皆印之寫之而已 … 永樂壬寅(1422)二月日 … 卞季良 跋’ / ‘發源 蓮經七部 衆經中尊高出三乘 廣攝九部 生逢末運 慶遇斯典 以恭以敬 倩寫倩刊 願因是因 轉障成道 流通此教以永其傳 若見若聞 或信不信 同馭白牛 齊登覺路 我此願王 究竟如空 仰惟三寶俯賜證明道人 定庵’ / ‘道人定庵者欲向生死海裏引人天魚置涅槃岸托此蓮華王以爲鈎頭遂以此板而新之以廣其傳 元敬王太后 聞其事而嘉其志欲爲 主上殿下永享五福 昭 頃公之靈高樓九蓮抽衣贊幹其辦 諸善檀那又從而影響焉者頗衆嗚呼千歲下一段奇事後之學者如欲荷擔大事直須向定菴垂手處好翻身一擲苟如是則 太后之願定菴之志庶乎不墜地矣菴托仁順府尹成君抑求予跋予以不才不堪措詞三請元勤是不辭而爲之 書簪龍壬寅(1422)春三月日 涵虛堂守伊 無準 敬跋’

211) 세조 1년(1456) 간행 『묘법연화경』 발문 ‘景泰七年(1456)十月日 我東宮嬪韓氏 爲先考妣右議政韓確夫人 洪氏超生極樂之願 成此大乘經典 十部 流布人間 惟此蓮經衆部尊功德之勝恒沙莫量 則韓相國兩位見佛聞 法永脫塵勞者 無可疑矣 景泰七年 丙子(1456)十月日 山人 學祖 謹跋’

212) 세조 5년(1459) 간행 『묘법연화경』 발문 ‘法華一經有單有註 我國所行率皆戒環疎而單法華則止於大藏之餘爾也 廣平大君夫人申氏得內出唐本無註者一本 字劃甚楷大小適宜於是爲主上殿下萬萬歲 中宮殿下萬萬歲 世子低下千千春之願開刊於見性菴以天順三年(1459)四月有日肇 功其年六月告訖 … 是年七月初五日嘉靖大夫同知中樞院事臣 金守溫奉教撰’

세조대 왕실 간행본의 현황을 도표화하면 아래 <표 20>과 같다.

<표 20> 세조대 왕실 간행본

서명	저자	간행년	판본	판식	소장처
妙法蓮華經. 卷1~7	鳩摩羅什(姚秦) 奉詔譯 ; 戒環(宋) 解	世祖 1 (1455)	木板本	變相圖, 30.0×17.6 cm	통도사성보박물관 보물 1196-1호
妙法蓮華經. 卷1, 2 ,5	"	世祖 5 (1459)	木板本	變相圖, 上下單邊 半郭 19.6 cm, 每行17字	개인소장

4장에서 살펴본 세조대 왕실본은 모두 17종으로 경전류 15종, 한국찬술류 2종, 장소류 3종, 선종류 2종, 천태종류 2종이 간행되었다. 이 중 세조의 명찬본은 15종이고, 왕실 간행본은 2종이다. 세조대 왕실본의 특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조 원년(1455) 세조는 을해자를 조성하고 이 활자로 『묘법연화경』을 인출 간행하였다. 고려대학교 도서관과 월정사에 초간본이 전해진다.

둘째, 세조 3년(1459) 9월 의경세자가 죽자 세조는 그의 명복을 빌기 위해 불교서적을 간행하는데, 현재 『금강경오가해』, 『대승기신론소』, 『반야바라밀다심경약소』, 『번역명의집』, 『영가진각대사증도가』, 『묘법연화경』의 6종이 전해진다. 이들 간행본은 권말 세조의 어제발문에 의해 간행의 경위를 알 수 있다. 『금강경오가해』는 세조 3년(1459) 주조한 정축자와 초주갑인자를 사용하여 인출하였다. 현존본 중 『금강경오가해』, 『번역명의집』, 『영가진각대사증도가』에는 ‘범시지보’의 내사인이 찍혀있다.

셋째, 세조 5년(1459)에 간행한 『월인석보』는 세조가 세종과 의경세자의 명복을 빌기 위해 『월인천강지곡』의 각 절을 본문으로 하고 『석보상절』을 증보·수정하여 주석으로 하고 목판본으로 간행한 것이다. 현재 전체 25권 중 초간본은 권1, 2, 7, 8, 9, 10, 11, 12, 13, 14, 15, 17, 18, 19, 20, 23, 25의 17권이 전해진다. 세종조의 원본과 문장과 표기법에 차이를 보이고 있어

훈민정음 초기 한글 변천 과정을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넷째, 세조 6년(1460)경 간행의 『천태사교의집해』는 고려의 고승 제관이 저술한 『천태사교의』에 대한 송의 종의의 주해서로 고려 충숙왕 원년(1314) 본을 저본으로 하여 을해자로 간행한 것이다.

다섯째, 세조 7년(1461) 교서관에서 을해자로 『능엄경』 언해본을 간행하였다. 세조 7년(1461) 5월 회암사 불사에서 석가의 분신사리가 있었을 때 효령대군이 국역의 완성을 청하여 세조가 신미, 학열, 학조 등에게 국역과 교정을 명하여 간행하도록 한 것이다.

여섯째, 세조대 『원각경』은 세조 3년(1457)~세조 7년(1461) 사이에 을해자로 간행한 한문본과 세조 11년(1465) 을유자로 간행한 언토본이 있다. 세조 11년(1465) 을유자본은 원각사 준공 후 간행한 것으로 이 판본의 인출을 위해 을유자 및 을유한글자를 주조하였다.

일곱째, 세조대 왕실 간행본은 『묘법연화경』 2종이 전해지는데, 세조 1년(1455) 의경세자의 비 한씨(후의 인수대비) 발원본과 세조 5년(1459) 세종의 다섯째 아들 광평대군의 부인 신씨 발원본이 전해진다. 세종 5년(1459) 간행본은 무자 법화경을 명나라에서 구해 간행한 것이다.

V. 예종, 성종, 연산군 시대 왕실본 분석

예종, 성종, 연산군대는 왕의 명에 의해 간행된 불교서적은 없으며, 모두 왕실의 발원으로 사유재산을 이용하여 공덕용 불사로서 간행 및 인출되었다. 특히 성종대와 연산군대에는 정희대왕대비, 인수대비 등 왕실의 대비들에 의한 불교서적 간행이 이루어진다.

예종, 성종, 연산군대 왕실본은 모두 25종으로, 예종대에는 경전류 1종과 의식의례집 1종의 2종이 간행되었고, 성종대에는 경전류 8종, 장소류 3종, 의식의례집 4종, 선종 관계류 4종의 총 19종이 간행되었으며, 이 중 언해본은 5종이다. 연산군대에는 의식의례집 2종, 선종 관계류 2종의 총 4종이 간행되었으며, 이 중 3종이 언해본이다.

5.1 예종 시대 간행본

예종대에는 예종 2년(1469) 『지장보살본원경』의 경전류 1종이 전해진다. 세종의 둘째 딸인 정의공주(貞懿公主)²¹³가 남편 안맹담(安孟聃, 1415~1462)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간행하였다. 김수온이 쓴 발문에 의하면, 정의공주는 안맹담의 명복을 빌고자 『수륙의문(水陸儀文)』, 『결수문(結手文)』, 『소미타참(小彌陀識)』, 『묘법연화경』을 새기게 했다²¹⁴.

예종 2년(1469) 간행본의 현황을 도표화면 아래 <표 21>과 같다.

213) 정의공주(貞懿公主, ?~1477) 세종(世宗)의 차녀로, 어머니는 소헌왕후(昭憲王后) 심씨(沈氏)이다. 세종이 즉위 전에 출생하였으나, 정확한 출생연도는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오빠 문종(文宗)이 태종 14년(1414)에 출생하였고, 동생 세조(世祖)가 태종 17년(1417)에 태어난 사실에 비추어 태종 15년(1415)에서 16년(1416) 사이에 출생한 것으로 짐작된다. 세종 10년(1428)에 정의공주(貞懿公主)에 봉해졌고, 안맹담(安孟聃)과 가례(嘉禮)를 치렀다. 안맹담은 관찰사 안망지(安望之)의 아들로, 세종 10년(1428)에 죽성군(竹城君)에 봉해졌다가 세종 14년(1432)에 연창위(延昌尉)로 개봉되었다.

214) ‘良孝公之也貞懿公主自喪及葬必誠必信 … 於是出財若粟付幹善釋重水陸儀文結手文小彌陀懺又以妙法蓮經 … 己丑六月下澣輔國崇祿大夫行中樞府知事金守溫跋’

〈표 21〉 예종 2년(1469) 왕실 간행본

서명	저자	간행년	판본	판식	소장처
地藏菩薩本願經. 卷上,中,下	[釋] 法燈(唐) 譯	睿宗 2년 (1469)	木板本	變相圖, 四周雙邊 半郭 23.7×15. 5cm, 有界, 7行16字, 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 ; 31.8×20.5 cm	관문사 소유, 구인사 관리 보물 966호

『지장보살본원경』은 목판본으로 권상, 중, 하(보물 제966호)의 3권 1책을 관문사에서 소유하고 구인사에서 관리하고 있다. 표제는 「지장경(地藏經)」이고, 권수의 변상도는 석가모니 설법도가 있으며 이어 대왕대비(大王大妃), 인수왕비(仁粹王妃), 왕대비(王大妃), 주상전하(主上殿下), 왕비전하(王妃殿下)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패기(牌記)가 적혀져 있으며, 위태천상(韋太天像)을 수록하였다. 본문에는 구결(口訣)이 보인다. 발문의 끝에는 ‘유치우원찰삼각산 도성암(留置于願刹三角山道成菴)’이란 기록이 경판(經板)을 정의공주의 원찰인 삼각산 도성암에 봉안했음을 알 수 있다. 시주질에 있어 각수질에는 권돈일(權頓一), 사부귀(史富貴), 고말종(高末終), 고산(高山), 박군실(朴群實), 이장손(李長孫), 김산수(金山守), 귀원(貴原) 등 8명의 각수명이 있다.



〈그림 10〉 『지장보살본원경』 변상도(보물 제966호)

출처: 국가문화유산포털(<http://www.heritage.go.kr>)

5.2 성종 시대 간행본

성종대 왕실본은 총 19종으로, 경전류 8종, 장소류 3종, 의식의례집 4종, 선종 관계류 4종이 간행되었다. 이 중 『원각경』, 『몽산화상법어약록』, 『묘법연화경』, 『금강경삼가해』, 『영가대사증도가남명전선사계송』의 5종은 언해본이다.

성종대 간행본을 시기별로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2.1 성종 원년(1470) 간행본

성종 원년(1470)에는 『묘법연화경』과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가 간행되었다.

첫째, 『묘법연화경』은 세조의 비인 정희대왕대비(시호 정희왕후)²¹⁵⁾가 세조, 예조, 덕종의 명복을 빌기 위해 간행하였다. 현재 3종이 전해지는데, 권1, 2(보물 1147-2호, 천장사 소유)를 수덕사 성보박물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권3~4, 5~7의 5권 2책은(보물 1147-1호)는 아단문고에서, 권5~7의 3권 1책은(보물 1147-3)은 본각사에서 소장하고 있다.

이 판본은 이후 인수대비에 의해 여러 차례 인출되는데, 성종 13년(1482) 후쇄본의 권7말에는 성종 원년(1470)의 김수온이 쓴 발문이 있고, 이어서 강희맹의 발문이 있다. 강희맹의 발문에 의하면²¹⁶⁾ 인수대비가 외동딸인 명숙공주(明淑公主, 1455~1482)의 명복을 빌기 위해 성종 원년본을 다시 인출하였다. 현재 삼성박물관 리움에 권6,7의 2권 2책이(보물 제936호) 소장되어 있다. 성종 19년(1488)에는 성종의 계비 정현왕후(貞顯王后)가 딸 순숙공주(順

215) 정희왕후(貞熹王后, 1418~1483) 세조의 비(妃). 본관은 파평(坡平)이고, 시호는 정희, 생전의 존호는 자성(慈聖)이다. 세종(世宗) 때에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를 지낸 윤번(尹璠)의 딸이다. 세종 10년(1428) 세조와 결혼하여 의경세자(懿敬世子, 덕종)와 예종(睿宗), 의숙공주(懿淑公主) 등 2남 1녀를 낳았다. 1455년 세조가 왕위에 오르자 왕비로 책봉되었으며, 세조 3년(1457)에 자성왕비(慈聖王妃)의 존호를 받았다. 1468년 세조가 죽고 예종이 즉위한 뒤에는 자성왕태비(慈聖王太妃)의 존호를 받았다. 1469년 예종이 왕위에 오른 지 14개월 만에 죽자 정희왕후는 당시 4살이던 예종의 아들 제안대군(齊安大君) 이현(李瑁, 1466~1525)을 대신해 의경세자의 둘째 아들인 잘산군(紇山君) 이혈(李瑔)을 왕위에 앉혔다. 새로 왕위에 오른 성종(成宗)도 당시 13살의 어린 나이였으므로 대왕대비(大王大妃)로서 1469년부터 1476년(성종 7) 2월 8일까지 약 8년간 수렴정정(垂簾聽政)을 하였다. 성종 14년(1483) 5월 6일(음력 3월 30일)에 온양에서 사망해 남양주(南楊州)의 광릉(光陵)에 매장되었다

216) ‘乃捨公主匱具命印法華經’

淑公主, 1478~1488)의 명복을 빌기 위해 성종 원년본을 다시 인출하였는데,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권5~7의 3권 1책이(보물 제950호) 전해진다. 연산군 원년(1495)에도 성종의 명복을 빌기 위해 원각사에서 다시 인출하였으며,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권1~2, 권5~7의 5권 2책이 전해진다. 성종 원년의 발문에 이어 연산군 원년 복암(福菴)이 쓴 발문이 있다.

둘째, 『수록무차평등재의촬요』는 수록재 의식의 절차를 정리하여 편찬한 책으로, 『결수문(結手文)』이라고도 하는데 절차나 방법 외에 ‘결수’의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도상을 통해 쉽게 이해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세종의 다섯째 아들인 광평대군(廣平大君)의 부인 신씨가 발원하고 아들인 영순군(永順君)이 필사하여 견성사(見性寺)에서 목판본으로 간행하였다. 이듬 해 영순군이 죽자 명복을 빌고자 인출한다. 일반적 왕실 발원의 판본과는 달리 국왕과 왕실의 수복을 비는 내용 없이 광평대군 일가의 수복을 빌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수록재 관련 의식집으로 현전하는 판본 중 가장 오래된 판본이다.

현재 호림박물관에 1종이 전해진다(보물 1105호). 권미제(卷尾題) 아래에 혜원(慧圓)이라는 장서인(藏書印)이 찍혀있고 ‘견성사개판(見性寺開板)’이라는 기록이 있다. 권말에 영순군이 쓴 발문, 광평대군, 무안군(撫安君), 신자수(申自守) 등의 영가문(靈駕文)과 각수 김록동(金魯同), 김귀손(金貴孫), 김천동(金千同) 등의 이름과 신미(信眉), 학열(學悅), 학조(學祖) 등 200여 명의 시주자 명단과 김수온의 발문, 간기와 함께 대공덕주(大功德主) 신씨 혜원(慧圓)²¹⁷⁾이라는 기록과 장서인이 찍혀있다.

성종 원년(1470) 간행본의 현황은 아래의 <표 22>와 같다.

217) 成化六年(1470)庚寅六月日 大功德主永嘉府夫人申氏蕙園

〈표 22〉 성종 원년(1470) 왕실 간행본

서명	저자	간행년	판본	판식	소장처
妙法蓮華經. 卷1,2	鳩摩羅什(姚秦) 奉詔譯; 戒環(宋) 解	成宗 원년 (1470)	木板本	四周雙邊, 有界, 8行13字, 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 ; 35.6×21.6 cm	소유 천장사 관리 수덕사 정보박물관 보물 1147-2호
妙法蓮華經. 卷3~7	"	"	"	四周雙邊, 有界, 8行13字, 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 ; 35.6×21.6 cm	아단문고 보물 1147-1호
妙法蓮華經. 卷5~7	"	"	"	四周雙邊, 有界, 8行13字, 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 ; 35.6×21.6 cm	본각사 보물 1147-3호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	[編者未詳]	"	木板本	四周單邊, 有界, 全葉 30行17字, 上下內向黑魚尾	소유 정보문화재단 관리 호림박물관 보물 1105호



〈그림 11〉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 권말 (보물 제1105호)

출처: 국가문화유산포털(<http://www.heritage.go.kr>)

5.2.2 성종 3년(1472) 간행본

성종 3년(1472) 인수대비(시호 소혜왕후)²¹⁸⁾는 세조와 덕종, 예종, 예종비, 예종의 장남 인성대군(仁城大君)의 명복을 빌고 대왕대비, 성종, 성종 비의 수복(壽福)을 빌기 위해 총 29종 2,815부의 불교서적을 인출하였다. 이 중에는 간경도감 간행본의 중간본이 포함되어 있다. 이 때 인출한 판본은 모두 갑인소자로 찍은 김수온이 쓴 동일한 발원문이 있다.

현재 9종이 전해지는데 이를 도표화하면 아래 <표 23>과 같다.

<표 23> 성종 3년(1472) 인수대비 간행본

서명	저자	간행년	판본	판식	소장처
般若波羅密 多心經疎	玄奘(唐) 譯 ; 靖邁(唐) 疏	成宗 3 (1472)	木板本	四周單邊, 半郭 7行20字	청주고인쇄 박물관
眞實珠集	倪妙行(宋) 集 ; 黃伍信(朝鮮) 書	"	"	四周單邊 半郭 18.4×13.6 cm, 有界, 11行17字 註雙行, 上下內向黑魚尾 ; 26.8×17.7 cm	국립중앙 도서관 보물 1014호
妙法蓮華經 (諺解). 卷7	鳩摩羅什(姚秦) 奉詔譯 ; 戒環(宋) 解	"	"	四周雙邊, 半郭 22.3×18.7 cm, 有界, 9行17字 註雙行, 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 ; 32.5×23.0 cm	중앙승가대학 보물 1225호
大方廣圓覺 修多羅了義 經(諺解). 卷下之二	宗密(唐) 述 ; [釋]信眉(朝鮮), 孝寧大君補 (朝鮮), 韓繼禧(朝鮮) ... 等譯	"	"	四周雙邊, 半郭 21.6×18.1 cm, 有界, 9行17字 註雙行, 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 ; 32.3×23.2 cm	동국대학교 도서관

218) 소혜왕후(昭惠王后, 1437~1504) 세조의 장남인 덕종의 비(妃). 본관 청주(淸州)이며 성은 한(韓)씨이다. 부친은 조선 초 막강한 세도가였던 한확(韓確, 1403~1456)이다. 남편은 세조의 첫째 아들 덕종이다. 세조가 왕위에 오르자 1455년(세조1)에 남편이 세자로 책봉되고 한씨는 수빈(粹嬪)으로 책봉되었다. 세조 3년(1457) 남편이 갑자기 사망하자 시동생인 예종이 즉위했다. 예종 또한 즉위 1년 2개월 만에 죽자 1470년 둘째 아들 이현(李瑔)이 성종에 즉위하여 세자로서 죽은 남편을 덕종으로 추존하자 왕후에 책봉되고, 이어서 인수대비(仁粹大妃)에 책봉되었다. 1471년(성종 2)에 세자로 죽은 남편 덕종은 왕으로 추존되고 자신은 인수왕비에 진책(進冊)되었다. 소생으로는 성종, 월산대군(月山大君), 명숙공주(明淑公主)가 있었으며, 능은 경릉(敬陵)이다.

서명	저자	간행년	판본	판식	소장처
蒙山和尚法語略錄 (諺解)	[釋] 德異(元)著 ; [釋] 信眉(朝鮮)諺解	成宗 3 (1472)	木板本	四周雙邊, 半郭 21.2×15.5 cm, 有界, 8行17字 註雙行, 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 ; 30.9×22.0 cm	세종대왕기념 사업회 보물 769호
蒙山和尚法語略錄 (諺解)	"	"	"	四周雙邊, 半郭 21.2×15.5 cm, 有界, 8行17字 註雙行, 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 ; 30.8×20.0 cm	자비사 보물 1012호
蒙山和尚法語略錄 (諺解)	"	"	"	四周雙邊, 半郭 21.2×15.5 cm, 有界, 8行17字 註雙行, 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	개인소장
妙法蓮華經 三昧懺法, 卷上	正亘 編	"	"	四周單邊, 全葉 10行19字 註雙行 ; 34.3×19.0 cm	기림사 보물 959호 중 1건
妙法蓮華經 三昧懺法, 卷下	[編者未詳]	"	"	四周單邊, 全葉 10行19字 註雙行 ; 34.3×19.0 cm	구인사 보물 1162호
佛祖歷代 通載	[釋] 念常(元)集	"	"	四周單邊, 有界, 8行16字 註雙行, 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 ; 28.2×16.8 cm	용화사 보물 737호
禪宗永嘉集	[釋] 玄覺(唐)撰 ; [釋] 行靖(宋)註	"	"	左右雙邊 上下單邊 半郭 16.7×12.6 cm, 有界, 9行20字 註雙行, 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	서울역사 박물관 보물 1297호
六經合部	[編者未詳]	"	"	四周單邊 半郭 19.6×12.8 cm, 有界, 8行17字 註雙行, 上下內向黑魚尾 ; 29×17.4 cm	상원사 보물 793호 중 한건
六經合部	[編者未詳]	"	"	四周單邊 半郭 19.6×12.8 cm, 有界, 8行17字 註雙行, 上下內向黑魚尾 ; 29×17.4 cm	정각사 보물 965-1
六經合部	[編者未詳]	"	"	四周單邊 半郭 19.6×12.8 cm, 有界, 8行17字 註雙行, 上下內向黑魚尾 ; 29×17.4 cm	소유 성룡사 관리 구인사 보물 965-2
六經合部	[編者未詳]	"	"	四周單邊 半郭 19.2×12.9 cm, 無界, 8行17字, 無魚尾 ; 26.5×17.5 cm	동국대학교 도서관

성종 3년(1472)의 인수대비 발원본은 현재 『반야바라밀다심경소』, 『진실주집』, 『묘법연화경』 언해본, 『원각경』 언해본, 『몽산화상법어약록』 언해본, 『묘법연화경삼매참법』, 『불조역대통재』, 『선종영가집』, 『육경합부』의 9종이 전해진다. 이를 간경도감 간행본의 후인본과 그 외 인출본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간경도감 간행본의 후인본은 모두 5종으로 『반야바라밀다심경소』, 『진실주집』, 『묘법연화경』 언해본, 『원각경』 언해본, 『몽산화상법어약록』이다.

『반야바라밀다심경소』, 『진실주집』은 세조 8년(1462)의 간경도감본을 후인한 것으로, 『반야바라밀다심경소』는 고려 선종 10년(1093) 간행본을 저본으로 간경도감에서 중간한 것이다. 현재 청주고인쇄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고려 때의 원간기²¹⁹⁾와 함께 간경도감의 중수 기록²²⁰⁾이 있으며, 권말 김수온의 갑인소자 발원문이 있다. 『진실주집』은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권 상, 중,하의 3권 1책(보물 제1014호)이 전해진다.



〈그림 12〉 『진실주집』 卷之三 말의 간경도감 원간기 (보물 제1014호)

출처: 국가문화유산포털(<http://www.heritage.go.kr>)

219) ‘大安九年(1093)癸酉歲高麗國大興王寺奉 宣雕造’

220) ‘天順六年(1462)壬午歲朝鮮國刊經都監奉 教重修’

『묘법연화경』 언해본은 세조 9년(1463) 간경도감본의 후인본으로, 현재 권7(보물 제1225호)의 1종이 중앙승가대학에 전해진다.

『원각경』 언해본은 세조 11년(1465) 간경도감본을 후인한 것으로 현재 동국대학교 도서관에 총 3권 중 2책이 결질인 1권 1책의 1종이 전해진다.

『몽산화상법어약록』은 원나라 임제종 승려 몽산화상 덕이(德異, 1231~1308)의 법어를 기록한 선(禪) 수행서이다. 몽산화상은 수선사 만항(萬恒), 가지산문의 혼구(混丘)와 교류하며 고려 선종계에 큰 영향을 미쳐 그의 저술이 고려, 조선시대에 많이 간행되었다. 세조 13년(1472) 간경도감본의 후인본으로, 성종 3년(1472) 6월에 200부를 인출하였다. 혜각존자 신미가 토를 달고 한글로 번역한 것으로, 간경도감본에는 권수제 다음에 ‘혜각존자신미역해(慧覺尊者信眉譯解)’가 적혀 있다²²¹⁾. 성종 3년본에는 역해자 표시가 없고, 권말에 김수온의 발문이 있다. 현재 자비사 소장본(보물 제1012호)과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소장본(보물 제769호), 개인소장본의 3종이 전해진다. 중종 16년(1521) 고성 유점사(楡岾寺)에서도 중종의 후궁 숙원(淑媛) 이씨의 영가천도를 위해 간경도감본을 번각 간행하였는데, 현재 성균관대학교 존경각에 전해진다.(윤혜영, 2008)

둘째, 간경도감 간행본의 후인본 외의 판본은 모두 4종으로, 『묘법연화경삼매참법』, 『불조역대통재』, 『선종영가집』, 『육경합부』이다.

『묘법연화경삼매참법』은 천태종 승려 정선(正玄)이 법화삼매의 수행을 위하여 예불(禮佛)하고 경전을 외우고 참회하는 행법(行法)을 『묘법연화경』을 근거로 하여 상, 중, 하의 3권으로 편성한 것이다. 성종 3년(1472) 20부를 인출하였는데, 현재 2종이 전해진다. 권상은 기림사 소조비로자나불 복장전적(일괄 보물 제959호) 중 한 건이고, 권하는 구인사에 소장(보물 제1162호)되어 있다. 절첩본 형식을 선장으로 장정하였다.

『불조역대통재』는 석가의 탄생시기부터 원통 2년(충숙왕 복위3년, 1334)까지 고승들의 전기를 연대순으로 기록한 서적으로, 성종 3년(1472) 30부를 인출하였다. 현재 22권 7책의 완질본 1종이 용화사에 전해진다. 권22의 표지

221) 기윤혜(2012)는 간경도감본이 폐지된 후 역해자 표시가 삭제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세 대왕기념사업회 소장본(보물 제769호)의 역해자 표시가 보이는 이유는 제1장이 본래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안쪽의 묵서로 쓴 기록에 묵담(默潭)이 세상을 떠난 스승으로부터 대대로 물려받아 간직해온 것이 현재 용화사 주지 스님에게 전해졌다는 내용이 있다.

『선종영가집』은 본래 충주 청룡사(靑龍寺)에서 판각한 목판으로 200부를 후인한 것으로 현재 서울역사박물관에 2권 1책(보물 제1297호) 1종이 전해진다. 판심제는 『영가집(永嘉集)』이다. 권말에는 ‘충주청룡사유판(忠州靑龍寺留板)’이라는 원간기가 있고 그 뒤에 이어서 김수온의 발문이 붙어 있다. 원본은 고려 때 회암사의 나옹혜근(懶翁惠勤)의 제자 흰선(田禪)이 이방직(李邦直)의 도움을 받아 고려 우왕 7년(1381) 봄 충주 청룡사에서 간행한 것이다.

『육경합부』는 세종 22년(1440) 정암(定菴)이 시주하여 간행한 판본을 다시 인출한 것으로, 성종 3년(1472) 6월 500부를 후인하였다. 『육경합부』는 『금강반야바라밀경』, 『화엄경』 「보현행원품(普賢行願品)」, 『대불정수능엄신주(大佛頂首楞嚴神呪)』, 『관세음보살예문(觀世音菩薩禮文)』, 『아미타경』, 『묘법연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觀世音菩薩普門品)」의 6종의 경(經)을 합한 것이다. 『금강반야바라밀경』 권말에 원간기인 ‘화악산영제암개판(華岳山永濟菴開版)’와 ‘施主定菴正統五(1440)年庚申’의 기록이 있다. 현재 상원사(보물 제793호 목조문수동자좌상 복장유물 중 한 건), 구인사(소유 성룡사, 보물 제965-2호), 정각사(보물 제965-1호),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전해진다.

5.2.3 성종 5년(1474) 간행본

성종 5년(1474)에는 정희대왕대비가 그 해 4월에 사망한 성종의 비 공혜왕후(恭惠王后, 1456~1474) 한씨의 명복을 빌기 위해 『예념미타도량참법』,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지장보살본원경』 3종을 간행하였다. 『예념미타도량참법』의 권10말 발문에 의하면 정희대왕대비가 공혜왕후 한씨와 세종과 소헌왕후, 세조, 덕종, 덕종비 등의 명복을 빌기 위해 간행하였다. 발문에 이어지는 시주질²²²⁾에는 주상전하와 여러 공주, 인수대비, 귀인, 숙빈, 숙의, 안순대비 등이 보이고, 이어서 감역(監役)을 담당한 내수사 별좌(別坐) 호종실(扈從

222) 主上殿下 貞懿公主 懿淑公主 明淑公主 仁粹王妃韓氏 崇壽公主 貴人朴氏 淑儀權氏 安順王大妃韓氏 淑儀愼氏 淑儀崔氏 淑儀李氏 淑儀尹氏 淑儀尹氏 淑儀尹氏 永嘉府夫人申氏 帶方府夫人宋氏 祥原府夫人朴氏 林川郡夫人金氏 德陽郡夫人盧氏 金堤郡夫人 崔氏 等

實) 등 간행에 참여한 사람들과 각수 권돈일(權頓一), 장막동(張莫同), 고말종(高末終), 김천동(金千同) 등이 보인다.²²³⁾

『예념미타도량참법』은 참법(懺法)에 사용되는 의식집으로, 현재 4종이 전해진다. 목아박물관에 권6~10(보물 제1144호)의 5권 1책, 국립중앙박물관에 권1~10의 10권 2책(보물 제949호), 고려대학교 도서관에도 권1~10의 10권 2책 완질본, 개인소장본 권3~4, 7~8의 4권 2책(보물 제1165호)이 소장되어 있다.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 권1~5는 후쇄본이다.



〈그림 13〉 성종 5년(1474) 『예념미타도량참법』 권수의 삼세불(三世佛)(위), 권10말 발문 및 시주질(아래) (보물 제949호)
출처: 국가문화유산포털(<http://www.heritage.go.kr>)

223) 監役 內需司別坐 扈從實, 掖庭署司案 白守和, 內需司典貨 朴揚春 / 唱準 別監金終萬 / 畫員 白終麟, 李長孫 / 刻字 權頓一, 張莫同, 李永山, 全祿同, 高末終, 崔得山, 金貴孫, 李長孫, 禹仁守, 洪寶千 等

『상교정자비도량참법』은 천도재에 사용한 의식집으로, 세종대 천도재를 수록재와 합쳐 설행하게 한 후, 수록재에 사용되었다. 현재 1종이 전해지는데, 권1~5의 5권 1책(보물 제1193-1호)을 한솔제지(주)에서 소유하고 있다. 표지가 결락되었다. 성종 12년(1481) 후인본²²⁴⁾이 국립중앙도서관에 전해지며, 성종 19년(1488) 후인본인 권6~10의 5권 1책이(보물 제1193-2호) 월각사에 전해지는데, 후인하면서 덧붙인 을해자로 찍은 인출기와 간기²²⁵⁾가 있다.

『지장보살본원경』은 견성사에서 간행하였는데, 광평대군의 부인 신씨과 그 아들 영순군(永順君)이 세조와 대비의 수복과 광평대군의 극락왕생을 빌기 위하여 간행을 준비하였으나 이루지 못하였던 것을 간행한 것이다. 현재 3종이 전해지는데 호림박물관에 권상, 중, 하(보물 제1104호)의 3권 1책, 고려대학교 도서관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서 권상, 중, 하를 소장하고 있다. 송광사 정보박물관에는 이 판본의 성종 10년(1479) 중간본²²⁶⁾이 전해지며, 동국대 도서관과 성암고서박물관에 성종 16년(1485) 중간본²²⁷⁾이 전해진다.

성종 5년(1474) 간행본 현황을 도표화하면 아래 <표 24>와 같다.

<표 24> 성종 5년(1474) 간행본

서명	저자	간행년	판본	판식	소장처
禮念彌陀道場懺法. 卷6~10	[釋] 王子成 (元) 集	成宗 5 (1474)	木板本	四周雙邊 半郭 28.1×18.3 cm, 有界, 9行15字 小字雙行, 黑口, 上下下向黑魚尾 ; 37×24 cm	국립중앙 박물관 보물 949호
禮念彌陀道場懺法. 卷1~10	"	"	"	四周雙邊 半郭 28.1×18.3 cm, 有界, 9行15字 小字雙行, 黑口, 上下下向黑魚尾 ; 33.4×22.0 cm	목아불교 박물관 보물 1144호
禮念彌陀道場懺法. 卷3~4, 7~8	"	"	"	四周雙邊 半郭 28.1×18.3 cm, 有界, 9行15字 小字雙行, 黑口, 上下下向黑魚尾 ; 37.3×23.6cm	개인소장 보물 1165호
禮念彌陀道場懺法. 卷1~10	"	"	"	四周雙邊 半郭 28.1×18.3 cm, 有界, 9行15字 小字雙行, 上下黑口, 上下下向黑魚尾 ; 33.0×23.8 cm	고려대학교 도서관

224) 後印跋: 龍集辛丑(1481)九月日 仁惠王大妃韓氏跋

225) 刊記: 弘治元年(1488)七月日

226) 刊記: 成宗十年(1479) 申氏願堂 見性寺, 金守溫跋

227) 刊記: 成化二十一年(1485)四月日補刊 大化主比丘尼信環

서명	저자	간행년	판본	판식	소장처
詳校正本慈 悲道場懺法 卷一~五	諸大法師 (梁) 集撰	成宗 5 (1474)	木板本	四周雙邊 半郭 25.2×18.6 cm, 有界, 9行15字 註雙行, 黑口, 上下下向黑魚尾 ; 37.3×24.0 cm	한솔제지(주) 보물 1193-1호
地藏菩薩本 願經. 卷上,中,下	[釋] 法燈(唐) 譯	成宗 5 (1474)刊, 成宗 16(1485) 後印	"	四周單邊 半郭 23.1×16.5 cm, 8行16字 註雙行, 白口, 上下內向黑魚尾 ; 32.3×21.0 cm	소유 성보문화재단 관리 호림박물관 보물 1104호
地藏菩薩本 願經. 卷上,中,下	"	"	"	四周單邊 半郭 24.0×16.7 cm, 無界, 8行16字, 白口, 上下內向黑魚尾 ; 34.8×21.0 cm	고려대학교 도서관
地藏菩薩本 願經. 卷上,中,下	"	"	"	四周單邊 半郭 24.0×16.7 cm, 無界, 8行16字, 白口, 上下內向黑魚尾 ; 34.8×21.0 cm	한국학중앙연구 원 장서각

5.2.4 성종 13년(1482) 간행본

성종 13년(1482) 간행본은 『금강경삼가해』 언해본, 『영가진각대사증도가
남명전선사계송』 언해본 2종이 전해진다. 『금강경삼가해』와 『영가진각대사증
도가남명전선사계송』은 세조가 국역하고 교정을 마치지 못한 것을 정희대왕
대비가 승려 학조에게 명하여 교정하게 하고 내수사에서 간행한 것이다.

성종 13년(1482) 간행본 현황을 도표화하면 아래 <표 25>와 같다.

<표 25> 성종 13년(1482) 간행본

서명	저자	간행년	판본	판식	소장처
金剛經三家 解(諺解). 卷1~5	鳩摩羅什(後秦) 譯 ; 宗密(唐) 纂要 ; 宗鏡 提綱 ; 己和(朝鮮) 說誼 ; 學祖(朝鮮) 重校	成宗 13 (1482)	丁丑字, 乙亥字本	四周單邊 半郭 27.2×20.3 cm, 有界, 11行21字 註雙行, 上下內向黑魚尾 ; 38.7×25.3 cm	세종대왕기념 사업회 보물 772-1호
金剛經三家 解(諺解). 卷2, 3, 4, 5	"	"	"	四周單邊 半郭 26.8×19.6 cm, 有界, 11行21字 註雙行, 上下內向黑魚尾 ; 38.6×25.2 cm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보물 772-2호

서명	저자	간행년	판본	판식	소장처
金剛經三家 解(諺解). 卷1	鳩摩羅什(後 秦) 譯 ; 宗密(唐) 纂要 ; 宗鏡 提綱 ; 己和(朝鮮) 說誼 ; 學祖(朝鮮) 重校	成宗 13 (1482)	丁丑字, 乙亥字本	四周單邊 半郭 26.8×19.6 cm, 有界, 11行21字 註雙行, 上下內向黑魚尾 ; 38.6×25.2 cm	보림사 보물 772-3호
金剛經三家 解(諺解). 卷2	"	"	"	四周單邊 半郭 27.1×20.0 cm, 有界, 11行 大字15字 小字21字, 註雙行, 上下內向黑魚尾 ; 38.7×25.4 cm	계명대도서관 보물 772-4호
金剛經三家 解(諺解). 卷3,4	"	"	"	四周單邊, 有界, 11行21字 註雙行, 上下內向黑魚尾	성암고서 박물관
金剛經三家 解(諺解). 卷1,2,6	"	"	"	四周單邊 半郭 27.0×20.0 cm, 有界, 11行21字 註雙行, 內向黑魚尾 ; 39.2×25.2 cm	동국대학교 도서관
永嘉大師證 道歌南明泉 禪師繼頌(諺 解). 卷上,下	世祖 譯 ; 學祖(朝鮮) 校正	成宗 13 (1482)	乙亥字本	四周單邊 半郭 24.4×16.7 cm, 有界, 9行19字 註雙行, 上下內向黑魚尾 ; 34.4×21.6 cm	규장각한국학 연구원
永嘉大師證 道歌南明泉 禪師繼頌(諺 解). 卷上,下	"	"	"	四周單邊, 有界, 9行19字 註雙行, 上下內向黑魚尾	개인소장
永嘉大師證 道歌南明泉 禪師繼頌(諺 解). 卷下	"	"	"	四周單邊 半郭 24.5×16.5 cm, 有界, 9行19字 小字雙行, 內向花紋魚尾 ; 32.4×21.2 cm.	고려대학교 도서관
永嘉大師證 道歌南明泉 禪師繼頌(諺 解). 卷下	"	"	"	四周單邊 半郭 24.2×16.6 cm, 有界, 9行19字 小字雙行, 內向黑魚尾 ; 23.5×21.5 cm.	고려대학교 도서관

『금강경삼가해』는 한문본 『금강경오가해』 중 야부(冶父)의 송, 종경(宗鏡)의 제강, 득통의 설의 등 삼가의 주해를 뽑아 구결을 달고 국역하여 5권 5책을 정축자로 300부를 인출한 것으로, 한계희와 강희맹의 발문에 의하면 세종대 소헌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해 세자(후의 문종)와 수양대군에게 번역을 명한 것을 초고를 마치고 교정하기 전에 마치지 못하고 성종대에 완성한 것이다. 본문의 대자(大字)는 정축자로, 중·소자는 을해자를 사용하여 인출하였다. 현재 5종이 전해지는데, 권1, 5의 2권 2책(보물 제772-1호)를 세종대왕기념사업회에서 소장하고 있으며, 권2, 3, 4, 5의 4권 4책(보물 제772-2호)는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권1 1권 1책(보물 제772-3호)는 보림사, 권2의 1권 1책(보물 제722-4호)는 계명대학교 도서관, 권3, 4의 2권 2책은 성암고서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영가진각대사증도가남명전선사계송』은 을해자본로 인출되었는데, 현재 5종이 전해진다. 권상, 하의 2권 2책이 규장각한국학연구원과 개인소장으로 전해지며,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권하 2종, 개인소장의 권하 1종이 전해진다.

5.2.5 성종 14년(1483) 간행본

성종 14년(1483) 3월 정희대왕대비가 사망하자 안순대비는 정희대왕대비의 명복을 빌기 위해 사재를 들여 『묘법연화경』, 『자비도량참법』, 『약사여래경』, 『육경합부』를 각각 33부씩 간행하고 정인사(正因寺)에서 전경불사를 행하였다.²²⁸⁾ 이는 현전하는 『육경합부』의 권말 발문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데,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아래 <표 26>과 같이 전해진다.

<표 26> 성종 14년(1483) 간행본

서명	저자	간행년	판본	판식	소장처
六經合部	[編者未詳]	成宗 14 (1483)	木板本	四周雙邊 半郭 18.4×12.5 cm, 下黑口 內向黑-2葉花紋魚尾 ; 27.2×17.2 cm	고려대학교 도서관

228) ‘維成化十九年(1483) 春三月 我大王大妃殿下 幸溫陽溫泉 疾彌留 歲三日晦日 薨于正寢 我仁惠王大妃殿下 侍側心切哀 哀念報劬勞 捐私財 願成法華經, 慘經, 藥師經, 六經各三十三部 於六七之間 轉讀於正因寺 … 成化十九年(1483)四月日山人臣學祖謹跋’

5.2.6 성종 16년(1485) 간행본

성종 16년(1485)에는 인수대비에 의해 『불정심다라니경』과 『오대진언』 언해본이 간행되었다. 두 판본은 세조대 간행된 다른 언해본들과는 체제가 다른 점이 특징이다. 다른 언해본들이 원문을 한 대문씩 단락을 짓고, 원문의 구결문을 둔 후, 구결문을 바탕으로 대역하는 언해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이 두 판본은 구결문이 없고, 변상도와 경의 원문을 두고 뒤쪽에 언해문을 별도로 두고 있다.(김무봉, 2008) 또한 경의 원문과 변상도 부분은 목판으로 인출하고, 언해 부분은 을해자로 인출하였다.(천혜봉, 19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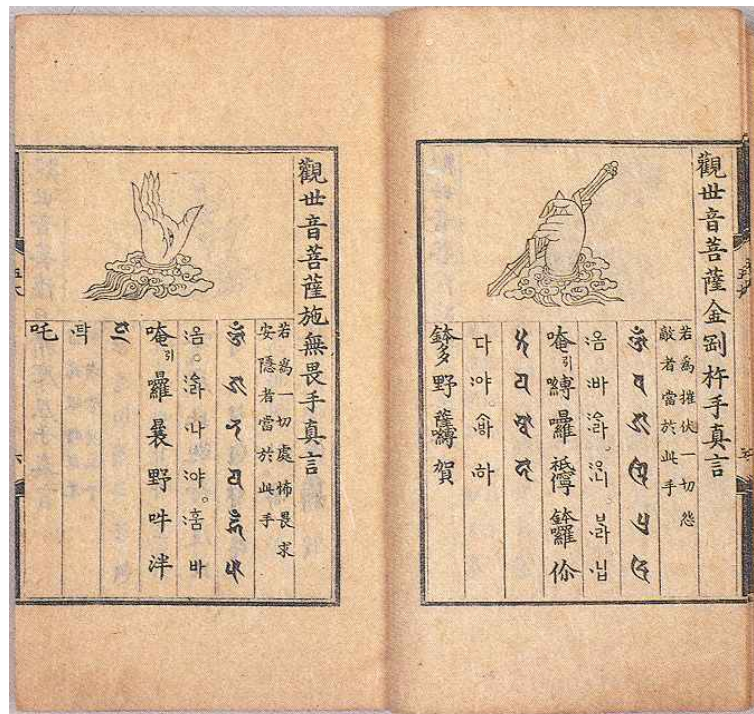
첫째, 『불정심다라니경』은 권말 학조의 발문에 의하면 인수대비가 다라니의 영험으로 성종의 장수를 빌기 위해 당(唐)본을 본떠 그림을 그리고 해서로 필사하여 간행하였다.²²⁹⁾ 구성은 권상, 중, 하에 이어서 학조의 발문이 있고, 각 권의 언해 부분이 이어진다. 권수에는 「수월관음도(水月觀音圖)」가 있고, 좌측 위패(位牌)에는 ‘宗廟磐石 王道弥隆 惠日長明 法周沙界’라는 기록이 있다. 본문 각 장의 상단은 경전의 내용을 축약해 표현한 삽도가 있고 하단에는 본문이 있다. 권의 마지막에는 위태천(韋駄天) 신장상(神將像)이 그려져 있다. 경의 원문 부분의 목판본 판식은 사주쌍변이고, 언해 부분 을해자본은 사주단변이다. 현재 2종이 전해지는데, 3권 1책이 호림박물관(보물 제1108호)과 서울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둘째, 『오대진언』은 「사십이수진언(四十二手眞言)」, 「신묘장구대다라니(神妙章句大陀羅尼)」, 「관자재보살근본다라니(觀自在菩薩根本陀羅尼)」, 「수구즉득다라니(隨求即得陀羅尼)」, 「대불정다라니(大佛頂陀羅尼)」, 「불정존승다라니(佛頂尊勝陀羅尼)」 등 여섯 편의 진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대진언’이라고 할 때 다섯 편은 세 번째 「관자재보살근본다라니」를 제외한 것이다. 『영험약초』가 합철(合綴)되어 있는데, 『영험약초』는 「대비심다라니(大悲心陀羅尼)」, 「수구즉득다라니(隨求即得陀羅尼)」, 「대불정다라니(大佛頂陀羅尼)」, 「불정존승다라니(佛頂尊勝陀羅尼)」 등 네 편 진언의 이적(異蹟)과 영험담(靈驗談)을 담은 책이다. 『영험약초』의 원문 부분과 언해 부분 사이에 있는 학조의

229) ‘我仁粹王大妃殿下 爲主上殿下 睿算靈長 消殄魔怨 爰命工人 効唐本祥密而圖之 楷正而寫之 鏤而刊之 以壽其傳 蓋益自利他 … 成化二十一年乙巳(1485) 春二月 比丘臣 學祖謹跋’

발문에 의하면, 인수대비의 명에 따라 일반 민중이 진언을 쉽게 익혀 암송하도록 하기 위하여 간행되었다. 본문은 진언을 범자(梵字)로 적고 행을 나란히 하여 정음으로 음역(音譯)을 달고, 이어서 한자를 적고 있다.

『오대진언』은 현재 4종이 전해지는데,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좌상 복장유물 중의 한 건(보물 제793-5호, 소유 상원사)을 월정사 정보박물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동국대학교 도서관 소장본²³⁰⁾은 『영험약초』가 합철되어 있지 않고, 훼손이 심해 하단 부분을 보수하였다. 일본 동양문고 소장본은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에서 조사한 것이다.



〈그림 14〉 성종 16년(1485) 『오대진언』 (보물 793-5호)

출처: 국가문화유산포털(<http://www.heritage.go.kr>)

성종 16년(1485) 간행 『불정심다라니경』과 『오대진언』의 현황을 도표화하면 아래 <표 27>과 같다.

230) 김무봉(2011)은 후쇄본으로 추정하고 있다.

〈표 27〉 성종 16년(1485) 간행본

서명	저자	간행년	판본	판식	소장처
佛頂心陀羅尼經(諺解). 卷上,中,下	[編者未詳]	성종 16 (1485)	木板本	四周雙邊 半郭 18.4×12.5 cm, 下黑口 內向黑-2葉花紋魚尾 ; 21.5×15.0 cm	소유 정보문화재단 관리 호림박물관 보물 1108호
佛頂心陀羅尼經(諺解). 卷上,中,下	"	"	"	四周雙邊, 半郭 21×14.7 cm, 界線, 8行9字, 上黑魚尾 ; 30.8×18.3 cm	서울대학교 도서관
五大眞言 (諺解)	[釋] 不空(唐)… 等奉詔譯	"	"	變相圖, 四周雙邊, 半郭 18.4×12.5 cm, 界線, 한문부 9行16字, 연해부 12行14字 註雙行, 黑口, 上下內向黑魚尾 ; 28.5×17.2 cm	소유 상원사 관리 월정사 정보박물관 보물 793-5호
五大眞言 (諺解)	"	"	"	變相圖, 四周雙邊, 半郭 18.0×13.0 cm, 有界, 8~9行15~16字 註雙行, 上下中黑口, 上下內向黑魚尾 ; 27.2×16.0 cm	동국대학교 도서관
五大眞言 (諺解)	"	"	"	變相圖, 四周雙邊 半郭 18.2×12.2 cm, 有界, 9行15字 註雙行, 上下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 ; 29.0×17.0 cm	日本東洋文庫

5.3 연산군 시대 간행본

연산군대 간행된 왕실본은 총 4종으로, 의식의례집 『진언권공』 언해본과 『천지명양수륙잡문』의 2종, 선종 관계류는 『선종영가집』 언해본, 『육조대사법보단경』 언해본의 2종이 간행되었다. 연산군대 간행본은 인수대비와 성종의 계비 정현왕후가 성종의 명복을 빌기 위해 원각사에서 인출한 것으로, 이때 왕실의 내탕금으로 부족한 목활자 및 한글자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이 목활자를 인경자(印經字)라 하고, 그 활자로 발문을 찍어 권말에 동일하게 붙였다. 연산군대 간행된 왕실본을 시기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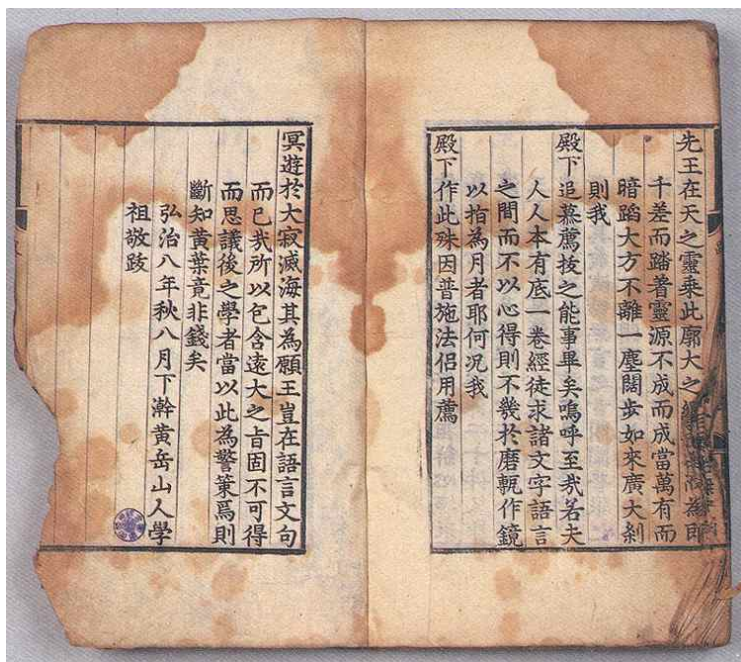
5.3.1 연산군 원년(1495) 간행본

연산군 원년(1495)에는 성종의 명복을 빌기 위해 원각사에서 인출한 왕실본은 『묘법연화경』 언해본 50부, 『수능엄경』 50부, 『금강반야바라밀경육조해』 60부, 『반야바라밀다심경』 언해 60부, 『선종영가집』 언해본 60부, 『석보상절』 20부, 『금강경오가해』 50부, 『육경합부』 300부의 8종 650부에 이른다. 이 중 현재 『선종영가집』 언해본이 전해진다.

『선종영가집』 언해본은 세조 10년(1464) 간경도감 간행본을 다시 인출한 것으로, 아래 <표 28>과 같이 현재 동국대학교 도서관과 국립한글박물관에 권하(보물 제1163호)가 전해진다. 동국대 도서관 소장본 중 권상은 간경도감 원간본으로, 권상, 하의 2권 2책이 보물 제744-1호로 지정되었다.

<표 28> 연산군 원년(1495) 간행본

서명	저자	간행년	판본	판식	소장처
禪宗永嘉集 (諺解). 卷下	玄覺(唐) 撰 ; 行靖(宋) 註; 淨源(晉) 修定料	燕山君 원년 (1495)	木板本	四周雙邊 半郭 20.8×15.0 cm, 有界, 8行19字 註雙行, 上下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 ; 32.6×20.3 cm	동국대학교 도서관 보물 774-1호
禪宗永嘉集 (諺解). 卷下	"	"	"	四周雙邊, 半郭 21×14.7 cm, 有界, 8行9字, 上黑魚尾 ; 32.8×21.0 cm	국립한글박물관 보물 1163호



〈그림 15〉 연산군 원년(1495) 『선종영가집』 언해본 발문(보물 제744-1호)
출처: 국가문화유산포털(<http://www.heritage.go.kr>)

5.3.2 연산권 2년(1496) 간행본

연산군 2년(1496)에는 『천지명양수륙잡문』 200부, 『육조대사법보단경』 300부, 『진언권공』 400부 등을 원각사에서 인출하였다.

『천지명양수륙잡문』은 『중례문(中禮文)』이라고도 하는데, 표제는 「수륙잡문(水陸雜文)」이고, 권수에 「아미타불정토상생지도(阿彌陀佛淨土上生之圖)」의 변상도 외 삽도가 있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과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전해진다.

『진언권공』 언해본은 현재 경기도박물관과(보물 제1053호) 규장각한국학 연구원에 전해지는데, 권말 발문에 의해 연산군 2년(1496)에 『진언권공』 400부와 『육조대사법보단경』 300부가 인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²³¹⁾ 발문을 쓴 사람의 이름이 빠져있으나 연산군 원년 『선종영가집』 언해본의 학조의 발문

231) ‘… 若六祖大鑑禪師 言簡理豐 祖席中卓然傑出 故古人稱語錄 爲經者 良有以也 我仁粹大王大妃殿下 … 命僧以國語翻譯六祖壇經 刊造木字 印出三百件 頒施當世 … 且施食勸供 … 詳校得正 印出四百件 頒施中外焉 弘治九年夏 五月日 跋’

에 따라 학조임을 알 수 있다. 『진언권공』에는 「삼단시식문(三檀施食文)」이 실려 있는데²³²⁾, 『진언권공』 부분의 판심제는 「공양(供養)」이고, 「삼단시식문」 부분의 판심제는 「시식(施食)」이다.

『육조대사법보단경』 언해본은 현재 5종이 전해지는데,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권상, 산기문고에 권상, 중, 호암미술관에 권상, 중, 성암고서박물관에 권상, 개인소장의 권상, 중이 있다. 명종 6년(1551)의 번각본 권중, 하가 개인 소장본으로 전해져 권하의 내용을 알 수 있다.

연산군 2년(1496) 간행본 현황을 도표로 정리하면 아래 <표 29>와 같다.

<표 29> 연산군 2년(1496) 간행본

서명	저자	간행년	판본	판식	소장처
天地冥陽水 陸雜文	[編者未詳]	燕山君 2 (1496)	木活字本 (印經字)	變相圖, 四周單邊 半郭 21.1×14.8 cm, 有界, 8行15字 註雙行, 黑口, 上下內向黑魚尾 ; 30.0×19.6 cm	국립중앙 도서관
天地冥陽水 陸雜文	"	"	"	四周單邊 半郭 19.8×14.9 cm, 有界, 8行15字, 上下黑口, 上下內向黑魚尾 ; 31.6×21.2 cm	고려대학교 도서관
眞言勸供 (諺解).	[撰者未詳]	"	"	四周單邊, 半郭 24.3×14.8 cm, 有界, 8行9字 註雙行, 上下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 ; 34.5×21.2 cm	경기도박물관 보물 1053호
眞言勸供 (諺解).	"	"	"	四周單邊, 半郭 24.3×14.8 cm, 有界, 8行17字 註雙行, 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 ; 34×20.4 cm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六祖大師法 寶壇經(諺解). 卷上,中	[釋] 惠能(唐) 說 ; [譯者未詳]	"	"	四周單邊, 半葉 24.3×14.8 cm, 8行17字 註雙行, 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 ; 31.2×20.8 cm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六祖大師法 寶壇經(諺解). 卷上,中	"	"	"	四周單邊, 半郭 24.2×15.03cm, 有界, 8行17字 註雙行, 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 ; 31.3×20.6cm	산기문고
六祖大師法 寶壇經(諺解). 卷上,中	"	"	"	四周單邊, 半郭 24.2×15.03cm, 有界, 8行17字 註雙行, 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 ; 31.3×20.6cm	호암미술관

232) 『진언권공』과 「삼단시식문」을 합쳐 『시식권공(施食勸供)』이라고도 한다.

서명	저자	간행년	판본	판식	소장처
六祖大師法 寶壇經(諺解). 卷上	[釋] 惠能(唐) 說 ; [譯者未詳]	燕山君 2 (1496)	木活字本 (印經字)	四周單邊, 半郭 24.2×15.03cm, 有界, 8行17字 注雙行, 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 ; 31.3×20.6cm	성암고서 박물관
六祖大師法 寶壇經(諺解). 卷上,中	"	"	"	四周單邊, 半郭 24.2×15.03cm, 有界, 8行17字 注雙行, 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 ; 31.3×20.6cm	개인소장



〈그림 16〉 연산군 2년(1496) 『진언관공』 언해본 권수 (보물 제1053호)

출처: 국가문화유산포털(<http://www.heritage.go.kr>)

5장에서 살펴본 예종, 성종, 연산군대 왕실본은 모두 왕실의 대비와 공주에 의한 간행본으로 총 25종이 전해진다. 예종대 2종, 성종대는 성종 원년(1470) 2종, 성종 3년(1472) 9종, 성종 5년(1474) 3종, 성종 13년(1482) 2종, 성종 14년(1483) 1종, 성종 16년(1485) 2종의 총 19종, 연산군대에는 연산군 원년(1495) 1종, 연산군 2년(1496) 3종의 총 4종이 전해진다. 예종, 성종, 연산군대 왕실본의 특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종대에는 예종 2년(1469) 세종의 둘째 딸 정의공주가 남편 안맹담의 명복을 빌기 위해 간행한 『지장보살본원경』이 전해지는데, 정의공주의 원찰인 삼각산 도성암에 경판을 봉안했다.

둘째, 성종 원년(1470)에는 『묘법연화경』과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 2종이 간행되었는데, 『묘법연화경』은 정희대왕대비가 세조, 예조, 덕종의 명복을 빌기 위해 간행하였는데, 인수대비에 의해 성종 13년(1482), 성종 19년(1488), 연산군 원년(1495)에 후인된 판본이 전해진다.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는 광평대군의 부인 신씨가 광평대군 일가의 수복을 빌고자 발원하고 아들 영순군이 필사하여 견성사에서 간행되었다.

셋째, 성종 3년(1472)에는 인수대비가 세조, 덕종, 예종과 예종 비, 인성대군의 명복을 빌고 정희대왕대비, 성종, 성종 비의 수복을 빌기 위해 인출한 불교서적 9종이 전해진다. 이 중 간경도감 간행본을 중간한 것은 『반야바라밀다심경소』, 『진실주집』, 『묘법연화경』 언해본, 『원각경』 언해본, 『몽산화상법어약록』의 5종이고, 그 외 판본은 『묘법연화경삼매참법』, 『불조역대통재』, 『선종영가집』, 『육경합부』의 4종이다.

넷째, 성종 5년(1474)에는 정희대왕대비가 성종의 비 공혜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해 간행한 『예념미타도량참법』,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지장보살본원경』 3종이 전해진다. 시주질에 의해 성종과 여러 공주, 인수대비, 안순대비 등 왕실 구성원이 시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성종 13년(1482) 간행본은 『금강경삼가해』 언해본, 『영가진각대사증도가남명전선사계송』 언해본 2종이 전해지는데, 세조가 국역하고 교정을 마치지 못한 것을 정희대왕대비가 승려 학조에게 명하여 교정하게 하고 내수사에서 간행한 것이다.

여섯째, 성종 14년(1483)에는 안순대비가 정희대왕대비의 명복을 빌기 위해 사재를 들여 간행한 불교서적 중 『육경합부』 1종이 전해진다.

일곱째, 성종 16년(1484)에는 인수대비에 의해 간행된 『불정심다라니경』과 『오대진언』 2종이 전해지는데, 모두 학조가 국역한 언해본이다. 2종 모두 원문인 한문부와 언해 부분이 나누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여덟째, 연산군대에는 인수대비와 성종의 계비 정현왕후가 성종의 명복을

벌기 위해 원각사에서 불교서적을 인출하였는데, 연산권 원년(1495)의 『선종
영가집』 언해본과 연산군 2년(1496)의 『천지명양수륙잡문』, 『육조대사법보단
경』 언해본, 『진언권공』 언해본이 전해진다. 이때 왕실 내탕금으로 부족한 목
활자 및 한글자를 만들어 사용하였는데 이 목활자를 인정자라고 한다.

Ⅵ. 조선 전기 왕실본의 후기에 끼친 영향

조선 전기 사성 및 간행된 왕실본은 조선 후기까지 전국의 사찰에서 중간 및 번각되어 보급되었다. 본 장에서는 왕실본의 보급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경전류, 장소류, 의식의례집, 선종 및 천태종 관계류, 한국찬술류의 5개 주제 영역으로 구분하여 판본별 간행의 경위, 서지적 특징을 조사하여 시기 및 간행자별 계통을 수립하고자 한다.

6.1 경전류

조선 전기 왕실본 중 경전은 『묘법연화경』, 『능엄경』, 『원각경』, 『부모은중경』, 『지장보살본원경』, 『장수멸죄호제동자다라니경』, 『육경합부』, 『불정심다라니경』, 『번역명의집』, 『불조역대통재』 11종이 간행되었다. 이들 경전류 중 사경으로 제작된 『부모은중경』과 『장수멸죄호제동자다라니경』을 제외하고, 조선시대 후기 번각 및 후인되어 간행된 경전 『묘법연화경』, 『능엄경』, 『원각경』, 『지장보살본원경』, 4종의 보급 현황에 대해 살펴보하고자 한다.

6.1.1 『묘법연화경』

『묘법연화경』은 왕실본 중 가장 많이 번각·보급되었다. 세종 32년(1450) 초주갑인자본, 세조 1년(1455) 을해자본, 성종 원년(1470) 목판본이 번각되어 유통되었는데, 이를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세종 32년(1450) 초주갑인자본

세종 32년(1450) 초주갑인자본의 보급 현황을 시기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종대 1종, 중종대 4종, 인종대 1종, 명종대 1종, 선조대 5종, 광해군대 1종, 인조대 5종, 효종대 1종, 현종대 5종, 숙종대 3종, 영조대 1종

의 총 28종이 간행되었다.

시기별 보급 현황을 도표로 정리하면 아래 <표 30>과 같다.

<표 30> 세종 32년(1450) 초주갑인자본의 보급

구분	간행자	간행년	판식
성종대 ²³³⁾	無量寺	成宗 24(1493)	四周單邊 半郭 26.0×16.0 cm, 有界, 10行18字, 上下內向2葉花紋魚尾 ; 33.0×21.0 cm
증종대	氷鉢菴	中宗 31(1536)	四周單邊 半郭 25.5×16.5 cm, 無界, 10行18字, 上下內向2葉花紋魚尾 ; 32.8×21.0 cm
	普光寺	中宗 32(1537)	四周單邊 半郭 25.7×16.4 cm, 無界, 10行18字, 上下內向2葉花紋魚尾 ; 33.0×20.8 cm
	靈覺寺	中宗 34(1539)	變相圖, 四周單邊 半郭 25.0×16.5 cm, 無界, 10行18字, 上下內向2葉花紋魚尾 ; 32.5×22.2 cm
인종대	神興寺	仁宗 1(1545)	變相圖, 四周單邊 半郭 24.5×16.5 cm, 無界, 10行18字, 上下內向2葉花紋魚尾 ; 32.5×21.2 cm
명종대	天冠寺	明宗 16(1561)	四周單邊 半郭 23.9×16.0 cm, 無界, 10行18字, 上下下向黑魚尾 ; 32.0×22.2 cm
선조대	鷲岩寺	宣祖 3(1572)	四周單邊 半郭 23.4×16.7 cm, 有界, 10行18字, 上下下向黑魚尾 ; 32.0×22.2 cm
	雙溪寺	宣祖 6(1573)	四周單邊 半郭 24.5×16.5 cm, 無界, 10行18字, 上下下向黑魚尾 ; 32.8×21.2 cm
	寶林寺	宣祖 14(1581)	四周單邊 半郭 22.1×16.8 cm, 有界, 10行18字, 上下下向黑魚尾 ; 33.2×21.0 cm
	松廣寺	宣祖 40(1607)	四周單邊 半郭 25.5×16.5 cm, 無界, 10行18字, 下向花紋魚尾 ; 34.5×21.5 cm
광해군대	松廣寺	光海君 7(1615)	四周單邊 半郭 23.6×16.3 cm, 無界, 10行18字 註頭註, 內向3葉花紋魚尾 ; 34.5×21.6 cm

233) 정왕근(2012)에 의하면, 성종 2년(1493) 황해도 자비령사 판본이 연세대학교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정왕근도 당시 실물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연세대학교 도서관 목록에서 검색되지 않고 실물을 확인할 수 없어 본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구분	간행자	간행년	판식
인조대	大興寺	仁祖 11(1633)	變相圖, 四周單邊 半郭 23.0×16.3 cm, 無界, 10行18字 ; 33.5×21.3 cm
	〃	仁祖 13(1635)	變相圖, 四周單邊 半郭 23.2×16.4 cm, 無界, 10行18字 ; 33.5×21.3 cm
	雙溪寺	仁祖 13(1635)	四周單邊 半郭 24.7×16.9 cm, 無界, 10行18字 ; 33.1×22.0 cm
	甘露寺	仁祖 24(1646)	變相圖, 四周單邊 半郭 24.5×16.3 cm, 無界, 10行18字 ; 33.5×22.3 cm
	開興寺	仁祖 24(1646)	變相圖, 四周單邊 半郭 24.0×16.4 cm, 無界, 10行18字 ; 33.5×22.0 cm
효종대	法泉寺	孝宗 9(1658)	四周單邊 半郭 23.5×16.0 cm, 無界, 10行18字 ; 32.7×21.8 cm
현종대	仙巖寺	顯宗 1(1660)	變相圖, 四周單邊 半郭 23.1×16.4 cm, 無界, 10行18字, 上下下向黑魚尾 ; 33.5×21.3 cm
	雙溪寺	顯宗 1(1660)	變相圖, 四周單邊 半郭 23.5×17.0 cm, 有界, 10行18字, 上下黑魚尾 ; 31.0×19.5 cm
	表訓寺	顯宗 4(1663)	四周單邊 半郭 22.1×16.2 cm, 有界, 10行18字, 上下內向黑(間混2葉花紋)魚尾 ; 32.3×20.2 cm
	靈覺寺	顯宗 6(1665)	變相圖, 四周單邊 半郭 23.1×16.1 cm, 無界, 10行18字, 下向黑魚尾 ; 35.8×22.8 cm
	岬寺	顯宗 11(1670)	變相圖, 四周單邊 半郭 25.4×16.7 cm, 10行18字, 上下混入花紋魚尾 ; 32.1×22.8 cm
숙종대	深谷寺	肅宗 4(1678)	四周單邊 半郭 25.0×17.1 cm, 無界, 10行18字, 下向黑魚尾 ; 33.8×22.1 cm
	普賢寺	肅宗 7(1681)	四周單邊 半郭 22.8×17.1 cm, 無界, 10行18字, 下向黑魚尾 ; 33.8×22.0 cm
	安國寺	肅宗 11(1685)	變相圖, 四周單邊 半郭 23.0×16.1 cm, 無界, 10行18字, 下向黑魚尾 ; 34.0×22.0 cm
영조대	仙巖寺	英祖 4(1728)	四周單邊 半郭 23.0×16.3 cm, 無界, 10行18字, 下向黑魚尾 ; 33.8×22.0 cm

위의 <표 30>을 바탕으로 주요 판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종 2년(1493) 충청남도 부여 만수산의 무량사(無量寺) 번각본은 권7말에 있는 김열경(金悅卿)의 발문²³⁴에 따르면 문종이 동궁으로 있을 때 병을 고치기 위해 주자로 찍은 『묘법연화경』의 판이 극묘(極妙)하여 이를 저본으로 다시 새긴다는 기록이 있어 세종 32년(1450) 초주갑인자본을 저본으로 복각했음을 알 수 있다. 무량사본은 세조, 정희왕후, 예종, 덕종의 천도와 인수 왕대비, 인혜대비, 주상과 왕비, 세자의 수복강녕과 국태민안(國泰民安)을 위해 지희스님의 감독으로 간행한 것이다. 동국대학교 도서관에서 권6, 성암고서 박물관에서 권1~4, 권3~7, 영광 영흥사에서 권4, 5를 소장하고 있다. 이 무량사본은 중종 32년(1537년) 충청남도 부여군 임천(林川) 보광사(普光寺)에서 번각하였다는 화엄종 출신의 대선(大禪) 법정(法正)의 발문이 있다.

선조 6년(1573)에 충청도 은진 쌍계사(雙溪寺)에서 성희(省熙)의 주관으로 간행된 판본은 충청도 서천 남면 학산에 있는 조귀창(趙貴唱), 정돌시(丁疇屎) 집에서 개간 후 쌍계사로 목판을 이관한 것이다. 현종 1년(1660년) 같은 판본을 중간하였다.

선조 40년(1607) 순천 송광사 간행본은 선조 16년(1583)에 승인(崇印)이 간행한 판본이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거치면서 목판이 절반 정도 불타 없어지자 담현(曇玄)이 소실된 목판들을 새겨서 보충한 판본이다.

인조대에는 해남 대흥사(大興寺)에서 인조 11년(1633)과 13년(1635) 두 차례 간행되는데, 모두 설암(雪岩)의 주관 하에 간행되었다.

현종 1년(1660년)에 순천 선암사에서 간행된 판본은 1579년 정유재란 시 왜구의 침입으로 판이 소실되자 은호(隱浩)와 탄해(坦海) 두 승려가 함께 발원하여 효종 3년(1652)부터 시작하여 판각을 완성한 판본으로 권말에 회민(懷敏)의 발문이 있다. 영조 4년(1728)에 이 판본을 중간하였다.

현종 6년(1665)에 경상도 함양 덕유산 영각사(靈覺寺)에서 간행된 판본은 중종 34년(1539)에 동일 사찰에서 간행된 판본의 중간본이다. 권1말에 있는 상규(尙圭)의 발문에 따르면 청언(淸彦)이 을사년(1539)에 육행 선사가 법화경 전질을 간행했으나 해구(海寇)의 침입으로 많은 판본이 망실되어 항상 이

234) 권7말 金悅卿 跋文 “... 顯陵廟爲春宮 有患疾所祈 鑄字法華經 極妙 乃重焉 自體甚工 鑄之甚研 始於辛亥(1491)春二月 工訖于壬子(1492)夏五月 ... ”

를 애석하게 여기니 장차 큰 힘을 들여 이를 보충했으면 한다고 했다. 이에 상규가 목판을 준비하고 청언으로 하여금 1665년에 소실된 판본을 간행하도록 하였다.

숙종 4년(1678)에 평안도 심곡사에서 간행된 판본은 명종 19년(1564)에 황해도 이순재 가에서 간행된 판본을 보충한 판본으로 두성(斗性)이 1678년에 간행하여 상원 심곡사에 안치해 두었다.

숙종 7년(1681)에 묘향산 보현사에서 간행된 판본은 지운(智運)의 주관으로 간행되었으며, 간행에 참여한 각수는 이지현(李智玄), 김생립(金生立), 보행(補行) 등 이다. 권6말에 축권질(軸勸秩)이 있어 간행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현전본 권6, 7이 대흥사에 소장되어 있다.

숙종 11년(1685) 경상도 함양 안국사에서 간행된 판본은 권말에 있는 신탐(信涵)의 주관으로 간행되었는데, 권말 풍계(楓溪)의 발문에 따르면 숙종 9년(1683)에 판각을 시작하여 숙종 11년(1685)에 완성하였다

2) 세조 1년(1455) 을해자본

세조 1년(1455) 간행 을해자본의 복각본은 모두 8종이 간행 보급되었는데, 중종대 중종 26년(1531) 공산본사본과 무량사본, 중종 32년(1537) 용천사본의 3종, 명종대에는 명종 10년(1555) 광덕사본과 명종 17년(1562) 쌍봉사본, 명종 19년(1564) 패엽사본의 3종, 선조대 선조 5년(1572) 무위사본 1종, 인조대 인조 9년(1631) 수암사본 1종이 전해진다. 이를 도표로 정리하면 아래 <표 31>과 같다.

<표 31> 세조 1년(1455) 을해자본의 보급

구분	간행자	간행년	판식
중종대	公山本寺	中宗 26(1531)	四周單邊 半郭 26.0×19.8 cm, 有界, 9行21字 註雙行, 內向黑魚尾 ; 37.8×25.7 cm
	無量寺	中宗 26(1531)	四周單邊 半郭 25.4×19.6 cm, 有界, 9行21字 註雙行, 內向黑魚尾 ; 37.5×25.4 cm
	龍泉寺	中宗 32(1537)	四周單邊 半郭 26.0×19.3 cm, 有界, 9行大字16字 小字21字, 內向黑魚尾 ; 36.3×24.7 cm

구분	간행자	간행년	판식
명종대	廣德寺	明宗 10(1555)	四周單邊 半郭 25.6×19.9 cm, 有界, 9行16字, 上下內向黑魚尾 ; 35.2×23.9 cm
	雙峯寺	明宗 17(1562)	四周單邊 半郭 24.2×19.7 cm, 有界, 9行16字, 上下內向黑魚尾 ; 34.2×23.9 cm
	唄葉寺	明宗 19(1564)	變相圖, 四周單邊 半郭 25.0×20.0 cm, 有界, 9行16字 註雙行, 上下大黑口, 內向黑魚尾 ; 38.0×25.0 cm
선조대	無爲寺	宣祖 5(1572)	四周單邊 半郭 25.9×19.9 cm, 有界, 9行16字 註單行21字, 內向混葉花紋魚尾 ; 35.3×22.0 cm
인조대	水巖寺	仁祖 9(1631)	四周單邊 半郭 24.0×19.8 cm, 有界, 9行16字, 上下內向黑魚尾 ; 34.2×23.9 cm

첫째, 중종대에는 중종 26년(1531) 공산본사본과 무량사본, 중종 32년(1537) 용천사본의 3종이 있다.

중종 26년(1531) 경상도 영천 공산본사(公山本寺)에서 행호(行乎)의 주관으로 간행된 판본은, 각수는 법숭(法嵩), 신초(愼初), 영은(靈隱), 인정(印情), 경희(慶喜), 성림(性臨) 등이 참여하였다. 권수에 변상이 수록되어 있는데 총 7개 장면으로, 도상 배치는 중국에서 간행된 『묘법연화경』 변상판화에서도 찾기 힘든 유형으로 다양한 도상이 결합된 것이다.(김태형, 2008) 공산본사본을 저본으로 하여, 명종 19년(1564) 황해도 패엽사에서 간행된 판본은 신경(信敬)의 주관으로 간행되었다.

중종 32년(1537)에 전라도 담양 용천사에서 간행된 판본은 권말에 있는 태허당(太虛堂) 천서(天瑞)의 발문에 따르면 을해자 간행 판본이 너무 오래 되어서 호법심(護法心)을 발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새로 각공들을 모집하여 병신년(1536)부터 판각하여 이듬해인 정유년(1537)에 마치고 이를 전라도 담양 추월산의 용천사에 이관했다고 한다.

둘째, 명종대에는 명종 10년(1555) 광덕사본과 명종 17년(1562) 쌍봉사본, 명종 19년(1564) 패엽사본의 3종이 있다.

3) 성종 원년(1470) 목판본

성종 원년(1470) 정희대왕대비가 발원하여 간행한 목판본 『묘법연화경』의 번각본은 40종으로, 중종대에는 중종 8년(1513) 귀진사본, 중종 22년(1527) 광흥사본의 2종, 선조대에는 선조 2년(1569) 보문사본, 선조 7년(1574) 덕주사본, 흥복사본의 총 3종, 광해군대에는 광해군 1년(1609년) 귀진사본과 광해군 5년(1613) 안흥사본 2종, 인조대에는 인조 6년(1628) 수연사본, 인조 11년(1633) 증심사본, 인조 12년(1634) 복천사본, 인조 13년(1635) 군자사본, 인조16년(1638) 영정사본의 5종, 효종대 효종 4년(1653) 해남 대흥사본, 효종 5년(1654) 전주 장파사본, 효종 6년(1655) 보은 법주사본의 3종, 현종대 현종 1년(1660) 진주 백천사본, 현종 2년(1661) 양양 신흥사본, 현종 5년(1664) 순천 흥국사본, 현종 6년(1665) 상주 보문사본과 금산 직지사본, 현종 9년(1668) 울산 운흥사본, 현종 10년(1669) 경상도 개령 고방사본, 현종 11년(1670) 태인 안주사본의 총 8종, 숙종대에는 숙종 1년(1675) 창원 화장사본, 숙종 4년(1678) 안동 광흥사본과 삼가 몽계사본, 숙종 10년(1684) 고성 운흥사본, 숙종 11년(1685) 청송 대전사본, 숙종 14년(1688) 경주 천룡사본, 숙종 17년(1691) 영본 보현사본, 숙종 32년(1708) 밀양 영은사본, 숙종 46년(1720) 양주 중흥사본의 9종이 있다. 경종대 경종 3년(1723) 사천 개흥사본 1종, 영조대 영조 1년(1725)과 영조 3년(1727) 산음 왕산사본에서 각 1종의 2종이 간행되었다. 이를 시기별로 나누어 도표로 정리하면 아래 <표 32>와 같다.

<표 32> 성종 원년(1470) 목판본의 보급

구분	간행자	간행년	판식
중종대	廣興寺	中宗 22 (1527)	變相圖, 四周單邊 半郭 21.9×16.2 cm, 有界, 8行13字 註雙行, 黑口, 內向2葉花紋魚尾 ; 33.7×20.6 cm
선조대	普門寺	宣祖 2 (1569)	變相圖, 四周單邊 半郭 22.5×16.0 cm, 有界, 8行13字 註雙行 上下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 ; 32.5×20.2cm
	德周寺	宣祖 7 (1574)	變相圖, 四周單邊 半郭 21.9×16.0 cm, 有界, 8行13字 註雙行 上下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 ; 31.5×21.2cm
	興福寺	宣祖 7 (1574)	變相圖, 四周單邊 半郭 23.3×16.5 cm, 有界, 8行13字 註雙行 上下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 ; 30.2×20.8cm

구분	간행자	간행년	판식
광해군대	歸信寺	光海君 1 (1609)	變相圖, 四周單邊 半郭 22.6×16.1 cm, 無界, 8行13字 註雙行, 小黑口, 上下內向2葉花紋魚尾 ; 34.3×22.0 cm
	安興寺	光海君 5 (1613)	變相圖, 四周單邊 半郭 22.0×16.1 cm, 無界, 8行13字 註雙行
인조대	隨緣寺	仁祖 6 (1628)	四周單邊 半郭 21.8×16.3 cm, 無界, 8行13字, 內向2葉花紋魚尾 ; 29.8×20.8 cm
	證心寺	仁祖 11 (1633)	變相圖, 四周單邊 半郭 22.3×15.9 cm, 有界, 8行13字 註雙行, 內向3葉花紋魚尾 ; 33.9×21.5 cm
	福泉寺	仁祖 12 (1634)	變相圖, 四周單邊 半郭 21.2×16.4 cm, 無界, 8行13字 註雙行, 內向黑(間混2葉花紋)魚尾 ; 32.0×21.0 cm
	君子寺	仁祖 14 (1636)	四周單邊 半郭 21.7×16.0 cm, 有界, 8行13字 小字雙行, 內向黑魚尾 ; 32.0×21.5 cm
	靈井寺	仁祖 16 (1638)	變相圖, 四周雙邊 半郭 21.1×15.9 cm, 有界, 8行13字, 內向2葉花紋魚尾 ; 31.5×20.5 cm
효종대	大興寺	孝宗 4 (1653)	四周單邊, 半廓 21.5×16.5 cm, 無界, 8行13字, 注雙行, 上下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 ; 32.7×22.0 cm
	長波寺 白雲菴	孝宗 5 (1654)	四周單邊, 半廓 22.2×15.8 cm, 無界, 8行13字, 注雙行, 上下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 ; 33.7×21.1 cm
	法住寺	孝宗 6 (1655)	四周雙邊 半郭 21.4×16.0 cm, 有界, 10行18字, 大黑口, 內向黑魚尾 ; 33.1×20.7 cm
현종대	百泉寺	顯宗 1 (1660)	變相圖, 四周單邊 半郭 19.9×16.5 cm, 有界, 8行10字, 上下大黑口, 內向2葉花紋魚尾 ; 32.2×21.2 cm
	神興寺	顯宗 2 (1661)	變相圖, 四周單邊 半郭 19.8×15.8 cm, 有界, 8行10字, 上下大黑口, 內向2葉花紋魚尾 ; 31.5×20.3 cm
	普門寺	顯宗 6 (1665)	變相圖, 四周單邊 半郭 21.3×16.0 cm, 有界, 8行10字, 上下大黑口, 內向2葉花紋魚尾 ; 32.0×21.3 cm
	直指寺	顯宗 6 (1665)	變相圖, 四周單邊 半郭 19.8×16.4 cm, 有界, 8行13字, 內向2葉花紋魚尾 ; 31.5×21.0 cm
	雲興寺	顯宗 9 (1668)	變相圖, 四周單邊 半郭 22.1×16.0 cm, 無界, 8行13字, 內向2葉花紋魚尾 ; 33.0×21.2 cm
	高方寺	顯宗 10 (1669)	變相圖, 四周單邊 半郭 21.3×16.0 cm, 無界, 8行13字, 內向2葉花紋魚尾 ; 34.1×22.0 cm
	雲住寺	顯宗 11 (1670)	四周單邊 半郭 21.5×16.0 cm, 無界, 8行13字, 內向2葉花紋魚尾 ; 33.2×20.9 cm

구분	간행자	간행년	판식
숙종대	華藏寺	肅宗 1 (1675)	變相圖, 四周單邊 半郭 19.8×15.8 cm, 無界, 8行13字, 上下內向黑魚尾 ; 33.2×21.4 cm
	廣興寺	肅宗 4 (1678)	變相圖, 四周單邊 半郭 20.5×16.4 cm, 有界, 8行16字, 黑口, 上下內向黑魚尾 ; 33.7×21.3 cm
	夢溪寺	肅宗 4 (1678)	變相圖, 四周單邊 半郭 20.5×16.0 cm, 無界, 8行13字, 上下內向黑魚尾 ; 33.2×22.0 cm
	雲興寺	肅宗 10 (1678)	變相圖, 四周單邊 半郭 20.3×17.8 cm, 有界, 8行13字 註雙行, 內向2葉花紋魚尾 ; 32.0×21.0 cm
	大典寺	肅宗 11 (1685)	變相圖, 四周單邊 半郭 19.5×15.5 cm, 有界, 8行13字 註雙行, 內向2葉花紋魚尾 ; 32.2×20.8 cm
	天龍寺	肅宗 14 (1688)	變相圖, 四周單邊 半郭 21.7×15.9 cm, 無界, 8行13字 註雙行, 上下內向黑魚尾 ; 33.1×21.1 cm
	普賢寺	肅宗 17 (1691)	變相圖, 四周單邊 半郭 22.5×16.0 cm, 無界, 8行13字 註雙行, 上下內向2葉黑魚尾 ; 32.8×22.1 cm
	靈隱寺	肅宗 32 (1708)	四周單邊 半郭 20.5×15.6 cm, 無界, 8行13字 註雙行, 上下內向黑魚尾 ; 32.1×21.1 cm
경종대	重興寺	肅宗 46 (1720)	變相圖, 四周單邊 半郭 21.9×15.5 cm, 無界, 8行13字 註雙行, 上下內向黑魚尾 ; 31.1×20.5 cm
	開興寺	景宗 3 (1723)	四周單邊 半郭 18.3×16.2 cm, 無界, 8行13字 註雙行, 上下內向黑魚尾 ; 30.1×19.8 cm
영조대	王山寺	英祖 1 (1725)	變相圖, 四周雙邊, 半郭 19.5×16.0 cm, 有界, 8行13字, 內向二葉花紋魚尾 ; 31.0×21.1 cm
	王山寺	英祖 3 (1727)	變相圖, 四周雙邊, 半郭 19.0×15.7 cm, 有界, 8行13字, 內向二葉花紋魚尾 ; 31.0×21.1 cm

중종 22년(1527) 안동 광흥사 간행본은 숙능(宿能)의 주관으로 간행되었으며, 현재 기림사(보물 제959-4-10호)를 비롯하여 다수의 사찰과 개인 등이 소장하고 있는데 현전본이 많아 비교적 많이 유통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선조 7년(1574) 김제 흥복사 간행 판본은 성종 원년(1470) 원간본의 김수온 발문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저본으로 복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송림사에 권1이 소장되어 있다(경북유형문화재 제366호).

6.1.2 『원각경』

『원각경』의 왕실본은 세조 3년(1455)~세조 7년(1461)에 간행된 을해자본이 번각되어 보급되었다. 광해군대, 인조대, 효종대, 현종대, 숙종대 각 1종씩 5종이 전해지는데, 이들 판본의 현황을 아래 <표 33>로 도표화하고,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3> 『원각경』 을해자본의 보급

구 분	간행지	간행자	간행년	판 식
광해군대	河東	雙溪寺	光海君 3 (1611)	四周單邊 半郭 25.5×19.7 cm, 有界, 9行 16字 註雙行, 上下內向黑, 2~3葉花紋魚尾 ; 36.3×24.3 cm
인조대	朔寧	龍腹寺	仁祖 12 (1634)	四周單邊 半郭 25.4×25.0 cm, 有界, 9行 16字 註雙行, 上下內向黑, 2~3葉花紋魚尾 ; 36.0×24.5 cm
효종대	昇州	仙巖寺	孝宗 6 (1655)	四周單邊 半郭 24.9×20.2 cm, 有界, 9行 16字 註雙行, 上下內向黑, 2~3葉花紋魚尾 ; 35.0×24.0 cm
현종대	密陽	寧井寺	顯宗 2 (1661)	四周單邊 半郭 24.5×20.2 cm, 有界, 9行 16字 註雙行, 上下內向黑, 2~3葉花紋魚尾 ; 26.0×24.6 cm
숙종대	寧邊	普賢寺	肅宗 7 (1681)	四周單邊 半郭 24.0×20.0 cm, 有界, 9行 16字 註雙行, 上下內向黑, 上下內向黑混花紋魚尾 ; 34.0×25.0 cm

첫째, 쌍계사본은 광해군 3년(1611)에 번각한 것으로 총 15종이 전해진다. 쌍계사본의 권1과 권5, 6 말에는 간행질(刊行秩)과 시주질(施主秩)이 있는데, 이에 의하면 성림(性林)의 감독 하에 마가(摩訶), 선공(鮮空)이 연판을 하고 응준(應俊) 등 53명의 각수가 동원되어 경상남도 하동군의 쌍계사(雙溪寺)에서 판각한 것을 이후 말사인 능인암(能仁庵)에 판목을 보존하였다. 현재 쌍계사에 당시 판각한 책판(경남유형문화재 제185호)²³⁵⁾이 소장되어 있다. 현재 경희대학교 도서관 권6, 범어사 권6의 각 1종씩 2종 소장하고 있으며, 연세대학교 도서관, 원광대학교 도서관, 송광사 정보박물관, 경북대학교 도서관, 경

235) 쌍계사소장불경책판(雙溪寺所藏佛經冊板) : 경상남도 하동군의 쌍계사에 있는 36종의 불경 및 불교관계 문헌을 새긴 목판.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185호. 목판은 모두 1,743매이며, 간행시기는 쌍계사의 말사인 능인암(能仁庵)에서 1603년에서 1604년 사이에 간행한 것이 주류를 이룬다. 그 밖에 국사암판은 1903년에 간행된 것이며, 나머지는 17세기와 18세기 간행된 것이다.

희대학교 도서관, 영남대학교 도서관(1), (2), 건국대학교 도서관, 충남대학교 도서관, 동국대학교 도서관, 숙명여대도서관, 원광대학교 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권1~6의 총 13종을 소장하고 있다.

둘째, 용복사본은 인조 12년(1634)에 경기도 삭녕군 지수산 용복사(龍腹寺)에서 화주(化主) 혜형(惠亭)의 주도로 간행한 것으로 권5 말에 시주질과 간행질이 있고, ‘崇禎七年(1634)甲戌仲夏京畿朔寧地水山龍腹寺開版’이라는 간기가 있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권1~6, 고려대학교 도서관 권5, 범어사 권5, 계명대학교도서관에 권1, 2, 4, 5가 전해진다.

셋째, 선암사본은 효종 6년(1655) 전남 순천시 승주읍 선암사(仙巖寺)에서 판각한 것으로 권말에 ‘順治十二年(1655)乙未之菊秋曹溪山仙岩寺刊版’이라는 간기가 있다. 현재 경북대학교도서관, 동국대학교 도서관, 영남대학교 도서관, 선암사 정보박물관, 경북대학교 도서관, 범어사에 권1~6이 남아있으며, 동국대학교 경주 도서관에 권6 2종, 범어사 권3, 6, 계명대학교 도서관에 권4~6, 권1,3~6의 2종의 총 11종이 전해진다.

넷째, 영정사본은 현종 2년(1661)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구천리 재약산의 영정사(寧井寺, 현 表忠寺)에서 쌍계사본을 저본으로 하여 번각한 것이다. 현존 쌍계사본 중 송광사 정보박물관 소장 권1과 권5 말의 시주질과 각수질이 영정사본에서도 보인다. 권6 말에 영정사에서 간행하면서 혜휘(惠暉)가 초서체로 쓴 발문, 시주질, 각수질이 있다. 화주는 탄영(坦英), 충희(沖熙), 도영(道英)이다. 현재 총 3종이 전해지는데, 동국대학교 도서관과 영남대학교 도서관에 권1~6의 각 1종씩 남아있고, 범어사에 권6이 전해진다.

다섯째, 보현사본으로 숙종 7년(1681) 평안북도 영변 묘향산 보현사(普賢寺)에서 간행되었다. 역시 쌍계사본을 저본으로 번각한 것으로, 쌍계사본과 판식이 동일하나 판심제 상하상비(上下象鼻)에 흑구(黑口)가 추가되었다. 권5 말에 시주질과 간기가 있다.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에 권1~6의 6권 6책이 전해지며, 장서각 소장이었음을 뜻하는 ‘李王家圖書之章’이라는 장서인(藏書印)이 찍혀있다. 동국대학교 도서관에는 권1~6이 전해지는데 권1, 2가 1책으로 묶여있어 총 6권 5책이다.

6.1.3 『능엄경』

『능엄경』은 태종 1년(1401) 간행본을 저본으로 번각한 판본이 보급되었다. 인조대 1종, 숙종대 2종이 전해지는데 이를 <표 34>로 도표화하여 정리하고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4> 태종 1년(1401) 『능엄경』의 보급

구 분	간행지	간행자	간행년	판식
인조대	泰仁	龍藏寺	仁祖 13 (1635)	四周單邊 半郭 24.8×18.3 cm, 無界, 8行20字, 上下向黑魚尾 ; 36.1×23 cm
숙종대	寧邊	普賢寺	肅宗 8 (1682)	四周單邊 半郭 25.9×17.5 cm, 8行20字, 無魚尾 ; 34.1×22.2 cm
	昌平	龍興寺	肅宗 18 (1692)	四周單邊 半郭 24.5×17 cm, 有界, 8行20字,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 ; 33.5×21.8 cm

첫째, 인조 13년(1635) 전라도 태인 용장사(龍藏寺)에서 인조의 수만세(數萬歲)를 기원하며 대선사(大禪師) 태능(太能), 태호(太浩), 해안(海眼), 각성(覺性) 등이 주도하고, 대화주(大化主)인 계학(戒學)의 감독 하에 번각한 것이다. 용장사본의 권10의 말에는 태종 1년(1401) 간행본의 권근이 쓴 발문과 간행기록이 있고, 이어서 인조 13년(1635)본의 간행에 관계한 시주질과 간기 ‘崇禎八年乙亥(1635)四月日 全羅道泰仁縣地山龍藏寺開刊’가 있다.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에 권1~10, 동국대학교 도서관에 권3~10, 경상대학교 도서관에 권8~10의 3종이 남아있다.



〈그림 17〉 인조 13년(1635) 간행본의 권근의 발문과 간기

둘째, 숙종 8년(1682) 평안도 묘향산 보현사(普賢寺)에서 대화주인 지운(智運)의 주관 하에 간행한 것이다. 이 판본은 권1과 권3, 권4의 마지막에도 간기가 새겨져 있다. 보현사본의 권수에는 변상도가 있으며, 권10 말에는 태종 1년(1401) 권근의 발문이 있고, 이어서 숙종 8년(1682)에 남명자(南冥子)가 쓴 발문²³⁶⁾이 새겨져 있다. 이 발문의 뒤에는 주상, 왕비, 대왕대비, 왕대비, 제궁종실(諸宮宗室) 등을 축원하는 글이 있고, 그 뒤에 대시주, 대화주 등의 명단과 간기가 있다. 현재 4종이 전해지는데, 국립중앙도서관에서 10권 5책의 완질본을 소장하고 있으며, 규장각과 한국학중앙연구원에도 10권 10책의 완질본이 전해진다. 국립중앙도서관본의 권9의 끝에는 ‘康熙二十八年己巳正月十六日妙香山真佛菴虛照’라는 묵서지기가 있다. 이밖에 동국대학교에서 권3, 4, 권5, 6, 권9, 10의 3책을 소장하고 있다.

셋째, 숙종 18년(1692) 전라도 창흥(昌平) 용흥사(龍興寺)에서 대화주 민현(敏玄)의 감독 하에 간행한 것으로 숙종 8년(1682)본과 마찬가지로 태종 1년(1401)본을 번각한 것이다. 용흥사본의 권10 말에는 권근의 발문이 있고, 이어서 시주질, 인권질(引勸秩)과 별좌(別座), 대화주 등의 이름과 간기가 있다. 이 판본의 권8 끝에는 판자(板子) 시주질이 있으며, 권9의 끝에도 시주질

236) 肅宗 8年(1682) 卷10 末 南冥子 跋文 ‘壬戌(1682)…南冥子 跋’

이 있다. 책의 서근(書根)에도 시주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현재 규장각에 10권5책의 완질본이 전해지며, 국립중앙도서관에 권1~8의 4책, 건국대학교 도서관에는 권7~10의 2책이 전해진다.

6.1.4 『지장보살본원경』

『지장보살본원경』은 성종 5년(1474) 견성사 간행본이 번각되어 보급되었는데 총 7종이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선조 4년(1571) 천관사본, 광해군 2년(1610) 경상도 남장사본, 광해군 4년(1612) 전라도 송광사본, 효종대 효종 2년(1651) 경상도 운고사본 1종, 정조 15년(1791) 송광사본, 고종 16년(1879) 경기도 보정사(寶晶寺)본이 간행되었다.

이를 도표로 정리하면 아래 <표 35>과 같다.

<표 35> 성종 5년(1474) 『지장보살본원경』 견성사본의 보급

구분	간행지	간행자	간행년	판식
선조대	長興	天冠寺	宣祖 4 (1571)	3卷1冊：四周單邊 半郭 22.6×16.5 cm, 8行16字, 黑口, 上下內向黑魚尾；30.8×20.3 cm
광해군대	尙州	南長寺	光海君 2 (1610)	3卷3冊：四周單邊 半郭 23.2×16.7 cm, 有界, 8行16字 註雙行, 上下內向3葉花紋魚尾；28.6×23.0 cm
	順天	松廣寺	光海君 4 (1612)	3卷1冊：四周單邊 半郭 23.2×16.7 cm, 8行16字 註雙行, 上下內向黑魚尾；32.7×22.2 cm
효종대	彦陽	連高寺	孝宗 2 (1651)	3卷1冊：四周單邊 半郭 22.8×16.8 cm, 8行16字 註雙行, 上下內向1葉花紋魚尾；32.7×21.0 cm
정조대	順天	松廣寺	正祖 15 (1791)	3卷1冊：插圖, 四周雙邊 半郭 22.1×15.3 cm, 有界, 6行20字 國漢文雙行, 上下內向2葉花紋魚尾；32.5×21.4 cm
고종대	楊州	寶晶社	高宗 16 (1879)	3卷1冊：變相圖, 四周單邊, 半郭 21.8×16.6 cm, 有界, 8行16字 註雙行, 上下內向黑魚尾；31.2×21.3 cm

선조 4년(1571) 전라도 장흥 천관사본은 현재 계명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광해군 2년(1610) 남장사본은 원광대학교 도서관, 광해군 4년(1612) 송광사본은 동국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효종 2년(1651) 연고

사본은 성암고서박물관, 정조 15년(1791) 송광사본은 고려대학교 도서관, 고종 16년(1879) 보정사본은 국립중앙도서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계명대학교 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6.2 의식의례집

의식의례집은 『예념미타도량참법』,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천지명양수륙잡문』,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 『오대진언』, 『진언권공』의 6종이 간행되었다. 이 중 조선시대 후기 번각 및 후인되어 보급된 『예념미타도량참법』, 『천지명양수륙잡문』, 『오대진언』 3종의 보급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6.2.1 『예념미타도량참법』

『예념미타도량참법』은 성종 5년(1474) 간행본이 번각되어 보급되었는데, 연산군 9년(1503) 직지사본, 중종 37년(1542) 석두사본, 선조 5년(1572) 비로사본의 총 3종이다. 이를 도표로 살펴보면 아래 <표 36>과 같다.

<표 36> 성종 5년(1474) 『예념미타도량참법』의 보급

구분	간행지	간행자	간행년	판식
연산군대	金泉	直旨寺	燕山君 9 (1503)	變相圖, 四周雙邊, 半郭 24.1×18.5 cm, 有界, 9行15字, 註雙行, 上下黑口, 下向黑魚尾 ; 30.0×22.5 cm
중종대	兎山	石頭寺	中宗 37 (1542)	變相圖, 四周雙邊 半郭 24.5×18.5 cm, 有界, 9行15字, 黑口, 上下下向黑魚尾 ; 33.5×22.3 cm
선조대	豊基	毗盧寺	宣祖 5 (1572)	變相圖, 四周雙邊, 半郭 22.2×17.2 cm, 有界, 9行15字, 註雙行, 上下黑口, 上下下向黑魚尾 ; 31.6×20.8 cm

현재 연산군 9년(1503) 직지사본과 선조 5년(1572) 비로사본은 동국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중종 37년(1542) 석두사본은 규장각한국학연구

구원에 소장되어 있는데, 이 판본을 석두사에서 인조 16년(1638)에 인출한 판본도 함께 소장되어 있다.

6.2.2 『천지명양수륙잡문』

『천지명양수륙잡문』은 연산군 2년(1496) 간행본이 번각되어 보급되었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중종 26년(1531) 송광사본, 선조 5년(1572) 무위사본, 선조 14년(1581) 강당사본, 인조 13년(1635) 용복사본의 총 4종이다. 이를 도표로 살펴보면 아래 <표 37>과 같다.

<표 37> 연산군 2년(1496) 『천지명양수륙잡문』의 보급

구분	간행지	간행자	간행년	판식
중종대	順天	松廣寺	中宗 26 (1531)	四周單邊 半郭 20.3×15.0 cm, 有界, 8行15字 註雙行, 黑口, 上下內向黑魚尾 ; 28.8×19.0 cm
선조대	康津	無爲寺	宣祖 5 (1572)	挿圖, 四周單邊 半郭 19.4×15.1 cm, 有界, 8行15字 註雙行, 上下內向黑魚尾 ; 28.0×20.1 cm
	瑞山	講堂寺	宣祖 14 (1581)	四周單邊 半郭 20.1×14.9 cm, 有界, 8行15字 黑口, 上下內向黑魚尾 ; 30.6×20.8 cm
인조대	朔寧	龍腹寺	仁祖 13 (1635)	四周雙邊 半郭 19.4×15.4 cm, 有界, 8行15字, 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 ; 28.0×19.0 cm

현재 중종 26년(1531) 송광사본은 국립중앙도서관과 송광사 정보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선조 5년(1572) 무위사본은 영남대학교 도서관, 선조 14년(1581) 강당사본은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인조 13년(1635) 용복사본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다.

6.2.3 『오대진언』

『오대진언』 성종 16년(1485) 간행본이 번각되어 보급되었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중종 26년(1531) 지리산 철굴본, 명종 5년(1550) 풍기 철암본, 인조

13년(1635) 쌍계사본의 총 3종이 있다. 이를 도표로 살펴보면 아래 <표 38>과 같다.

<표 38> 성종 16년(1485) 『오대진언』의 보급 현황

구분	간행지	간행자	간행년	판식
중종대	河東	鐵堀	中宗 26 (1531)	手印圖, 四周雙邊 半郭 17.1×11.9 cm, 有界, 8行13字, 黑口, 上下內向黑魚尾 ; 21.4×16.0 cm
명종대	豐基	哲菴	明宗 5 (1550)	四周單邊 半郭 17.4×12.2 cm, 有界, 9行15字 註雙行, 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 ; 26.3×17.4 cm
인조대	恩津	雙溪寺	仁祖 12(1634)	插圖, 四周雙邊 半郭 17.0×12.3 cm, 有界, 8行15字, 上下內向大黑口, 上下黑魚尾 ; 27.0×18.0 cm

중종 26년(1531) 지리산 철굴본은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고, 명종 5년(1550) 풍기 철암본은 영남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성종 16년본과 같이 『영험약초』가 합철되어 있다. 인조 12년(1634) 쌍계사본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다.

6.3 선종 및 천태종 관계류

선종 관계류는 『몽산화상법어약록』, 『선종영가집』, 『진실주집』, 『영가진각대사증도가』, 『영가대사증도가남명전선사계송』, 『육조대사법보단경』의 5종이 간행되었고, 천태종 관례류는 『천태사교의집해』 1종이 간행되었다. 이 중 연산권 원년(1495) 간행의 『선종영가집』과 세조 6년(1460)의 을해자본 『천태사교의집해』가 번각되어 간행되었다. 보급 현황을 아래의 <표 39>로 도표화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9〉 선종 및 천태종 관계류의 보급

구분	서명	간행지	간행자	간행년	판식
중종대	禪宗永嘉集 (諺解).	安陰縣	長水寺	中宗 15 (1520)	四周雙邊 半郭 20.5×14.6 cm, 有界, 半葉 8行19字, 黑口, 上下內向黑魚尾 ; 30.0×20.8 cm
명종대	天台四敎儀 集解	珍山	西臺寺	明宗 9 (1554)	四周單邊 半郭 21.0×14.5 cm, 有界, 半葉 9行17字, 上下內向黑魚尾 ; 33.5×20.6 cm

『선종영가집』은 연산권 원년(1495)에 간행한 언해본이 중종 15년(1520) 장수사에서 번각되었다.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 고려대학교 도서관, 동국대학교 도서관, 계명대학교 도서관, 부산대학교 도서관, 송광사 정보박물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천태사교의집해』는 세조 6년(1460) 간행 을해자본이 명종 9년(1554) 진산 서대사에서 번각되었다. 현재 송광사 정보박물관에 1권 1책의 결질본이 전해진다.

6.4 한국찬술류

한국찬술류는 『석보상절』, 『월인천강지곡』, 『사리영웅기』, 『함허당득통화상현정론』, 『월인석보』 5종이 간행되었다. 이 중 세조 5년(1459) 『월인석보』가 중간되어 보급되었는데, 중종 37년(1542) 광흥사본, 명종 14년(1559) 무량사본, 명종 17년(1562) 무량굴본, 선조 1년(1568) 희방사본, 선조 2년(1569) 쌍계사본, 선조 5년(1572) 비로사본의 총 6종이다. 이를 아래의 〈표 40〉으로 도표화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0〉 세조 5년(1459) 『월인석보』의 보급

구분	간행지	간행자	간행년	판식
중종대	安東	廣興寺	中宗 37 (1542)	四周單邊 半郭 20.5×17.1 cm, 有界, 7行15字 註雙行, 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 ; 29.5×20.6 cm
명종대	淳昌	無量寺	明宗 14 (1559)	四周單邊 半郭 20.5×17.0 cm, 有界, 7行14字 註雙行, 黑口, 上下內向黑魚尾 ; 29.5×20.5 cm
	淳昌	無量窟	明宗 17 (1562)	四周單邊 半郭 20.9×17.4 cm, 有界, 7行16字, 黑口, 上下內向黑魚尾 ; 32.7×22.8 cm
선조대	豐基	喜方寺	宣祖 1 (1568)	四周雙邊 半郭 20.7×17.4 cm, 有界, 7行14-16字 註雙行, 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 ; 29.8×21.0 cm
	恩津	雙溪寺	宣祖 2 (1569)	四周單邊 半郭 20.7×17.2 cm, 有界, 7行16字 註雙行 上下中黑口, 上下內向黑魚尾 ; 28.2×19.3 cm
	豐基	毘盧寺	宣祖 5 (1572)	四周雙邊 半郭 21.9×17.4 cm, 7行字數不定, 上下內向黑魚尾 ; 31.9×21.8 cm

현재 중종 37년(1542) 광흥사본은 고려대학교 도서관과 서울대학교 도서관에 권1이 전해진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명종 17년(1562) 무량굴본 1책 결질이 소장되어 있다. 선조 1년(1568) 희방사 간행본은 연세대학교 도서관과 서울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명종 14년(1559) 전라도 순창 무량사본은 영광 불갑사 팔상전 복장에서 발견된 판본으로 권23이 전해진다(강순애, 2005). 선조 2년(1569) 쌍계사본은 동국대학교 도서관과 한양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일본 도쿄대학의 오후라문고(小倉文庫)에도 소장되어 있다. 선조 5년(1572) 비로사본은 경희대학교 도서관과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다.

6장에서는 조선 전기 왕실본이 조선 후기 전국의 사찰에서 번각 및 후인되어 보급된 현황을 경전류, 의식의례집, 선종 및 천태종 관계류, 한국찬술류의 4개 주제 영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는데, 이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전류는 『묘법연화경』, 『능엄경』, 『원각경』, 『지장보살본원경』의 4종이다. 『묘법연화경』은 세종 32년(1450) 초주갑인자본 28종, 세조 1년(1455) 을해자본 8종, 성종 원년(1470) 목판본 40종의 총 76종이 영조대까지 보

급되었다. 『원각경』 을해자본은 5종이 숙종대까지 보급되었으며, 『능엄경』은 태종 1년(1401) 간행본 3종이 인조대와 숙종대에, 『지장보살본원경』은 성종 5년(1474) 견성사 간행본 7종이 고종대까지 보급되었다.

둘째, 의식의례집은 성종 5년(1474) 간행 『예념미타도량참법』이 연산군, 중종, 선조대에 3종, 연산군 2년(1496) 간행 『천지명양수륙잡문』은 중종, 선조, 인조대에 4종, 성종 16년(1485) 간행 『오대진언』은 중종, 명종, 인조대에 3종이 보급되었다.

셋째, 선종 및 천태종 관계류는 연산군 원년(1495) 간행의 『선종영가집』이 중종 15년(1520)에, 세조 6년(1460)의 을해자본 『천태사교의집해』가 명종 9년(1554)에 번각되어 보급되었다.

넷째, 한국찬술류는 세조 5년(1459) 『월인석보』가 중종, 명종, 선조대에 총 6종이 번각되어 보급되었다.

이를 종합하면, 경전류가 91종, 의식의례집 7종, 한국찬술류 6종, 선종 및 천태종 관계류가 2종이 보급되었다. 전체 왕실본 중 경전류의 『묘법연화경』이 76종으로 가장 많이 보급되었다.

VII. 결 론

본 연구는 조선 전기 왕실본이 조선 사회와 불교계에 불교사상과 지식을 전달하는 데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왕실본이 사성(寫成) 및 간행될 수 있었던 역사적 배경을 고찰하고, 왕실본 현황을 조사하여 사성 및 간행의 경위와 서지적 특징을 분석하였다. 또한 왕실본을 주제별로 구분하여 조선 후기까지 번각(飜刻) 및 후인(後印)되어 보급된 현황을 조사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 전기 왕실본은 총 56종이 현전한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성종대가 19종으로(33.92%)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이어서 세조대 17종(30.35%), 세종대 11종(19.64%), 연산군대 4종(7.14%), 태종대는 3종(5.35%), 문종대와 예종대는 재위기간이 3년과 2년으로 짧아 각 1종이 전해진다. 56종을 주제별로 종합해보면, 경전류가 29종(51.78%)으로 가장 많고, 선종 및 천태종 관계류가 10종(17.85%), 의식의례집 6종(10.71%), 장소류 6종(10.71%), 한국찬술류가 5종(8.92%)이다. 이 중 한글 편찬본은 3종(5.35%), 국역본은 11종(19.64%)이다.

둘째, 왕실본은 고려 말기 국가불교의 전통이 계승되어 조선 전기 왕실불교 문화로 확립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는데, 국가적 행사로서의 불사는 점차 왕실 구성원의 무병장수 및 추천(追薦)을 위한 공덕용 불사로 변모되었다. 고려 말 국가불교의 전통은 원찰 및 능침사찰의 창건, 불교의례의 설행, 대장경 인출 및 사성 등의 형태로 계승되었고, 조선 전기 왕실불교는 추천 및 구복(求福) 불교의례 설행, 불교서적의 국역 및 간행 등의 문화로 확립되었다.

셋째, 시기별 왕실본의 분석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태종대에는 태상왕 태조가 신충에게 대자(大字)로 판하본을 쓰게 하여 태조 1년(1401) 『능엄경』, 『묘법연화경』 2종을 간행하였다. 태조의 셋째 아들 익안대군은 태조와 정종, 주상의 수복, 신의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해 『감지은니묘법연화경』을 사성하였다.

세종, 문종대에는 세종 명찬본 4종, 왕실 발원 사경 3종과 경전 5종이 있

다. 세종 명찬본은 『석보상절』, 『월인천강지곡』, 『사리영웅기』, 『묘법연화경』으로 모두 초주갑인자로 간행되었다. 훈민정음으로 편찬한 『석보상절』과 『월인천강지곡』은 15세기 국어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이며, 서지학적으로 한자는 ‘갑인자 소자’를 사용하고, 한글은 ‘갑인자 병용 한글대자’를 새로 주조하여 사용한 귀중한 판본이다. 왕실에서는 세종의 후궁 신빈 김씨가 발원한 『백지금니금강반야바라밀경』과 효령대군이 발원한 『백지묵서부모은중경』과 『백지묵서장수멸죄호제동자다라니경』이 있다. 명빈 김씨는 『부모은중경』, 『묘법연화경』을 간행하였고, 안평대군은 『묘법연화경』과 『함허당득통화상현정론』을 간행하였다. 세종의 막내아들 영웅대군은 원경왕후와 소헌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해 『지장보살본원경』을 간행하였다.

세조대에는 세조 3년(1459) 의경세자의 명복을 빌기 위한 간행본 중 『금강경오가해』, 『대승기신론소』, 『반야바라밀다심경약소』, 『번역명의집』, 『영가진각대사증도가』, 『묘법연화경』의 6종이 전해진다. 세조 5년(1459)에 간행한 『월인석보』는 세종과 의경세자의 명복을 빌기 위해 『월인천강지곡』의 각 절을 본문으로 하고 『석보상절』을 증보·수정하고 이를 주석으로 하여 간행한 것이다. 세종대 원본과 문장 및 표기법에 차이를 보이고 있어 훈민정음 초기 변천 과정을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세조 7년(1461) 을해자로 간행한 『능엄경』 언해본은 세조가 신미, 학열, 학조 등에게 국역과 교정을 명하여 간행한 것이다. 『원각경』은 을해자로 간행한 한문본과 을유자로 간행한 언토본이 있다. 세조대 왕실 간행본은 『묘법연화경』 2종이 전해지는데, 의경세자의 비 한씨 발원본과 광평대군의 부인 신씨 발원본이 있다.

예종대에는 예종 2년(1469) 정의공주가 남편 안맹담의 명복을 빌기 위해 간행한 『지장보살본원경』이 전해진다.

성종대는 성종 원년(1470) 정희대왕대비가 세조, 예조, 덕종의 명복을 빌기 위해 간행한 『묘법연화경』과 광평대군 부인 신씨가 광평대군 일가의 수복을 빌고자 발원하여 견성사에서 간행한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가 있다. 성종 3년(1472)에는 인수대비가 선왕과 왕비, 인성대군의 명복을 빌고 정희대왕대비, 성종, 성종 비의 수복을 빌기 위해 인출한 불교서적 9종이 전해진다. 성종 5년(1474)에는 정희대왕대비가 성종 비 공혜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해 간

행한 『예념미타도량참법』,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지장보살본원경』 3종이 전해지는데, 성종과 여러 공주, 인수대비, 안순대비 등 왕실 구성원이 함께 시주하였다. 성종 13년(1482) 간행본은 『금강경삼가해』 언해본과 『영가진각대사 증도가남명전선사계송』 언해본이 전해지는데, 세조 때 국역하고 교정하지 못한 것을 정희대왕대비가 학조에게 교정하게 하고 내수사에서 간행한 것이다. 성종 14년(1483) 안순대비는 정희대왕대비의 명복을 빌고자 사제로 『육경합부』를 간행하였다. 성종 16년(1484) 인수대비는 대중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학조가 국역한 『불정심다라니경』과 『오대진언』 언해본을 간행하였다.

연산군대에는 인수대비와 성종의 계비 정현왕후가 성종의 명복을 빌기 위해 원각사에서 간행한 『선종영가집』 언해본과 『천지명양수륙잡문』, 『육조대사 법보단경』 언해본, 『진언권공』 언해본이 전해진다. 이때 왕실 내탕금 만든 목활자 및 한글자를 인경자(印經字)라고 한다.

넷째, 왕실본은 조선 후기 전국의 사찰에서 번각 및 후인되어 보급되었는데, 경전류 91종, 의식의례집 7종, 한국찬술류 6종, 선종 및 천태종 관계류 2종, 장소류 1종이 현전한다. 경전류는 『묘법연화경』, 『능엄경』, 『원각경』, 『지장보살본원경』의 4종으로, 『묘법연화경』은 세종 32년(1450) 초주갑인자본 28종, 세조 1년(1455) 을해자본 8종, 성종 원년(1470) 목판본 40종의 총 76종으로 가장 많이 전해진다. 『원각경』 을해자본은 5종, 『능엄경』은 태종 1년(1401) 간행본 3종, 『지장보살본원경』은 견성사 간행본 7종이 전해진다. 의식의례집은 『예념미타도량참법』과 『오대진언』이 각 3종이 보급되었다. 선종 및 천태종 관계류는 연산권 원년(1495) 간행 『선종영가집』과 을해자본 『천태사교의집해』가 전해진다. 한국찬술류는 『월인석보』가 중종, 명종, 선조대에 총 6종이 남아있다.

연구의 결과, 조선 전기 왕실본은 왕실 구성원의 무병장수 및 명복을 빌기 위한 공덕용 불사로서 사성 및 간행되었으나, 조선 후기까지 전국 사찰에서 번각 및 후인되어 보급되었고, 특히 한글 편찬본과 국역본은 일반 백성에게까지 전달되어 불교대중화에 큰 공헌을 하였으며, 조선시대 불교사상과 지식을 계승하여 현재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 강순애. (1992). 새로 發見된 初槧本 『月印釋譜』 卷23에 관한 研究 : 그 構成과 底經을 中心으로. 『서지학보』, 8, 3-26.
- 강순애. (1998). 새로 발견된 初槧本 『月印釋譜』 卷25에 관한 연구 : 그 構成과 底經을 중심으로. 『서지학연구』, 16, 95-125.
- 강순애. (2001). 『月印釋譜』의 저본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22, 63-96.
- 강순애. (2003). 初槧本 『月印釋譜』 권15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25, 129-167.
- 강순애. (2004). 順天 松廣寺 四天王像의 腹藏典籍考. 『서지학연구』, 27, 27-61.
- 강순애. (2007). 연세대 소장의 초참본 『月印釋譜』 卷13, 卷14에 관한 연구 : 그 底本 經典과 構成을 중심으로. 『동방학지』, 138, 225-267.
- 강호선. (2013). 조선 태조 4년 國行水陸濟 실행과 그 의미. 『韓國文化』, 62, 199-234.
- 강호선. (2015). 고려시대 국가의례로서의 불교의례 실행과 그 정치적 의미. 『동국사학』, 59, 25-74.
- 강호선. (2015). 조선 전기 왕실원찰 견성암(見性庵)의 조성과 기능. 『서울학연구』, 59, 1-35.
- 강호선. (2017). 조선 전기 국가의례 정비와 ‘국행’수륙재의 변화. 『한국학연구』, 44, 485-515.
- 고종호. (2013). 『조선 전기 왕실의 불교 실행과 사원』.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곽동화. (2007). 『『楞嚴經』 版本에 관한 書誌的 研究』.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기윤희. (2012). 『조선 전기 인수대비 간행 불서의 분석』.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갑주. (1982). 『조선 전기 사원경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기중. (2005). 『釋譜詳節』의 저경과 저경 수용 양상. 『서지학연구』, 30, 151-182.

김기중. (2006). 『月印千江之曲의 底經과 문학적 성격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기중. (2012). 15세기 불전언해의 시대적 맥락과 그 성격 : 간경도감본 언해불전을 중심으로. 『정치사상연구』, 11(2), 95-122.

김무봉. (2006). 『육조법보단경언해』 연구. 『불교학연구』, 14, 91-128.

김무봉. (2008). 『불정심다라니경언해』 연구. 『한국사상문화』, 45, 351-394.

김무봉. (2011). 『영험약초언해』 연구. 『동악어문학』, 57, 5-47.

김무봉. (2012). 조선 전기 언해사업의 현황과 사회문화적 의의. 『한국어문학연구』, 58, 5-50.

김미경. (2010). 『『圓覺經』 版本의 系統과 書誌的 特徵에 관한 研究』.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영리. (2013). 『조선시대 활자본 불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영배, 김무봉. (2002). 朝鮮 初期의 譯經 : 最初의 譯經 『釋譜詳節』을 중심으로. 『大學思想』, 5, 9-44.

김용조. (1990). 『조선 전기의 국행기양불사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자현. (2017). 『朝鮮前期 佛教變相版畫 研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종민. (2007). 『朝鮮時代 寫經 研究』.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2004). 『曹溪宗史 고증세편』. 서울: 조계종.

박도화. (2002). 15세기 후반기 왕실발원 판화 : 정희대왕대비 발원본을 중심으로. 『강좌미술사』, 19, 155-183.

손성필. (2007). 『16世紀 朝鮮의 佛書 研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손성필. (2013). 『16·17세기 불교정책과 불교계의 동향』.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송수환. (1992). 조선 전기의 사원전 : 특히 왕실관계 사원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79, 25-57.
- 송일기. (2000). 韓國本 『父母恩重經 : 漢文』의 板本에 관한 研究. 『서지학연구』, 19, 179-218.
- 송일기. (2014). 守國寺 木造阿彌陀佛坐像의 腹藏典籍 研究. 『서지학연구』, 58, 119-146.
- 송일기, 정왕근. (2015). 조선시대 금속활자본 불교서적의 서지적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9(1), 223-246.
- 송일기. (2015). 조선시대 목활자본 불교서적의 서지적 연구. 『서지학연구』, 62, 167-197.
- 송일기, 정왕근. (2014). 麗代鮮初의 17字本 『法華經』 板本 研究. 『서지학연구』, 59, 347-370.
- 옥영정. (2008). 장서각 소장 보물 능엄경과 원각경의 인쇄문화적 가치. 『장서각』, 20, 21-25.
- 옥영정. (2011).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홍두선 기증 古書의 현황과 그 가치. 『서지학보』, 38, 157-186.
- 옥영정. (2017). 『월인천강지곡』의 인쇄사적 가치에 대한 재고찰. 『월인천강지곡 국보 제320호 승격 기념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 유근선. (2014). 『석보상절』 권6, 9, 13, 19의 한자음 교정. 『韓民族語文學』, 67, 5-23.
- 윤희영. (2008). 『金敏榮 所藏 佛書의 書誌的 研究』.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봉춘. (1990). 高麗後期 佛教界와 排佛論議의 顛末. 『불교학보』, 27, 205-236.
- 이봉춘. (2001). 조선 전기 승불주와 흥불사업. 『불교학보』, 38, 43-65.
- 이봉춘. (2015). 『조선시대 불교사 연구』. 민족사.
- 이종권. (1988). 『조선조 국역불서 간행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종찬. (2013). 『(역주) 사리영응기』.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이호권. (2003). 『석보상절의 서지와 언어』. 서울: 태학사.
- 이화숙. (2011). 『조선시대 간인본 국역불서의 서지적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왕근. (2012). 『朝鮮時代 『妙法蓮華經』의 板本 研究』.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천혜봉. (1991). 조선 전기 불서 판본. 『서지학보』, 5, 3-43.
- 천혜봉. (2015). 『한국 서지학』. 서울: 민음사.
- 최미리. (2014). 『朝鮮時代 佛說大報父母恩重經 版畫 研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병헌. (1993). 월인석보 편찬의 불교사적 의미. 『진단학보』, 75, 2019-225.
- 최윤곤. (2003). 간경도감의 실체와 불전 간행 사업. 『인문사회과학논문집』, 31, 153-168.
- 최재복. (2011). 『조선 초기 왕실불교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탁효정. (2012). 『조선시대 왕실원당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탁효정. (2016). 조선 초기 陵寢寺의 역사적 유래와 특징. 『조선시대사학보』, 77, 7-44.
- 한우근. (1993). 『유교정치와 불교』. 일조각.
- 한상길. (2009). 조선전기 수록재 실행의 사회적 의미. 『한국선학』, 23, 671-710.
- 황인규. (1999). 麗末鮮初 演福寺 塔의 重營과 落成. 『역사와 교육』, 8, 151-177.
- 황인규. (2003). 『고려 후기 조선초 불교사 연구』. 서울: 해안.
- 황인규. (2005). 『고려말 조선 전기 불교계와 고승연구』. 서울: 해안.
- 황인규. (2011). 고려시대 사찰과 불교문화 : 비보사사와 그 문화를 중심으로. 『역사와교육』, 12, 135-170.

2. 웹사이트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library.kmu.ac.kr> [2017. 11. 17].
국가기록유산 <www.memorykorea.go.kr> [2017. 12. 3].
국가문화유산포털 <www.heritage.go.kr> [2017. 12. 3].
국립중앙도서관 <www.nl.go.kr> [2017. 12. 3].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library.korea.ac.kr> [2017. 11. 17].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lib.dongguk.edu> [2017. 11. 15].
문화재청 <www.cha.go.kr> [2017. 12. 3].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library.snu.ac.kr> [2017. 12. 3].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kyujanggak.snu.ac.kr> [2017. 12. 3].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http://library.yonsei.ac.kr> [2017. 12. 3].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slima.yu.ac.kr/lib> [2017. 11. 14].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 <www.nl.go.kr/korcis> [2017. 1. 12].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www.koreanhistory.or.kr> [2017. 1. 12].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전자도서관 <lib.aks.ac.kr> [2017. 11. 5].

부 록

1. 태종대 간행본²³⁷⁾

楞嚴經. 卷1~10 / 般刺蜜帝(唐) 譯; 戒環(宋) 解
木板本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太宗 1(1401)
四周雙邊 半郭 27.9×18.2 cm, 無界, 8行20字
註雙行 ; 38.4×22.7 cm
소장처 : 국립중앙박물관

楞嚴經. 卷9~10 / 般刺蜜帝(唐) 譯; 戒環(宋) 解
木板本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太宗 1(1401)
四周雙邊 半郭 27.5×18.4 cm, 無界, 8行20字
註雙行 ; 33.4×20.8 cm
소장처 : 통도사

楞嚴經. 卷2, 3, 4 / 般刺蜜帝(唐) 譯; 戒環(宋) 解
木板本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太宗 1(1401)
四周雙邊 半郭 26.7×18.0 cm, 無界, 8行20字
註雙行 ; 37.2×21.0 cm
소장처 : 기림사

妙法連華經. 卷一 / 鳩摩羅什(姚秦) 奉詔譯; 戒
環(宋) 解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太宗 1(1401)
折帖裝 1卷 1帖 : 上下單邊 半郭 20.3 cm, 無
界, 36行17字 ; 26×10.6 cm
소장처 : 목아불교박물관

妙法連華經. 卷二 / 鳩摩羅什(姚秦) 奉詔譯; 戒
環(宋) 解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太宗 1(1401)
折帖裝 1卷 1帖 : 上下單邊 半郭 20.3 cm, 無
界, 36行17字 ; 33×10.9 cm
소장처 : 통도사

妙法連華經. 卷三 / 鳩摩羅什(姚秦) 奉詔譯; 戒
環(宋) 解

木板本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太宗 1(1401)
折帖裝 1卷 1帖 : 上下單邊 半郭 20.3 cm, 無
界, 36行17字 ; 32.9×11.0 cm
소장처 : 삼성미술관 리움

2. 세종, 문종대 간행본

佛說大報父母恩重經 / 鳩摩羅什(後秦) 譯
木板本(절집본)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世宗 14(1432)
1卷 1帖 : 上下單邊, 每行 15字 ;
33.5×11.3 cm

소장처 : 국립중앙박물관

237) 시기별, 서명순 목록임.

釋譜詳節. 卷6, 9, 13, 19 / 首陽大君(朝鮮) 受命撰

初鑄 甲寅字本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世宗 29(1447)

4冊: 四周單邊 半郭 22.0×15.9 cm, 8行15字 註雙行, 黑口, 內向黑魚尾 ; 30.0×23.7 cm

版心題: 釋譜

藏書記: 正統拾肆年貳月初肆日, 嘉善大夫 黃海道 都觀察黜除使兼兵馬都節制使兼判海州牧使臣 申 1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釋譜詳節. 卷23, 24 / 首陽大君(朝鮮) 受命撰

初鑄 甲寅字本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世宗 29(1447)

不分卷1冊: 四周單邊 半郭 21.4×15.7 cm, 無界, 16行52字 註雙行, 上中下黑口, 上下內向黑魚尾 ; 30.5×20.8 cm

題簽: 釋譜詳節

紙質: 楮紙

소장처: 동국대학교 도서관 보물 제523-2호

釋譜詳節. 卷20, 21 / 首陽大君(朝鮮) 受命撰

初鑄 甲寅字本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世宗 29(1447)

소장처: 개인소장본

地藏菩薩本願經 / 法燈(唐) 譯

木板本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世宗 29(1447) ~32(1450)]

3卷1冊 : 5行17字 ; 28.2×18cm

소장처: 삼성미술관 리움

月印千江之曲. 卷上 / 世宗(朝鮮) 御撰

初鑄 甲寅字本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世宗 29(1447)

1冊(71張): 四周雙邊 半郭 20.6×17.3 cm, 有界, 7行字數不定 註雙行, 黑口, 上下內向黑魚尾 ; 31.6×21.6 cm

소장처: (주)미래엔 소장,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기탁

妙法蓮華經. 卷4~7 / 鳩摩羅什(姚秦) 奉詔譯:

戒環(宋) 解

木板本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世宗 30(1448)

4卷 1冊 : 變相圖, 四周單邊, 半郭 20.5×13.5 cm, 有界, 10行20字, 上下向黑魚尾 ; 29.5×17.8 cm

소장처: 아단문고

妙法蓮華經. 卷4~7 / 鳩摩羅什(姚秦) 奉詔譯:

戒環(宋) 解

木板本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世宗 30(1448)

4卷 1冊 : 變相圖, 四周單邊, 半郭 20.5×13.5 cm, 有界, 10行20字, 上下向黑魚尾 ; 29.5×17.8 cm

소장처: 개인소장

舍利靈應記 / 金守溫(朝鮮) 記

初鑄 甲寅字本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世宗 31(1449)

1冊(24張) : 四周單邊 半郭 21.9×15.8 cm, 有界, 9行15字 小字雙行, 上下內向黑魚尾 ; 30.5×19.7 cm

소장처: 고려대학교

舍利靈應記 / 金守溫(朝鮮) 記

初鑄 甲寅字本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世宗 31(1449)

1冊(24張): 四周單邊, 半郭 22.0×15.9 cm,

有界, 9行15字, 註雙行, 上下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 ; 30.3×19.8 cm

版心題: 靈應記

跋: 承義郎守兵曹正郎臣金守溫(朝鮮)謹記

卷首: 上之三十有一年(1449)秋七月十九日癸卯..

紙質: 楮紙

소장처: 동국대학교 도서관

妙法蓮華經. 卷3 / 鳩摩羅什(姚秦) 奉詔譯;

戒環(宋) 解

初鑄 甲寅字本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世宗 32(1450)

東裝1冊(零本): 四周單邊, 半郭 26.5×16.3 cm,

有界, 10行18字, 上下向黑魚尾 ; 35.5×21.5 cm

소장처: 계명대학교 도서관

妙法蓮華經. 卷5~7 / 鳩摩羅什(姚秦) 奉詔譯;

戒環(宋) 解

初鑄 甲寅字本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世宗 32(1450)

소장처: 대일사

涵虛堂得通和尚顯正論 / 己和(朝鮮) 著

初鑄 甲寅字本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世宗 32(1450)

四周單邊, 半郭 20.3×11.9 cm, 有界, 7行14字,

上下內向黑魚尾 ; 28.0×17.3 cm

소장처: 개인소장

妙法蓮華經. 卷5~7 / 鳩摩羅什(姚秦) 奉詔譯;

戒環(宋) 解

木板本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文宗 1(1451)

四周單邊, 半郭 22.5cm, 30行14字,

上下向黑魚尾 ; 28.8×18.6 cm

소장처: 호림박물관

3. 세조대 간행본

妙法蓮華經. 卷1~7 / 鳩摩羅什(姚秦) 奉詔譯;

戒環(宋) 解

木板本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世祖 1(1455)

變相圖, 30.0×17.6 cm

소장처: 통도사성보박물관 보물 제1196-1호

妙法蓮華經. 卷5 / 鳩摩羅什(姚秦) 奉詔譯;

戒環(宋) 解

乙亥字本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世祖 1(1455)]

四周單邊 半郭 27.3×20.0 cm, 有界, 9行16字,

上下內向黑魚尾 ; 34.9×24.9 cm

소장처: 고려대학교 만송문고

妙法蓮華經. 卷6,7 / 鳩摩羅什(姚秦) 奉詔譯;

戒環(宋) 解

乙亥字本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世祖 1(1455)]

2卷1冊(缺帙): 四周單邊 半郭 27.3×20.0 cm,

有界, 9行16字, 上下內向黑魚尾

소장처: 월정사성보박물관

妙法蓮華經. 卷2,3 / 鳩摩羅什(姚秦) 奉詔譯;

戒環(宋) 解

乙亥字本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世祖 1(1455)]

2卷1冊(缺帙): 四周單邊 半郭 25.9×20.1 cm,

有界, 9行16字, 上下內向黑魚尾 ; 38 cm

版心題: 法

소장처: 연세대학교 도서관

金剛經五家解. 卷上 / 世祖 撰集

丁丑字本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世祖 3(1457)

1冊(零本): 四周單邊, 半郭 27.7×18.8 cm, 有

界, 9行19字(大14字), 註雙行, 上下內向黑魚尾 ;

39.0×24.1 cm

소장처: 성암고서박물관

金剛經五家解. 卷下 / 世祖 撰集

丁丑字本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世祖 3(1457)

1冊(零本) : 四周單邊, 半郭 27.7×18.8 cm, 有界, 9行19字(大14字), 註雙行, 上下內向黑魚尾 ; 39.0×24.1 cm

소장처: 수국사

金剛經五家解. 卷下 / 世祖 撰集

丁丑字本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世祖 3(1457)

1冊(零本) : 四周單邊, 半郭 27.7×18.8 cm, 有界, 9行19字(大14字), 註雙行, 上下內向黑魚尾 ; 39.0×24.1 cm

소장처: 계명대학교 도서관

大乘起信論疏. 卷上之二, 卷下之一, 卷下之二 / 法藏(唐) 述; 宗密(唐) 錄

初鑄 甲寅字本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世祖 3(1457)

四周單邊 半郭 25.0×17.0 cm, 有界, 10行17字, 上下內向黑魚尾 ; 36.0× 2.0 cm

소장처: 개인소장 보물 제1713호

妙法蓮華經. 卷2 / 鳩摩羅什(姚秦) 奉詔譯;

戒環(宋) 解

初鑄甲寅字本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世祖 3(1457) 重刊本

四周單邊 半郭 24.8×16.8 cm, 有界, 10行18字 註雙行, 上下下向黑魚尾 ; 35.6×21.8 cm

소장처: 서울대학교 도서관

般若波羅蜜多心經略疏. / 仲希(宋) 撰述; 玄奘(唐) 漢譯; 法藏(唐) 註釋

乙亥字本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世祖 3(1457)

四周單邊, 有界, 9行17字 註雙行, 上下內向黑魚尾 ; 17.4×23.8 cm

소장처: 서울역사박물관

翻譯名義集. 卷1, 2, 3 / 法雲(宋) 編

乙亥字本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世祖 3(1457)

四周單邊, 有界, 9行17字 註雙行, 上下內向黑魚尾 ; 20.3×33.8 cm

소장처: 서울역사박물관

翻譯名義集 / 法雲(宋) 編

木板本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世祖 3(1457)

14卷8冊: 四周單邊 半郭 24.1×21.0 cm, 無界, 12行17字, 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 ; 33.2×24.6 cm

소장처: 계명대학교 도서관 보물 제1369호

永嘉眞覺大師證道歌 / [釋]玄覺(唐) 著 ; [釋]淨居(唐) 註

初鑄 甲寅字本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世祖 3(1457)

1冊 : 四周單邊 半郭 24.8×16.9 cm, 有界, 10行17字 小字雙行, 上下內向黑魚尾 ;

32.0×21.5 cm

소장처: 고려대학교 도서관

永嘉眞覺大師證道歌 / [釋]玄覺(唐) 著 ; [釋]淨居(唐) 註

乙亥字本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世祖 3(1457)

四周單邊 半郭 18.2×13.4 cm, 有界, 10行19字 註雙行, 上下內向黑魚尾 ; 26.8×17.5 cm

소장처: 서울역사박물관 보물 제1776호

妙法蓮華經. 卷1, 2, 5 / 鳩摩羅什(姚秦) 奉詔譯; 戒環(宋) 解

木板本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世祖 5(1459)

變相圖, 上下單邊 半郭 19.6 cm, 每行17字

소장처: 개인소장

月印釋譜. 卷1,2 / 世祖(朝鮮) 命編

木板本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世祖 5(1459)

變相圖, 四周雙邊 半郭 21.5×17.4 cm, 有界, 7
行字數不定 註雙行, 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 ;
33.0×23.0 cm

書名은 版心題임

소장처: 서강대학교 도서관 보물 제745-1호

月印釋譜. 卷7,8 / 世祖(朝鮮) 命編

木板本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世祖 5(1459)

四周雙邊, 半郭 23.2×18.2cm, 有界, 7行14字 註
雙行, 上下黑口, 上下內向黑魚尾 ; 32.8×22 cm

本館所藏: 卷7, 8

소장처: 동국대학교 도서관 보물 제745-2호

月印釋譜. 卷9,10 / 世祖(朝鮮) 命編

木板本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世祖 5(1459)

四周雙邊, 有界, 7行14字 註雙行, 上下黑口, 上
下內向黑魚尾 ; 30.0×22.5 cm

소장처: 국립한글박물관 보물 제745-3호

月印釋譜. 卷11,12 / 世祖(朝鮮) 命編

木板本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世祖 5(1459)

四周雙邊, 有界, 7行14字 註雙行, 上下黑口, 上
下內向黑魚尾

소장처: 호암미술관 보물 제935호

月印釋譜. 卷13,14 / 世祖(朝鮮) 命編

木板本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世祖 5(1459)

四周雙邊 半郭 22.0×17.5 cm, 有界, 7行14-6字
註雙行, 上下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

33.0×22.6 cm

題籤 “世祖四年[실은 五年]己卯(1459)七月七日
刊行”

소장처: 연세대학교 도서관 보물 제745-4호

月印釋譜. 卷15 / 世祖(朝鮮) 命編

木板本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世祖 5(1459)

四周雙邊 半郭 23.2×17.5 cm, 有界, 7行16字
(小字 14行 16字) 註雙行, 黑口, 上下內向黑魚
尾

소장처: 성암고서박물관

月印釋譜. 卷15 / 世祖(朝鮮) 命編

木板本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世祖 5(1459)

四周雙邊 半郭 22.0×16.4 cm, 有界, 7行16字
(小字 14行 16字) 註雙行, 黑口, 上下內向黑魚
尾

소장처: 구암사 보물 제745-10호

月印釋譜. 卷17,18 / 世祖(朝鮮) 命編

木板本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世祖 5(1459)

四周雙邊, 有界, 7行14字 註雙行, 上下黑口, 上
下內向黑魚尾

소장처: 수타사성보박물관 보물 제745-5호

月印釋譜. 卷19 / 世祖(朝鮮) 命編

木板本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世祖 5(1459)

四周雙邊, 有界, 7行14字 註雙行, 上下黑口,
上下內向黑魚尾

소장처: 가야대박물관

月印釋譜. 卷20 / 世祖(朝鮮) 命編

木板本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世祖 5(1459)

四周雙邊 半郭 22.3×17.0 cm, 有界,
7行16字(小字 14行 16字) 註雙行, 黑口,
上下內向黑魚尾

소장처: 개인소장 보물 제745-11호

月印釋譜. 卷23 / 世祖(朝鮮) 命編

木板本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世祖 5(1459)

四周雙邊 半郭 21.4×17.2 cm, 有界, 7行14字(大字) 16字(中,小字) 註雙行, 黑口, 上下內向黑魚尾

소장처: 삼성출판박물관 보물 제745-8호

月印釋譜. 卷25 / 世祖(朝鮮) 命編

木板本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世祖 5(1459)

四周雙邊 半郭 22.3×17.0 cm, 有界, 7行16字(小字 14行16字) 註雙行, 黑口, 上下內向黑魚尾

소장처: 보림사 보물 제745-9호

天台四教儀集解. 卷1~3 / 諦觀(高麗) 錄 ; 從義(宋) 集解.

乙亥字本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世祖 6(1460)

四周單邊 半郭 21.5×14.7 cm 有界, 9行17字 小字雙行, 上下內向黑魚尾 ; 31.3×19.8 cm

版心題: 四教義集解

跋: 延祐元年甲寅(1314)孟秋初吉牧庵老人題

소장처: 고려대학교 도서관

天台四教儀集解. 卷下 / 諦觀(高麗) 錄 ; 從義(宋) 集解.

乙亥字本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世祖 6(1460)

四周單邊 半郭 21.5×14.7 cm, 有界, 9行17字, 上下內向黑魚尾 ; 31.3×19.8 cm

소장처: 화봉문고

天台四教儀 集解. 卷上,下 / 諦觀(高麗) 錄 ; 從義(宋) 集解.

乙亥字本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世祖 6(1460)

四周單邊 半郭 21.6×14.6 cm, 有界, 9行17字, 上下內向黑魚尾 ; 30.7×19.2 cm

裝幀: 無紋朱黃色厚褙表紙, 土紅絲綴

序: [熙寧九年(1077) ... 從義]

跋: 延祐元年甲寅(1314) ... 牧庵老人

藏書記: 碧潭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天台四教儀 集解. 卷中,下 / 諦觀(高麗) 錄 ; 從義(宋) 集解.

乙亥字本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世祖 6(1460)

四周單邊 半郭 20.7×14.6 cm, 有界, 9行17字, 註雙行, 上下內向黑魚尾 ; 31.7×20.3 cm

所藏本 : 卷中~下(中卷의 24張 이전은 第2張 半葉, 第6張 半葉만 있음)

소장처: 계명대학교 도서관

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 67호

楞嚴經(諺解). 卷1 / 般刺蜜帝(唐) 譯; 戒環(宋) 解

乙亥字本

[刊寫地未詳] : [校書館], 世祖 7(1461)

四周單邊 半郭 26.8×19.8 cm, 有界, 9行17字

註雙行, 上下內向黑魚尾 ; 37.5×23.8 cm

소장처: 성암고서박물관 보물 제760호

楞嚴經(諺解). 卷2, 5 / 般刺蜜帝(唐) 譯; 戒環(宋) 解

乙亥字本

[刊寫地未詳] : [校書館], 世祖 7(1461)

四周單邊 半郭 26.9×19.9 cm, 有界, 9行17字

註雙行, 上下內向黑魚尾 ; 31.1×22.7 cm

소장처: 규장각 보물 제761호

楞嚴經(諺解). 卷7, 8 / 般刺蜜帝(唐) 譯; 戒環(宋) 解

乙亥字本

[刊寫地未詳]: [校書館], 世祖 7(1461)

四周單邊 半郭 27.0×19.6 cm, 有界, 9行17字

註雙行, 上下內向黑魚尾; 37.8×25.1 cm

소장처: 동국대학교 도서관 보물 제762호

楞嚴經(諺解). 卷6 / 般刺蜜帝(唐) 譯; 戒環(宋) 解

乙亥字本

[刊寫地未詳]: [校書館], 世祖 7(1461)

四周單邊 半郭 27.0×20.0 cm, 有界, 9行17字

註雙行, 上下內向黑魚尾; 36.5×24.5 cm

소장처: 구인사 보물 제1049호

楞嚴經(諺解). 卷7~10 / 般刺蜜帝(唐) 譯; 戒環(宋) 解

乙亥字本

[刊寫地未詳]: [校書館], 世祖 7(1461)

四周單邊 半郭 26.8×19.8 cm, 有界, 9行17字

註雙行, 上下內向黑魚尾; 38.5×22.9 cm

소장처: 세종대왕기념사업회 보물 제763호

楞嚴經(諺解). 卷1 / 般刺蜜帝(唐) 譯; 戒環(宋) 解

乙亥字本

[刊寫地未詳]: [校書館], 世祖 7(1461)

四周單邊 半郭 27.2×19.8 cm, 有界, 9行17字

註雙行, 上下內向黑魚尾; 38.2×25.0 cm

소장처: 금릉사 보물 제1520호

楞嚴經(諺解). 卷3 / 般刺蜜帝(唐) 譯; 戒環(宋) 解

乙亥字本

[刊寫地未詳]: [校書館], 世祖 7(1461)

四周單邊 半郭 27.5×20.0 cm, 有界, 9行17字

註雙行, 上下內向黑魚尾; 37.9×24.5 cm

소장처: 동국대학교 도서관 보물 제948-1호

楞嚴經(諺解). 卷7 / 般刺蜜帝(唐) 譯; 戒環(宋) 解

乙亥字本

[刊寫地未詳]: [校書館], 世祖 7(1461)

四周單邊 半郭 27.2×19.7 cm, 有界, 9行17字

註雙行, 上下內向黑魚尾; 38 cm

소장처: 연세대학교 도서관

楞嚴經(諺解). 卷3 / 般刺蜜帝(唐) 譯; 戒環(宋) 解

乙亥字本

[刊寫地未詳]: [校書館], 世祖 7(1461)

四周雙邊 半郭 27.0×20.0cm, 有界, 9行21字, 上

下內向黑魚尾; 37.9×24.5 cm

소장처: 개인소장 보물 제948-2호

楞嚴經(諺解). 卷3 / 般刺蜜帝(唐) 譯; 戒環(宋) 解

乙亥字本

[刊寫地未詳]: [校書館], 世祖 7(1461)

四周單邊 半郭 27.0×19.2 cm, 有界, 9行17字

註雙行, 上下內向黑魚尾; 35.4×23.9 cm

소장처: 동국대학교 도서관

楞嚴經(諺解). 卷4, 7, 8 / 般刺蜜帝(唐) 譯; 戒環(宋) 解

乙亥字本

[刊寫地未詳]: [校書館], 世祖 7(1461)

四周單邊 半郭 27.5×20.0 cm, 有界, 9行17字

註雙行, 上下內向黑魚尾; 36.9×25.0 cm

소장처: 서울역사박물관 보물 제973호

楞嚴經(諺解). 卷2 / 般刺蜜帝(唐) 譯; 戒環(宋) 解

乙亥字本

[刊寫地未詳]: [校書館], 世祖 7(1461)

四周雙邊 半郭 21.8×18 cm, 有界, 9行17字 註

雙行, 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 33.0×23.4 cm

소장처: 서울대학교 도서관

楞嚴經(諺解). 卷6 / 般刺蜜帝(唐) 譯; 戒環(宋) 解

乙亥字本

[刊寫地未詳]: [校書館], 世祖 7(1461)

四周單邊 半郭 27.2×19.2 cm, 有界, 9行21字, 上下內向黑魚尾; 36.5×24.5 cm

소장처: 일본 텐리대학교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卷2~5 / 宗密(唐) 述

乙亥字本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世祖 3(1457)~世祖 7(1461)]

零本1冊: 四周單邊 半郭 26.4×19.7 cm, 有界, 9行大字16字 中字21字 小字雙行, 上下黑口, 內向黑魚尾; 35.0×24.5 cm

소장처: 고려대학교 도서관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卷4 / 宗密(唐) 述

乙亥字本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世祖 3(1457)~世祖 7(1461)]

1冊(零本): 四周單邊, 半郭 26.8×20.0 cm, 有界, 9行16字, 內向黑魚尾; 34.4×24.6 cm

소장처: 계명대학교 도서관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卷4,6 / 宗密(唐) 述

乙亥字本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世祖 3(1457)~世祖 7(1461)]

四周單邊 半郭 27.0×20.0 cm, 有界, 9行大字16字 中字21字, 上下內向黑魚尾; 38.0×25.5 cm

소장처: 동학사 보물 제1720호 중 1건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諺吐). 卷上一之一 / 宗密(唐) 述

乙酉字本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世祖 11(1465)

四周單邊 半郭 19.5×13.3 cm, 有界, 大字6行13字 中字12行19字 小字雙行, 上下內向黑魚尾;

28.0×18.5 cm

소장처: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보물 제1514호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諺吐). 卷上一之二, 上二之一~三, 下一之一~二, 下二之一~

二, 下三之一~二 / 宗密(唐) 述

乙酉字本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世祖 11(1465)

四周單邊 半郭 19.5×13.3 cm, 有界, 大字6行13字 中字12行19字 小字雙行, 上下內向黑魚尾;

28.0×18.4 cm

소장처: 성암고서박물관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諺吐). 卷上一之二, 上二之一~三, 下一之一~

二, 下二之一~二, 下三之一~二 / 宗密(唐) 述

乙酉字本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世祖 11(1465)

四周單邊 半郭 19.4×13.4 cm, 有界, 大字6行13字 中字12行19字 小字雙行, 上下內向黑魚尾;

28.2×18.6 cm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諺吐). 卷上一之二 / 宗密(唐) 述

乙酉字本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世祖 11(1465)

四周單邊 半郭 19.5×13.2 cm, 有界,

大字6行13字 中字12行19字 小字雙行,

上下內向黑魚尾; 28.4×18.6 cm

藁精紙.

표지 서명: 圓覺經

소장처: 규장각한국학연구원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諺吐). 卷上一之一 / 宗密(唐) 述

乙酉字本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世祖 11(1465)

四周單邊 半郭 19.6×13.3 cm, 有界, 大字6行13字 中字12行19字 小字雙行, 上下內向黑魚尾 ; 27.7×18.0 cm

소장처: 호암박물관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諺吐). 卷上一之二, 下一之一~二, 下二之一~二 / 宗密(唐) 述

乙酉字本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世祖 11(1465)

四周單邊 半郭 19.5×13.3 cm, 有界, 大字6行13字 中字12行19字 小字雙行, 上下內向黑魚尾 ; 27.0×18.2 cm

소장처: 아단문고 보물 제1219-1호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諺吐). 卷上一之一, 下一之一~二, 下二之一~二 / 宗密(唐) 述

乙酉字本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世祖 11(1465)

四周單邊 半郭 19.6×13.3 cm, 有界, 大字6行13字 中字12行19字 小字雙行, 上下內向黑魚尾 ; 27.7×18.0 cm

소장처: 고려대학교 도서관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諺吐). 卷上二之二, 下三之一~二 / 宗密(唐) 述

乙酉字本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世祖 11(1465)

四周單邊 半郭 19.5×13.3 cm, 有界, 大字6行13字 中字12行19字 小字雙行, 上下內向黑魚尾 ; 27.0×18.2 cm

소장처: 광덕사 보물 제1219-2호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諺吐). 卷上二之一~三 / 宗密(唐) 述

乙酉字本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世祖 11(1465)

四周單邊 半郭 19.5×13.3 cm, 有界, 大字6行13字 中字12行19字

小字雙行, 上下內向黑魚尾 ; 26.9×18.1 cm

版心題: 圓覺

소장처: 고려대학교 도서관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諺吐). 卷上二之二~三 / 宗密(唐) 述

乙酉字本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世祖 11(1465)

四周單邊 半郭 19.0×13.3 cm, 有界, 大字6行13字 中字12行19字 小字雙行, 上下內向黑魚尾 ; 27.0×18.2 cm

소장처: 월정사 성보박물관 보물 제793-11호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諺吐). 卷下三之一~二 / 宗密(唐) 述

乙酉字本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世祖 11(1465)

四周單邊 半郭 19.8×13.3 cm, 有界, 大字6行13字 中字12行19字

小字雙行, 上下內向黑魚尾 ; 27.8×18.3 cm

소장처: 고려대학교 도서관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諺吐). 卷上二之三, 下一之一~二 / 宗密(唐) 述

乙酉字本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世祖 11(1465)

四周單邊 半郭 19.5×13.3 cm, 有界, 大字6行13字 中字12行19字 小字雙行, 上下內向黑魚尾 ; 26.8×18.4 cm

소장처: 화봉문고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諺吐). 卷下二之一~二 / 宗密(唐) 述

乙酉字本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世祖 11(1465)
四周單邊 半郭 19.5×13.3 cm, 有界, 大字6行13
字 中字12行19字 小字雙行, 上下內向黑魚尾 ;
26.8×18.4 cm

소장처: 영남대학교 도서관

3. 예종대 간행본

地藏菩薩本願經. 卷上, 中, 下 / [釋] 法燈(唐) 譯
木板本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睿宗 2(1469)
變相圖, 四周雙邊 半郭 23.7×15.5 cm, 有界, 7行
16字, 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 ; 31.8×20.5 cm

소장처: 관문사 소유, 구인사 관리

보물 제966호

4. 성종대 간행본

妙法蓮華經. 卷1, 2 / 鳩摩羅什(姚秦) 奉詔譯;

戒環(宋) 解

木板本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成宗 원년(1470)
四周雙邊, 有界, 8行13字, 大黑口, 上下內向黑
魚尾 ; 35.6×21.6 cm

소장처: 소유 천장사, 관리 수덕사 정보박물관
보물 제1147-2호

妙法蓮華經. 卷3~7 / 鳩摩羅什(姚秦) 奉詔譯;

戒環(宋) 解

木板本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成宗 원년(1470)
四周雙邊, 有界, 8行13字, 大黑口, 上下內向黑
魚尾 ; 35.6×21.6 cm

소장처: 아단문고 보물 제1147-1호

妙法蓮華經. 卷5~7 / 鳩摩羅什(姚秦) 奉詔譯;

戒環(宋) 解

木板本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成宗 원년(1470)
四周雙邊, 有界, 8行13字, 大黑口, 上下內向黑
魚尾 ; 35.6×21.6 cm

소장처: 본각사 보물 제1147-3호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 / [編者未詳]

木板本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成宗 원년(1470)
四周單邊, 有界, 全葉 30行17字, 上下內向黑魚尾
소장처: 소유 정보문화재단, 관리 호림박물관

보물 제1105호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諺解). 卷下之二 / 宗
密(唐) 述; [釋] 信眉(朝鮮), 孝寧大君補(朝鮮), 韓
繼禧(朝鮮) ... 等譯

木板本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成宗 3(1472)
四周雙邊, 半郭 21.6×18.1 cm, 有界, 9行17字 註
雙行, 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 ; 32.3×23.2 cm

裏題: 圓覺經

版心題: 圓覺

소장처: 동국대학교 도서관

蒙山和尚法語略錄(諺解) / [釋] 德異(元) 著 ;
[釋] 信眉(朝鮮) 諺解
木板本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成宗 3(1472)
四周雙邊, 半郭 21.2×15.5 cm, 有界, 8行17字
註雙行, 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 ; 30.9×22.0 cm
소장처: 세종대왕기념사업회 보물 제769호

蒙山和尚法語略錄(諺解) / [釋] 德異(元) 著 ;
[釋] 信眉(朝鮮) 諺解
木板本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成宗 3(1472)
四周雙邊, 半郭 21.2×15.5 cm, 有界, 8行17字 註
雙行, 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 ; 30.8×20.0 cm
소장처: 자비사 보물 제1012호

蒙山和尚法語略錄(諺解) / [釋] 德異(元) 著 ;
[釋] 信眉(朝鮮) 諺解
木板本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成宗 3(1472)
四周雙邊, 半郭 21.2×15.5 cm, 有界, 8行17字
註雙行, 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
소장처: 개인소장

妙法蓮華經(諺解). 卷7 / 鳩摩羅什(姚秦) 奉詔
譯; 戒環(宋) 解
木板本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成宗 3(1472)
四周雙邊, 半郭 22.3×18.7 cm, 有界, 9行17字
註雙行, 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 ;
32.5×23.0 cm
소장처: 중앙승가대학 보물 제1225호

妙法蓮華經三昧懺法. 卷上 / 正亘 編
木板本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成宗 3(1472)
四周單邊, 全葉 10行19字 註雙行 ; 34.3×19.0 cm
소장처: 기림사 보물 제959호 중 1건

妙法蓮華經三昧懺法. 卷下 / [編者未詳]
木板本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成宗 3(1472)
四周單邊, 全葉 10行19字 註雙行 ; 34.3×19.0 cm
소장처: 구인사 보물 제1162호

般若波羅密多心經疏 / 玄獎(唐) 譯 ; 靖邁(唐)
疏
木板本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成宗 3(1472)
四周單邊, 半郭 7行20字
소장처: 청주고인쇄박물관

佛祖歷代通載 / [釋] 念常(元) 集
木板本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成宗 3(1472)
四周單邊, 有界, 8行16字 註雙行, 大黑口, 上下
內向黑魚尾 ; 28.2×16.8 cm
소장처: 용화사 보물 제737호

禪宗永嘉集 / [釋] 玄覺(唐) 撰 ; [釋] 行靖(宋) 註
木板本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成宗 3(1472)
左右雙邊 上下單邊 半郭 16.7×12.6 cm, 有界,
9行20字 註雙行, 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
소장처: 서울역사박물관 보물 제1297호

六經合部 / [編者未詳]
木板本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成宗 3(1472)
四周單邊 半郭 19.6×12.8 cm, 有界, 8行17字
註雙行, 上下內向黑魚尾 ; 29×17.4 cm
소장처: 상원사 보물 제793호 중 한건

六經合部 / [編者未詳]

木板本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成宗 3(1472)

四周單邊 半郭 19.6×12.8 cm, 有界, 8行17字

註雙行, 上下內向黑魚尾 ; 29×17.4 cm

소장처: 정각사 보물 제965-1호

六經合部 / [編者未詳]

木板本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成宗 3(1472)

四周單邊 半郭 19.6×12.8 cm, 有界, 8行17字

註雙行, 上下內向黑魚尾 ; 29×17.4 cm

소장처: 소유 성룡사, 관리 구인사

보물 제965-2호

六經合部 / [編者未詳]

木板本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成宗 3(1472)

四周單邊 半郭 19.2×12.9 cm, 無界, 8行17字,

無魚尾 ; 26.5×17.5 cm

소장처: 동국대학교 도서관

眞實珠集 / 倪妙行(宋) 集; 黃伍信(朝鮮) 書

木板本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成宗 3(1472)

四周單邊 半郭 18.4×13.6 cm, 有界, 11行17字

註雙行, 上下內向黑魚尾 ; 26.8×17.7 cm

佛祖公卿眞仙碩德歌銘教言(卷首)

序: 咸淳甲戌(1274) … 倪妙行

跋: 成化八年(1472) … 金守溫

卷之一, 傳大士心王銘. - 卷之二, 達磨大師心

要. - 卷之三, 唐玄宗詔曇光法師問道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보물 제1014호

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 卷一~五 / 諸大法師

(梁) 集撰

木板本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成宗 5(1474)

四周雙邊 半郭 25.2×18.6 cm, 有界, 9行15字

註雙行, 黑口, 上下下向黑魚尾 ; 37.3×24.0 cm

소장처: 한솔제지(주) 보물 제1193-1호

禮念彌陀道場懺法. 卷6~10 / [釋] 王子成

(元) 集

木板本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成宗 5(1474)

四周雙邊 半郭 28.1×18.3 cm, 有界, 9行15字

小字雙行, 黑口, 上下下向黑魚尾 ; 37×24 cm

소장처: 국립중앙박물관 보물 제949호

禮念彌陀道場懺法. 卷1~10 / [釋] 王子成

(元) 集

木板本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成宗 5(1474)

四周雙邊 半郭 28.1×18.3 cm, 有界, 9行15字 小

字雙行, 黑口, 上下下向黑魚尾 ; 33.4×22.0 cm

소장처: 목아불교박물관 보물 제1144호

禮念彌陀道場懺法. 卷3~4, 7~8 / [釋] 王子成

(元) 集

木板本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成宗 5(1474)

四周雙邊 半郭 28.1×18.3 cm, 有界, 9行15字 小

字雙行, 黑口, 上下下向黑魚尾 ; 37.3×23.6cm

소장처: 개인소장 보물 제1165호

禮念彌陀道場懺法. 卷1~10 / [釋] 王子成

(元) 集

木板本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成宗 5(1474)

四周雙邊 半郭 28.1×18.3 cm, 有界, 9行15字

小字雙行, 上下黑口, 上下下向黑魚尾 ;

33.0×23.8 cm

소장처: 고려대학교 도서관

地藏菩薩本願經. 卷上,中,下 / [釋] 法燈(唐) 譯
木板本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成宗 5(1474)
四周單邊 半郭 23.1×16.5 cm, 8行16字 註雙行,
白口, 上下內向黑魚尾 ; 32.3×21.0 cm
소장처: 소유 정보문화재단, 관리 호림박물관
보물 제1104호

地藏菩薩本願經. 卷上,中,下 / [釋] 法燈(唐) 譯
木板本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成宗 5(1474)
四周單邊 半郭 24.0×16.7 cm, 無界, 8行16字, 白
口, 上下內向黑魚尾 ; 34.8×21.0 cm
版心題: 地
跋: 成化十年(1474) … 金守溫謹跋
소장처: 고려대학교 도서관

地藏菩薩本願經. 卷上,中,下 / [釋] 法燈(唐) 譯
木板本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成宗 5(1474)
四周單邊 半郭 24.0×16.7 cm, 無界, 8行16字, 白
口, 上下內向黑魚尾 ; 34.8×21.0 cm
表題: 地藏經
跋: 成化十年(1474)夏四月十有五日 我恭憲惠王
后薨是年五月有日 純誠佐理功臣輔國崇祿大夫領
中樞府事永山府院君臣金守溫謹跋
紙質: 楮紙
版心題: 地, 上, 中, 下
소장처: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金剛經三家解(諺解). 卷1~5 / 鳩摩羅什(後秦)
譯 ; 宗密(唐) 纂要 ; 宗鏡 提綱 ; 己和(朝鮮)
說誼 ; 學祖(朝鮮) 重校
丁丑字, 乙亥字本
[刊寫地未詳] : [內需司], 成宗 13(1482)
四周單邊 半郭 27.2×20.3 cm, 有界, 11行21字
註雙行, 上下內向黑魚尾 ; 38.7×25.3 cm
소장처: 세종대왕기념사업회 보물 제772-1호

金剛經三家解(諺解). 卷2, 3, 4, 5 / 鳩摩羅什
(後秦) 譯 ; 宗密(唐) 纂要 ; 宗鏡 提綱 ; 己和
(朝鮮) 說誼 ; 學祖(朝鮮) 重校
丁丑字, 乙亥字本
[刊寫地未詳] : [內需司], 成宗 13(1482)
四周單邊 半郭 26.8×19.6 cm, 有界, 11行21字
註雙行, 上下內向黑魚尾 ; 38.6×25.2 cm
跋: 時大歲壬寅(1482)孟秋仲浣 … 臣姜希孟 奉
教謹跋
소장처: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보물 제772-2호

金剛經三家解(諺解). 卷1 / 鳩摩羅什(後秦) 譯 ;
宗密(唐) 纂要 ; 宗鏡 提綱 ; 己和(朝鮮) 說誼
; 學祖(朝鮮) 重校
丁丑字, 乙亥字本
[刊寫地未詳] : [內需司], 成宗 13(1482)
四周單邊 半郭 26.8×19.6 cm, 有界, 11行21字
註雙行, 上下內向黑魚尾 ; 38.6×25.2 cm
소장처: 보림사 보물 제772-3호

金剛經三家解(諺解). 卷2/ 鳩摩羅什(後秦) 譯 ;
宗密(唐) 纂要 ; 宗鏡 提綱 ; 己和(朝鮮) 說誼
; 學祖(朝鮮) 重校
丁丑字, 乙亥字本
[刊寫地未詳] : [內需司], 成宗 13(1482)
四周單邊, 半郭 27.1×20.0 cm, 有界, 11行 大字
15字 小字 21字, 註雙行, 上下內向黑魚尾 ;
38.7×25.4 cm
소장처: 계명대도서관 보물 제772-4호

金剛經三家解(諺解). 卷3,4 / 鳩摩羅什(後秦) 譯
; 宗密(唐) 纂要 ; 宗鏡 提綱 ; 己和(朝鮮) 說
誼 ; 學祖(朝鮮) 重校
丁丑字, 乙亥字本
[刊寫地未詳] : [內需司], 成宗 13(1482)
四周單邊, 有界, 11行21字 註雙行, 上下內向黑
魚尾
소장처: 성암고서박물관

金剛經三家解(諺解). 卷1,2,6 / 鳩摩羅什(後秦)
譯 ; 宗密(唐) 纂要 ; 宗鏡 提綱 ; 己和(朝鮮)
說誼 ; 學祖(朝鮮) 重校

丁丑字, 乙亥字本

[刊寫地未詳] : [內需司], 成宗 13(1482)

四周單邊 半郭 27.0×20.0 cm, 有界, 11行21字 註雙
行, 上下內向黑魚尾 ; 39.2×25.2 cm

소장처: 동국대학교 박물관

永嘉大師證道歌南明泉禪師繼頌(諺解). 卷上, 下
/ 世祖 譯 ; 學祖(朝鮮) 校正

乙亥字本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成宗 13(1482)

四周單邊 半郭 24.4×16.7 cm, 有界, 9行19字 註雙
行, 上下內向黑魚尾 ; 34.4×21.6 cm

序: 熙寧十年(1077)七月 … 吳庸

後序: 熙寧九年(1076)七月十日 … 祝況後序.

跋: 成仁十八年(1482)七月日 … 韓繼禧奉教謹
跋. 歲壬寅(1482)孟秋…姜希孟奉教謹跋.

下卷補寫

印: 梅華屋珍玩

소장처: 규장각한국학연구원

永嘉大師證道歌南明泉禪師繼頌(諺解). 卷上, 下 /
世祖 譯 ; 學祖(朝鮮) 校正

乙亥字本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成宗 13(1482)

四周單邊 有界, 9行19字 註雙行, 上下內向黑魚尾

소장처: 개인소장

永嘉大師證道歌南明泉禪師繼頌(諺解). 卷下 /
世祖 譯 ; 學祖(朝鮮) 校正

乙亥字本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成宗 13(1482)

四周單邊 半郭 24.5×16.5 cm, 有界, 9行19字 小字
雙行, 上下內向花紋魚尾 ; 32.4×21.2 cm

版心題: 南明

跋: 時大歲壬寅(1482)孟秋仲浣 … 姜希孟奉教謹跋

소장처: 고려대학교 도서관

永嘉大師證道歌南明泉禪師繼頌(諺解). 卷下 /
世祖 譯 ; 學祖(朝鮮) 校正

乙亥字本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成宗 13(1482)

四周單邊 半郭 24.2×16.6 cm, 有界, 9行19字 小字
雙行, 上下內向黑魚尾 ; 23.5×21.5 cm

版心題: 南明

題簽: 證道歌南明繼頌

跋: 時大歲壬寅(1482)孟秋仲浣 … 姜希孟奉教謹跋

소장처: 고려대학교 도서관

六經合部 / [編者未詳]

木板本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成宗 14(1483)

四周雙邊 半郭 18.4×12.5 cm, 下黑口, 上下內向
黑-2葉花紋魚尾 ; 27.2×17.2 cm

書名: 表題

跋: 成化十九年(1483)四月日山人臣學祖謹跋

소장처: 고려대학교 도서관

佛頂心陀羅尼經(諺解). 卷上, 中, 下 / [編者未詳]

木板本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成宗 16(1485)

四周雙邊 半郭 18.4×12.5 cm, 下黑口, 上下內向
黑-2葉花紋魚尾 ; 21.5×15.0 cm

소장처: 소유 정보문화재단, 관리 호림박물관
보물 제1108호

佛頂心陀羅尼經(諺解). 卷上, 中, 下 / [編者未詳]

木板本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成宗 16(1485)

四周雙邊, 半郭 21×14.7 cm, 界線, 8行9字, 上
黑魚尾 ; 30.8×18.3 cm

소장처: 서울대학교 도서관

五大眞言(諺解) / [釋] 不空(唐)…等奉詔譯
木板本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成宗 16(1485)
變相圖, 四周雙邊, 半郭 18.4×12.5 cm, 界線, 한
문부 9行16字, 언해부 12行14字 註雙行, 黑口,
上下內向黑魚尾 ; 28.5×17.2 cm

소장처: 소유 상원사, 관리 일정사 정보박물관
보물 제793-5호

五大眞言(諺解) / [釋] 不空(唐)…等奉詔譯
木板本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成宗 16(1485)
變相圖, 四周雙邊 半郭 18.2×12.2 cm, 有界, 9
行15字 註雙行, 上下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
; 29.0×17.0 cm

소장처: 日本東洋文庫

5. 연산군대 간행본

禪宗永嘉集(諺解). 卷下 / 玄覺(唐) 撰; 行靖
(宋) 註; 淨源(晉) 修定料

木板本

[刊寫地未詳] : [圓覺寺], 燕山君 원년 (1495)
四周雙邊 半郭 20.8×15.0 cm, 有界, 8行19字
註雙行, 上下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 ;

32.6×20.3 cm

版心題: 永嘉集

紙質: 楮紙

소장처: 동국대학교 도서관 보물 774-1호

禪宗永嘉集(諺解). 卷下 / 玄覺(唐) 撰; 行靖
(宋) 註; 淨源(晉) 修定料

木板本

[刊寫地未詳] : [圓覺寺], 燕山君 원년 (1495)
四周雙邊, 半郭 21×14.7 cm, 有界, 8行9字, 上
黑魚尾 ; 32.8×21.0 cm

소장처: 국립한글박물관 보물 제1163호

六祖大師法寶壇經(諺解). 卷上, 中 / [釋] 惠能
(唐) 說 ; [譯者未詳]

[刊寫地未詳] : [圓覺寺], 燕山君 2 (1496)
四周單邊, 半葉 24.3×14.8 cm, 8行17字 註雙行,
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 ; 31.2×20.8 cm

版心題: 壇經.

序: 至元二十七年(1290) … 德異.

소장처: 규장각한국학연구원

六祖大師法寶壇經(諺解). 卷上, 中 / [釋] 惠能
(唐) 說 ; [譯者未詳]

[刊寫地未詳] : [圓覺寺], 燕山君 2 (1496)
四周單邊, 半郭 24.2×15.03cm, 有界, 8行17字
註雙行, 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 ; 31.3×20.6cm

소장처: 산기문고

六祖大師法寶壇經(諺解). 卷上, 中 / [釋] 惠能
(唐) 說 ; [譯者未詳]

[刊寫地未詳] : [圓覺寺], 燕山君 2 (1496)

四周單邊, 半郭 24.2×15.03cm, 有界, 8行17字
註雙行, 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 ; 31.3×20.6cm

소장처: 호암미술관

六祖大師法寶壇經(諺解). 卷上 / [釋] 惠能(唐)
說 ; [譯者未詳]

木活字本 (印經字)

[刊寫地未詳] : [圓覺寺], 燕山君 2 (1496)

四周單邊, 半郭 24.2×15.03cm, 有界, 8行17字
註雙行, 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 ; 31.3×20.6cm

소장처: 성암고서박물관

六祖大師法寶壇經(諺解). 卷上, 中 / [釋] 惠能
(唐) 說 ; [譯者未詳]

木活字本 (印經字)

[刊寫地未詳] : [圓覺寺], 燕山君 2 (1496)

四周單邊, 半郭 24.2×15.03cm, 有界, 8行17字
註雙行, 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 ; 31.3×20.6cm

소장처: 개인소장

眞言勸供(諺解). / [編者未詳]

木活字本(印經字)

[刊寫地未詳] : [圓覺寺], 燕山君 2 (1496)

四周單邊, 半郭 24.3×14.8 cm, 有界, 8行9字 註

雙行, 上下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 ;

34.5×21.2 cm

소장처: 경기도박물관 보물 제1053호

眞言勸供(諺解). / [編者未詳]

木活字本(印經字)

[刊寫地未詳] : [圓覺寺], 燕山君 2 (1496)

四周單邊, 半郭 24.3×14.8 cm, 有界, 8行17字

注雙行, 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 ;

34.0×20.4 cm

소장처: 규장각한국학연구원

天地冥陽水陸雜文 / [編者未詳]

木活字本(印經字)

[刊寫地未詳] : [圓覺寺], 燕山君 2 (1496)

變相圖, 四周單邊 半郭 21.1×14.8 cm, 有界, 8

行15字 註雙行, 黑口, 上下內向黑魚尾 ;

30.0×19.6 cm

版心題: 壇經.

序: 至元二十七年(1290) … 德異.

소장처: 국립중앙박물관

天地冥陽水陸雜文 / [編者未詳]

木活字本(印經字)

[刊寫地未詳] : [圓覺寺], 燕山君 2 (1496)

四周單邊 半郭 19.8×14.9 cm, 有界, 8行15字,

上下黑口, 上下內向黑魚尾 ; 31.6×21.2 cm

소장처: 고려대학교 도서관

6. 조선 전기 왕실본 중·후기 보급 현황

6. 1 『묘법연화경』

1) 세종 32년(1450) 초주갑인자본 번각본

妙法蓮華經 / 鳩摩羅什(姚秦) 奉詔譯; 戒環(宋) 解

木板本(初鑄甲寅字覆刻版)

夫餘 : 無量寺, 成宗 24(1493)

四周單邊 半郭 26.5×16.5 cm, 無界, 半葉10行 18字 註雙行, 上下下向黑魚尾 ; 35.0×22.0 cm

版心題 : 妙法

跋刊記 : 皇明弘治六年歲在癸丑(1493)仲春贊世翁金悅卿(朝鮮)謹跋

妙法蓮華經 / 鳩摩羅什(姚秦) 奉詔譯; 戒環(宋) 解

木板本(初鑄甲寅字覆刻版)

安陰 : 靈覺寺, 中宗 34(1539)

四周單邊 半郭 24.8×16.5 cm, 無界, 10行18字, 上下內向黑魚尾 ; 33.0×21.7 cm

刊記 : 嘉靖十八年己亥(1539)正月日 慶尙道安陰地德有山靈覺寺重刊

妙法蓮華經 / 鳩摩羅什(姚秦) 奉詔譯; 戒環(宋) 解

木板本(初鑄甲寅字覆刻版)

長興 : 天冠寺, 明宗 16(1561)

全7卷4冊 : 四周單邊 半郭 23.9×16.0 cm, 無界, 10行18字, 上下下向黑魚尾 ; 32.0×22.2 cm

版心題 : 妙法

印出記(卷末) : 嘉靖四十年(1561)七月日, 全羅道長興地支今山天冠寺開刊

一部分 上下下向四瓣黑魚尾, 一部分 上下下向二瓣黑魚尾一部分 刻手名 記入

妙法蓮華經 / 鳩摩羅什(姚秦) 奉詔譯; 戒環(宋) 解

木板本(初鑄甲寅字覆刻版)

長興 : 寶林寺, 宣祖 14(1581)

全7卷7冊 : 四周單邊 半郭 22.1×16.8 cm, 有界, 10行18字, 上下下向黑魚尾 ; 33.2×21.0 cm

版心題 : 妙法

印出記(卷末) : 萬曆九年辛巳(1581)四月孟澣日, 全羅道長興地迦智山寶林寺開板 一部分 上下下向六瓣黑魚尾, 一部分 刻手名 記入

妙法蓮華經 / 鳩摩羅什(姚秦) 奉詔譯; 戒環(宋) 解

木板本(初鑄甲寅字覆刻版)

順天 : 松廣寺, 宣祖 40(1607)

7卷7冊 : 四周單邊 半郭 25.5×16.5 cm, 無界, 10行18字, 下向花紋魚尾 ; 34.5×21.5 cm

刊記 : 大明萬曆三十五年丁未(1607), 松廣寺

妙法蓮華經 / 鳩摩羅什(姚秦) 奉詔譯; 戒環(宋) 解

木板本(初鑄甲寅字覆刻版)

順天 : 松廣寺, 光海 7(1615)

7卷7冊 : 變相圖, 四周單邊 半郭 23.6×16.3 cm, 無界, 10行18字 註頭註, 內向3葉花紋魚尾 ; 34.5×21.6 cm

刊記 : 時萬曆四十三乙卯(1615)秋

序 : 靖康丁未(1127)暮春中澣日

妙法蓮華經 / 鳩摩羅什(姚秦) 奉詔譯; 戒環(宋) 解

木板本(初鑄甲寅字覆刻版)

順天 : 仙岩寺, 仁祖 1(1660)

7卷7冊 : 插圖, 四周單邊 半郭 23.1×16.4 cm, 無界, 10行18字, 上下下向黑魚尾 ; 33.5×21.3 cm

卷末 : 懷敏 書

妙法蓮華經要解序 : 靖康丁未(1127) … 及南

印出記(卷末) : 順治十七年庚子(1660)三月日, 曹礖山仙岩寺開刊

版心題 : 妙法

妙法蓮華經 / 鳩摩羅什(姚秦) 奉詔譯; 戒環(宋) 解

木板本(初鑄甲寅字覆刻版)

恩津: 雙溪寺, 仁祖 1(1660)

四周單邊 半郭 23.5×17.0 cm, 有界, 半葉10行
18字, 上下黑魚尾; 31.0×19.5 cm

刊記: 順治庚子(1660)恩津 雙溪寺 重刊

序: 靖康丁未(1127)

板心題: 妙法

表題: 法華經

妙法蓮華經 / 鳩摩羅什(姚秦) 奉詔譯; 戒環(宋) 解

木板本(初鑄甲寅字覆刻版)

金剛山(高城): 表訓寺, 顯宗 4(1663)

四周單邊 半郭 22.1×16.2 cm, 有界, 半葉10行
18字, 內向黑(間混2葉花紋)魚尾; 32.3×20.2
cm

刊記: 萬曆二年(1663)季春金剛山表訓寺刊化主
慶雲

紙質: 楮紙

版心題: 法

妙法蓮華經 / 鳩摩羅什(姚秦) 奉詔譯; 戒環(宋) 解

木板本(初鑄甲寅字覆刻版)

安陰: 靈覺寺, 顯宗 6(1665)

四周單邊 半郭 23.1×16.1 cm, 無界, 10行18字,
下向黑魚尾; 35.8×22.8 cm

刊記: 康熙四年乙巳(1665), 慶尙道 安陰德裕山
靈覺寺重刊

妙法蓮華經 / 鳩摩羅什(姚秦) 奉詔譯; 戒環(宋) 解

木板本(初鑄甲寅字覆刻版)

鷄龍山: 岬寺, 顯宗 11(1670)

插圖, 四周單邊 半郭 25.4×16.7 cm, 10行18字,
上下混入花紋魚尾; 32.1×22.8 cm

妙法蓮華經 / 鳩摩羅什(姚秦) 奉詔譯; 戒環(宋) 解

木板本(初鑄甲寅字覆刻版)

咸陽: 安國寺, 肅宗 11(1685)

7卷7冊: 四周單邊 半郭 22.8×16.3 cm, 無界,
半葉10行18字, 下向(黑 1, 2, 3)葉花紋魚尾;
34.1×22.3 cm

刊記: 康熙二十四年乙丑(1685)仲夏日 … 安國
寺新刊留鎮

跋: 康熙二十四年乙丑(1685)五月 日蓬萊山人楓
漢謹跋

序: 靖康丁未(1127)暮春中澣日沙門及南(宋)謹序
表題: 法華經

2) 세조 1년(1455) 을해자본 번각본

妙法蓮華經 / 鳩摩羅什(姚秦) 奉詔譯; 戒環(宋) 解

木板本(乙亥字覆刻本)

永川: 公山本寺, 中宗 26(1531)

7卷7冊: 插圖, 四周單邊 半郭 25.3×20.0 cm,
有界, 9行21字 註雙行, 一部分 上下大黑口, 上
下內向黑魚尾; 38.2×26.5 cm

卷末: 印經施主(木板 1張)

妙法蓮華經弘傳序: 道宣 述, 祥邁 註, 妙法蓮華
經要解序: 靖康丁未(1127) … 及南

印出記(卷末): 嘉靖十年辛卯(1531)六月日, 慶尙
道永川郡公山本寺重刻

版心題: 法華經

妙法蓮華經 / 鳩摩羅什(姚秦) 奉詔譯; 戒環(宋) 解

木板本(乙亥字覆刻本)

潭陽: 龍泉寺, 中宗 32(1537)

四周單邊 半郭 26.0×19.3 cm, 有界, 9行大字16
字 小字21字, 內向黑魚尾; 36.3×24.7 cm

跋: 嘉靖十六年 世在丁酉(1537) … 天瑞

妙法蓮華經 / 鳩摩羅什(姚秦) 奉詔譯; 戒環(宋) 解

木板本(乙亥字覆刻本)

和順: 雙峯寺, 明宗 17(1562)

四周單邊 半郭 24.2×19.7 cm, 有界, 9行16字, 上下內向黑魚尾; 34.2×23.9 cm

刊記: 嘉靖四十一年壬戌(1562)陽月日 纔生明雙峯寺住持曹溪宗大禪師守安謹跋

版心題: 法華

妙法蓮華經 / 鳩摩羅什(姚秦) 奉詔譯; 戒環(宋) 解

木板本(乙亥字覆刻本)

康津: 無爲寺, 宣祖 5(1572)

四周單邊 半郭 25.9×19.9 cm, 有界, 9行16字 註單行21字, 內向混葉花紋魚尾; 35.3×22.0 cm

刊記: 隆慶六年壬申(1572)夏全羅道康津地月出山無爲寺大字法華開板

3) 성종 원년(1470) 목판본 번각본

妙法蓮華經 / 鳩摩羅什(姚秦) 奉詔譯; 戒環(宋) 解

木板本

安東下柯山: 廣興寺, 中宗22(1527)

變相圖, 四周單邊 半郭 21.9×16.2 cm, 有界, 8行13字 註雙行, 黑口, 內向2葉花紋魚尾; 33.7×20.6 cm

刊記: 嘉靖六年丁亥(1527)九月日慶尙道安東府地下柯山廣興寺開板

表題: 法華經

版心題: 法華經

序題: 妙法蓮華經弘傳

妙法蓮華經 / 鳩摩羅什(姚秦) 奉詔譯; 戒環(宋) 解

木板本

忠州: 德周寺, 宣祖7(1574)

變相圖, 四周單邊 半郭 21.9×16.0 cm, 有界, 半葉8行13字 註雙行 上下大黑口, 內向黑魚尾; 31.5×21.2cm

刊記: 萬曆二年甲戌(1574)三月 日 ... 德周寺開刊

序: 終南山釋道宣(宋)述

版心題: 法華經

妙法蓮華經 / 鳩摩羅什(姚秦) 奉詔譯; 戒環(宋) 解

木板本

全州: 歸信寺, 光海 1(1609)

插圖, 四周單邊 半郭 22.6×16.1 cm, 無界, 半葉8行13字 註雙行, 小黑口, 上下內向2葉花紋魚尾; 34.3×22.0 cm

刊記: 萬曆三十七年己酉(1609)二月日全羅道全州府歸信寺開刊

序: 靖康丁未(1127)暮春中澣日謹序及南(宋)撰

題簽: 法華經

板心題: 法

妙法蓮華經 / 鳩摩羅什(姚秦) 奉詔譯; 戒環(宋) 解

木板本

靈光: 隨緣寺, 仁祖 6(1628)

變相圖, 四周單邊 半郭 21.7×16.4 cm, 有界, 8行13字, 上下內向2葉花紋魚尾; 29.9×20.7 cm

刊記: 大明崇禎元年戊辰(1628)夏五月日 全羅道靈光地隨緣寺開刊

妙法蓮華經 / 鳩摩羅什(姚秦) 奉詔譯；戒環(宋) 解

木板本

光州：證心寺，仁祖 11(1633)

插圖，四周單邊 半郭 22.7×16.1 cm，有界，8行
13字 註雙行，內向3葉花紋魚尾；33.8×21.4 cm

刊記：崇禎六年癸酉(1633)四月日全羅道光州地
證心寺開刊

版心題：法華經

妙法蓮華經 / 鳩摩羅什(姚秦) 奉詔譯；戒環(宋) 解

木板本

淳昌：福泉寺，仁祖 12(1634)刊

變相圖，四周單邊 半郭 21.2×16.4 cm，無界，半
葉8行13字 註雙行，內向黑(間混2葉花紋)魚尾；
32.0×21.0 cm

刊記：大明崇禎七年甲戌(1634)六月 日 … 福泉
寺刊

序：靖康丁未(1127)暮春中澣日謹序及南(宋)撰

紙質：楮紙

表題：法華經

妙法蓮華經 / 鳩摩羅什(姚秦) 奉詔譯；戒環(宋) 解

木板本

咸陽：君子寺，仁祖 14(1636)

四周單邊 半郭 21.7×16.0 cm，有界，8行13字
小字雙行，內向黑魚尾；32.0×21.5 cm

序：道宣述(弘傳)，靖康丁未 … 及南撰(要解)

刊記：崇禎九年丙子(1636) … 慶尙道咸陽地異
山君子寺開刊

妙法蓮華經 / 鳩摩羅什(姚秦) 奉詔譯；戒環(宋) 解

木板本

密陽：靈井寺，仁祖 16(1638)

插圖，四周雙邊 半郭 21.2×15.6 cm，有界，8行
13字 註雙行，一部分 上下大黑口，上下內向四瓣
黑魚尾；30.5×20.5 cm

妙法蓮華經弘傳序：道宣 述，妙法蓮華經要解序：
靖康丁未(1127) … 及南

印出記(釋題末)：崇禎十一年戊寅(1638)十一月
日，慶尙道密陽府載岳山靈井寺開刊

版心題：法華經

妙法蓮華經 / 鳩摩羅什(姚秦) 奉詔譯；戒環(宋) 解

木板本

全州：長波寺 白雲菴，孝宗 5(1654)

四周單邊 半郭 22.2×15.8 cm，無界，8行13字
註雙行，上下大黑口，上下內向黑魚尾；

34.6×23.0 cm

卷頭：妙法蓮華經弘傳序：道宣 述，妙法蓮華經
要解序：靖康丁未(1127) … 及南

印出記(卷末)：崇禎二十七年丙戌(1654)八月日，
全羅道全州長波寺白雲菴開刊

版心題：法華經

妙法蓮華經 / 鳩摩羅什(姚秦) 奉詔譯；戒環(宋) 解

木板本

報恩：法住寺，孝宗 6(1655)

四周雙邊 半郭 21.4×16.0 cm，有界，10行18字，
大黑口，內向黑魚尾；33.1×20.7 cm

刊記：順治十年乙未(1655)，忠清道 報恩地 俗
離山 大法住寺 開刊

妙法蓮華經 / 鳩摩羅什(姚秦) 奉詔譯；戒環(宋) 解

木板本

襄陽：神興寺，顯宗 2(1661)刊

變相，四周單邊 半郭 19.8×15.8 cm，有界，半葉 8行10字，上下大黑口，內向2葉花紋魚尾；

31.5×20.3 cm

刊記：順治十八年辛丑(1661)四月 日 … 神興寺 開刊

紙質：楮紙

表題：法華經

妙法蓮華經 / 鳩摩羅什(姚秦) 奉詔譯；戒環(宋) 解

木板本

金山：直指寺，顯宗 6(1665)

插圖，四周單邊 半郭 19.8×16.4 cm，有界，8行 13字，內向2葉花紋魚尾；31.5×21.0 cm

刊記：康熙四年(1665)，慶尙道 金山 直指寺 開板

妙法蓮華經 / 鳩摩羅什(姚秦) 奉詔譯；戒環(宋) 解

木板本

蔚山：雲興寺，顯宗 9(1668)

插圖，四周單邊 半郭 22.1×16.0 cm，無界，8行 13字，內向2葉花紋魚尾；33.0×21.2 cm

刊記：康熙七年(1668)，慶尙道 蔚山 雲興寺 開板

妙法蓮華經 / 鳩摩羅什(姚秦) 奉詔譯；戒環(宋) 解

木板本

安東：廣興寺，肅宗 4(1678)

四周單邊 半郭 20.5×16.4 cm，有界，8行16字，黑口，內向黑魚尾；33.7×21.3 cm

刊記：康熙十七年戊午(1678)，慶尙道 安東 廣興寺開刊

妙法蓮華經 / 鳩摩羅什(姚秦) 奉詔譯；戒環(宋) 解

木板本

慶州：天龍寺，肅宗 14(1688)

插圖，四周單邊 半郭 21.7×15.9 cm，無界，8行 13字 註雙行，上下內向4瓣黑魚尾；

33.1×21.1 cm

妙法蓮華經弘傳序：道宣 述，妙法蓮華經要解序：靖康丁未(1127) … 及南

印出記(卷末)：康熙二十七年戊辰(1688)五月日，慶尙道慶州府南高位山天龍寺開刊

筆寫記錄(卷末)：康熙三十二年癸酉(1693)四月日 善寺流傳

版心題：法華經

6. 2 『원각경』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卷1~6 / 宗密(唐) 述 木板本

河東：雙溪寺，光海君 3(1611)

四周單邊 半郭 25.5×19.7 cm，有界，半葉 9行 16字 註雙行，上下內向黑，2~3葉花紋魚尾；

36.3×24.3 cm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卷1~6 / 宗密(唐) 述 木板本

朔寧：龍腹寺，仁祖 12(1634)

四周單邊 半郭 25.4×25.0 cm，有界，半葉 9行 16字 註雙行，上下內向黑，2~3葉花紋魚尾；

36.0×24.5 cm

刊記：崇禎七年(1634) 京畿 朔寧郡地 水山 龍腹寺 開板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卷1~6 / 宗密(唐) 述
木板本

昇州：仙巖寺, 孝宗 6(1655)

四周單邊 半郭 24.9×20.2 cm, 有界, 半葉 9行
16字 註雙行, 上下內向黑, 2~3葉花紋魚尾；

35.0×24.0 cm

刊記：順治十二年乙未(1655) 菊秋 曹溪山 仙岩
寺 刊板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卷1~6 / 宗密(唐) 述
木板本

密陽：寧井寺, 顯宗 2(1661)

四周單邊 半郭 24.5×20.2 cm, 有界, 半葉 9行
16字 註雙行, 上下內向黑, 2~3葉花紋魚尾；

26.0×24.6 cm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卷1~6 / 宗密(唐) 述
木板本

寧邊：普賢寺, 肅宗 7(1681)

6卷6冊：四周單邊 半郭 24.0×20.0 cm, 有界,
半葉 9行 16字 註雙行, 上下內向黑, 內向黑混花
紋魚尾；34.0×25.0 cm

6. 3 『능엄경』

楞嚴經. 卷1~10 / 般刺蜜帝(唐) 譯：戒環(宋) 解.
木板本

泰仁：龍藏寺, 仁祖 13(1635)

四周單邊 半郭 23.8×17.5 cm, 無界, 半葉 8行
20字, 內向混葉花紋魚尾；34.5×22.5 cm

刊記：崇禎八年乙亥 (1635) 四月日 全羅道泰仁
縣地山龍藏寺開刊

楞嚴經. 卷1~10 / 般刺蜜帝(唐) 譯：戒環(宋) 解
木板本

寧邊：普賢寺, 肅宗 8(1682)

10卷10冊：圖, 四周單邊 半郭 25.5×17.6 cm,
無界, 半葉 8行 30字 註雙行；34.7×23 cm

刊記：康熙二十一年壬戌(1682)六月 平安道寧邊
妙香山 普賢寺開板

6. 4 『지장보살본원경』

地藏菩薩本願經 / [釋] 法燈(唐) 譯

木板本

長興：天冠寺, 宣祖 4(1571)

3卷1冊：四周單邊 半郭 22.6×16.5 cm, 無界, 8
行16字, 黑口, 內向黑魚尾；30.8×20.3 cm

刊記：隆慶五年 辛未(1571)仲夏 全羅道 長興地
支提山 天冠寺 開刊

跋：成化十年(1474) … / 金守溫

地藏菩薩本願經 / [釋] 法燈(唐) 譯

木板本

尙州：南長寺, 光海君 2(1610)

3卷3冊：四周單邊 半郭 23.2×16.7 cm, 有界,
8行16字 註雙行, 上下內向3葉花紋魚尾；

28.6×23.0 cm

刊記：萬曆三十八年庚戌(1610)七月日尙州露陰
山南長寺

地藏菩薩本願經 / [釋] 法燈(唐) 譯

木板本

順天：松廣寺, 光海君 4(1612)

3卷1冊：四周單邊 半郭 23.2×16.7 cm, 8行16
字 註雙行, 上下內向黑魚尾；32.7×22.2 cm

版心題：地

表題：地藏經

刊記：萬曆三十九年辛亥(1611)五月始刊壬子
(1612)夏畢焉留于松廣寺

地藏菩薩本願經 / [釋] 法燈(唐) 譯

木板本

彥陽：連高寺, 孝宗 2(1651)

3卷1冊：四周單邊 半郭 22.8×16.8 cm, 8行16
字 註雙行, 上下內向1葉花紋魚尾；

32.7×21.0 cm

刊記：順治五年戊子(1648)仲冬始刊訖功於辛卯
(1651)孟春慶尙道彥陽土高獻山連高寺開刊廣傳
世

地藏菩薩本願經 / [釋] 法燈(唐) 譯

木板本

順天：松廣寺，正祖 15(1791)

3卷1冊：插圖，四周雙邊 半郭 22.1×15.3 cm，有界，6行20字 國漢文雙行，上下內向2葉花紋魚尾；32.5×21.4 cm

題簽題：地藏經

跋：辛亥(1791)孟夏日曹溪沙門臥月教平被堅請忘拙而爲之書跋云爾

刊記：乾隆五十六年辛亥(1791)四月日湖左順天松廣寺開板

地藏菩薩本願經 / [釋] 法燈(唐) 譯

木板本

楊州：寶晶社，高宗 16(1879)

3卷1冊：變相圖，四周單邊，半郭 21.8×16.6 cm，有界，8行16字 註雙行，上下內向黑魚尾；31.2×21.3 cm

刊記：京畿楊州地天磨山寶晶社開刊留板

跋：光緒五年己卯(1879)四月日 … 日眞

禮念彌陀道場懺法 / [釋] 王子成(元) 集

木板本

兎山(黃海道)：石頭寺，中宗 37(1542)

10卷5冊：四周雙邊 半郭 24.5×18.5 cm，有界，9行15字，黑口，上下下向黑魚尾；33.5×22.3 cm

刊記：嘉靖二十一年(1542)閏午月日 黃海道兎山地鶴峰山石頭寺開板

序：趙秉文，崇慶二年(1213)中春望日序 李純甫

禮念彌陀道場懺法 / [釋] 王子成(元) 集

木板本

豐基：毗盧寺，宣祖 5(1572)刊

圖，四周雙邊，半郭 22.2×17.2 cm，有界，半葉9行15字，註雙行，上下黑口，上下下向黑魚尾；31.6×20.8 cm

序：崇慶二年(1213)中春望日李純甫(金)序撰

刊記：隆慶六年壬申日(1572)慶尙道豐基地小伯山毗盧寺開板

紙質：楮紙

跋：純誠在理功臣 … 臣金守溫(朝鮮)謹跋

6. 5 『예념미타도량참법』

禮念彌陀道場懺法 / [釋] 王子成(元) 集

木板本

慶北：直旨寺，燕山君9[1503]跋

變相圖，四周雙邊，半郭 24.1×18.5 cm，有界，半葉9行15字，註雙行，上下黑口，下向黑魚尾；30.0×22.5 cm

表題：彌陀懺

燈谷은 學祖의 號印

跋：弘治十六年癸亥(1503)暮春上澣直旨寺老衲燈谷學祖(朝鮮)七十二歲書于東廂

序：崇慶二年(1213)中春望日李純甫(金)序

6. 6 『천지명양수륙잡문』

天地冥陽水陸雜文 / [釋] 無外(元) 編

木板本(印經木活字本翻刻)

順天：松廣寺，中宗 26(1531)

1冊：四周單邊 半郭 20.3×15.1 cm，有界，8行15字，大黑口，上下內向黑魚尾；30.2×22.3 cm

表題：水陸雜文

刊記：嘉靖十年辛卯(1531)五月日 全羅道順天土曹溪山松廣寺開刊

序：大德癸卯(1303)住平江崑山薦嚴無外惟大謹序

跋：弘治九年(1496)春三月有日敬跋

天地冥陽水陸雜文 / [釋] 無外(元) 編

木板本(印經木活字本翻刻)

康津：無爲寺，宣祖 5(1572)

1冊：插圖，四周單邊 半郭 19.4×15.1 cm，有界，8行15字 註雙行，上下內向黑魚尾；

28.0×20.1 cm

水陸儀文後跋：大德己亥(1299) … 吳居仁，印經施主

水陸雜文序：大德癸卯(1303) … 惟大

目錄一部分 刻手名記入

天地冥陽水陸雜文 / [釋] 無外(元) 編

木板本(印經木活字本翻刻)

瑞山：講堂寺，宣祖 14(1581)

1冊：四周單邊 半郭 20.1×14.9 cm，有界，8行15字 黑口，上下內向黑魚尾；30.6×20.8 cm

序：大德癸卯(1303)住平江毘山薦嚴無外惟大謹序
跋：弘治九年(1496)春三月有日敬跋，萬曆九年(1581)歲次辛巳清和初吉日華嚴宗參學正淳校正謹跋

刊記：忠清道瑞山地伽耶山講堂寺開刊

天地冥陽水陸雜文 / [釋] 無外(元) 編

木板本(印經木活字本翻刻)

朔寧：龍腹寺，仁祖 13(1635)

2卷1冊：四周雙邊 半郭 19.4×15.4 cm，有界，8行15字，大黑口，上下內向黑魚尾；

28.0×19.0 cm

刊記：崇禎八年乙亥(1635)十二月日 朔寧龍腹寺開板

6. 7 『오대진언』

五大眞言 / [釋]不空(唐) … 等奉詔譯

木板本

河東：鐵堀，中宗 26(1531)

手印圖，四周雙邊 半郭 17.1×11.9 cm，有界，8行13字，黑口，上下內向黑魚尾；21.4×16.0 cm

版心題：五大

刊記：嘉靖十年辛卯(1531)月慶尙道智異山鐵堀開刊以傳臣興寺

四十二手眞言，神妙章句大陀羅尼，隨求即得陀羅尼，大佛頂陀羅尼，佛頂尊勝陀羅尼，附 靈驗略抄

五大眞言 / [釋]不空(唐) … 等奉詔譯

木板本

豐基：哲菴，明宗 5(1550)

四周單邊 半郭 17.4×12.2 cm，有界，9行15字 註雙行，大黑口，上下內向黑魚尾；

26.3×17.4 cm

版心題：五大

卷末：靈驗略抄(漢文本，10張)

跋：成化二十一年乙巳(1485) … 學祖，印經施主

目錄(卷末 木板，後表紙裏面 筆寫)

印出記(卷末)：嘉靖二十九年庚戌(1550)四月日慶尙道豐基地小佰山哲菴開板

五大眞言 / [釋]不空(唐) … 等奉詔譯

木板本

恩津：雙溪寺，仁祖 13(1635)

插圖，四周雙邊 半郭 17.0×12.3 cm，有界，8行15字，上下內向大黑口，上下黑魚尾；

27.0×18.0 cm

版心題：五大

내용：內容：四十二手眞言，神妙章句大陀羅尼，隨求即得陀羅尼，大佛頂陀羅尼，佛頂尊勝陀羅尼，靈驗略抄

6. 8 『선종영가집』

禪宗永嘉集 / [釋] 玄覺(唐) 撰 ; [釋] 行靖(宋) 註 ; [釋] 信眉(朝鮮) … 等譯

木板本

安陰 : 長水寺, 中宗 15(1520)

2卷2冊 : 四周單邊 半郭 20.5×14.6 cm, 有界, 8行19字 註雙行, 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 ;

26.1×18.9 cm

版心題 : 永嘉集

題簽 : 禪宗永嘉集諺解

跋 : 天順七年(1463)十一月日 孝寧大君臣補謹跋

刊記 : 正德十五年庚辰(1520)六月日慶尙道安陰懸地智牛山長水寺重以開刊

6. 9 『천태사교의집해』

天台四教儀集解 / 諦觀(高麗) 著 ; 從義(宋) 集解
木板本

珍山 : 西臺寺, 明宗 9(1554)

四周單邊 半郭 21.0×14.5 cm, 有界, 9行17字, 上下內向黑魚尾 ; 33.5×20.6 cm

表題 : 天台四教

刊記 : 嘉靖三十三年甲寅(1554)十二月日全羅道

珍山地長嶺山西臺寺開板

跋 : 延祐元年甲寅(1314)孟秋初吉牧庵老人題

6. 10 『월인석보』

月印釋譜 / 世祖(朝鮮) 編

木板本

安東 : 廣興寺, 中宗 37(1542)

1卷2冊 : 四周單邊 半郭 20.5×17.1 cm, 有界, 7行15字 註雙行, 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 ;

29.5×20.6 cm

刊記 : 嘉靖二十一年壬寅(1542)三月日慶尙道安東下柯山廣興寺開板

月印釋譜 / 世祖(朝鮮) 編

木板本

淳昌 : 無量寺, 明宗 14(1559)

四周單邊 半郭 20.5×17.0 cm, 有界, 7行14字 註雙行, 黑口, 上下內向黑魚尾 ; 29.5×20.5 cm

月印釋譜 / 世祖(朝鮮) 編

木板本

淳昌 : 無量窟, 明宗 17(1562)

四周單邊 半郭 20.9×17.4 cm, 有界, 7行16字, 黑口, 上下內向黑魚尾 ; 32.7×22.8 cm

刊記 : 嘉靖四十一年(1562) … 全羅道淳昌地無量窟開板

月印釋譜 / 世祖(朝鮮) 編

木板本

豐基 : 喜方寺, 宣祖 1(1568)

四周雙邊 半郭 20.7×17.4 cm, 有界, 7行14-16字 註雙行, 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 ;

29.8×21.0 cm

卷首 : 世宗御製訓民正音

刊記 : 隆慶二年戊辰(1568)十月日慶尙道豐基地小伯山池叱方寺開板

釋譜詳節序 : 正統十二年(1447)七月二十五日首陽君諱序

御製月印釋譜序 : 天順三年己卯(1459)七月七日序

月印釋譜 / 世祖(朝鮮) 編

木板本

恩津 : 雙溪寺, 宣朝 2(1569)

四周單邊 半郭 20.7×17.3 cm, 有界, 7行16字, 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 ; 28.5×19.5 cm

版心題 : 月印

卷末題 : 月印千江之曲 第二十一, 釋譜詳節 第二十一

刊記 : 隆慶三年己巳(1569)二月日忠清道寒山地竹山里 白介萬家授刻以傳恩津地佛明山雙溪寺留

月印釋譜 / 世祖(朝鮮) 編

木板本

豐基 : 毘盧寺, 宣祖 5(1572)

四周雙邊 半郭 21.9×17.4 cm, 7行字數不定, 上下內向黑魚尾 ; 31.9×21.8 cm

ABSTRACT

A Study on the Buddhist Texts Sponsored by the Royal Family in the Early Joseon Dynasty

Kwak, Dong-Hwa

Major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Dep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hed light on the role of the early Joseon period's Buddhist texts sponsored by the royal family, henceforth referred to as wangsilbon, in passing on Buddhist thinking and knowledge in Joseon society and the Buddhist world. In order to do this, I looked into the historical background in which the Buddhist scriptures could be copied and published, studied the state of the wangsilbon from the time of King Taejong to Yeonsangun and analyzed the copying and publishing process as well as their bibliographical characteristics. In addition, I classified the wangsilbon according to theme and researched the reprinting and distribution from the late Joseon Dynasty.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There are currently 56 wangsilbon volumes from the early Joseon period. By period of reign, Seongjong's reign holds the greatest number with 19 volumes. It is followed by 17 volumes in the reign of Sejo, 11 for Sejong, 4 for Yeonsangun, 3 for Taejong, 1 for Yejong and 1 with Munjong. By theme they are classified into 29 Buddhist scriptures, 11 volumes related to Zen and Cheontae Buddhism, 6 volumes on ceremonies and rituals, 6 commentaries and 5 volumes of Korean Buddhist works. Of these, 3 are Hangul compilations and 11 are Korean translations.

Analysis results of the wangsilbon by period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the reign of King Taejong, there are the two publications *Neungeomgyeong* and *Myobeopyeonhwagyeong* by Taesang King Taejo and *Gamjieuunnimyobeopyeonhwagyeong* sourced by Taejo's third son Grand Prince Ikan to pray for the long life and peace and the repose of the souls of Taejo, Jeongjong, Taejong and Queen Shinui.

Second, in the Sejong and Myeongjong eras, the Sejong Myeongchanb on *Seokbosangjeol*, *Wolincheongang*, *Sariyeongeungi*, and *Myobeopyeonghwagyeong* were all published in the First Cast Gapinja type. *Seokbosangjeol* and *Wolincheongang* were compiled into the *Hunminjeonggum*. Wangsilbon were copied and published to pray for the longevity and departed soul of royal family members, lead by Grand Prince Hyoryung, Grand Prince Anpyeong, Sejong's youngest son Grand Prince Yeongeung and royal noble consort Kim.

Third, many publications took place in the time of Sejo to pray for the departed soul of Crown Prince Uigyeong, who died in the third year of Sejo's reign(1459). Among them, *Wolinseokbo* uses each verse of *Wolincheongangjigok* as its text and uses the *Seokbosangjeol* as footnotes after expanding and editing the latter. It is a precious resource to observe the

early transition process of the *Hunminjeongeum*. Sejo commanded the Korean translation and editing of the Eonhae edition of *Neungeomgyeong* to Shinmi, Hakyel and Hakjo, which was then published in the Eulhae typeface. There is an Eulhae type print of *Wongakgyeong* in Chinese characters and a Hangul version in Eullyu type print. Two versions of *Myobeopyeonhwagyeong* were conveyed in the royal court, one sourced by Crown Prince Uigyeong's queen of the Han clan and one by Grand Prince Gwangpyeong's princess consort of the Shin clan.

Fourth, the wangsilbon in the time of Yejong, Seongjong and Yeonsangun were all published by the royal family's Queen Dowager and Princesses. In Sungjong's time, Jeonghui and Queen Dowager Insu published the wangsilbon to pray for the departed souls of the late king and queen and for the happiness and peace of Seongjong and his queen. Queen Jeonghui had the Eonhae type editions of *Geumganggyeongsamgahae* and *Yeongajingakdaesajeungdoganammyeongchonseonsagyesong* edited by Hakjo and published by the Royal Treasury; the two works had been translated into Korean but not edited during the time of Sejo. Queen Dowager Insu published *Buljeongsimdaranigyeong* and *Ohdaejineon*, which were translated to Korean by Hakjo. In the time of Yeonsangun, Queen Dowager Insu and King Seongjong's wife Queen Jeonghyeon took out Buddhist texts from Wongak Temple to pray for the repose of Seongjong's soul. At this time they used the privy purse to create and use wooden type prints and Hangul prints that were lacking; these wooden print types are called *ingyeong-ja*.

In the mid and late Joseon period, wangsilbon were distributed after being reprinted in Buddhist temples across the country. Among these, there currently exist four Buddhist scriptures: *Myobeopyeonhwagyeong* (*Lotus Sutra*), *Neungeomgyeong*, *Wongakgyeong*, *Jijangbosalwongyeong* (*Ksitigarbha prañidhāna Sutra*). The four commentaries are the Korean translation of the Chinese classic *Geumganggyeongsamgahae*, *Yaenyeommitadoryangchambeop*, *Cheonjimyeongyangsuryukjabmun* and *Ohdaejineon*, Zen and Cheontae Buddhism-related texts

are *Seonjongyeongajib* and the Eulhae type print of *Cheontaesagyoeuijibhae*, while the Korean Buddhist works comprise of *Wolinseokbo*.

【Keywords】 Wangsilbon, the Buddhist Texts Sponsored by the Royal Family, Royal family of Joseon Dynasty, Buddhist Scriptures, Buddhist Projects, Buddhist faith of the Royal family